금주의 법구–〈견의경〉
열매를 얻으려거든 씨를 뿌려라.
씨를 심지 않으면 열매도 없다.
바른 마음은 복으로 돌아온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7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12월 7일) 2020년 1월 1일 수요일



빛나는 경자년을 기원하며…

짐작만으로도 가슴 벅찬 황룡사지 위로 새로운 햇살이 다가온다. 그 옛날 그랬듯이 살아있는 흔적 분황사 당간지주가 햇살의 첫 그림자를 놓았다. 옛 금당 앞에 놓인 그림자 위로 그 옛날이 다가온다. 빛나던 시절을 미련 없이 들판에 묻어 스스로 설법이 되기까지 깃발 없는 당간지주는 그렇게 아침을 맞았다. 머지않아 부처님 성도지 인도 부다가야에 분황사가 문을 연다. 아쉬운 시절 끝에는 빛나는 시절이 기다리고 그 시절 속에서 법은 성성하게 빛난다. 밝아온 경자년이 빛나는 시절이기를 기원한다.
경주=박재완 기자

지역불교 새 얼굴 · 신행포교 변화상 기대

2020년 경자년, 주목할 불교계 소식은

신성민 · 노덕현 · 윤호섭 기자

다사다난했던 2019년 기해년이 지나고,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어떤 소식들이 불자들을 기다릴까. 변화가 예상되는 경자년 불교계 소식을 정리했다.

교구본사주지 대폭 교체될까

한국불교 장자종단 조계종에서는 올해 총 25개 교구본사 중 8개 본사의 주지 임기가 만료된다. 특히 8개 본사주지 모두 4월까지 임기 만료된다는 점에서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새로 선출된 본사주지들이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총림에서는 조계총림 송광사가 가장 빠르다. 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은 2월 20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또한 3일 뒤인 23일엔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 임기가 끝난다.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4월 7일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각 총림은 총림법에 의거해 총림방장이 차기 주지후보를 결정한다.

총림이 아닌 교구본사에서는 총 5곳이 주지 교체를 앞두고 있다. 가장 먼저 제4교구본사 월정사는 지난달 산중총회를 통해 단독후보로 입후보한 정념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당초 정념 스님은 1월 중 임기가 끝나지만 연임에 성공하면서 향후 4년간 본사 운영을 이어간다. 그 뒤로는 제23교구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이 3월 7일 임기 만료된다. 관음사는 현재 1월 21일 차기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공고한 상태다.

제13교구 쌍계사 주지 원정 스님은 3월 15일, 제18교구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은 4월 4일, 제5교구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은 4월 18일 임기 만료다. 이 중에서 백양사는 지난해 말 총림에서 해제돼 20여 년 만에 방장 추천이 아닌 산중총회로 주지를 선출할 예정이어서 이목이 쏠린다.

군장병 십선계 수계 보급

새해부터는 군포교 현장에서 5계 대신 10선계가 설해진다. 군(軍) 실정에서 5계 수지 장병의 현실적 난관을 보완하고, 계율이 일상의 생활에서도 구체적 실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1월 11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계사로 모시고 첫 삼귀의 10선계 수계법회를 봉행키로 했다.

8개 본사주지 임기 만료 예정
4월 안에 모든 본사 차기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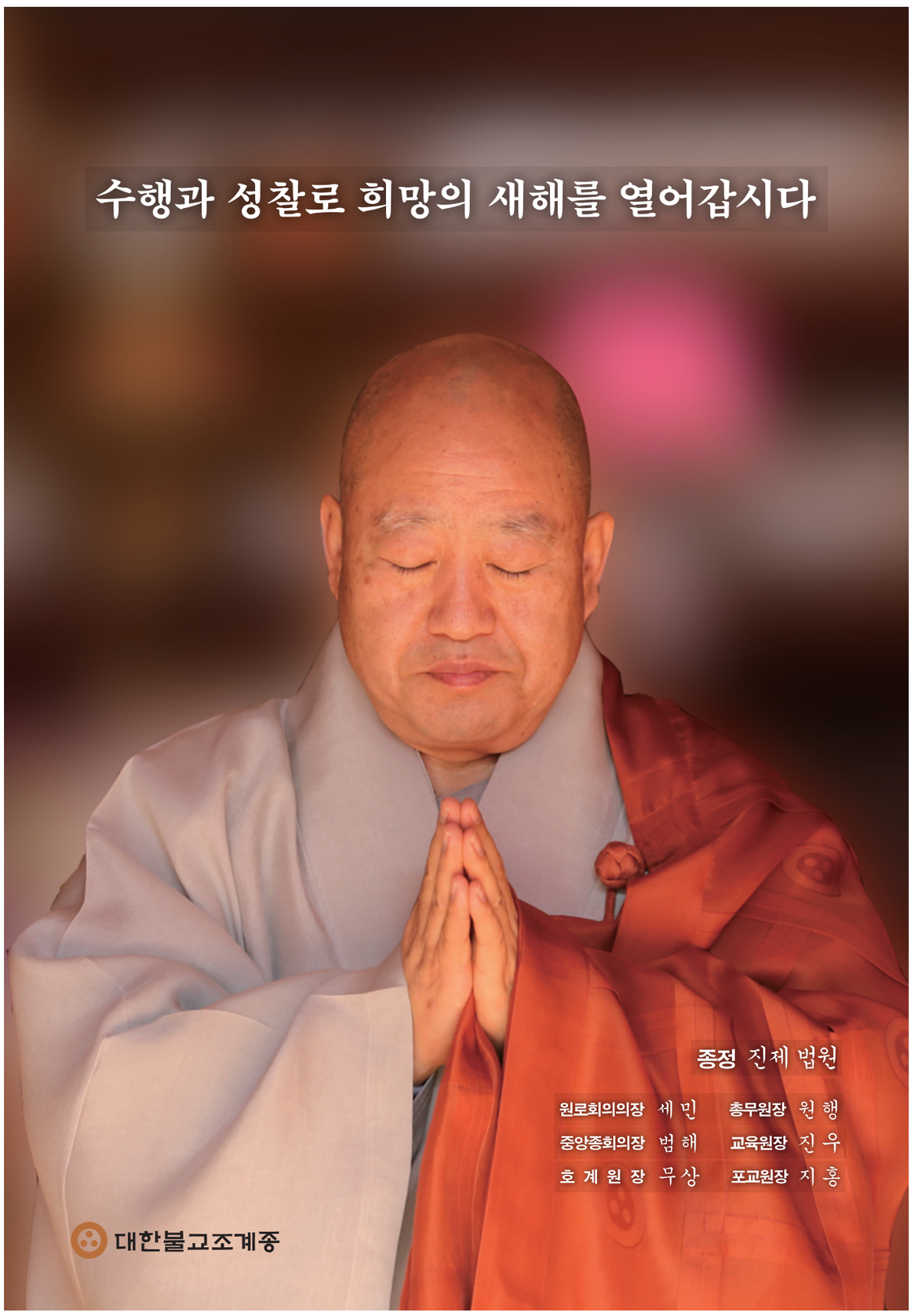
군포교 현장 수계제도 개편과
대한불교청년회 100주년 눈길
전 세계 석학들 국내서 토론도

그동안 군 현실상 5계 수계는 불가피한 음주 상황 등의 난관이 있었다. 이에 군종특별교구는 불음주계는 앞의 네 가지 악행의 원인을 차단하는 성격이란 점에서 3업에 바탕을 둔 악행을 금지하고, 기존 5계에 비하여 구업(口業)과 관련한 계를 4개로 늘린 10선계를 마련했다.

첫 시행에 따라 군종특별교구는 조계종 계단위원회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수십선계경(受十善戒經)〉에 의거 '선계상(宣戒相)' 마련하고 전국 군법당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A2면에 계속〉

자비광명이 충만한 복된 새해 되십시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2020년 신년특집호
A·B·C 섹션 68면 발행

신년특집
世代 佛教 A13·14·15
채식은 방생 B5·6·7·9



자비희망 24시 B11~13
위례 상월선원 C1~7



데스크초대석 A5
전등선원 회주 동명 스님



산문밖의 禪 B1~2
강행원 문인화가



신년법어 · 신년사 A9·10
불교와 쥐 A17

1월 8일자 신문은 쉽니다

‘원로 선승’ 봉암사 수좌 적명 스님 圓寂

법랍 59세, 세납 81세
봉암사서 영결식 엄수

신성민 · 윤호섭 기자



20대 출가 후 선풍진작 매진
총림 선원장 · 수좌회 대표로
입적날까지 후학들에게 모범
文 대통령 “스님 가르침 기억”

조계종을 대표하는 원로 선승인 문경 봉암사 수좌 적명 대종사〈사진〉가 구랍 24일 오후 원적에 들었다. 법랍 59세, 세납 81세.

적명 스님은 대중의 간청에도 봉암사 조실을 마다하고 수좌로 정진하며 후학들의 존경을 받아온 선지식이다.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28일 오전 10시 30분 봉암사에서 전국수좌회장으로 엄수됐다. 갑작스런 스님의 입적 소식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추모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가의 존경받는 선승이신 적명 큰스님의 급작스러운 입적 비보를 들었다. 스님은 평생 수행에만 정진한 수좌셨다. 한국불교의 개혁을 이끈 봉암사에서 그 정신을 지키며 봉암사를 청정 수행도량으로 지켜오셨다”면서 “스님은 자리에 걸림이 없으셨다. 선원의 최고 어른인 조실로 모시려 할 때도 능력이 넘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마다하셨다”고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12년 8월, 대선후보 경선 시절 봉암사에서 스님을 뵈었다. 스님은 ‘국민의 한 가지 바람은 10년 후, 100년 후에도 그리워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통령을 가져보는 것’ 이라며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고 당부하셨다”며 “스님 가르침대로 늘 간절한 마음 갖겠다. 스님의 왕생극락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적명 스님은 1939년 제주도에서 태어났다. 제주 오현고교를 졸업하고 철학적 고뇌 끝에 출가를 결심했다. 선지식을 찾아 뭍으로 나와 나주 다보사 우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0년과 1966년 해인사 자운 스님에게 사미계와 비구계를 각각 수지했다.

26세에 토굴에서 우연히 보조국사의 〈절요〉를 읽다가 “수행을 하려면 모름지기 활구참선을 해야 한다”는 구절을 보고, 무자화두를 들기 시작했다. 1967년 해인총림이 개설되고 50대 방장 성철 스님이 방장에 추대돼 선풍이 일기 시작하자 28세에 해인사에 가서 가행정진한 이래 평생 선방을 떠나지 않았다. 당대 선지식인 전강 · 경봉 · 성철 · 서옹 · 향곡 · 구산 스님 문하에서 법을 묻고 정진했으며, 능엄경 42변마장의 내용이 낱낱이 사실임을 체험하고 화두선에 더욱 매진했다.

영축총림 통도사 선원장, 고불총림 백양사 선원장, 수도암 선원장, 은해사 기기암 선원장 등을 역임하고 전국수좌회 공동대표를 맡았다. 2009년 정월 구산선문 중 하나이자 봉암사 결사의 청정도량인 봉암사에 주석, 대중의 추대로 수좌 소임을 맡은 후 입적하는 날까지 대중과 함께 정진, 운력, 공양하는 등 후학에게 수행자의 본분을 보였다. 2018년에는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중사 법계를 품수했다.

간화선 선풍을 진작하고자 외호대중의 도움과 문경시 협의 아래 국제선센터를 발원해 2015년 선원수좌회와 공동으로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을 추진했다. 또한 평생 청빈한 삶으로 돌보는 이 없이 쓸쓸히 죽어가는 수행자를 위해 수좌복지회를 만들 것을 제의해 성사시켰으며, 봉암사 원로 수좌를 모시기 위해 원로선원을 건립했다.

적명 스님은 오로지 본분사에만 매진하고 선방 밖의 일은 거의 돌아보지 않았다. 간혹 법을 묻는 이가 찾아오면 다양한 비유와 유창한 설법으로 대중을 감통케 하고, 중도교의가 불교의 근본임을 설파하며 화두선이 중도를 바로 체험하고 깨닫는 지름길임을 설했다. 설사 화두 타파를 하지 못하더라도 일상 생활을 활기차게 영위할 수 있는 공능이 있다고 강조했다.

〈A1면에 이어〉

불교 · 신도단체 창립 기념

만해 스님이 창립한 조선불교청년회가 모체인 대한불교청년회는 6월 20일 창립 100주년을 맞는다. 대한불교청년회는 100년 전 3 · 1운동 이후 31개 본산 대표자와 중앙학림 학생들이 모여 ‘불교를 통한 민족의 각성, 조국광복과 독립을 이룩하자’ 는 만해 스님의 뜻을 이어 각황사서 창립됐다. 현재 대불청은 100주년기념사업회를 결성한 상태로 ‘만해센터 건립을 위한 100만불사 500나한 모연’ , 〈불청100년사〉 편찬, 만해유적 바로 세우기 사업, 만해유적 발굴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또 국제사업으로 동북아 불교평화 우호세력 네트워크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

전국 공무원 불자들의 결집체인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도 10월 7일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공불련은 현재 해외성지순례와 합동수계법회, 정기법회 등으로 공무원 신심 증장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차기 회장 선출을 앞두고 20주년 행사 기획단계다. 또한 조계종 포교사단은 3월 12일 창단 20주년을 맞는다. 4700여 포교사들이 전법에 매진하고 있다. 제11대 포교사단 선거서 방창덕 포교사단장은 취임 공약으로 광화문에서의 창단 기념 포교전진대회 개최를 선언한 바 있다. 현재 TF팀을 구성해 기념사업을 준비 중이다.

대형 국제학술대회 개최 잇달아

2020년 불교학계는 대형 국제학술행사가 잇달아 열리는 호재를 맞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2017년 서울대가 한국 최초로 유치한 세계불교학회(IABS) 학술대회다.

1976년 창립된 세계불교학회는 유럽, 북미, 아시아의 주요 불교학자들이 참여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불교학 학술단체로 7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세계불교학회 학술대회는 유럽, 북미, 아시아를 순회하며 3년마다 열린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타이완, 태국에서 열렸으며, 한국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8월 16~21일 서울대에서 열리는 세계불교학회 학술대회는 500여 명에 달하는 국내외 불교학자들이 참석하며, 전통 불교학(문헌학)부터 명상 · 사회문제 · 윤리학까지 다양한 주제의 논문이 발표된다.

참여하는 주요 해외 학자는 폴 해리슨(스탠포드), 재클린 스톤(프린스턴), 제임스 롭슨 · 김진아(하버드), 아키라 사이토(도쿄대), 하루나가 아이작슨(함부르크대), 로타르 레데로제(하이델베르크대) 등이다.

조은수 서울대 교수는 “지난 20년 사이 한국불교학은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높아진 한국불교학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국대가 주최하는 국제불교인식논리학회 제6회 학술대회도 주목할 만하다. 8월 24~28일 부산 신라스테이에서 열리는 대회에는 세계 20개국 50여 명의 발표자를 비롯해 150여 명의 국내외 학자가 참여한다.

학술대회에서는 불교존재론, 인식론, 논리학을 중심으로 대소승 학파의 교설과 브라만교, 자이나교 등 인접 종교철학을 함께 다룰 예정이다.

대회 관계자는 “이번 학회는 한국의 불교학 연구를 세계에 알릴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 불교 연구자들과 세계적인 학자들 사이의 교류 및 공동 연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원효, 원측 등과 같은 한국불교사상가들을 국제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태고종 “낮은 자세로 종단 화합”

제27대 총무원, 종무행정 정상화 담화문 발표

종단 분열 사태, 대중에 참회
정상화 따라 종단 재정비 천명



최근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과 합의를 통해 종단 종무행정 정상화를 꾀한 제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사진〉이 “낮은 자세로 종단 안정과 화합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앞서 약 1년간 계속된 태고종단의 내홍 불식을 알리고, 종단 재정비를 통해 위상 강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구랍 23일 ‘불자 및 종도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그간의 종단 내홍에 대한 참회의 말을 전했다. 호명 스님은 “지난 한 해 본의 아닌 종단 사태로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화합과 화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승가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분열된 모습을 보여드린 점 또한 깊이 참회하고 반성한다”며 “다행히도 여러분들의 깊은 염려와 성원 덕분에 큰 불상사 없이 평화롭게 분쟁이 해결되고 총무원사를 회복했다. 모든 것이 여러분 덕분이다.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호명 스님은 이어 “부처님 법과 종단의 종헌종법을 무시한 한 사람의 독선과 독단이 집단을 얼마나 망치는지, 승가에서 화합과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사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며 전임 집행부를 비판한 뒤 “제27대 총무원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종도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낮은 자세로 종단 안정과 화합을 꾀하겠다”고 다짐했다.

호명 스님은 대내외적으로 떨어진 종단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전 종도가 함께 힘을 보탤 것을 당부했다. 태고종은 현재 한국불교 주요종단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의전순서상 5번째에 위치한다. 과거 조계종에 이어 두 번째였지만 2015년 폭력 분규사태 이후 종단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자격정지와 의전순서 조정을 겪었다.

호명 스님은 “지금 우리 종단 재정은 물론 종단 형편은 말이 아니다. 전임 집행부가 모든 것을 폐기하고 가버렸기 때문에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복구하고 시작해야 한다”면서 “불자 여러분과 종도 여러분의 협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호명 스님은 끝으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다. 십시일반이라는 말도 있다. 평범한 말 같지만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말”이라며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총무원사를 회복하게 해준 종도들의 힘을 믿는다. 태고종단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큰 힘과 원력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윤호섭 기자

동국대 경주캠 총장 후보 3명 선출

김흥회 · 류완하 · 이영경 교수, 1월초 이사회서 최종 결정


김흥회 류완하 이영경

김흥회 행정 · 경찰공공학부 교수, 류완하 미술학과 교수, 이영경 조경학과 교수(가나다 순)가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최종후보자로 선출됐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원명, 경주총추위)는 구랍 27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최종 후보대상자’ 3명을 선출해 이사회에 추천했다.

경주총추위는 이날 경주캠퍼스총장후보 대상자 10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김흥회, 류완하, 이영경 교수를 최종 선출했다. 경주총추위는 구랍 3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원자 확정, 토론회, 소견발표 등 총 4차례 회의를 거쳐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에 후보자를 추천했다.

한편,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오는 1월 초 열리는 법인 이사회에서 선임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승보공양 · 특집다큐, '성도절' 축제 열린다

성도재일 맞아 불교계 행사 다채

조계종부산聯, 5일 승보공양
조계사 · 봉은사 2일 법회 예정
호마공양 등 새 공양도 선보여

노덕현 · 하성미 기자


조계종부산연합회는 1월 5일 오후2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 5층에서 '제9회 성도재일 기념 승보공양대법회'를 봉행한다. 사진은 제7회 성도재일 기념 승보공양법회 모습.

부처님의 깨달음은 온 세상의 기쁨이다. 성도재일을 맞아 깨달음을 찬탄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이어가기 위한 정진의 장이 전국각지에서 마련된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는 1월 5일 오후 2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 5층에서 '제9회 성도재일 기념 승보공양대법회'를 봉행한다. 승보공양법회는 매년 승가의 거룩함을 찬탄하고 부처님이 깨달은 법을 이어가는 승가에 대한 감사함을 공양으로 높이 기리는 자리다.

성도재일을 기념하며 열리는 승보공양은 특별히 '화합'과 '모범'을 주제로 개최된다. 주제는 조계종부산연합회가 선정했다. 공양 올리는 모든 이들에게 "화합과 모범의 모습으로 화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수행자의 위의를 드러내는 의제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승가의제 통일'을 위해 앞서간다는 뜻을 밝혔다.

회장 원허 스님은 "공양을 받는 스님들이 스스로 돌아보고 의제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며 "강제성은 없지만 한 번 더 스님들의 평소 삶을 살펴보며 신발부터 모자까지 승가의 위의를 지키는지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자 이번 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합에 대해서 원허 스님은 "부처님께서도 화합을 강조하셨다"며 "현재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주제에 맞춰 통일한 승가 의제를 따라 가사를 수한 모습을 행사 당일 대중에 선보일 예정이며, 화합을 위해서는 350명의 어린이 · 성인합창단이 연합으로 합창단을 구성해 음성공양을 올린다. 여기에는 어린이 합창단 6팀과 성인합창단 9팀이 동참한다. 아울러 보현행원송을 편곡한 뮤지컬 공연도 함께 펼쳐진다.

승보공양법회에는 스님 180여 명과 재가불자 2000여 명이 동참할 예정이며, 법회는 신묘장구대다라니와 도량청정결계 의식으로 시작해 육법공양이 봉행된다. △삼귀의 △반야심경 △대회사 △격려사 △인사말 순서로 진행되며, 특히 새롭게 제정된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상을 시상한다.

올해 회장상은 BBS법소리가 수상하며, 시장상은 재단법인 안국청소년도량과 최미선 사단법인 동련 사무국장이 받는다. 법문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승보공양과 성도재일의 의미를 설하며 재가자들은 LED 초로 빛 공양을 올린다. 승보공양 후 스님들은 〈축복경〉으로 축원하고 석가모니불 정근으로 마무리된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부처님께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신 성도재일을 맞아 승가에 공양 올리는 승보공양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한다"며 "법회 주제는 화합이다. 화합으로 하나 되는 발심의 현장에 함께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051)501-7554

이와 함께 대구불교사원연합회는 1월 2일 오후 3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성도재일 기념대법회를 열고 회원사찰과 산하기관 신년하례회도 개최한다.

이에 앞서 광주불교연합회는 구랍 26일 광주시청 3층 대강당에서 성도재일 법회를 열었으며, 안동불교사암연합회도 같은날 안동시청에서 법회를 개최했다.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등 주요사찰도 1월 2일 사찰에서 성도재일 기념법회를 연다. 봉은사의 경우 법왕루에서 헌등공양과 함께 호마패에 기원을 담아 불단에 올리는 호마공양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이번 성도재일을 맞아 불교계 방송에서도 특별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BTN불교TV는 1월 2일 국내 최초로 스님들의 의복과 가사, 발우에 대해 담은 '깨달음의 상징, 의발', 스님이 되는 과정을 담은 '계단 2부작', 성도재일 특집 '불교장례문화의 새 변화', '진명 스님의 지대방, 깨달음의 음식' '원빈 스님의 붓다스쿨' '동훈 스님의 염불이야기' 등을 방영한다.

새해맞이 종교화합 움직임 활발

새해를 앞두고 종교간 화합의 움직임이 활발했다. 종교계에서는 새해와 성탄메지시를 통해 종교화합의 의미를 되짚었다.

먼저 3.1운동 100주년이었던 2019년을 기념해 구랍 23일 불교와 가톨릭, 천도교 등 3개 종단과 역사학계가 결성한 '종교인연합 3.1운동 100주년 기념위'는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옛 태화관 터에 3.1운동 100주년 기념비를 세웠다.

이와 함께 대구 동화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스님들이 이웃종교계를 방문했다. 동화사는 주지 효광 스님을 비롯한 10여명이 구랍 20일 가톨릭 대구대구청을 찾아 아기예수 탄생을 축하했다. 이와 함께 위례 상월선원에도 상생과 화합의 염원을 담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점등됐으며 '남수단의 슈바이처'고 이태석 신부의 생전 기록을 담은 울지마톤즈2 시사회도 열렸다.

종교계 방송에서는 종교화합 및 신도운동인 '답게 살겠습니다' 캠페인을 조명하는 특집 프로그램도 방영했다. BBS불교방송과 CBS기독교방송, CPBC가톨릭평화방송, WBS원음방송은 한국사회평화협의회와 함께 '답게 살겠습니다' 캠페인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미래를 위한 선물, 공감'을 공동 제작해 구랍 24일 첫 방송을, 25일과 28일에도 방영했다.

노덕현 기자

경자년 신년엔 '선불교' 배워볼까

탄허강숙, 겨울 특강

탄허강숙(탄허불교아카데미)이 '선불교 개설(槪說)'이라는 주제로 겨울특강을 진행한다. 내년 1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진행하는 이번 특강은 前 동국대 교수 성본 스님이 강의를 진행한다.

스님은 5회에 걸친 강의에서 △선불교란 무엇인가 △자각의 종교, 종교와 철학 그리고 과학 △깨달음의 내용, 깨달음의 구조 · 깨달음의 세계 △선의 교육, 선의 수행과 실천 △간화선의 수행과 실천, 선의 전법 등 선불교 전반을 강의할 예정이다.

중국선을 전공한 성본 스님은 보은 법주사에서 출가해 법주사 강원 및 동국대를 졸업했다. 일본 아이치가쿠인(愛知學園)대에서 석사학위를 고마자와(駒澤)대서 석사학위와 문학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현재는 동국대 명예교수와 재단법인 한국선문화연구원장 및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탄허강숙 겨울특강의 모집인원은 30명이며, 수강료는 7만5000원.

(02)732-2403~4 신성민 기자

괘불탱 정밀조사 보존 · 복원 기틀 마련

성보문화재연구원, 전국 괘불탱 7건 조사 완료

내년 3월 중 보고서 발간돼
오는 2024년까지 조사 진행


성보문화재연구원과 문화재청이 진행한 괘불탱화 정밀조사 장면.

괘불탱으로 알려진 대형불화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보존 · 복원 기틀이 마련됐다.

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지현)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 '2019년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사찰 대형불화 7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 ·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사된 7점의 대형불화는 △청곡사 영산회 괘불탱(국보 제302호) △개심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264호) △법주사 괘불탱(보물 제1259호) △은해사 괘불탱(보물 제1270호) △예천 용문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445호) △안동 봉정사 영산회 괘불도(보물 제1642호) △김천 계림사 괘불도(비지정) 등이다.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은 2015년부터 10개년간의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중간 기점을 맞는 올해까지 5년간 총 33점의 대형불화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했다. 이 중 비지정 대형불화 4건을 보물로 지정하는 성과를 냈다.

대형불화는 야외에서 거행되는 영산재, 수륙재 등 대규모 불교의식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불화로, 보통 10미터(m)가 넘는 웅장한 크기와 화려한 색채, 장엄한 종교의식이 어우러져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문화재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무게와 크기가 상당하며 특정 행사에만 사용되는 대형불화의 특성상 정밀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문화재청과 성보문화재연구소원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만일에 대비한 보존 · 복원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상기록과 보존환경 · 미술사적 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사업에서 실시한 과학 조사는 △엑스레이(X-ray) 장비를 이용한 안료의 종류 파악 △자외 · 가시광선을 이용한 염료 분석 △적외선 조사를 통한 밑선과 묵서(墨書) 확인 △손상 상태 분석과 손상지도 제작 등의 기록화 작업 등이다.

이 같은 조사를 통해 현재 국보 제302호 청곡사 영산회 괘불탱의 석가모니불 얼굴 등에서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과거의 보존처리 재료를 확인했다. 또한, 보물 제1445호 예천 용문사 영산회 괘불탱의 청색 안료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대형불화의 회청(回靑, 청색안료) 중 가장 이른 시기(1705년)의 안료를 확인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밖에도 대형불화와 보관함의 서식 곰팡이와 세균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펼쳐 총 미생물 202점의 배양에 성공하고 대형불화의 잠재적인 유해 인자를 파악해 앞으로 진행될 보존 관리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성보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은 올해 조사한 대형불화에 대해 내년 3월 중 보고서를 발간하며 그간 진행된 연구 성과를 중간 점검하는 학술대회도 상반기 중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두 단체는 "2024년까지 남은 5개년의 사업 기간 동안 대형불화 35점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대형불화에 대한 과학적 조사로 축적된 자료는 빅데이터(대용량 정보체계)로 구축돼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봉은사, 불교발전 기금 연이어 쾌척

서울 봉은사 대중들이 한국불교발전을 위한 거금을 연이어 쾌척했다. 서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등 봉은사 사부대중은 1월 2일 오후 3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만나 백만원력결집불사 기금 5억원을 전달한다.

봉은사는 이에 앞서 구랍 24일 승려복지기금 10억원과 백만원력결집불사 기금 3억원을 전달한 바 있다.

주지 원명 스님은 "신도회 행복나눔기금 등에서 출연하고 대중들이 모두 힘을 모아 이번 기금을 마련했다. 미력하나마 종단 발전에 힘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구랍 24일 전달식에서는 봉은사 사부대중이 외호 대중으로 참여하는 위례 상월선원에 대해 봉은사와 연계해 향후 불교문화센터 등 복합 불교문화공간으로 건립하겠다는 방침도 공개됐다.

노덕현 기자

靈鷲山雲門寺

雲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교육시스템,
다양한 학인복지 지원의
명실공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교육수행도량!



운문사 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모집대상 _ 2020년 봄 수계자 및 비구니계 수지한 스님도 가능(편입가능)
모집인원 _ 사미니과 ○○명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증명사진(장삼 · 만의 착용) 2매(3×4)
5. 준비물 :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모집기간 _ 2019년 12월 ~ 2020년 1월 14일까지
(58기 사미니 수계자는 2020년 2월 28일까지)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전형방법 _ 서류심사, 면접
예비소집일 _ 2020년 1월 13일 (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전형일시 _ 2020년 1월 14일 (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 · 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 · 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재학 중 입학금면제 · 병원비지원 · 전학년 교재 및 도서 지원 · 졸업여행비지원
3) 동국대병원과 MOU체결-매년 무료 종합건강검진 실시

운문사 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
학장 진광 · 주지 운산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모집대상 _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20년도 봄 구족계 수계 예정자 포함 통학도 가능함
모집인원 _ ○○명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본 율원 · 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5. 증명사진 2매(3×4)
모집기간 _ 2019년 12월 ~ 2020년 1월 14일까지
전형방법 _ 서류심사, 면접
준 비 물 _ 가사, 장삼, 승려증
전형일시 _ 2020년 1월 14일 (음력 12월 20일) 오후 2시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 · 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 · 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학업기간 중 매월 연구비 및 교재지원 3) 각종 장학금 혜택 및 종단 전문 습의사
4) 종단 교육연수비 지원 5) 해외 연수비지원 6)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명성
보현율원 율주 일진 · 주지 운산

전화문의 054)372-8800, 054)370-7100 www.unmunsa.or.kr ※제출서류는 운문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경자년 새해를 맞아 새 필진을 선보인다. 문화, 명상과 같은 대중성이 있는 분야의 강화와 함께 교리, 선종사 등 연재의 전문성을 높여 새롭게 연재를 시작한다. 이에 신년 새 필진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성보·사상·기행 등 연재 전문성 강화

성보

조성금의 '한국불화 원류를 찾아서'



사찰 전각에는 그 성격에 맞는 각각의 부처들과 협시보살, 호법신 등이 그려진 불화가 있다. 일반적으로 불화는 불교경전을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언제 현재와 같은 도성으로 확립됐는지를 알 수 없다. 중앙아시아 불교회화 연구자인 조성금 교수가 중앙아시아 지역 석굴에 그려진 벽화에서 한국불화의 기원을 찾아 독자들에게 전한다. 불화의 원류를 살피면 사찰불화를 볼 때 새로운 시야가 열릴 것이다.

이상근의 '聖寶流轉'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기록, 유물, 유적에 의존한다. 1,600년을 이어온 이 땅의 불교사를 살펴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잊히거나 지나치기 쉬운 것들이 있다. 그 중에는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서 사라진 것들도 있지만 부끄럽거나 애써 무시하고 싶은 것들도 있다. 연재를 통해 불교 안팎의 유물이나 유적을 소재로 우리 불교사의 흔적을 찾아보고자 한다.

기행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기행'



조계종 교육아사리, 동국대 불교학 강사인 현견 스님이 들려주는 중국의 선문화 기행이다. 선사들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선사(禪史) 전반에서 그동안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기록과 일화, 선법 등을 소개한다. 이번 연재는 2018년 본지에 연재됐던 '중국 선문화 기행'의 연장으로 지난 연재에서 다하지 못한 선종사를 통해 우리의 선의 미래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희의 '유학생이 본 미얀마'



'테라와다 불교의 정수'로 알려진 미얀마. 그간 한국불교계서는 위빠사나 수행이나 쉐다곤 파고다 등 단편적인 미얀마 연재가 많았다. 이에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미얀마 양곤대 오리엔탈학과에서 한국인 최초로 박사과정을 밟는 최재희 씨가 유학생이자 한국인의 눈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미얀마 문화 속 불교를 맛깔나게 소개한다. 그는 현재 동남아서부협의회 미얀마 지회 청년위원 19기로도 활동 중이다.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인류는 한동안 바위에 그림을 그리던 시절이 있었다. 암각화는 우리 선조들의 염원이 담긴 첫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인 일감 스님은 15년 전 장기리 암각화를 처음 보고 암각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오래 전의 사람들이 먼 훗날의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와 마주하는 일에서 사유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다. 암각화와 나눈 일감 스님의 색다른 명상의 시간을 암각화와 촌철의 글로 소개한다.

교리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임제록〉은 어록 중의 어록으로 불린다. 일찍이 일본의 철학자 니시다 끼따로는 "이 세상의 모든 책이 불타 없어져도 〈임제록〉만 남아 있으면 된다"고 말할 정도로 그 가치는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조계종 승가대학원장을 역임했으며 조계종 고시위원장을 맡는 등 승가교육에 헌신해온 양산 반야암 주지 지안 스님이 어록 중의 어록 〈임제록〉에서 가려 뽑은 또 하나의 〈임제록〉이다.

배광식의 '세상 속 경전읽기'



본업의 고단함 속에서도 2014년 조계종 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하는 등 쉼 없이 신행과 수행을 이어가고 있는 배광식 교수가 들려주는 세상과 경전 이야기이다. 필자가 평소 경험하고 사유했던 세상사를 통해 떠올리게 된 부처님 말씀을 깊은 불심으로 담담하게 지은 산문이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인 배 교수는 〈천개의 연꽃잎으로 피어나리라〉 등을 출간했다.

문화

윤성식의 '붓다의 정치학'



정교분리를 외치지만 세상과 동떨어진 종교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종교를 진정한 종교라 할 수 있을까. 정치는 우리의 삶 자체다. 그렇기에 삶과 함께하는 종교일수록 정치에 대한 입장이 명쾌하다. 붓다의 정치학에서는 부처님 당시의 정치상황과 판단에 대해서 정리하는 연재다. 정치가 혼란한 지금 부처님 가르침으로 바로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연재를 읽어보자.

박동춘의 '고려 茶 문화, 그 아름다움'



앞서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와 '초의 스님 전상서'로 독자들에게 차와 얽힌 역사 문화 등을 전한 바 있는 박동춘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이 이번에는 고려시대 차 문화의 아름다움을 소개한다. 당시 문인들의 차 생활을 살펴보고, 그들이 차 한 잔을 얻기 위해 기울인 지혜를 엿본다. 특히 고려 사람들이 꿈꾼 차의 세계를 짚어가며 오래 전 과거로 돌아갈 예정이다.

인물

변택주의 '다시 읽는 법정 스님'



변택주 작가는 길상사 서 펼쳐진 법정 스님 법석 사회를 12년간 보며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에 들어가 세상과 자연과의 어울림을 배웠다. 그는 '배운 것을 세상에 돌리지 않으면 제구실 하지 않는 것'이라 한 법정 스님 말씀에 따라 꼬마평화도서관 건립을 위해 다니고 있다. '다시 읽는 법정 스님'은 법정 스님 원적 10주기를 맞아 스님이 남긴 가르침에 대해 다시 새겨보는 기회다.

신행

대원성보살의 '선지식 산중서신'



1977년 부산 연꽃모임을 만들어 쉼 없이 이끌고, 부산 지역의 불교발전에 앞장서온 이대원성 보살은 오랜 세월 불연속에서 많은 신행의 공덕을 쌓아왔다. 특히 많은 선지식들과의 인연은 그의 공덕 중의 공덕이라고 할 수 있다. 고암 스님을 비롯해 일타·법정·운허·지관 스님 등과 대원성 보살이 주고받은 선식들의 서신을 격주로 소개한다. 한 시대의 어른이었던 선지식들이 남긴 서신 속 글들과 마주하는 특별한 시간이다.

명상

최훈동의 '마음사용설명서'



50년간 불교 공부와 명상 수행을 하고 38년간 정신치료를 해온 최훈동 한별정신건강병원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수련을 마친 정신과 의사이다. 마음사용설명서에서는 정신의학과 심리학 등과 연결해 우리의 마음쓰임에 대해 살피며 이른바 사용법을 제안한다. 또한 불교명상의 기원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현재 유행하는 명상문화의 방향까지 제시한다.

용수 스님의 '아침 편지'



매일 아침 8시 30분, 어김없이 장문의 한글과 영어 메시지가 휴대폰으로 전달된다.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용수 스님의 '아침명상' 글이다. 매일 아침 1000여 명의 대중이 용수 스님의 글로 아침을 시작한다. 잠언 형식의 짧은 글은 한번에 읽기보다는 삶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사전처럼 가끔씩 꺼내보게 된다. 용수 스님의 아침을 깨우는 맑은 글을 독자 여러분을 위해 지면으로 다시 소개한다.

오피니언 칼럼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조계종 前포교원장 지원 스님의 마음치유에 관한 생활 에세이다. 마음이 아픈 이들에겐 치유를 기쁜 이들에겐 행복이 될 것이다.



지인 스님의 '병원포교일기'

일산병원 지도법사 지인 스님이 직접 병원에서 포교한 생생한 포교기록이다. 환우들을 보살피며 얻은 고뇌 극복의 지혜를 보자.



김형중의 '설법론'

김형중 前동대부여고 교장의 40여년 설법에 대한 지론이다. 수십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험한 설법노하우를 얻자.



경자년 한 해,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발원합니다.

조계사 사부대중 일동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

백만원력결집불사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OGYESA / 02.768.8500 / www.jogyesa.kr

데스크초대석 동명 스님 서울 전등선원 회주

“집착 자유자재로 놓는 힘이 수행”



동명스님은… 1950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났다. 1964년 부안 내소사에서 해안(海眼)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내소사에서 사미계를, 통도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하고 1975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했다. 이후 해인사, 송광사, 백양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으며,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했다. 부안 내소사 주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서울 개운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서울 성북동 전등사 회주, 조계종소청심사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대담=김주일 국장 kimji4217@hyunbul.com

지난해와 올해는 전등선원 회주 동명 스님에겐 좀 특별한 시간이다. 작년은 그의 스승인 해안 스님(1901~1974)이 불교 전등회(傳燈會)를 만든지 50년이 됐다. 그래서 제자인 동명 스님은 지난해 전북 부안군 내소사 지장암 서래선림 앞마당에 스승인 해안 스님을 기리는 심인탑(心印塔)을 세웠다. 또한 올해는 승속의 차별없이 도심 시민선방서 안거 정진을 해온 서울 성북동 전등선원이 창건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이에 구랍 26일 동명 스님이 회주로 주석중인 서울 성북동 전등선원을 찾아 스승인 해안 스님과의 인연담과 선수행 포교, 삶의 지혜 등을 두루 여쭈었다. 〈편집자주〉

▲지난해에 스승인 해안 스님을 기리는 심인탑을 세웠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요?

-말 그대로 풀이하면 마음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탑이 건립된 내소사 지장암은 스승께서 열반하신 곳입니다. 그곳에 바로 스승의 큰 그 마음을 심어놓자는 발원의 표상입니다. 평소 스승께서는 ‘생사어시 시무생사(生死於是 是無生事)’를 강조하셨습니다. 즉 죽고 사는 것은 마음에서 나왔으나, 마음에는 생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생사를 포함한 세상사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으니 열심히 정진하면 불법에 다가갈 수 있다는 말이죠. 심인탑에도 그런 스승님의 큰 가르침을 담았습니다. 또한 스승님께서 〈십현담(十玄談)〉을 평소 가장 좋아했기에 심인탑이라 이름 붙인 부분도 있습니다.

▲심인탑 조성 기간만도 7년이란 적지 않은 시간이 들어갈 만큼 공을 들였다고 들었습니다. 탑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정성을 많이 쏟았습니다. 국내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게 조성하려고 심혈을 기울였죠. 외형은 국보 제 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높이가 5.5m, 기단 한 변이 4m로 국내 승탑 가운데 가장 큰 규모죠.

▲스승인 해안 스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해안 큰 스님은 17세에 백양사 지방학림에 입학해 이듬해 학명선사를 모시고 7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화두일념으로 용맹 정진했습니다. 또한 중국 북경대서 신학문을 배우는 등 여러 선지식을 친견하고 탁마를 더하며 정진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죠. 1932년 부안 산내면 압암리에 계명학원을 설립해 문맹퇴치 운동의 선봉에 섰으며, 불교전등회 대종사로서 오직 참선을 수행의 지침으로 삼고 전법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해안 스님은 평소 ‘1주일만 참구하면 누구나 깨칠 수 있다’고 말씀하신걸로 유명하신데요. 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스승께서 많은 불자들에게 집중 삼매에 들면 기간과 시간이 중요치 않다는 것을 일러주시려고 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마치 광고 카피 문구 같지요? 광고 카피는 카피라이터가 오랜 시간 고민하고 연구해서 세상에 선보인 산물이듯이 이 말씀도 불자들에게 용기와 초발심을 돋워주기 위해 고민하신 결정체인 것 같습니다. 스승께서 대중들에게 공부는 오래하기 보다 누구나 1주일만 참구(參究)하면 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늘 주셨듯이, 저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전등회 · 선원 50년… 마음공부 산실
올바른 마음 쓰는 법 전달, 창립정신
스승 해안스님 선양한 ‘심인탑’ 건립
“맑은 마음 자주 많이 먹는 것 필요”

▲50주년을 맞은 전등회와 전등선원의 창립 정신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스승께서는 절이라는 것은 본디 수행처인데, 절이 본모습으로 돌아가야 불교가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절에서 부처님 정신과 불교를 제대로 알게 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승속을 구분 짓지 말고 수행자나 재가자들이 마음을 올바로 알고 바로 쓰게 하자는 큰 뜻에서 전등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립 정신이죠. 다시 말해서 불법(佛法)은 스님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직업과 성(性)에 관계없이 열심히 수행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항상 강조하셨어요. 평신도 모임인 불교전등회를 왕성하게 지도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한 원력 때문에 전등회(傳燈會)를 만들어 한 사람에게라도 더 불교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셨습니다. 불교인에게만 불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 누구나 진리를 알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불교계서 10년 전에 성행한 재가자 단기출가 프로그램도 해안 스님이 30여 년 전에 전등선원을중심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1967년 참선에 뜻을 둔 재가불자들을 규합해 창설한 ‘불교전등회’는 이후 각종 시민선방의 모델이 됐다고 자부합니다.

▲전등회와 전등선원 얘기를 하다보니 스승인 해안 스님이 주가 됐는데, 오늘 인터뷰 주인공이신 동명 스님의 가르침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 가르침은 온전히 스승께 배운 것이라 스승의 가르침과 업적을 빼놓고는 제 것이 없죠. 저는 신도들에게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객으로 살면 하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항상 주인 의식을 잃지 말고 주인 노릇을 철저히 한다면 그것이 바로 참 불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등선원은 이 실체가 없는 마음공부를 하는 도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면 누구나 지닌 이 마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은 정함도 없고 걸림도 없죠.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맑은 마음을 자주 많이 먹을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마음의 실체는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다수가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고 일평생 살다 가는데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마음을 좀 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형체가 없기 때문에 정함이 없는 마음이며 걸림 없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린 일평생 쓰고도 남는 것이 있을 것인데 왜 그 ‘걸림 없는’ 마음을 쓰지 않고 평생 동안 ‘걸려있는’ 마음만 쓰는 것일까요. 따라서 파란 꽃을 보고도 빨간 마음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소 불자들에게 강조하시는 법문이 있다면 들려주시지요.

-부처님의 행을 하는 사람들은 털끝만치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당당하게 생활하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신을 갖고 매사 정성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설사 다 쓰러져가는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린다 해도 중요한 것은 열심히 불공드리는 그 순간입니다. 그 정성을 부처님께서 쳐다보는 것이지 겉치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이 중요합니다. 정성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내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자년 새해를 맞은 우리 현대불교 신문 독자들을 위해 덕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여기가 화택이요, 마음이 안정되면 그곳이 극락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고요한 것을 찾을 수 있을 뿐 겉모습을 가지고 가치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군가 자기에게 잘해줘도 꼬리치듯 기뻐하면서도 마음은 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을 열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닫힌 채로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다들 후회를 합니다. 죽어서 상여 매고 갈 때까지도 결국 마음 안 열고 가는 사람들을 여럿 봤습니다. 마음에 담아둔 것을 떨쳐내지 못하고 마음속에 꼭꼭 담아둔 채로 가는 것이죠. 스스로 떨치는 것이 어렵다면 부처님 전에 찾아와 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대한불교조계종 제 15교구 본사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방 장 중봉 성파 대종사
주 지 이산 현문

전계사 중산 혜남 박물관장 송 천 재무국장 현 담
유나 증 도 총무국장 종 현 사회국장 성 오
강주 인 해 기획국장 성 구 포교국장 양 관
염불원장 영 산 교무국장 인 경 호법국장 천 주
원 주 범 용

영축총림 통도사 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 583)
전화 055)382-7182 팩스 055)382-7196 www.tongdosa.or.kr

2020 謹賀新年 경자년



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WORLD BUDDHIST DHARMA-KING
CENTRAL GOVERNMENT

문화체육관광부 2013-82호. 고유번호 101-82-23205.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메인 세계불교 법왕청.com

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문화체육관광부 2009-19호
고유번호 101-82-18115

03158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303호) 대표전화 02-733-5665 / 010-3618-6061



대한불교 나라사랑 협의회가 주최하는

나라를 위한 호국 불교도들의 독도 기도정진 2박3일

“2020년 4월 2일 아침 포항과 강릉에서 울릉도 동시 출발”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지구촌에서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분단된 나라에서 자신의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마음과 행보다는 오로지 자신들의 이념과 지역과 권력을 위해 국민의 소리와 신음은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 만의 정권 탈취에 목숨을 건 모습과 조선시대 사색당파의 정권 다툼이 아니라 8색 당파싸움을 보고 있는 현실과 투쟁을 보는 것 같아 가슴 아픈 현실에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깨달음의 목탁소리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게 된 지금 호국불교, 호법불교, 구국의 일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 각 지역 승가들이 모여 불자들과 함께 애국 애족의 정신으로 뭉쳐진 민족의 지도자들과 독도, 울릉도에서 기도정진 대법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수천마디의 말보다 단 한 번의 행이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정진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동참의 의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세계불교법왕청·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국제붓다 평화봉사단

전국 각 지역 지부장 및 지역봉사단 단장을 모십니다.

자격 : 종단불문 출가자로 봉사와 포교에 활동하시는 지역불교 지도자
※ 국내 외 활동 재가자 남,녀 자원봉사자 환영합니다
문의 : 02-733-5665

지구촌 후진국 빈민촌의 어둠과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창단된 국제 붓다평화봉사단이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지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재 미얀마 양곤에 위치한 코리아 기술대학교는 극빈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기술을 가르쳐 주는 학교로 2019년 2월 25일에 미얀마 종교성 장관과 부장관을 모시고 성대한 개교식을 갖기도 하였으며 극빈지역 우물 파주어 운동, 의약품 보내기, 신뷰식 지원, 소수민족 고아원 지원, 초등학교 건축제원, 딜라신(비구니) 수행처 신축 제공, 승려 재출가의식 봉행 등을 중생구제 인간방생을 사명으로 알고 수없는 시련 속에서도 오뚝이 같은 모습으로 수행 정진해 왔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보현보살님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재능보시자 및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어려운 이들의 인간방생의 도반이 되어 주시길 청합니다.



국제 승려 구족계 금강계단 제5회 비구 수계 대법회 소식

테라와다 상좌부 사사나 승가대학에서 단기 출가의식 직접체험은 2주만에 마감되었습니다.
종교성과 승가대 사정으로, 많은 분들의 항의와 추가 접수 요청을 받지 못함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토록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승가에 감사를 보내며 더 겸허하고 자중하면서 보람과 긍지로 더 더욱 땀 흘리는 세계불교법왕청과 국제불교지도자협회가 되겠습니다. 두손모아 합장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 대승정 목탁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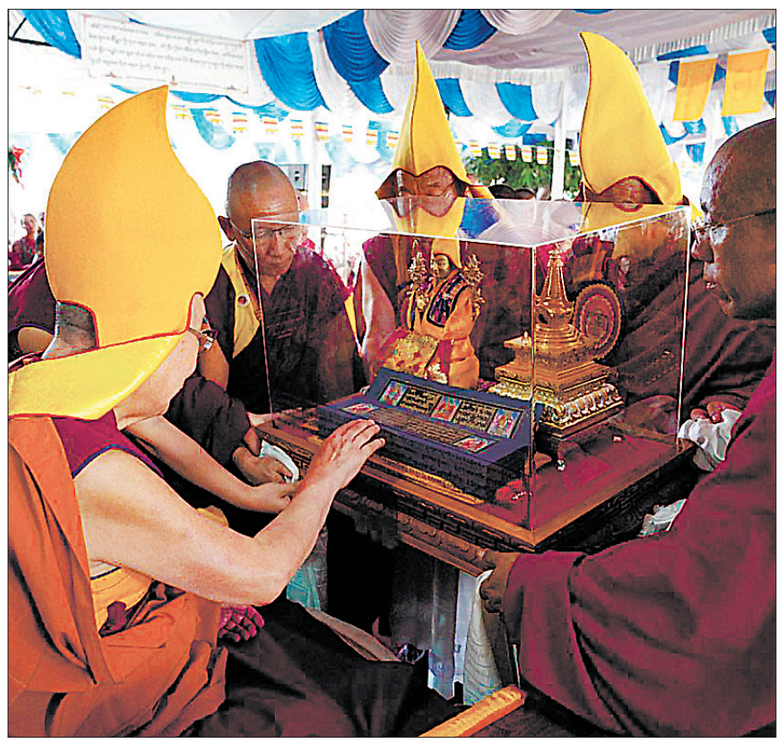


후원계좌

국민은행 023501-04-14758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국민은행 023501-04-214874 세계불교 법왕청



쫑카빠 대사 열반 600주년 행사가 열린 간댄사원. 쫑카빠 대사가 직접 창건했으며, 망명 티베트인들이 남인도에 재건했다.



달라이라마가 쫑카빠 대사의 소형 동상과 사리탑을 영접하고 있다. **사진=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쫑카빠 대사의 열반 당일 한국의 전통연등으로 진행된 제등행렬이 주목받았다.

‘제2의 붓다’ 겔룩파 개조 열반 기리다

[현장] 쫑카빠 대사 열반 600주년 기념법회

남인도=박영빈 객원기자

“눈의 나라의 지자(智者)들 가운데 가장 장엄한 쫑카빠, 롭상닥빠의 발아래 기원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3만여 대중이 모두 한 목소리로 쫑카빠 대사(1357~1419)를 찬탄하는 게송을 염송했다. 따가운 햇볕에도 아랑곳 않고, 여기저기 모여 앉은 불자들의 눈은 단상에 마련된 법좌에 앉은 달라이라마를 향하고 있었다.

남인도 카르나타카주 문드곳(Mundgod), 티베트 망명촌에 소재한 데뿡(Dreping)사원과 간댄(Ganden)사원에서는 구랍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달라이라마를 법주로 쫑카빠 대사 열반 60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가 성대히 봉행됐다.

쫑카빠 대사는 달라이라마가 속한 종단인 겔룩파의 개조로 티베트 불교를 혁신한 사상가로서 티베트에서는 ‘제2의 붓다’로 추앙받는 스님이다. 특히 올해는 열반 600주년을 맞아 ‘국제 쫑카빠의 해’로 선포, 세계 각지에서 학술대회와 기념법회가 봉행됐다. 특히 티베트 불교가 전해진 지 오래된 대만과 싱가포르에선 지난여름 베삭(Vesak)에 맞춰 대법회가 열렸다. 한국에서도 10월 25일 한국불교학회에서 ‘티벳불교 톺아보기’라는 주제로 기념학술대회가 개최됐다.

14일 오전, 데뿡사원 고망(Gomang)강원의 새 법회장을 개원하는 행사에서 짧은 법문을 가진 달라이라마는 거듭해서 수행정진을 강조했다. 특히 법회에 많이 참석한 몽골불자들에게 “몽골은 맛있는 양고기를 먹는다고 한다. 여러분이 이 먼 남인도까지 온 것은 다른 맛의 양고기를 먹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오직 불법을 공부하고 정진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며 농담을 섞은 격려를 전했다.

또한 달라이라마는 “망명사회 속에서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선한 마음을 가진 많은 보시자들과 후원자들 덕에 여법한 수행환경이 이루어졌다”며 망명난민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맹정진하는 스님과 외호하는 사부대중에게 감사를 표했다. 현재 데뿡사원과 간댄사원에는 각각 5천여 명의 대중스님들이 상주하며 수행하고 있다.

이번 남인도 기념법회는 법주인 달라이라마의 일정상 문제로 당초 계획에 비해 조금 간소하게 진행됐다. 또한 티베트 망명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외국인 방문자들이 필요한 허가증(PAP, Protect Area Permit)의 발급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일부 기념행사가 보드가야로 옮겨졌다.

그 결과 많은 외국인 불자들이 일정을 보드가야로 변경하면서 참석자들이 분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서 3만여 사부대중이 기념법회에 참석했다. 한국에서도 50여 명의 불자가 어려운 길을 마다않고 남인도 법회에 참석했다. 서울에서 왔다는 한 불자는 “일정이 변경 되고 법문이 적을 것이라는 이야길 들었지만, 수만 명의 대중스님들이 계신 법회에 오고 싶었다”며 남인도에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또 16일, 대뿡사원 로셀링(Loseling) 강원에서 열린 법회에서 “오늘은 장수관정을 드리기로 한 날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한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달라이라마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 신체의 기관들이 균형을 이루고, 몸에 균형이 잡히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그러나 마음에 욕심과 번뇌가 수시로 일어나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살기 위한 의식을 하여도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법문을 이어 나갔다.



쫑카빠 대사를 기리는 촛불장엄.

남인도 티베트 망명촌 사원에서
구랍 14~21일 달라이라마 법주
전 세계 곳곳 3만여 불자 운집해
쫑카빠 대사 가르침 깊이 되새겨

한국에서도 50여 사부대중 참가
한국 전통연등 함께 나누며 화합
달라이라마 “한국인들에게 감사”

또한 “불법의 핵심은 보리심과 공성의 지혜이며, 이것을 닦으면 선하고 평안한 마음을 일어난다. 그러므로 불자들은 단지 ‘부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해선 안 되며, 믿고 의지하는 그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라이라마는 이날 반야심경을 인용하며 “마음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라이라마는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한 것처럼 세상과 진리는 하나지만 각각으로 설명되기도 한다”며 무자성인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역시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반야바라밀에 의지해 무상정등각에 이르셨다’고 설한다. 오직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야 부정적인 번뇌와 감정을 제거하고 결과적으로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라며 지혜를 키울 것을 독려했다.

간댄사원 장쩨강원의 전 방장인 쟝쩨 켄수르린뽀체는, 이 법문에 대해 핵심적인 요약을 부탁한 기자의 질문에 “여기에 오느라 시간과 많은 돈을 썼을 것이다. 비록 돈을 다 써버린다 해도 무언가를 가지고 돌아가야 법회에 온 보람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선한 마음이다. 선한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자비를 내어야 하고, 또 자비만으론 성불에 이를 수 없으니 공성의 지혜를 갖춰야 한다”고 요약했다.

12월 20일, 간댄사원에서는 달라이라마의 개회를 시작으로 “제 쫑카빠: 가르침과 유산”이라는 주제로 국제학회가 진행됐다. 각국의 불교학 석학들이 모여 쫑카빠 대사의 사상적 견해와 역사적인 흐름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로버트 서먼 교수는 “쫑카빠 대사는 과거가 아니다. 바로 현재다. 달라이라마 존자님과 많은 스승들이 그 가르침을 전하는 한 그분의 가르침은 살아 숨 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술대회는 영어, 티베트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등으로 각각 동시통역됐다. 대뿡과 간댄사원의 강원에서 전통적인 교육을 받는 학인 스님들은 서양식 학술적 연구로 발표되는 쫑카빠 대사의 이야기가 흥미로운 듯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쫑카빠 대사의 열반일 당일인 21일 아침, 20여 명 남짓한 한국인 불자들과 만난 달라이라마는 “멀리에서까지 법을 위해 이곳에 와주신 한국인들에게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오전 간댄사원에서 봉행된 기념식은 몽골의 간단다찬 사원의 방장스님을 비롯, 티베트 불교가 전해진 외국의 불교대표와 티베트 망명정부 인사들의 연설로 시작됐다. 쫑카빠 대사를 대신하는 겔룩파의 종정 ‘간댄티빠’와 달라이라마의 짧은 법문도 함께했다.

이날은 전통적으로 각 가정과 사찰에 초와 등불을 켜서 공양을 올리고, 사찰과 탑을 요잡하는 풍습이 있다. 한국에서 참석한 불자들이 직접 인도에서 제작한 한국의 전통연등은 단연 이목을 끌었다. 100개의 연등을 티베트 스님들과 함께 나눠 든 한국불자들은 쫑카빠 대사를 찬탄하는 게송을 염송하며 간댄사원 경내에서 제등행렬을 봉행했다.

대만에서 온 한 불자는 “한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연등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 세계의 많은 불자가 이곳 남인도에서 한마음으로 큰 스승의 유덕을 기린다는 것이 가슴 벅차다”고 흥분된 얼굴로 말했다. 아름다운 연등으로 수놓은 밤을 마지막으로 남인도에서 열린 대법회가 여법하기 회향됐다.

2020 謹賀新年 경자년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화계사

庚子年 밝아오는 새해에도 각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로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화계사 사부대중은 서원합니다.

조 실 송원 설정
회 주 성광
주 지 수암
국제선원 정진대중

사부대중일동

일요가족법회(거사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청년회		토요일	오후 4시
나한대학생법회		일요일	오후 1시
학생회		일요일	오전10시30분
어린이회		일요일	오전10시
일요참선법회(수선회)		일요일	오후 1시30분~4시
철야정진(선우회)		토요일	오후 9시~새벽3시
불교대학		화~일요일	오후1시
열린시민선방		월~금요일	오전9시~9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계사길 117 (수유동)
Tel. 02)902-2663 Fax. 02)990-1885 www.hwagyesa.org

2020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韓國佛教太古宗

僧 正 院

僧 正 南坡, 德化, 慧雲, 知足, 錦龍, 圓默, 智山

中央宗會 議長 法潭
首席副議長 祥明
次席副議長 慧日

護法院 長 智玄
副院長 觀正
委員 知輪, 玉山, 正岩, 虎山, 淸山, 鏡月

初審院 長 九山
副院長 晩愚
委員 圓悟, 明願, 摩那, 智行, 慧覺

中央選擧管理委員長 月峰
副委員長 法蓮
委員 凰峰, 法一, 智海

종 도 일 동

總務院長 虎溟

副院長 慧善
總務部長 惺道
敎務部長 眼正
弘報部長 晴空
糾正部長 法海
校任傳法師部長 心圓
宗司務書委員長 道智
宗委策員委員長 智弘
敎育院部長 眼悟
敎育院長 哲法
布敎院長 京周
法規委員長 慧完
社會福祉院長 休윤
全國信徒會長 김동
青年會長 이승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 전화(02)739-3450 팩스(02)739-3470



謹賀新年

大韓佛教天台宗

종정 김도용 대종사

총무원
총무원장 이문덕
총무부장 이월장
교무부장 방경혜
교육부장 정장호
재무부장 정월중
사회부장 정도웅
규정부장 김갈수

종의회
종의회의장 김도원
종의회부의장 김세운
김우영

감사원
감사원장 조진덕
감사위원 곽수산

원로원
원로원장 전운덕
원로간사 주정산

종정사서실
사서실장 박덕수

금강대학교총장 송희연

대한불교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73 총본산 구인사
전화 (043)423-7100 | 전송 (043)420-7399 | www.cheontae.org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실천신행을 통한 자기참회로 내 안의 부처님을 만납니다

총 인 경 정

통리원장 회 성
종의회의장 관 천
현정원장 법 정
교육원장 덕 정



경자년 새아침 희망을 담고 6.25 70년 희생된 넋들을 추모합니다.



대한불교관음종 사부대중 일동 서울 종로구 종로63가길 31 www.kwanum.kr T 02) 763-0054 F 02) 763-5851



종기 49년 / 불기 2564년

경자년, 비로자나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광명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종령 법공 대종사
통리원장 인 선

중앙종의회 의장 도 현 중앙교육원장 화 령
사감원장 법 경 동해중학교 이사장 인 선

불교총지종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역삼동) / ☎ 02-552-1080~3 / www.chongji.or.kr

밝은 태양빛, 번뇌를 지혜로 바꾼다

지혜 · 자비 기본이념 인류 행복 실현한다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새해아침 복(福)을 여는 즈음에 그 가운데 부처님의 진리(眞理)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새해에 복을 여는 것이냐? 집집마다 아이들은 색동옷을 입고 뛰어 놀고 어른들은 사랑방에서 서로 술잔을 건냄이로다.

경자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금일 아침 떠오르는 밝은 태양(太陽)의 빛이 번뇌를 지혜로 바꾸고, 무명(無明)을 깨달음으로 바꾸는 전신(轉身)의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진여법계(眞如法界)에는 만덕(萬德)이 갖추어져 있으니, 수용(受用)과 묘용(妙用)이 자재(自在)합니다.

내가 그대로 우리가 되고, 이기심(利己心)이 그대로 이타심(利他心)이 되며, 아만심(我慢心)이 그대로 자비심(慈悲心)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眞理)를 깨닫고 보면 세간법(世間法)과 불법(佛法)이 둘이 아닙니다.

진리의 광명(光明)은 항상 시방세계를 비추니 나와 남이 원래 없으니 옳고 그름이 원래 없습니다. 밝음 가운데 어둠이 있고 어두움 가운데 밝음이 있으니 밝음과 어둠이 동일체(同一體)입니다.

종교는 인간내면의 정화(淨化)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인 지혜(智慧)와 자비(慈悲)가 정치와 사회의 기본이념이 되어 생명존중(生命尊重)과 인류(人類)의 행복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國民)들이시여!

일상생활(日常生活)하는 가운데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話頭)를 챙기고 의심하면 몰록 '참나' 를 깨닫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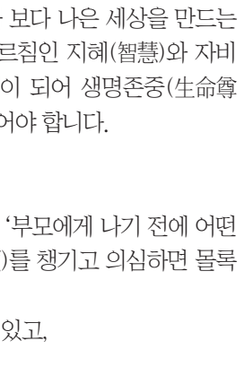
참나 속에는 걸림 없는 대자유가 있고,
참나 속에는 참된 평화가 있고,
참나 속에는 변치 않는 정의가 있고,
참나 속에는 밝은 지혜가 있고,
참나 속에는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필경(畢竟)에 진리(眞理)의 한 마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萬古徽然何處覓(만고휘연하처멱)고.
頭頭物物現古風(두두물물현고풍)이로다.
만년토록 빛나는 것을 어느 곳에서 찾을꼬?
두두물물이 고풍의 진리를 드러냄이로다.

화해와 소통의 새날을

경정 정사
진각종 총인



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

온 누리에 충만한 대일(大日)의 서광(瑞光)이 중생의 심전(心田)에도 늘 함께하여 화해와 소통의 새날이 항상 하길 서원합니다.

진각(眞覺)의 무진원(無盡願)이 법계에 충만하여 공사(公私)가 바로 서서 진실을 실현하고 세상에 화해가 넘치고 소통이 순조로워서 참회와 용서의 터전이 되기를 서원합시다.

심성은 본래 화해의 궁전이여서 진리와 화해하여 하나가 되고 자기와 화해하여 주인공을 찾아 중생과 화해하여 더불어 살아갑시다.

화해의 기운으로 살면 인생은 안락하여서 화해의 마음으로 느끼면 세계는 만다라요 화해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정토이며 화해의 귀로 들으면 천지는 화음의 자리입니다.

종교가 사법(邪法)을 정화하여 정법를 세우면 정치는 정쟁을 쉬고 정도로 걸어가고 경제는 독식(獨食)을 넘어 풍요를 나누며 사회는 분쟁을 풀어서 화평을 누립니다.

새해 새 세상은 화해의 만다라 중에서 마음 다해 손잡고 수행하며 웃어봅시다.

대립 멈추고 주위를 살핍시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쥐의 해를 맞이하여 희망한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현재 우리는 단절과 소통 부재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의 장벽이 더욱 두터워져 가고 있습니다. 독선과 불통으로 시작된 극한 대립은 멈출 줄 모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새해에는 걸음을 잠시 멈추고 숨을 돌리면서 주변을 살피는 여유를 가집시다. 슬기로운 우리 국민은 어려운 국면일수록 단결하여 지혜와 화합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온 저력이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서로의 행복을 응원하여 온 세상에 부처님의 자비가 현현하는 한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

불자여러분! 기해년 열심히 달려오면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들었는지 돌아봅시다. 새해에는 아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청정한 수행과 성찰을 통해 희망의 새해를 향해 나아갑시다. 자기의 이익만을 찾지 마시고 이웃에게 베풀며 함께 기뻐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주인의 자세를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지난 한 해, 우리 종단은 종단 사상 유래 없는 위기에 직면했고, 국민과 불자, 종도 여러분들 마음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습니다. 원융과 평화보다는 한 사람의 사욕과 잘못된 인식이 한 집단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불러왔고, 혼란과 분열을 일으켜왔는지를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그만큼 경자년 새해는 희망과 기쁨으로 맞이하고 싶다는 소망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외 상황처럼 작금의 우리 종단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고종도들은 지난 연말 평화로운 총무원사 회복을 통해 그런 능력과 자격이 있음을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어느 종단, 어느 승가 집단보다도 성숙된 승가 의식을 보여줬으며, 수많은 법난을 슬기롭게 극복해온 종단의 힘과 저력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그리고 태고종도 여러분, 이제 그 힘과 저력과 용기로 흰쥐의 해를 힘차게 열어가길 바랍니다. 임제스님께서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이라고 하셨듯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임할 때 국가도 발전하고 불교도 발전하고 승단도 발전하고 내 삶도 희망과 행복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상생과 화합의 길 밝히자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경자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처님 자비광명이 온 대지를 밝히고 만 생명을 비추니 곳곳이 불토요 만상에 공덕 아님이 없습니다. 새해에는 사람마다 높은 차원의 복락을 가꾸며 꿈을 성취하고, 사회가 보다 발전되어 인류가 행복하고 만물이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불자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시대의 흐름은 빠르고 세상의 변화는 역동적이어서 자칫 삶의 가치가 흔들리고 사회의 정의가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진심을 다해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여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고 상생과 화합의 길을 밝혀가야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지혜의 눈을 뜨고 자비의 마음을 열어야 그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의 눈을 뜨지 못하면 날마다 부처를 만나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비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날마다 보살을 마주쳐도 행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연을 심으면 반드시 좋은 과보를 만나는 것이 부처님 일대시교의 핵심입니다. 일체중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먼저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 하니, 한 번의 좋은 생각이 억겁의 행복을 열매 맺게 하고, 한 번의 착한 행동이 일체중생을 복되게 하는 도리를 사무쳐 깨달아야 합니다.

불자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에는 나부터 선심으로 지혜를 밝히고 나부터 선업으로 자비를 실천하여 시방삼세의 일체중생이 모두 함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성 밝혀 본심을 찾자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경자년 새해, 새 아침입니다. 국가와 국민, 불자들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우리 모두 새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합시다.

새로운 출발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자성을 찾아서 본심으로 밝게 나아가는 큰 걸음입니다. 진취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새해 큰 걸음을 하면서 지혜를 밝히고, 자비행을 실천해 자성부처를 이룹시다.

부처를 마음 가운데서 찾으면 자성부처님이요, 밖에서 찾으면 법신부처님이라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정진으로 맞이하고 순간순간을 도전하는 정신은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이웃과 사회에 감동을 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요, 빛이 됩니다. 벅찬 가슴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밝은 마음으로 새날을 준비합시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성을 깨달은 사람이며, 자성을 깨달은 사람은 본심이 밝은 사람입니다.

스스로의 허물을 낮과 같이 밝게 볼 줄 아는 자성을 밝히고 본심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당체법문을 바르게 보아 자성을 밝히고 본심을 찾는 생활인이 됩시다. 희망과 기대 속에 맞이한 새해에는 생활이 곧 진리요, 삶의 터전이 곧 보살의 정토가 되도록 정진하고 서원합시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반드시 정착시켜야 합니다.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 경제도 부흥시켜야 합니다. 너나없이 누구나 넉넉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음 그릇을 키웁시다.

부처님 믿고 의지하는 마음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고불동행(古佛同行)' "옛 부처님과 같이 간다"는 뜻으로 이 스님이 불자들에게 책을 선물할 때 자주 쓰는 글귀입니다. 법화경 여래수량품에 보면 부처님은 이 모든 우주의 세계를 생각으로나 계산으로 알아 낼 수 있겠느냐고 법회에 모인 대중들에게 묻습니다. 대중들은 이 모든 우주 세계는 셀 수도 없으며, 마음과 생각으로도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다고 답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헤아릴 수 없는 것같이 부처님께서는 내가 성불한지는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지 겁보다 더 오래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중생들을 이익 되게 인도하시고, 또 열반에 들은 것처럼 하여 방편으로 중생을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고불동행' 의 진정한 뜻은 과거, 현재, 미래에 부처님께서는 늘 여러분과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경자년 새해에도 부처님께서는 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이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정진하는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자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한줌의 흙도
마다 않고 끌어안아
높은 태산이 되었으며
한 방울의 물도 내치지 않아
저 넓고 깊은
바다를 이루었으니

작은 선행이 반복되면
인격이 바뀌고
찰나의 불심을 모아
성불의 길로 나아갑니다.

수행자는 정진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며
소박한 진리를 실천하는 이들이 인정받고
정직한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얼어붙은 마음을 풀어
막힘없이 흐르는 가운데
자비로써 서로를 배려하며
국운의 융창과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화합과 성취의 새해를 열어가야 합니다.

실천서원으로 정진을…

법공 정사
총지종 종령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불자와 교도 가정에 부처님의 상서로운 서광이 널리 비추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금년에는 가정과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평화와 자비가 넘쳐나고, 고난과 괴로움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지혜로써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를 희망하며, 온 지구촌이 빈곤과 가난, 질병과 고통에서 해탈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이 겪는 고통은 탐욕과 그로 인한 대립과 반목에 기인한다' 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자비심과 보리심을 길러내어야 합니다. 자비심은 발고여락(拔苦與樂)이라 하여 다른 이를 기쁘게 하고 고통을 덜어 주는 것이며, 보리심은 깨닫고자 하는 마음임과 동시에 상대를 자비로써 대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자비심과 보리심을 일언(一言)하야 이타심이라 하며, 그러한 행을 이타행이라 합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불자들과 교도 여러분들에게 자비심과 보리심을 길러내는 수행의 실천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용맹정진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첫째,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한시라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증오와 원망심은 악(惡)의 가장 큰 씨앗입니다. 남을 내 몸과 같이 여기고 이웃을 내 가족과 같이 대하는 마음이 인간의 본성(本性)이요, 그러한 마음으로 산다면 모두가 즐겁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둘째, 나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청정하게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나의 선(善)에서 출발합니다.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 더욱 선(善)한 마음, 건강한 생각, 깨끗한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바르게 서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제를 한 해의 실천서원으로 삼아 정진해 나간다면 불국토에 들어가는 문이 되고, 복전(福田)을 일구는 일대불사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좋고 좋은 날이오, 달마다 기쁘고 행복한 한 달, 한 해가 되시기를 발원하면서 모든 불자님들과 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훔.

인연으로 행복 추구하는 새해를

국제선불교 조계종 대승정 목탁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열매 (果)는 거둘 수 없습니다.

짜증이나 싫다를 생각하면 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고, 좋든 싫든 열매를 내가 걷어야 합니다. 내게 오는 인연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고, 기꺼이 받아드리면 업의 덩어리가 녹아내려 좋은 인연 좋은 복덕이 온다는 말입니다. 인연법의 원리를 되새기며 나를 사랑하고 나의 행복을 원한다면 이 순간을 함부로 하지 말고 기꺼이 받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에 더 적극적일 때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자인 여러분으로 하여금 또 하나의 길이 시작되는 신년 새해 이렇게 좋은 날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율을 청정히 하는 것

불교조계종 종정 혜인



도량청정무하예 삼보천룡강차지 (道場淸淨無瑕穢 三寶天龍降此地)

마음이 청정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늘은 푸르고 한강물 유유히 흐른다. 국태민안하고 가화만사성이라. 국가는 성장하고 국민은 행복하니 대한민국이 극락이로다.

존경하는 불자여러분 전자국가시대가 도래했습니다. 2019년 새해에는 청정한 마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시대를 가름하지 못하면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12월 18일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 플러그인을 정책목표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복덕이 구족한 나라를 만들기 바랍니다.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무한하라

真如苑 원주 真澄寺 수좌 대승정 이또신소



신년을 맞이하여 한국민 모든 분들의 다복과 불교계의 흥륭과 번영을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신뇨엔은 세계문화유산에 빛나는 한국 · 고려대장경을 중요 저본으로 방대한 대장경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깊은 성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내어 후세에 남긴 보물 대장경. 우리가 매일하는 정진과 이타행도 삼세시방에 걸쳐 구제의 진리인 '진여' 현성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사람과 자연의 조화 · 지복을 바라는 선한 마음과 행으로 진여는 영원히 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 빛의 진여를 찾아내어 모두 함께 정진하자 "

인류 행복과 평화 정착하길

대한불교 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세월이 일깨워주는 성쇠(盛衰)와 고락(苦樂)의 섭리(攝理)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는 시위와 정권교체로 숨가쁜 변화의 물결이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지구촌은 폭염과 가뭄, 슈퍼태풍과 산불 등의 자연재해로 수많은 인명이 신음 속에 사라졌습니다. 지혜의 시대란 모든 탐욕과 무지를 벗고 대립과 갈등을 상생과 화해로 전환시킬 때 완성됩니다.

경자년 새해에는 이같은 지혜심을 발휘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환한 웃음이 피어나고 자연재해가 없는 가운데 인류의 행복과 평화가 정착되길 발원합니다.

동체대비(同體大悲) 구현하라

대한불교 불입종 종정 면철



사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 공생공존은 연기법의 원리인데 내가 잘 살기 위해 남을 해침으로 나와 남이 함께 망가지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다. 이 세상 악업 가운데 제일가는 것은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여겨 남을 해치는 일이다. 부처님 계율에 살생을 제일 덕목으로 한 것도 바로 이 점을 경계함이다.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수천수만이 죽어가는데 무기 만드는데 가공할만한 돈을 쏟아붇고 있으니, 이 어찌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경자년 새해는 우리 앞에 또 하나의 멍석을 깔아 놓는다. 저마다 제 깜냥대로 한바탕 멋지게 살아보라고.

차별심 버리고 평등히 대하자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경원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福과 智慧와 佛恩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은 500 大願에서 "혹 남에게 사무량심을 갖지 않은 중생이 설법을 들으면 사무량심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중생의 행복을 같이 기뻐해 주는 마음을 가지며, 모든 차별 심을 버리고 모든 이들을 평등하게 대하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더욱더 상생의 나눔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세상에 대일광 가득 빛나길

대한불교 삼보종 종정대행 법장



하늘에 불광이 이 땅을 밝혀 시방세계가 생기 넘치는 기운을 받습니다. 가정마다 천지의 기운 가득 쌓이고 온 세상에 대일광(大日光)이 가득히 빛납니다. 자연만물 법계를 노래하여 즐거움이 가득하니 늙어가는 황소가 걸음마다 생사무(生死無)를 노래합니다. 산골짜기 흐르는물 대해(大海)에 모여들고 벌들은 꽃을 찾고 나비들은 향기찾아 헤맵니다. 수행자는 도를 찾고, 속세인은 재물을 찾아가다 날저물어 집에 오니, 자대문(自大門)이 열립니다. 욕망에 얽매이면 노예신세 못 면하고 사상에 얽매이면 사람신세 불쌍합니다.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화합

한국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대봉



떠오르는 광휘의 태양처럼 우리 불자님들은 환골탈태 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마음한번 잘 쓰면 고대광실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님 세계요 불국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을 잘 사용하여 어떠한 마구니라도 물리칠 수 있게끔 참다운 법을 굴려서 경자년 새해에는 우리모두 화합해 성불합시다.

一切無礙人 一道出生死

(사)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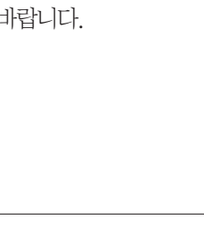


일체 걸림이 없는 사람은
그 길로 생사를 벗어나네

하루를 지내고 나면
더 즐거운 하루가 오고
사람을 만나고 나면
더 따스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더 행복한 일을 만들 수 있는
희망찬 庚子년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행복도 자타불이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승가회 총무원장 호산성보



자비와 행복 이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들이 행복하길 바라는데서 오고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자신만의 행복을 바라는 데서 온 다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라. 어리석은 이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고 깨달은 이들은 남들을 위해 일하나니 잘 보라 이둘 차이를

청정한 마음으로 참된 삶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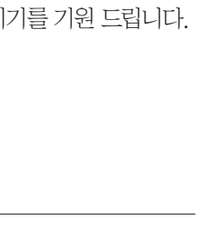
(사)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운남



우리불자들은 스스로가 하심으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갈등을 치유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청정한 마음으로 참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이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보아 미망을 떨쳐버리고 진실된 나를 찾아가는 정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가는 곳 마다 좋은 인연 맺기를

(사)대승불교 본원종 종정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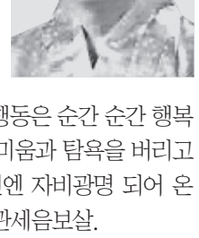


경자년새해 날마다 좋은날 되도록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에 밝은 태양이 솟아 온 세상 밝히듯 어두운 마음에 지혜의 밝은 등불 밝혀 날마다 좋은 날 되고 가는 곳마다 좋은 인연 맺어 만사형통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도록 합시다.

밝은눈으로 다시 태어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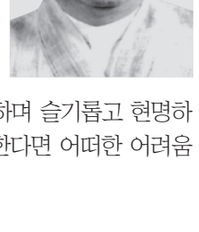
한국불교 전통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혜봉



사람이 만족할 줄 모른다면, 오직 더 많은 것을 구해서 죄악만 키우는 결과가 된다. 보살은 그렇지 않아서, 늘 만족하고자 생각하고, 가난해도 편안히 머물러 도(道)를 지켜, 오직 지혜 닦는 일에만 정진해야 할 것을 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밝은 눈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새겨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봅시다.

베풀며 살아갑시다

(사)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종정 법호서호



경자년 새해에는 서로 베풀고 또한 하루에도 한량없이 찾아오는 망념에 사로잡혀 무시습습(無始習熟)한 숙업의 선율은 여지없고 마음을 수시로 흔들어 놓아도 언제 어디로 갈 곳 하나 모르고 살아가는 뜬구름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새해에는 허망된 용망과 아집을 버리고 서로 베풀면서 복덕을 쌓아 복되고 희망찬 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번뇌를 버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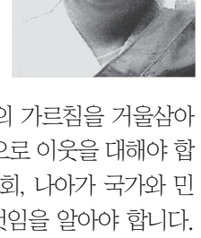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어떤 날은 비가 오고 어떤 날은 맑고 화창하며, 어떠한 날은 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칩니다. 자연의 이치가 이러하듯 우리 사바세계의 삶도 때로는 힘들기도 평탄하기도 좋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니, 마음 하나를 제대로 잘 다스리며 여기에 모든 자유가 있고 모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거울이 자기 얼굴을 잘 볼 수 있게 하듯이 번뇌에 찌들은 마음을 깨끗이 경자년에 닦아야 하겠습니다.

농부의 마음같이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정수유심(靜水流深) 심수무성(深水無聲)

고용한 물은 깊이 흐르고,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 않듯 고용함 속에 참 진리가 있는 것이다.

침묵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린후에 새싹이 돋아나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과 같다.

세세 년년 밝게 비치니 영원의 등불이어라, 새 해에 일체 중생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하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미움과 탐욕을 버리자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팔십평생 만난 년이 잘했다는 년 별로 없고 그저 그년이 그년일세 , 흔 년이 가면 새년이 오는법 간 년 참 시끄러운 년일세. 기해년이 떨던 꼴값 지은 구업 어찌할꼬 육체는 무상하고 업보는 끝이 없나니 시비나 성패도 지나고 보면 다 허무한 것 오늘 내 행동은 순간 순간 행복과 불행을 만드나니 혼탁한 이시대에 미움과 탐욕을 버리고 시끄러운 년에 피운 촛불일랑 오는 년엔 자비광명 되어 온 누리를 밝혀 주옵소서, 나무아미타블 관세음보살.

인과법 바르게 실천하는 해로

(사)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파



내가지은 것은 지은대로 받는 불교의 인과법을 알고 바르게 실천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거를 원방하고 남 탓을 하기 보다는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부처님의 참뜻을 항상 생각하며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례와 신념의 생활을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진으로 세상 복덕 절로 쌓이네

대한불교삼론종 종정예하 혜승



山上白雲白又白 산상백운백우백
山中流泉滴又滴 산중류천적우적
誰人解看白雲容 수인해간백운용
那邊雲外靑山碧 내변운외청산벽
산위의 흰 구름은 희고 또 희고
산속에 흐르는 물은 흐르고 또 흘러
누가 흰 구름의 모습을 이해해 보나
저쪽 구름 밖에 청산이 파랗구나

새벽 아침 깨달음의 노랫소리로 시방세계 신세계가 열립니다. 사찰마다 집집마다 청정한 불자들의 정진으로 세상의 복덕이 절로 쌓이니 나날이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입니다. 청정한 향기를 머금은 법우는 산과 세상 구분없이 내려 행복으로 열리는 매일매일의 나날들을 축복합니다.

화해와 용서의 경자년을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석도선



기해년을 보내고 경자년 새해를 맞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고, 헛된 것은 버리고 참된 것을 되살려 밝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아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동체대비심으로 화합하고 양보해야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자신의 허물을 참회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내가족, 이웃, 사회, 나아가 국가와 민족, 인류의 안녕과 발전을 약속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해의 어려움을 흘흘 털고 화해와 용서로써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새해에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가득하시기 서원합니다.

2020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사)대한불교 원융종

圓融宗 四大綱領

圓融無碍 一O相 眞理體得
우리종도는 원융무애한 일원상의 진리를 스스로 체득한다.

圓滿融通 人格完成
우리종도는 원만 융통한 대인상의 인격을 수련 성취한다.

圓通融和 道義社會建設
우리종도는 원통융화한 이상 사회의 실현에 적극 헌신한다.

圓融會通 理想世界實現
우리종도는 원융회통의 참된 평화 세계건설에 이바지한다.

원융종 종도일동

총무원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180-6 (구로동)
총본산 : 원융사 전화 02)853-0430~1 팩스 02)857-5094

※원융종 종도 여러분 사.암 등록증과 임명장, 신분증에 유효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등록증, 임명장, 승려증은 필히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삼론종

종 정 **혜승**
승정원장 **향운**
승 정 **혜공, 인봉, 은곡, 진봉, 지운, 지심, 명산, 명재, 해불**

총무원장 **지민** 종회의장 **지경** 종회부의장 **천장**
총무부원장 **보봉** 총무부장 **근혜** 교무부장 **정현**
규정부장 **경월** 사회부장 **도일** 재무부장 **혜인**

사정원장 **명산** 사정부원장 **혜원** 포교원장 **보명**
문화부원장 **지학** 수선원장 **지화** 수선부원장 **성덕**
교육원장 **남륜** 교육부원장 **법지** 기획원장 **성각**
기획부원장 **여송**

각 교구 종무원장
중앙신도회장 **김상흔**
서울·경기 종무원장 **천장** 충 북 종무원장 **정연** 전라·남북 종무원장 **도암**
충 남 종무원장 **성현** 경남·울산 종무원장 **해산** 대구·경북 종무원장 **혜송**

중앙종회 종회의원 **도우 보명 묘현 일선 성현 성화 성각 혜원 정연 혜관 응진 지연 지화 자원 해불 해산 성덕 해인 도암 보광 혜인**

종도일동

총무원: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음성로 773-66 ☎ 043-878-0109 / 팩스 043-878-0103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재단이사회
명예이사장 **경원**
이 사 장 **일명**
부이사장 **경담**
상임이사 **혜광**
이 사 **혜천**
법도화. 자비행

종정 / 총무원
종 정 **혜월 원각**
총무원장 **경원**
*별종직
삼장대학원장 **법해**
*사서실장 **경담**

원로회의
원로의장 **대륜**
원로의원 **무찰, 혜천 덕봉, 동봉 혜성, 법선 현암**

중앙종회
종회의장대행 **경담**
종회부의장 **혜일**
종회사무처장 **덕산**
종회의원 **석경, 도정 지흘, 성운 무착, 법일 원진, 령산 혜암, 혜광 백운심 여래자**
기능직종회의원 **17명**

종무위원
호계원장 **석성**
교육원장 **승원**
포교원장 **보성**
인권위원장 **마덕**
총무부장 **원공**
교무부장 **경담**
홍보부장 **해동**
재무부장 **덕운**
포교부장 **도명**
교육부장 **지광**
사회부장 **대원**
규정부장 **지흘**

교구종무원장
강원교구 **보해**
경기남부교구 **대각**
경기북부교구 **도명**
경남교구 **진공**
대구교구 **고봉**
대전교구 **경담**
부산교구 **원공**
전북교구 **지명**
제주교구 **제법**
울산교구 **현산**
충북교구 **지원**

법사회
법사회장 **대원**
010-2352-1047
법사총무 **혜각**
010-6708-1288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www.ilbung.org
▪총무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6길 76-9, 일붕선원 1층
TEL 02)991-8175, 8904 | FAX 02)991-8176

불기 2564년 새해를 맞이하여
온 법계에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社團法人 大韓佛教 佛入宗

宗 正 **勉 哲**

元老院長 **海 月**
總務院長 **鏡 岩**

호법원장 **지 철** 종회의장 **법 진** 종회부의장 **보 선**
포교원장 **명 성** 총무부장 **보 성** 재무부장 **묘 훈**
사회부장 **법 천** 포교부장 **시 원**

■ 총본산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옥전길 125 전화 043)653-4800 팩스 043)653-5858
■ 총무원 :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30 안길4 전화 043)653-4848 팩스 043)642-6660

공익법인 대한불교 화엄종

총무원장 **화 응** 중앙종회의장 **대 휴**

종무처장 **양위찬**(원당)

大本山 **약 사 사**
(약사사추모관운영)
신도일동

희망다문화협동조합
회원일동

재단법인 **화 엄 승 가 장 학 재 단**
공익법인 **대한불교화엄종장학회**

이사장 **화 응**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 48(간석동 12-3) TEL 032)429-4441 / FAX 032)429-4445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길 32-5(청진동 삼선빌딩 406호)
TEL 02)730-0798 / FAX 02)730-0799

사단법인 대승불교본원종

종 정 **범해 대화**
부종정 **도관 지신**
사 서 **경 산**

총무원장 **김만혁**
사 서 **해 인**

종회의장 **김대운**
종회부의장 **구원각 이수혜**

원로원
원로원장 **박대월**
원로의원 **김대원 이관곤 이대봉 김대광 김지선**

각원장
교육원장 **박태허**
연수원장 **유성준**
감찰원장 **김서호**
고시원장 **강만공**
복지원장 **심지연**
포교원장 **황현문**
염불원장 **박해수**
문화원장 **허성각**

총무원
총무부장 **정법성**
교무부장 **안자관**
재무부장 **김성문**
감찰부장 **이지호**
사회부장 **강정오**
포교부장 **김용담**
복지부장 **이혜원**
조직부장 **채원광**

각교구원장
강원교구원장 **지진묘**
경북교구원장 **이혜형**
부산경남교구 **정지명**
대전종무원장 **최지천**
충북종무원장 **박대월**

종회의원
정법성. 이심공. 이도광. 김해인. 이성광. 엄만일. 김광덕. 김성인. 김성문. 유관공. 강정오. 안가관. 김용담. 이혜원. 이지호. 채원광. 박부용. 한지효. 배지명. 박해동. 신대광. 김한명화. 신청련행. 권진광명

■ 총무원 : 서울 종로구 평창40길 67 / 전화 02)391-4376 / 팩스 02)379-2746

2020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승가회

총무원장 **호산 성보**

승가회 종도 일동
사부대중 일동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광사**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53-1
Tel 055)232-7819

한국불교 전통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혜 봉**

중앙종회의장 **선각** 중앙종회의원 **지암**
중앙연수원장 **도광** 교구종회의원 **혜각** 비구니위원 **법광**
사 정 원 장 사 정 부 원 장
비구니원장 **도견** 비구니부원장 **혜명** 13교구 동부종무원장 **용주**

총무부장 **법경** 문화부장 **무상** 규정부장 **해법** 재무부장 **혜광**
감찰부장 **도경** 호법부장 **적광** 홍보부장 **지덕** 문화국장 **선광**
홍보국장 **법행** 포교국장 **도현 법사** 교임단장 **혜안 법사**

입종을 환영합니다

【구비 서류】
- 사찰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앞.뒤사본, 반명함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1매 (사찰등록 하실분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분은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필히사본첨부
- 도첩은 본종단에서 수계를 받은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입종후 승려증 (법사 포교)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간부 추대장 발급

■ 총본산 : 경북 포항시 흥해읍 신흥로 540-17 연봉사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사)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인 운남**
종회의장 **법보 일봉**
감찰원장 **법운 성연**

연수원장 **가원 성각** 교육원장 **법기 무여**
포교원장 **법전 법현** 고시원장 **벽산 혜암**

강원종무원장 **영 명** 서울종무원장 **심 우** 경기종무원장 **혜 암**
충청종무원장 **혜 능** 전라종무원장 **덕 운** 군산종무원장 **덕 일**
경북종무원장 **탄 영** 경남동부종무원장 **진 공** 경남서부종무원장 **일 봉**

총무부장 **진 공** 사회부장 **진 성** 호법부장 **진 각** 포교부장 **태 천**
재무부장 **제 봉** 연화부장 **정 혜** 문화부장 **공 덕** 교무부장 **진 문**

종도일동

총본산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250번지 흥도사
총무원 : 창원시 회원구 양덕1동 산30-4번지 천연암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종 정 법호 서호
부종정 법두 수암

승조원원장 **법상 심곡**
원 로 원 장 **법두 수암**
총 무 원 장 **법웅 정관**

연수원장 **용정 일월** 교육원장 **월화 법봉** 포교원장 **금화 백담**
문화원장 **법경 월명** 복지원장 **법수 청운**
기획실장 **진명** 고시원장 **원도** 총무국장 **무화 무경**
사회부장 **정광** 사회국장 **용화 해월**
부산교구종무원장 **원도** 경남동부종무원장 **법경 월명** 경남서부종무원장 **진명**

총무원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조산1길 58-6
전화 055)532-4414 휴대전화 010-3507-2837

(사) 대승불교조계종
The Mahayana Buddhist Jogye Order

이사장 **현담 본지**

총무이사 **인각** 교무이사 **만법** 재무이사 **대전**
교육이사 **도각** 포교이사 **법공**
총무국장 **현무** 교무국장 **선행** 재무국장 **자은**
교육국장 **현덕** 포교국장 **자경**

이 사 **화산 경월 법광 연지 정혜 법성 법혜**
감 사 **대성 혜원**

종도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사찰등록신청서, 기본증명서, 신상명세서, 증명사진 2매 등**

법인사무국 : 경남 사천시 백천길 234-34 백룡사
전화 055)832-8367 / 팩스 055)832-8368

불.법.승
(宗) 대한불교 삼보종

1세종정 滅空 대종사 법주 正覺 대종사

원로원장 **금산** **부 종 정 회천** 원로부원 **정공,정민**
호법원장 **호신** **총무원장 법장** 종회의장 **법융**
고시원장 **해룡** **부 원 장 법경** 문화원장 **법등**
감찰원장 **법도** 교육원장 **홍인** 염불원장 **원명**
사무총장 평산

종회의원 **계월.법성.법공.용인.보각.해곤.평산.도오.지일.해봉 외 각원장 (15인)**

총무부장 **지일** 교육부장 **도오** 규정부장 **도철**
호법부장 **청파** 교무부장 **청암** 포교부장 **혜수**
문화부장 **진각** 재무부장 **도능** 교화부장
총무국장 포교국장 **도원** 홍보국장 **강천**
전산실장 **진행** 기획국장 **청붕** 사서국장 **도율**
사회국장 예술국장 **보인** 사 무 장 **목련해**

교구원장 **수산.법인.보산.불광.해원.용현.계월.법송.지원.청광.정륵.(전국 16개 교구)**

삼보조계종총무원 경남 김해시 호계로499번길 4 / 전화 055-338-0089 팩스 055-333-1880

世代佛教

세대별 니즈 파악… 전략적 포교를





[프롤로그] 불교, 세대 트렌드에 주목하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세대(世代)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은 '어린 아이가 성장하여 부모 일을 계승할 때까지의 30년 정도 되는 기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학적으로는 '공통의 체험을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의식이나 풍속을 전개하는 일정 폭(幅)의 연령층'을 의미한다.

최근 한국사회에는 여러 세대론이 나오고 있다. 이제는 고전이 되어버린 X세대(베이붐 세대 이후 출생한 세대)부터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까지 다양한 세대론이 등장했다. 특정 연령층보다는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의 특징을 가진 세대를 일컫는 Z세대론도 등장했다.

다양한 세대론으로 지칭되는 세대는 해당 세대마다 가지는 경향과 욕구들이 존재한다. 최근 유튜브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Z세대의 경우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미디어와 함께 성장하여 기존매체인 TV, 신문보다 모바일 SNS에 익숙하다.

그렇다면 세대에 대한 포교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에는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바로 세대 특성과 욕구를 담은 트렌드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더욱 해당되는 문제다.

기실, 한국불교는 다른 종교보다 연령별 불균형이 심각한 편이다. 연령별로 보면 불교는 10~20대가 전체 불교인구의 10%, 30대는 11%에 불과하다. 반면 50~60대 인구는 각각 30%를 상회하고 있다.

실제, 2015년 인구총조사에서 20대 미만의 불자의 수는 확연히 낮았다. 통계에 따르면 20대 미만 불자는 전체 불자 761만 명의 16%에 불과했다. 개신교 신자 중 20대 미만이 23%에 달하는데 비하면 매우 작은 수치다.

그나마 중장년부터 노년층 인구는 다른 종교보다는 안정화되고 많은 편이지만, 세대 · 연령별 니즈를 파악한 포교 종책이나 프로그램이 개발되지는 않고 있다.

연령대로 묶인 기존의 세대론과 더불어 이제는 시대와 상황에 맞는 세대론들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업글인간'과 '오팔세대'다. 이는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발간한 〈2020트렌트 코리아〉에서 제시한 트렌드들이다. 업그레이드(Upgrade)와 인간의 합성어인 '업글인간'은 성공보다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자기계발형 인간을 의미한다. 이들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아진 자신을 만드는 데 자기계발에 주안점을 둔다. 먼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원하는 '소확행'을 따른다.

오팔세대는 'Old People with Active Life'를 의미하는 신조어로서 동시에 베이비부머를 대표하는 '58년 개띠'의 '오팔'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들은 오랜 기간 매여 있던 직장을 떠났지만,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하거나 활발한 여가 생활을 영위한다. 젊은이들의 취향과 브랜드를 좇으면서도 자신만들의 콘텐츠를 구매한다. 기존의 완고함과는 거리가 먼 새로운 중장년이자 노년층들이다.

'업글인간'과 '오팔세대'와 같은 새로운 세대 트렌드는 해당 세대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확인시켜준다.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에 따르면 '업글인간'의 경우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성장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행복을 얻는다. 이 행복은 즐거움과 목적의식이라는 두 축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이들은 대형 강의보다는 1:1튜더링 시스템을 선호하고, 성장의 노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에 높은 호응도를 보인다. 도전 참여비를 받고 습관 지키기에 성공할 경우 상금으로 돌려주는 습관 형성 어플리케이션 '챌린저스'는 좋은 사례다.

현대사회 세대 세분화 추세
세대별 공감대 · 특징 형성돼

경자년 새해 세대 트렌드로
업글인간 · 오팔세대 부각돼
세대 욕구 파악해 포교 적용

'오팔세대'는 앞선 세대와는 달리 적극적이다. 은퇴로 밀려난 남은 인생을 수용하는 노인이 아니라 일을 통해 자신의 영역을 새로이 구축하는 데 거리낌이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시니어 모델로 유명한 김칠두 씨다. 그는 27년간 순대국집을 운영하다가 모델의 꿈을 위해 런어웨이에 도전했다. 전문성을 살리는 노년도 있다. 박일환 前 대법관은 은퇴 뒤 구독자수 4만 명의 유튜버가 됐다. 그는 현재 법률 상식을 공유하는 '차산선생 법률상식' 채널을 운영 중이다.

이 같은 세대별 트렌드는 세대들의 니즈를 읽고 어떻게 공략할지를 시사한다. 실제 오팔세대 포교에 대해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오팔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전국의 각 사찰의 환경과 융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때문에 각 사찰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포교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팔세대에 대한 불교계의 분석들이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종책으로 다가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UPGRADE 업글人間

업글인간이란?

업그레이드(Upgrade)와 인간의 합성어인 '업글인간'은 성공보다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자기계발형 인간을 의미한다. 이들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아진 자신을 만드는 데 자기계발에 주안점을 둔다. 먼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원하는 '소확행'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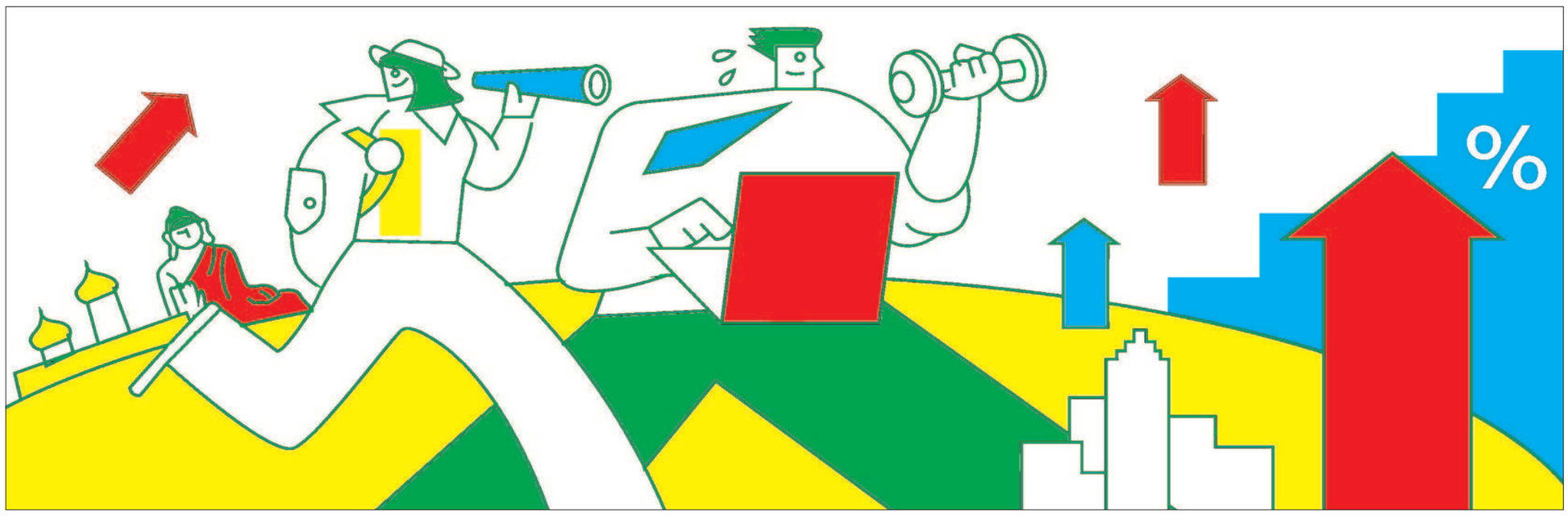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성장=행복' 만족할 공감 포교 나서자

업글인간 포교 제언

2020년 불교활동가는 맞춤형 활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세대별 욕구와 성향을 파악하고 포교방법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세대별, 분야별로 전문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세대별 포교 중 2030세대의 포교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한다.

빅데이트로 본 한국인의 세대별 공통관심사는 일자리이며, 나이 · 돈 · 시간은 공통 고민거리였다. 2030세대는 일자리에 대해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에게 현재 다니는 직장은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이다. 평생직장이란 생각에서 벗어난 그들은 직장에서도 필요한 노하우를 빨리 전수받고 싶어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거부하며 현재의 직장에서 정보와 얻을 수 있는 노하우를 폭풍 흡입한다. 또한 그들에게는 '시간은 돈'이라는 생각으로 '칼퇴근과 겸업'을 고민한다.

최근 2030세대의 트렌드를 가리켜 일명 업글인간(Upgrade+인간)이라고 한단다. 그러기에 그들의 삶의 목표, 공통관심사, 삶의 스타일이 무엇인지, 개인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업글인간은 자신의 몸, 취미, 지식을 업그레이드하는데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격려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동료와 멘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업글인간에게 다가가려면 그들의 성향을 잘 아는 또 다른 업글인간에게 맡겨야 한다. 즉, 그들의 포교를 위해서는 업글인간 중 포교의 종자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포교인력 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포교와 세대관심사에 대한 몸건강, 취미, 지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체계를 세우고 포교도구를 탐색하고, 시스템화된 포교를 시도해 나가야 한다. 기존 포교는 그런 세대에 대한 욕구사정이나 전문교육도 없이 스님이나 포교사가 진행되어 왔다. 세대별 전문가가 아니어도 스님이나 포교사가 되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대상을 불교인이 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여 왔다.

업글인간에게 무엇을 전할 것인가는 바로 이런 관점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자. 우리가 바꾸려고 해도 그들이 거부할 것이기에 굳이 수고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들은 자신의 삶이라는 밥상이 치워지고 다른 밥상이 놓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밥상에 다른 반찬이 하나 더 놓여 지길 바랄뿐이다. 불교가 그들의 삶을 바꾸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그럴수록 업글인간과의 거리는 멀어질 뿐이다. 잠시 맛볼 수 있는 반찬, 붓다의 말씀을 맛볼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와 프로그램을 그들에게 맞추면 족하다. 그 세대에게 불교는 물질적 충족 대신 정신적 성장을 제공할 수 있는 테마를 마련해야 한다.

그들을 아는 과정이 끝나면 공감능력을 키우고 시간을 투자해 친근해져야 한다. 그들을 불자로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들을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은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지 그들을 내 목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인생의 달인이다. 누군가 자신의 삶에 개입하거나 자신의 습관을 바꾸려 하는 것에 불편함을 표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는데 능수능란한 사람이다. 도저히 그들을 설득할 수 없다. 설득의 자세를 버리고 그들과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하라. 불교에서는 그 방법을 보시 · 애어 · 이행 · 동사의 사섭법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는가?

경쟁 아닌 성장에서 행복 찾는 '업글인간'

취미 · 지식 업그레이드 시키는 포교 필요

명상 · 상담 등 분야별 전문가 양성 우선돼야

그들은 누구나 좋아하는 취향보다 자신에게 맞는 취향을 탐색한다. 즉, 생활, 소비, 인간관계, 사회환경의 패턴도 자신의 취향에 맞게 재구성 하는 것을 즐긴다. 그러니 불교적 틀을 고집하지 말고 그들이 불교의 주체적 취향을 갖도록 불교환경패턴을 변화하는데 중지를 모아야 한다. 불교, 사찰, 주지스님, 법사, 신도회라는 고정된 프레임을 만들어 그들을 가두지 말자. 그들은 그러한 획일화된 프레임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자신의 스타일이나 트렌드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런 세대가 막혀있는 프레임을 과감하게 깨고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요즘 30억뷰 이상을 자랑하는 상어가족 노래가 인기 절정을 달리고 있다. 가족애와 위기탈출이란 내용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강렬한 후렴구가 있어 재미와 공감 둘 다를 잡았다. 이처럼 업글인간에게도 보기 쉽고 듣기 쉽고, 말하기 쉽고, 가슴에 와 닿고 전하기 쉬고 경험하기 쉬운 포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찰이 할 수 없다면 그들이 지내고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환경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자신을 계발하고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몸, 취미, 지식을 업그레이드 하고 현재의 행복, 매일의 성장, 삶의 질적 추구에 희망 깃발을 든 업글인간을 위한 아래와 같은 포교실천방법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몸 건강을 위해 각종 체험활동을 유도한다. 먼저 건강한 사찰음식을 제공하고 사찰음식교육을 통해 몸 건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찰음식관과 레시피, 연습장소를 제공하고 직접 체험하게 한다. 또한 산악회를 구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산과 산사 초청 자연호흡과 건강 여행 프로그램 이외에 사찰공간 활용을 통한 육체건강 프로그램으로 산행, 걷기 명상, 올레길 체험, 절 운동, 선무도, 바라와 나비무 등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둘째, 정신건강을 위해 수행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인문지식 서비스 사업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인문학과 교양, 불교고전어, 동양언어, 동양문화, 염불 강좌를 마련한다. 아울러 경전내용을 뽑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제공하여 정신건강에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를 위해 사찰 이외 지역사회나 직장 프로그램에 지원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해야 한다. 이처럼 지식 업그레이드를 통한 자기계발에 관심을 둔 이 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사찰에서는 인문학 강좌와 경전읽기 모임, 불교대담, 스님과의 만남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셋째, 취미 업그레이드에 호응하기 위해 불교의례, 불교수행, 각종 불교도구, 웹툰, 만화 등 창작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길거리 문화공연(공연, 창작, 진로 및 직업과 결혼상담, 행복, 치유, 희망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즉문즉설을 포함하는 지역고정 공연과 전국순회공연)을 선도하여 길거리 포교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에 취미 활동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불교적 자원을 제공해야 하며 불교적 취미활동과 관련된 온라인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각종 온라인 활동에 친숙한 업글인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몸, 취미, 지식 업그레이드를 위해 스토리텔링, 그림, 행동, 비유, 유튜브, SNS 등 온라인이나 가상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대우(大愚)의 유튜브 상담이나 혜수(慧壽)법사의 유튜브 설법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동영상을 이용할 수 있기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글인간에게 접근해야 한다.

다섯째, 건강, 취미, 수행, 지식, 명상, 상담 등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고 업글인간에 맞는 전문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업글세대만을 위한 템플스테이 전문사찰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시대는 전문적이고 팀별활동 시대로 회사나 사업장에서 이미 전문가 중심, 팀별 중심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템플스테이도 세대별로 전문화해야 한다.

붓다는 기운 나무는 잘리면 기운 쪽으로 넘어진다고 했다. 그러니 2020년에는 업글인간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하자.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대학 교수

2020 謹賀新年 경자년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BONG EUN SA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 奉恩寺 |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73번지)
TEL 02)3218-4800 | FAX 02)544-2141





그림 · 박구원

'핵심 신도' 가능… 역할 방안 모색을

지도자 · 추종자로 분류해 포교적 접근
'문화 · 명상 · 봉사' 분야 프로그램 마련
사회 경험 발휘할 '회향출가제' 필요해

오팔세대 포교제언

세대(世代)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양하며, 세대의 특징을 표현하는 방식도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보통 한 세대는 태어나고 성장해서 독립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시기까지의 기간으로 정해지는데 사람은 이 기간이 다른 동물에 비하여 매우 길다. 국어사전에서는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부모의 일을 계승할 때까지의 기간"을 한 세대로 정의하고 있는데 약 30년을 잡고 있다. 그러나 동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공통의 의식을 가진 비슷한 연령대가 형성된다. 이들을 묶어서 특정한 호칭을 붙여서 다른 연령대와 구분하는 시대적 사조를 부여하기도 한다.

요즘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오팔세대 또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제기된 세대적 특징을 담고 있다. 오팔(OPAL)은 'Old People with Active Life'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몇 가지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오팔세대는 "나이가 들었지만 활동적인 생애를 살고 있는 노년층"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노인을 의미하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오팔세대는 노년층에 진입하기 직전의 신중년층을 지칭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살펴보면 오팔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은 주로 1958년도 이후에 출생한 베이비부머가 중심으로 이룬다. 그렇지만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들 중에서도 여가생활을 즐기면서 자신을 가꾸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소비를 주도하는 오팔세대들이 있다. 이들은 베이비 붐 세대의 중추였던 1960년대 생으로 과거에 이미 X 세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연령층이다. 오팔세대는 높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소비층으로 분석되기도 하고, 문화생활의 욕구가 크고 인생의 이모작을 준비하면서 평생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 사찰에서 운영하는 전국의 불교대학에 입학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5~60대가 주를 이루는 오팔세대에 속한다. 이들은 정년퇴직을 했거나 정년퇴직을 앞두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연수 활동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386세대를 모두 오팔세대로 분류하기에는 문제가 따른다. 왜냐하면 이들 세대 중에는 미래의 자신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오팔세대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386세대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집 한 채 장만하고 자녀들 결혼시키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이들도 자신을 위한 소비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지만 자신을 위한 확실한 소비생활의 욕구는 가지고 있는 세대에 속한다.

오팔세대는 현재 불교계를 떠받치고 있는 중추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찰에 처음 유입되는 대부분의 신도들도 5~60대이고, 신행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연령층도 이들이다. 또한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 독립가구를 이루고 손자손녀들도 태어나기 때문에 양육에 손을 보태주어야 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오팔세대는 핵심 불자층이면서 동시에 교단과 사찰을 외호하면서 적극적으로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연령층에 속한다. 이들 중에는 이미 많은 공덕을 쌓은 사람들도 있고, 새로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근기나 조건에 따라서 지도자로 활동하도록 장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동참자로서의 역할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오팔세대를 대상으로 사찰에서 적절한 포교전략을 세우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도자와 추종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계층을 구분하여 육성하고 이들이 스스로 이끌어 가고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팔세대가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분야는 문화 영역이다. 이들 세대 중에는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문화 계승자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한 사람들이 있다. 이미 수십년간 국악이나 현대음악 분야에서 악기 연주, 노래, 춤 등 음악적 재능을 갖추고 있거나 수묵화, 서양화 등의 미술 분야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뿐만 아니라 음식이나 차 분야는 물론이고 운동, 스포츠 영역에서 활동했던 전문가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전문성을 사찰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화지도자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참자들을 결집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단체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주어야 한다. 정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하고 광고와 홍보의 장을 만들어 준다면 결집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오팔세대가 관심을 두는 두 번째 중요한 영역은 명상 분야이다. 명상은 요즘 세대에 관계없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실참에 참여하는 인구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명상단체와 지도방법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면서 국적 불문의 효과성조차 검증되지 않는 상업주의적 명상법이 도처에서 혹세무민의 수준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도 불구하고 불교계는 간화선과 위빠사나 등 전문적인 수행법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적으로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응용명상 프로그램을 만들고 일반 지도자들을 육성해서 수행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 응용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명상과 수행에 동참하고 자신들의 재능과 명상을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는 지도자 교육 및 실참 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문화와 명상을 연계시키면 흥미유발과 동기부여의 측면에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

오팔세대는 다양한 삶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봉사활동도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전국 시군구 단위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봉사단체들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렇지만 불교계는 지역 봉사센터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찰 봉사단체들의 수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오팔세대 중에서 자원봉사 지도자를 발굴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봉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오팔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전국의 각 사찰의 환경과 융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때문에 각 사찰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포교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잔존 자원을 사찰에서 보살행을 통해 회향할 수 있도록 회향출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회향출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화나 재능을 사찰에서 회향하고 그 속에서 삶의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는 기간출가 방식이다.

재가불자로서 일정기간 사찰에서 생활하면서 신행생활과 사찰 내외의 각종 봉사활동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회향출가자들이 많아진다면 사찰의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춘 포교사로 활동할 수도 있다. 오팔세대에 대한 불교계의 분석들이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종책으로 다가서길 바란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오팔세대란?

대한민국 소비시장에 부각되고 있는 세대. '오팔(OPAL)'은 'Old People with Active Life'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는 신노년층'을 의미한다. 또한 베이비부머를 대표하는 '58년 개띠'의 오팔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들은 축척된 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OPAL 오팔세대

생활 불교 · 실천 불교 · 효행 불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총무원장 석도선 고 문 석암도 승정원장 석벽봉

승 정 석화담 승 정 석혜암 원로고문 석법령
원로위원 석일우, 석청산, 석우암, 석도명, 석정호, 석법산, 석법광, 석자광

총무원장	석도선	교육원장	석남산	기획원장	석담허	어산장	석도암
법계고시원장	석일두	호법원장	석청강	의전원장	석법도	비구니회장	석경호
총무부원장	석대공	총무부장	석도흥	감찰부장	석성보	조사부장	석성도
수행부장	석보각	사회부장	석자광	사서부장	석성우	조직부장	석성각
종무부장	석법민	문화부장	석성원	포교부장	석보현	연수부장	석원희
총무국장	석성덕	지원국장	석해인	봉사국장	석성호	포교국장	석혜진
포교국장	석법정	포교국장	석성원	의전국장	석균중	수행국장	석성탁
종무국장	석성안	문화국장	석원종	의식국장	석성혜		
비구니부회장	석효성	비구니부장	석지현	비구니국장	석충효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교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영천중앙종무원장	석도명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지일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일지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일현	김해중앙종무원장	석천각
문경중앙종무원장	석정현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암	대구중앙종무원장	석성담	제천중앙종무원장	석진공

종단법인 임원
이사장 도선
감 사 성덕 성민 선화
이 사 남산 체법 일두 성만 성우 학산 성원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의공 성안 법광

종단법률 자문위원
변호사 김진우(明眞) 법무사 이익렬(雲虛) 세무사 이수열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 · 총무원장 석도선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이종길)
부회장 진불심(이순임)
총 무 대각심(김경숙)
임 원 혜명심(박현숙)
임 원 보덕심(박경남)

종립종합예술원
원 장 묘 각(이재인)
부원장 혜 담(이정민)
국 장 불심화(정형숙)
무 용 무애심(박순애)
연 출 원각심(도지연)

법사승 임원

경남원장	도혜	충북부장	상학	청주부장	혜원
울산원장	법광	부산부장	혜성	전남부장	혜명
경북원장	성인	경기부장	자운		
법사원장	목암	구미부장	혜진		
홍보부장	원명	대구부장	혜련		
경남국장	성광	포교국장	청운	삼척국장	정허
사업국장	소현	통영국장	덕인	영천국장	원명
포교국장	덕운	포교국장	혜림	통역국장	정연
종무국장	도연	봉화국장	혜정	포교국장	혜경
서울국장	명덕	화순국장	보정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총본산 경북 영양군 수비면 절터길 54-39, Tel 054)682-5808 / Fax 054)682-9848 총무원 서울시 은평구 증산서길 91 2층, Tel 02)303-5612

2020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사)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정산당 석 청봉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원장 **석보행**, 원로의장 **석덕오**

원장의회 승정원장 **석원정**, 종회의장 **석원명**, 호법원장 **석설산**
감찰원장 **석월오**, 기획원장 **석지광**, 교육원장 **석유심**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총무부원장 **석지혜**, 총부부장 **석화성**
교육부장 **석현법**, 사회부장 **석성현**, 재무부장 **석법주**
정보부장 **석정해**

교구종무원 부산종무원장 **석법오**, 경남마산 종무원장 **석법경**,
경남진주 종무원장 **석법원**,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대구종무원장 **석현승**,
강원종무원장 **석담행**, 충남종무원장 **석진공**,
충북종무원장 **석지우**

대중일동

■ 총본사 : 경남 양산시 주진로 205, 천성산 불광사 055)364-4747

사단법인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송 청파

교육원장 **동담 백천** 기획실장 **대비** 종 회 의 장
감찰원장 **동암 원효** 사서실장 **동판** 사무국장 **동석 우석**
문화원장 **덕인 금산** 총무부장 **무통** 창원교구원장 **동백 지원**
고시원장 **도진 동영**
복지원장 **동법 혜조**
포교원장 **동우 영산**
사회원장 **덕진 도광**
수선원장 **동성 혜각**
의전원장 **동민 경오**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등본 3통, 사진(3×4) 3장, 이력서 3통

종회위원 일동

총무원 50809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17번길 83-17 시례마을
TEL : 055-336-0108, 335-0178
FAX : 055-336-7070 / H·P : 011 -595-6522, 010-8939-6522

(사) 대한불교무량종

종 정 **혜안** 사서실장 **보인**
원로원장 **해초**

총무원장 보문 교육원장 **보산** 감찰원장 **보공** 포교원장 **보아**
중앙종회의장 **법우** 부의장 **자운 보우** 사무총장 **보성**

총무부장 **정운** 재무부장 **보혜** 교무부장 **보림** 사회부장 **보월** 호법부장 **정목**

총무국장 **보명** 재무국장 **보영** 교무국장 **무진** 사회국장 **지향** 사서국장 **보륜**

■ 총본산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삼화실로 748-8 칠보정사 / 전화 055)883-7771, 7790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귀의 하옵고, 불제자로서 수행과 전법 포교만을 위해
함께 하실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 십니다.

임 원

대승정 : **성광당 경보 대종사**

원로원장 **무명당 월곡** 종회의장 **대진당 혜월** 승가원장 **고암당 정인**
교육원장 **무파사 일관** 포교원장 **불연사 법룡** 호법원장 **비룡사 정수**
문화원장 **약천사 서암** 비구니회장 **연화사 해인** 비구니총무 **천광사 지운**
교육부장 **대광명사 도갑**

서울교구원장 불 연 사 법룡 경북교구원장 약 천 사 서암
대구교구원장 보리선원 지광 부산교구원장 붓 다 사 무비
대전교구원장 비 룡 사 정수 경남교구원장 천 불 사 정우
충남교구원장 선 각 사 능원 전북교구원장 관 음 사 진원

문의 : 입종문의 안내(입종 구비서류 및 발급 증명서)
053)654-0408. 010-3422-323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현충로 5길 99 원광사 (전화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본 종단은 문광부 허가 제2010호-4호 | *법인등록 274321-0029935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사)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승가원 승가원장 **고암 정인** 합장

대구불교총연합회 신도회

신도회장 **서 중 호**

수석부회장 **강정구**
부 회 장 **남단아**
부 회 장 **박경석**
부 회 장 **구미숙**
부 회 장 **김분영**

신도회 일동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51길 11, 불교대구회관(대명 2동)
TEL 053)652-9500 / FAX 053)629-9600

-사단법인 국제불교 승가회-

대광불교 조계종



종정 **보승 덕산**



총무원장 **성원 도현**

원 로 원 장 **원 성** 감 사 원 장 **원 종** 국제포교원장 **정 암**
중앙종회의장 **서 암** 법 사 회 장 **금강심** 사 정 원 장 **보 운**
교 육 원 장 **도 엽** 원로부원장 **지 현** 비구니부회장 **화 심**

사업부 소속
부장 손연호 (도림 처사) (불단 닫집 법상 제작.등)
부장 노정환 (일연 처사) (불상 단청 탱화 제작.등)

전국 지부
부산교구지현스님 전남교구보운스님 충북교구무광스님
충남교구삼현스님 경기교구일연 경남교구도엽스님

전국 사·암 주지 및 사부대중

혜정스님 정수법사 해선법사

동양심리상담사 1급,2급 자격증반 운영 반지정사 창원 055-265-0408

종도 모집

총본산-회룡사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가천안길 44-66
010-4001-8476

총무원-용주사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초하로 634-19
055-391-0413

영리하고 근면한 쥐 본받는 새해를…

[특집] 쥐와 불교

다사다난 했던 2019년 기해년의 해가 저물고 2020년 경자년의 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올해는 어떤 띠의 해인지를 보고 그 해의 띠동물이 지닌 의미에서 올 한해의 전망을 하곤 한다. 올해는 쥐의 해로 풍요와 희망과 기회의 해로 불리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고 임하는 지금, 2020년 경자년을 맞아 쥐의 해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노덕현 기자



'십이지신상 자신상' 도상. 통도사 성보박물관 제공

'근면' · '탐욕' 상반된 의미 지녀

오랜 기간 인류와 함께 생활한 쥐는 저장한 곡식을 먹고, 병을 옮기는 등 생활에 끼치는 해가 크다. 하지만 쥐의 이러한 특성이 민간설화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려진다.

바로 근면과 영리함의 상징이다. 특유의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과 생존력으로 인한 이유다. 쥐의 뛰어난 번식력은 다산을, 많은 운동량은 근면과 성실성을,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은 악운을 막아주는 것으로 높게 평가됐다. 탐욕스러움과 영리함, 근면성을 함께 지닌 동물이 바로 쥐이다.

〈삼국유사〉에서는 불교 수행에서의 근면, 정진 의미로 쥐를 활용했다. 〈삼국유사〉 권4에서는 '미륵신앙을 크게 일으킨 진표율사는 수행할 때면 쥐를 기르고 미륵전에서 수도했다' 고 전한다. 구도의 과정에서 쥐의 근면성을 이른바 쥐를 길렀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불설비유경〉에는 부처님이 승광왕을 위해 설법한 '안수정등' 법문이 나온다. 한 나그네가 광야에서 사나운 코끼리를 만나 웅덩이로 숨었는데 다행히 나무뿌리를 붙들어 웅덩이에 빠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흰쥐와 검은쥐 두 마리가 나타나 그가 잡고 있는 나무뿌리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웅덩이 네 귀퉁이에는 독사가 있었고, 바닥에는 독룡이 도사리고 있었다. 더군다나 들판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점차 다가와서 그 나무마저 태우고 있었다. 그때 나무에서 벌꿀이 그 사람의 입에 떨어졌다. 그 사람은 위험한 자신의 처지를 잊고 꿀맛에만 탐욕을 냈다.

여기서 광야란 무명(無明)을 의미하고, 두 마리의 쥐는 낮과 밤 속에서의 끊임없는 번뇌의 삶을 말한다. 이처럼 쥐는 근면, 혹은 탐욕 등이 함께 공존하는 의미를 지닌다.

〈전생경〉에서는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 쥐가 해로운 동물이자 불길한 동물로 여겨졌지만 부처님이 이를 일깨운 일화가 전해진다.

이 일화서 한 바라문은 어느 날 자신의 새 옷을 쥐가 갉아먹은 것을 보고 불길한 징조로 여겼다. 이 옷을 버리려고 한 바라문에게 부처님은 그 옷을 받으며 "바라문이여! 우리에게는 묘지나 거리, 또는 쓰레기장에 버려진 옷들이 알맞다. 그대는 이번 삶뿐 아니라 전생에도 그릇된 견해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했다. 바라문은 부처님에게 그 전생이야기를 청해 들었다는 내용이다.

민간설화와 결합해 사찰 곳곳 표현

민간설화 속 탐욕과 근면 의미의 쥐는 사찰 곳곳에서도 전해지고 있다. 원원사지 3층석탑 탑신에는 쥐가 상징적으로 새겨져 있다. 이는 〈천수경〉에 나오는 관세음보살의 12가지 명호가 민간설화와 결합해 각각의 동물로 배치되는데 만월보살 화신이 쥐이기 때문이다. 만월보살은 달이 신선하고 아름답게 빛나 중생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기위해 맑은 물을 끊임없이 채우는 역할을 맡고 있다. 만월보살이 달에 광명의 물을 길어다가 아무리 채워도 마구니가 물을 마시기에 물이 자꾸 떨어지고 만월보살은 악마를 잡기 위해 쥐의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고 전한다. 항상 고달프지만 부지런함으로 12지 동물의 첫 번째인 이유다.

낮과 밤이 없는 움직임 특징
만원보살 화신, 달 광명 채워
번뇌의 삶 속 부지런함 의미

부처도 속이는 영리함 보여
12지 동물의 첫번째 이유
지혜까지 이어지는 노력 필요

통도사 성보박물관에는 사찰에서 쓰이는 12지신번을 보관하고 있다. 사찰에서는 예로부터 큰 행사를 할 때 삿됨을 물리치는 벽사(闢邪)를 위해 이 번을 12방위에 걸었다. 여기서도 쥐는 첫 번째로 북방을 막는다.

꾀 많은 영리함의 상징도

쥐는 꾀 많은 영리함의 상징이기도 하다. 십이지에서 쥐가 첫 번째가 되는 설화를 보면 잘 드러난다. 십이지가 지금의 쥐, 소, 범 등으로 구성된 것은 후한(後漢) 왕충의 논형에서 비롯됐다고 전해진다. 쥐(子), 소(丑), 범(寅), 토끼(卯), 용(辰), 뱀(巳), 말(午), 양(未), 원숭이(申), 닭(酉), 개(戌), 돼지(亥)로 이중 쥐가 첫 번째인 것은 불교에서 따로 내용이 전해진다.

극락의 열두 개의 문을 지키는 수문장을 뽑을 때의 일이다. 하루는 부처님이 대세지보살을 불러 수문장을 지상의 동물 중에서 선정해 1년씩 돌아가며 당직을 세우도록 했다. 이에 대세지보살은 열두 동물을 선정하고 그들의 서열을 정하기 위해 불러 모았다. 열두 동물 중 모든 동물의 무술 스승이었던 고양이를 제일 앞자리에 앉힌 후 차례대로 소, 범,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돼지, 개를 앉혔다.

이후 대세지보살이 부처님에게 설법을 청하러 갔고, 오랜 시간 기다리던 고양이는 갑자기 배가 아팠다. 참다 참다 고양이가 볼일을 보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공교롭게도 부처님이 도착했다. 빈 자리에 구경 왔던 쥐가 달려나와 "고양이가 수문장의 일이 힘들 것 같다며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고 이에 부처님은 쥐에게 고양이를 대신해 수문장을 맡으라고 했다. 이 사건으로 쥐와 고양이가 원수지간이 됐다고 한다.

인도에서는 코끼리의 머리를 한 인도 지혜의 신 가네샤(Ganesha)가 때로 쥐를 타고 있거나 쥐를 거느린 작은 배불뚝이로 표현된다.

쥐의 해, 불교는 어떤 일이?

△544년 신라 최초 사찰 흥륜사 준공
△676년 의상 스님 부석사 창건
△724년 오대산 상원사 창건
△760년 월명사, 향가 '도솔가' 지음
△1012년 황룡사탑 중수
△1492년 조선 도첩제 폐지
△1552년 승과 실시, 휴정 스님 급제
△1564년 휴정 스님 〈선가귀감〉지음. 불국사 중창
△1624년 승군 창설, 남한산성 축조
△1660년 양민 출가 금지
△1900년 日정토종, 서울 사무소 설치
△1912년 성철 스님 탄생, 임제종 중앙포교원 개원
△1936년 명성여학교 설립인가. 초대 교장 최범술
△1948년 조선불교 초대 교정 석전 한영 스님 입적, 제2대 교정 한암 스님 추대
△1972년 비구니 종단 보문종 창종. 〈직지심체요절〉 발견.
△1972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건립
△1984년 통도사 영축총림 개원, 초대방장 월하 스님
△1996년 봉선사 능엄학림 개원. 초대학장 운경 스님
△1996년 위덕대 개교. 초대총장 손제석
△1996년 풍경소리 찬불동요 1집 발표
△1996년 연등회 봉축기획단 상설
△2008년 서울시청 규탄 범불교도대회



謹賀新年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영산불교 현지사

초 대 교조 광명 만덕 큰스님
제2대 교조 자재 만현 큰스님

장로원의장 성광
교정원장 일도
포교원장 행원
교육원장 대원
감찰원장 범행
불교대학장 일도

춘천본사 주지 대원
제주제2본산주지 범행
부산분원 주지 보문
대전분원 주지 행원
고성분원 주지 성범
대구분원 주지 정대
일본분원 주지 성도

영산불교 현지사 사부대중 일동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 춘천본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 033-243-1787
• 제2본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11 ☎ 064-783-5355
• 부산분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 ☎ 051-554-5150
• 대전분원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 고성분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 7 ☎ 033-681-5515
• 김해분원 경남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739-157 ☎ 055-327-0055
• 대구분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중앙대로 29길 20 ☎ 053-654-5557
• 일본분원 일본국 야마구찌켄 이와쿠니시 오츠죠 3-3-10 ☎ 81-827-31-1611
• 영산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2020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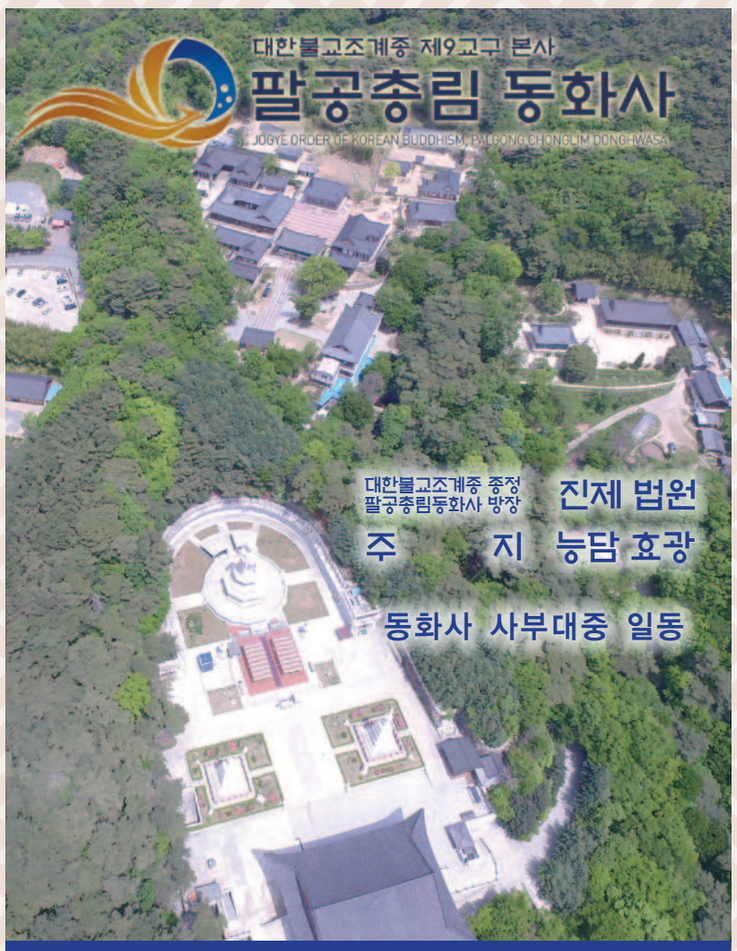
팔공총림 동화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PALGONG CHONGLIM DONGHWASA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팔공총림동화사 방장 진제 법원

주 지 능담 효광

동화사 사부대중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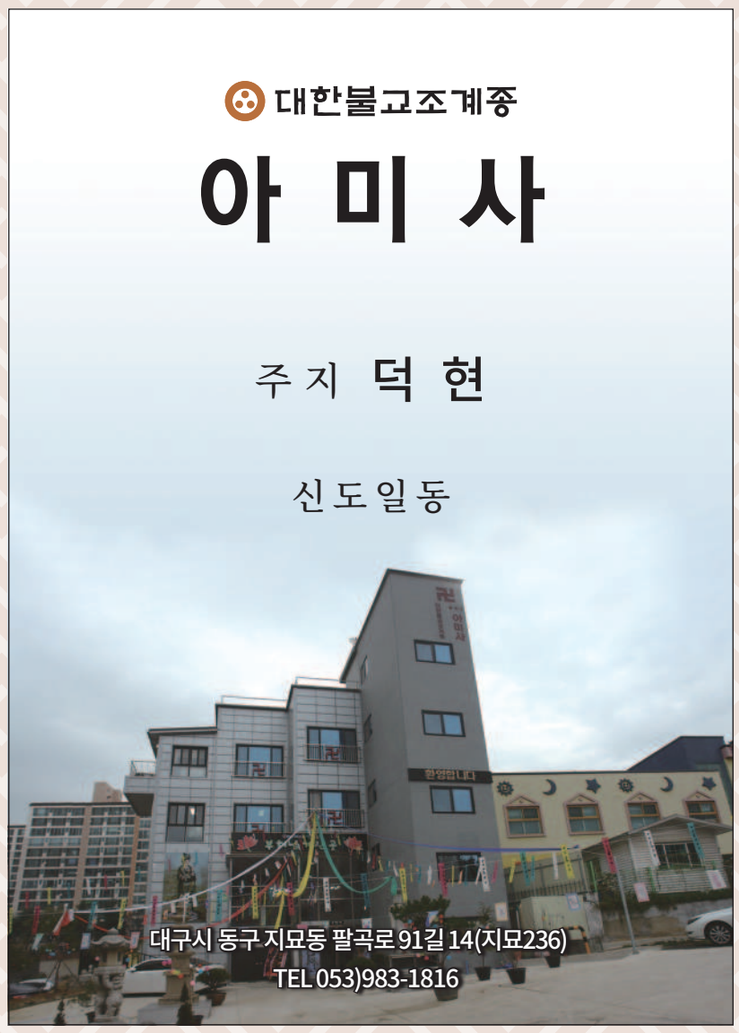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1(도학동 35) / www.donghwasa.net
TEL : 053)980-7900 / FAX : 053)985-4405

대한불교조계종

아 미 사

주 지 덕 현

신도일동



대구시 동구 지묘동 팔곡로 91길 14(지묘236)
TEL 053)983-1816

대한불교조계종

극락도량 약 천 사

무료시설 포산승가원

사부대중 일동



TEL 064-738-5000 FAX 064-738-5022
www.yakchunsa.org

대한불교조계종

오 어 사

주 지 종천

사부대중 일동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어로 1
TEL 054)292-2083 FAX 054)291-4190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지원장 혜 문

사부대중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 054)232-3163 FAX 054)241-3503

대한불교천태종

대 성 사

주 지 김영제

부설
· 동 해 유 치 원 053)652-5760
·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TEL 053)624-0542 / FAX 053)623-0265
www.daesungsa.or.kr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동 명 사

종정 법 운

종도 사부대중 일동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1095)
전화 054)974-2605 / 팩스 054)974-2705

사단법인 대한불교능조계종 총본산

자 인 사

총무원장
주 지 구룡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 120길 91-1
TEL 053)984-1125 / FAX 053)984-1129
H·P 010-7142-1339 buffa2002@naver.com

지장불교조계종

팔 공
총본산 지장선원

총무원장 지공 보명

법회안내
◇ 신중기도 점찰법회 : 매월 첫째 일요일
◇ 지장기도 천도법회 : 매월 셋째 일요일

지장보살 원불 영옥봉안 납골당

대구광역시 동구 갓바위로 35 (진인동 234)
TEL 053)986-0151,983-0152



"眞正見解, 초심자에 가장 중요"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① 어록의 왕 '임제록'

〈임제록〉은 '어록의 왕'이라고 불려진다. 선사들의 어록 가운데 가장 유명한 어록이다. 일찍이 일본의 철학자 니시따 끼따로가 "이 세상의 모든 책이 불타 없어져도 임제록만 남아 있으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제록〉의 구성은 먼저 마방(馬防)이 지은 서문이 있고 이어 상당(上堂), 시중(示衆), 감변(勘辨), 행록(行錄), 탑기(塔記)로 이루어져 있다. 서문에는 임제의 독특한 선풍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일찍이 황벽의 아픈 방망이를 맞고 비로소 대우의 옆구리를 쥐어박았다. 잔소리쟁이 대우는 임제를 '오줌싸개'라 하였고 황벽은 '이 미친놈이 호랑이 수염을 잡아당긴다' 하였다.

깊은 산 바위 골짜기에 소나무를 심어 뒷사람들을 표방(標榜)하였고 괭이로 땅을 파서 황벽과 수좌를 생매장할 뻔했다.

상당에는 당시의 지방장관 왕상시가 관료들과 함께 스님께 법상에 올라가 법문해 주실 것을 청하여 스님이 법문을 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법상에 올라간 임제 스님이 부득이 해서 법상에 올라왔다고 하면서 만약 종문(宗門)의 입장에서 일대사(一大事)를 거론한다면 입을 열수가 없는 것이라 한다. 발붙일 곳이 없는 것이 일대사의 근본 자리라 하였다.

어떤 스님이 임제 스님에게 물었다.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임제 스님이 "할(喝)" 했다.

그러자 그 스님이 절을 하였다. 임제 스님이 말하기를 이 스님과는 법을 말할만하다 하였다. 임제 스님의 가풍은 '할'이다. 할은 임제의 선법을 거량하는 상징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임제 스님이 어느 날 하북부(河北府)에 갔다가 왕상시의 청에 의해 법좌에 올랐다.

그때 마곡(麻谷)이라는 스님이 나와 물었다.

"대비보살의 천수천안 가운데 어느 것이 바른 눈(正眼)입니까?"

그러자 임제 스님이 되물었다.

"대비보살의 천 개의 눈 가운데 어느 것이 바른 눈인가? 빨리 말하라."

이에 마곡 스님이 임제 스님을 법좌에서 끌어내리고 마곡 스님이 대신 법좌에 올라앉았다. 임제 스님은 마곡 스님 앞으로 가까이 가서 "안녕하십니까?" 하니 마곡 스님이 잠시 머뭇거렸다. 임제 스님이 마곡 스님을 다시 끌어내리고 법상에 앉았다. 마곡 스님이 밖으로 나가버리자 임제 스님도 법상에서 내려왔다.

〈임제록〉의 가중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무위진인(無位眞人)을 말하는 대목도 있다.

"붉은 살덩이로 된 몸뚱이에 지위가 없는 참사람이 하나 있다. 항상 여러분들의 얼굴에 드나들고 있다. 증거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잘 살펴보시오."

그때 한 스님이 나와서 물었다.

"어떤 것이 지위가 없는 참사람입니까?"

임제 스님이 법상에서 내려와 그의 멱살을 꽉 움켜잡고 "어서 말해 봐 어떤 것이 지위 없는 참사람이야?"

그 스님이 머뭇거리자 임제 스님은 그를 밀쳐버리며 말했다.

"지위 없는 참 사람이 이 무슨 똥 막대기인가?" 하고는 방장실로 들어가 버렸다. 시중(示衆)은 평범하게 대중에게 훈시한 법문들이다. 임제 스님이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이 나온다.

"요즈음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되고 바른 견해(眞正見解)를 구하는 일이다. 만약 참되고 바른 견해만 얻는다면 생사에 물들지 않고 가고 머무름에 자유로울 수가 있어 뛰어난 것을 구하지 아니하여도 뛰어난 것이 저절로 온다."

또 부처가 누구인가 일러주는 말이 있다.

"그대들이 부처를 알고자 하는가? 바로 내 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이다."

〈임제록〉에 나오는 구절 가운데 많이 인용되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사대(四大)는 법을 설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른다. 허공도 법을 설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른다. 그런데 눈앞에 모양이 없는 밝고 신령스러운 것이 능히 법을 설할 줄 알고, 들을 줄 안다."

〈조계종 고시원장〉

한 티끌도 바로 보면 깨달음



세상 속 경전읽기

① 선화륜(旋火輪)

어렸을 때 틈만 나면 충남 아산 노로지[장곳리]에 있는 외가에 내려가곤 했다. 정월 대보름이나 첫 쥐날[上子日] 밤에는 벼를 베어낸 그루터기들이 줄지어 서있는 논바닥이 놀이터가 되었다. 마른 짚단을 묶은 홰에 불을 붙여 들고 다니며 논두렁을 태우는 쥐불을 놓기도 하고, 줄을 맨 깡통 안에 관솔불을 담아 깡통을 돌리면 불바퀴인 선화륜(旋火輪)이 생긴다. 여러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선화륜은 가히 장관을 이룬다. 눈을 감아도 잔상이 남아 선화륜이 보인다.

논 밖에 없는 평야지대라서, 오리나 십리쯤 떨어진 이웃마을의 쥐불과 선화륜들도 지척인 듯 선명하게 잘 보여 온 들판이 불꽃놀이장이었다. 지금 같은 가상현실 게임의 시대에는 잘 볼 수 없는 장면들이었다. 〈능엄경〉에 선화륜의 이야기가 나온다.

"아난아! 네가 말한 바와 같이 사대(四大)의 화합으로 세간의 갖가지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난아! 만약 그 (사대의) 성품과 바탕이 화합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대가 서로 화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치 허공이 물건들과 화합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만약 (사대가) 화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변화하는 것과 같아서 시종 서로 변화되어 생멸이 상속된다. 태어났다가 죽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등, 거듭되는 생사가 마치 선화륜(旋火輪 - 횃불 등을 돌릴 때 생기는 불바퀴)과 같아서 쉴 틈이 없다. 아난아! 그것은 마치 물이 얼음으로 변하고, 다시 얼음이 물로 변하는 것과 같다."

〈楞嚴經卷第三 T0945_.19.0117b24-b29〉

사대가 화학적으로 영구히 결합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모이면 태어났다고 하고, 흩어지면 죽었다고 한다. 지수화풍(地水火風) 각각의 성품인 견습난동(堅濕暖動 · 단단함, 젖음, 따뜻함, 움직임)은 사대가 모이고 흩어지는 데 관계없이 없어지지 않고 사대의 바탕을 이룬다.

불깡통이 불바퀴 원둘레 360도 모두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불바퀴를 시계에 비유한다면 불깡통이 12시 위치에 있다가, 3시 위치에 있다가, 6시 위치에 있다가 9시 위치에 있는 등, 불깡통의 위치가 계속 변한다. 순간순간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매 순간 불깡통은 불바퀴로 보이는 원둘레상의 어느 한 점에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불바퀴는 실재가 아니고 잔상효과(殘像效果)에 의한 착시현상(錯視現象)일 뿐이다.

이 잔상효과 자체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다. 달리는 말을 사진 찍으면, 사진 속의 말은 멈추어 있다. 그러나 연속사진을 찍어 1초에 24장을 돌리면 말이 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활동사진은 이 잔상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활자문명이 영상문명으로 바뀌면서 잔상효과는 더욱 중요해졌다.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십육관법(十六觀法)의 첫 번째인 초관(初觀)은 일상관(日想觀)이다. 극락세계를 관(觀)하기 전에 관법(觀法)을 확립시키기 위한 관(觀) 연습인 셈이다. 서쪽을 향해 단정히 앉아서 마음을 굳게 간직하고 오로지 해 생각에만 전념한다. 지려는 해가 서쪽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본다. 그래서 눈을 감거나 뜨거나 그 해의 영상이 명료하게 보이도록 한다. 이 역시 잔상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지는 해를 보도록 한 것은 해가 크게 보일 뿐 아니라, 눈을 상할 염려가 적기 때문이다.

생사가 되풀이되는 윤회도 선화륜과 같아서 윤회가 실재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의 전도(顚倒)된 착각에 따른 망상(妄想)일 뿐이다. 청화 스님의 은사이신 금타(金陀) 대화상께서 말씀하셨다. "한 티끌을 잘못 보면 망녕된 생각이 되고, 바로 보면 참깨달음이 된다. [일미(一微)를 오견(誤見)하면 망상(妄想)이 되고, 정견(正見)하면 진각(眞覺)이 된다.]

〈金剛心論 제4편 宇宙의 本質과 形量 序文 중에서〉

〈배광식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㊼ 이해의 길 27

불성과 여래장, 불교 휴머니즘

'불성, 여래장사상은 불교가 아니다.' 이는 1990년대 일본에서 시작된 '비판불교'의 시각이다. 이들은 대승불교의 불성과 여래장은 붓다가 강조한 연기, 무아의 가르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다. 붓다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고 했는데, 불성과 여래장은 힌두교의 아트만(Atman)처럼 불변하는 실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불성, 여래장을 불변하는 실체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점에서 비판불교의 대승불교 비판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말로 불성, 여래장을 아트만처럼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공사상이 대승초기에 유행했다면 불성, 여래장은 대승중기 대략 300~650년 사이에 발달한 사상이다. 모든 생명은 붓다(佛)가 될 수 있는 가능성(性)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불성사상이며, 일체가 여래(如來)의 씨알(藏)이라는 것이 여래장사상이다. 용어는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와 맥락을 지닌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붓다의 성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가꾸어 실현하면 깨친 붓다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사상이 '~이 아니다.'라는 부정의 방법을 통해서 존재의 실상을 드러냈다면, 불성사상은 이를 매우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공사상은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연기의 대승적 해석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공사상은 현상적인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사상으로 오해받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면 인연이 만들어내는 현실세계를 모두 부정하는 염세적이고 허무적인 사상으로 흐를 수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상이 필요했는데, 불성과 여래장이 보완 역할을 한 셈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여래장경〉과 〈열반경〉, 〈승만경〉 등은 이러한 요청으로 역사에 등장한 경전이다.

불성, 여래장을 영원불변하는 실체로 해석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비판불교의 지적처럼 이렇게 되면 무아의 가르침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그렇게 비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불성사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외치고 있는 불교의 휴머니즘(humanism)이다. 인간은 피부나 성별,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가 존엄한 존재다. 왜냐하면 모두가 붓다의 성품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열반경〉에서는 이를 '일체의 중생이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一切衆生 悉有佛性)'는 입장으로 정리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로 〈법화경〉에 등장하는 상불경(常不輕) 보살을 들 수 있다. 이 보살은 글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언제나(常) 가볍게 여기지 않는(不輕)' 인물이다. 그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당신은 거룩하십니다"고 말했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해서 상불경 보살을 때리기도 했지만, 그는 진심을 다해 모든 사람을 붓다처럼 예경했다고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모든 사람은 붓다의 DNA, 즉 불성을 지닌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분이 천하다고 해서 함부로 하거나 해치는 일은 다름 아닌 불성 모독죄에 해당된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휴머니즘을 영원불변하는 아트만이나 영혼, 윤회하는 주체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불성, 여래장 사상이 비록 대승 중기에 등장했지만, 그 바탕은 붓다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본래 마음이 청정하다는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이나 붓다의 마지막 유훈인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自燈明)는 가르침이 대승에 이르러 불성으로 새롭게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높다.'는 붓다의 탄생게 역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선언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 존엄한 불성을 실현시키는 것이 붓다의 아들(佛子)로서 해야 할 일이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이 주인인 세계,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결정되는 헬(hell)조선의 사회에 살고 있다. 불성, 여래장은 이를 부정하고 모두가 본래부터 금수저임을 밝히고 있는 사상이다. 이것이 곧 헤븐(heaven)조선을 지향하는 참다운 인본주의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종정예하 주석도량

해운대 해운정사

주 지 능 혜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로 40-6 (해운정사) 전 화 051) 746-2256 / 744-4812 홈페이지 www.seon.or.kr

39년 전통 전국 최초 최고 명품교육

부산불교교육대학

불자 양성 교육 포교 의

새 지평을 열다

2020학년도 입학식 : 3월 5일(목) 오후7시

강의시간 : 각 과별 매주 1회 오후7시~9시

기초교리학과 (6개월, 월) 주간반(수. 오후2시~4시)

불 교 학 과 (1년, 목) 대 학 원 (2년, 화)

불교문화학과 (6개월, 수) 불교문화포교사 (민간자격등록 제2018-000374호)

문 화 강 좌 (수화 월, 합창 월, 다도 월, 대금 목, 사물놀이 금)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빌딩 5층(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Tel. 051-711-0700

2020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대한불교조계종

해운정사

부설 청명노인복지센터

주지 센터장 **청명**

육재일 법회안내
(음) 1월 하루 (음) 15일 보름
(음) 7일 아라한재일 (음) 18일 지장재일
(음) 8일 약사재일 (음) 24일 관음재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2길 35 (송현동 1928-13)
전화: 053-621-6237 팩스: 053-621-5933
cjdaud6237@naver.com



'지장천도 영험기도도량'

팔공산 천룡정사

'탄생불'

주지 **지덕**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시원길95
TEL 054)336-0052 FAX 054)336-0053
H·P 010-5153-0052



봉화산 대명사

회주 **석해**
주지 **석불**

사부대중일동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대동마을길 100-122
TEL. 054)334-0705



큰 사람을 키우는 민족사학
자비와 지혜를 배우는 전법도량

학교법인 **능인중·고등학교**
능인학원 **상아유치원**

이사장 **종화 도진**
상아유치원장 **정인애**
능인중학교장 **정영채**
능인고등학교장 **김원술**
교법사 **서정·문수**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7 (지산동800)
중학교 053-232-9104 / 고등학교 053-235-4414 / 법인 053-232-9175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청안**

사부대중일동

경북 예천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한 보물 **윤장대가 남아있는 천년고찰**이다. 윤장대는 대장전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내부에 불경을 넣고 돌리면서 극락정토를 기원하는 의례를 행할때 쓰던도구로 유일한 중요 문화재인 **회전식 장경각**이다. **성보 박물관에는 탱화와 영정, 불상 등 많은 불교유물이 전시되어있다.**

사찰문화를 체험할수있는 템플스테이도 운영



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
054)655-1010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산 축서사

주지 **무여**

사부대중일동

보궁기도
참선법회
템플스테이
불교대학
은빛노인대학

경북 봉화군 물야면 월계길739번길
054)672-7579



대한불교조계종

남장사

주지 **성웅**

사부대중일동

- 영산회괘불도보물 제2007호 지정 : 야외 불교행사인 영산재에 사용된 불화
- 범패 최초 전래지
- 상주시 종합 사회복지관 부설 보광어린이집 운영

경북 상주시 남장1길 259-22
054534-633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문경지원

지원장 **청보**

사부대중일동

보배는 자기한테 있으니 부드럽게
편안하게 웃으면서 살아가라.

황토방 템플스테이 운영

경북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054)555-8871

대한불교조계종

봉정사

회주 **호성** 천등선원
주지 **도륜** 사부대중일동

봉황이 머무른 자리
영산암에서의 하룻밤
하루 템플스테이 특별 템플스테이

세계문화유산 봉정사

홈페이지 www.bongjeongsa.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doryundang
인스타그램 bongjeongsatemplestay
카카오스토리 story.kakao.com/bongjeongsa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Tel (054)853-4181 / Fax (054)853-4185

불사 대신 택한 난치병 환자 후원

연꽃 108사찰 순례단, 회향 성금 4480만원 기탁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관세음보살상 불사를 목표로 전국 사찰 108곳을 순례한 '연꽃 길 따라 함께하는 108사찰 순례단'이 불사 대신 생명살리기에 동참했다. 생명을 지키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3년 가까이 마련한 불사금을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에 기탁했다.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구랍 22일 동의대 내 안국사에서 '연꽃 길 따라 함께하는 108사찰 순례단'의 난치병 환자 돕기 후원금 전달식을 봉행했다. 전달식에는 순례에 참여한 불자 130여 명이 동참했다.

순례의 마지막 회향처로 안국사를 찾은 불자들은 법당에 모여 참배하고 3년 동안 이어온 기도가 바르게 회향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하며 손을 모았다. 아울러 서로 도반들을 격려하면서 그동안 모은 성금이 잘 전달 돼 병마로 고통 받는 환우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기원했다. 이 자리서 순례단은 회비, 순례 경비 및 보시금으로 모은 성금 4480만원을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순례단은 부산 운수사 신도들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관세음보살 불사를 위해 232명이 의기투합했다. 2017년 2월 19일 삼보 사찰인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를 시작으로 순례를 시작했으며, 이후 매월 넷째 주 일요일마다 사찰을 방문하

3년간 108개 사찰 방문한 원력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에
성금으로 기탁… "순례가 수행"
장기기증 희망등록에도 동참

고 108배 참배와 108 염주만들기 등으로 기도를 이어갔다. 3년간의 일정을 진행하던 순례단은 회향을 맞아 참된 불사가 무엇인지 고민했다. 순례단은 고민 끝에 자비행으로 회향할 것을 결정, 난치병 환우를 위해 불사금을 쓰기로 했다. 이날 108사찰 순례단은 장기기증회원으로 12명이 등록했으며 후원회원에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연꽃 길 따라 함께하는 108사찰 순례단'은 관세음보살상 불사 대신 난치병 환자 지원을 회향처로 선택, 4480만원의 성금을 부산생명나눔에 전달했다.

본부장 원범 스님은 "그동안 매달 환자를 선정해 도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성금은 부산본부에서 처음 받는다"며 "치료비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소식을 들을 때 마다 안타까웠다. 성금을 잘 전달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박정숙 단장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이뤘는가'라는 화두를 받고 관세음보살상 불사를 시작했는데 매달 다니는 순례길이 어떨 땐 고행의 길로 서로를 성장하게 해줬다"며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함께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불교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장기기증운동과 의료복지운동을 실천 중이다. 주요사업으로는 각막, 신장, 골수 등 장기기증자와 수혜자를 이어 주는 결연사업과 헌혈사업, 환자 지원사업 등 펼치고 있다.

부산 장안사 주지 무관 스님 취임

고불식서 "신도조직 활성화 노력" 다짐

천년고찰 장안사가 주지 고불식을 봉행했다. 새롭게 취임한 주지 무관 스님은 신도조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부산 장안사(주지 무관)는 구랍 26일 경내 설법전에서 고불식을 봉행했다.<사진> 주지 무관 스님은 무엇보다 포교활동을 강조하며 "신도조직 활성화를 위해 일요법회를 새롭게 열고, 신행생활을 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지 무관 스님은 1985년 8월 인각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7년 범어사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0년 범어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범어사 강원에서 사집과 중



강을 지내고 마곡사 수선안거 이래 제방선원서 11안거를 성만했다. 범어사 포교국장, 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 철학과 석사과정을 졸업,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4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 조계종 환경위원장을 맡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진안 쌍봉사, 어르신 섬김봉사잔치

진안 봉사센터와 향후 2년간 봉사잔치 약정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가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제2회 진안군 어르신 섬김봉사잔치'를 개최했다.<사진> 구랍 23일 진안문화원 마이홀에서 열린 잔치에는 진안군 관내 복지사각지대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100여 명이 초청됐다.

이날 진안 쌍봉사와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는 향후 2년간 어르신 섬김봉사잔치에 대한 후원을 약정했다. 또 쌍봉사는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마을밥상' '사랑의 백미나눔' '사랑의 집 신축후원'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쌍봉사 섬



김봉사단과 함께 지역을 위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오늘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정계율 불교조계종 여주 본산서 송년법회

한 해 공로자 표창 수여식도

청정계율 불교조계종(종정 혜인)은 구랍 24일 경기도 여주 썬밸리호텔에서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종정 혜인 스님과 총무원장 권한대행 법광 스님, 각 종무원장 및 종도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혜인 스님은 법문을 통해 "과거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 7명의 부처님이 계셨다. 부처님 모두 '악을 멀리하고 선을 봉행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청정하게 사는 것이 곧 불교"라며 "매일 잠들기 전 오늘 내가 청정했는가, 부처님 말씀과 함께 했는가 등을 돌아보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법문했다.

법회에서는 한 해 동안 종단발전을 위해 공적을 쌓은 공로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가 이뤄졌다. 포교대상은 금산 · 법철 · 율조 · 법성 스님이, 공로대상은 법산 · 지견 스님 · 김준자 신도회장이, 봉사상은 이순자 · 이강익 · 김진숙 · 정복순 씨가 받았다. 윤호섭 기자

연탄 나눔으로 따뜻한 불국토 발원

부산 포교사단, 자비 연탄 · 이불 개금3동 철로변 마을 직접 전달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우리들의 복밭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골목에 연이어 줄을 선 포교사들이 연탄을 나르기 시작했다. 바람은 차가워도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선 포교사들의 함박웃음이 열악했던 길목을 채우고 곳곳에 따뜻한 온기로 바꾸었다.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정분남)이 추운 겨울 연탄나눔으로 자비행을 실천하고 온정을 전달했다.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구랍 21일 부산 개금3동 철로변 마을에서 자비의 연탄나눔을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 동참했다.

부산 포교사단은 개금 철로변 마을에 위치한 20세대에 연탄 1000장을 직접 전달했으며 아울러 겨울용 이불을 함께 지원했다. 이 자리에는 정분남 부산포



부산 개금3동 철로변 마을에서 연탄과 겨울 이불을 나눈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교사단장을 비롯해 포교사 200여 명과 류강렬 개금복지관장 및 직원들이 동참했다.

정분남 단장은 "이웃에게 따듯한 온정을 나누기 위해 행사에 동참해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며 "이곳은 저희에겐 복밭이다. 복을 지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포교사단은 100일 동안 금강경 독송 수행을 진행하고, 기도동참금을 십시일반 모아 무료급식소에 백미 20kg 30포대를 전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응공사 자혜불교대학 동지법회

1200인분 팥죽 달서구 주민들과 함께 나눠

대구 달서구 와룡산 대응공사 자혜불교대학은 구랍 22일 경내 큰법당에서 동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는 천수경 봉독, 권공, 육법공양, 공양게, 반야심경 봉독, 발원문 낭독과 참회진언 속에 연비의식이 진행됐다. 이어 2020 경자년부터 활동할 새로운 신도회장단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공로패, 보현패, 문수패 등을 27명에게 전달했다.

학장 도경 스님은 "어둠을 밝히는 동지의 의미에 따라 불행을 경사로 만들어가자. 초발심을 잊지 말고 주위 사람을 참 벗으로 삼아 허물을 말하지 않으



며, 항상 청정한 불자의 마음가짐으로 부처님 같은 삶을 살자"고 당부했다.

한편 대응공사 자혜불교대학은 동지법회에 앞서 구랍 18일 달서구 신당복지관에서 1200인분의 팥죽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2020년 새해 福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사상구 불교연합회

고 문 청 강(옥천사) 혜 지(낙은사) 경 호(법성사)
성 비(영수암) 법 공(칠보정사)
회 장 성 문(선광사)
수석부회장 범 일(운수사)
부 회 장 지 관(약수암) 대 둔(용운사)
무 문(옥천사) 성 림(관음사)
총무국장 법 경(광명사)
포교국장 은 적(관음사)
사회국장 항 공(견강암)
감 사 혜 산(봉덕사)

사상구 불교연합회 회원일동

사상구불교연합회 신도회

회 장 이상갑
자문위원장 심인택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804번길 32-123(선광사) Tel. 051)303-4848

부산광역시

동래구불교연합회

원로의원 월봉(효자암) 월광(금어암)
혜성(금강암)
자문위원 도문(전등사) 대원(금불사)
회 장 효문(효심사)
직전회장 자관(자비암)
부 회 장 해운(용수달마사) 법관(몽불사)
사무총장 용하(용문사)
재무국장 묘전(몽불사)
감 사 법천(무량사) 법광(무량정사)
회 원 혜민(천불암) 안국(부전선원)
각진(법륜사) 무상(미타사)
유심(반야선원) 지훈(영주암)
보성(성불샤) 성화(용와사)
지훈(해동암) 후담(심불사)
해륜(해륜정사) 혜인(참회지장사)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37번길 31 6층 (효심사)
전화:051)558-2108

화합으로 포교에 앞장서는

부산진구 불교 연합회

고 문 월천 혜총
회 장 탄경 세운
수석부회장 화산 정현
상임부회장 여산 원타
부 회 장 지명 지원
감 사 태산, 보원
재 무 월륜 춘제
총 무 해운 도원
의 전 월화 법봉

회 원 백설 인수, 석만 도관, 대유 시광
무심 법지, 승호 원종, 원상 정사
보문 효진, 덕난 무애, 선각 운곡
안국, 법담, 상보, 지공, 지선, 선혜, 진여

전통과 문화가 숨쉬는 백옥 관음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적멸보궁 전통사찰

고 불 사

회 주 산 해
주 지 도 은

천일관음기도 및
33관음성지순례 봉행

불교대학 : 매주 수요일
금강경강의(설법전)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 28번길 77
안평역 3번 출구 700m 전화 051)721-2927
법당문의 010-3891-2137

대한불교조계종

쇠미산 금용암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연제구 성지곡로111(거제동) 전화 : 051)501-6300

사)향기로운 문화동행

이사장 보 혜

동 행 장 학 회 회장 정원기
기장차문화대학 회장 이원숙
원장 김진옥
청량선문화원 원장 장외숙

문화사찰 청량사 주지 석 보혜 外 신도일동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임밖길 12
(지하철 안평역 4번 출구) / 전화 : 051)723-1851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

지 원 장 김수현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92 3층

(재)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부설) 법 계 정 사

신도회장 배래순(반야림)

대한불교조계종 인가교육기관

로 터 스 불 교 대 학

학 장 혜 총
운영위원장 배래순

주소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43 정인빌딩 6층, 7층
전화 051)853-2021, 2036





KUmuda
복합문화공간

'당신의 삶에 작은 쉼표 하나'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사단법인 쿠무다가 함께합니다.

KUmuda Healing Village
지하 2층, 지상 8층 850평 규모

옥상 바다법당_기도 및 명상공간
6~8F 힐링 빌리지
5F 문화교육센터 / 옥상정원
4F 평생문화교육센터
3F cafe 쿠무다 / 교육관
2F 프렌치 레스토랑 / 교육관
1F 주차장 / 휴게시설
B1 문화예술공연장 (250석)
B2 레스토랑 / 쿠무다 사무국

부산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62
Tel. 051-701-7559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75호 | A23 | 전면광고

믿음을 내고 의심을 품지 말아라.
믿음이 곧 부처님 자체이므로
꼭 해탈을 얻게 하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대승밀엄경》에서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 • •
창원 문수사 공양주,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사찰운영 및
운전가능 하신분
• • •
창원시 합포구 교방남4길
95-8 문수사
010-3132-9666

금생성불의 비법!!

화엄경의 비밀을 밝힌다!!

- 해인삼매를 터득하면 즉신성불한다.
- 믿음은 법신불에 대한 믿음이다.
- 발 보리심은 법신불로부터 받는 것이다.
- 시공을 초월한 신통력자가 된다.

•• 안내서를 보내겠습니다. ••

010-7131-7084

★책-검색★

①**인생최고의 깨달음**(참불교)
②**천기소설 예언자**(현존불)
③**기도와 명상**(최상수행법)
④**천등산**(신통해탈기도비법)
⑤**출세의 기술**(성공출세술)
⑥**운타이밍재테크**(평생부자)

위 책이름검색 / 1권 구입해보세요

문의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아는소리 공개강좌

(3개월 단기교육 완성)

"스님의 말씀이 곧 법문이
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3개월 교육비 : 5백만원**
- **교육시간 : 주2회 (2시간씩)**

※ 영점이나 정성술이 아니고 정확한 명리학 통계 데이터(공식)입니다.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84번길 48 공단상가 4층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 석지성 합장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 • •
부산 도심 사찰
스님이 되고자 하시는분
도심포교 할수 있는 분
모십니다
• • •
010-3885-8989

벼락맞은 대추나무 진품(眞品)

부처골 지장선원

010-8585-4908

정재가 필요합니다

저는 5계를 철저히 지키는(채식, 금주, 금연) 조계종 소속의 독신 포교사로서 생활불교 실천을 위한 불교수련원, 불교요양원 건립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실(대여) 선우를 찾습니다.
(무상보시는 원치않습니다.)
해월산 在禪 합장
010-7572-5358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인연을 찾습니다

작은(기도터)비구니스님
무속보살님경남최고명산

- **37세(여) 경찰공무원**
- **57세(여) 전문대졸**

결혼할남성

010-3257-5182

구하면

얻어지는 기도법을 스님께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단원 정통 명리학

- 교육 : 수시접수 | 초급, 중급, 연구(격국)반 접수 | 1년 과정 — 수강료 : 360만원
- 단원 정통 명리학 : 실증철학 정규과정 수강생 접수 — 단원역리학협회 법인 자격증 제도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 학문

지현명리연구원 : 역학전문교육처 志晛 : 韓 基子(恩炅)
명리학 / 작명학 / 육효학 / 간지체성론과 육십갑자론(특허)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명륜4가 54-1 3층 웹사이트 cafe.daum.net/3332han cafe.naver.com/3332han

단원역리학협회 010-4470-6314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 **매주 화요일, 수요일 주 2일 [월 8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 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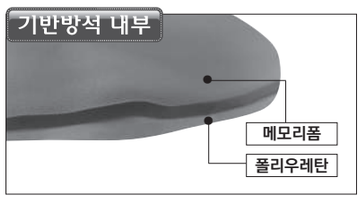
02)2004-8216 / 010-3747-8692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TEL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매듭으로 뭘 만들까요?

모던하고 멋있는 장신구는 물론,
108염주, 인테리어 소품, 단주,
묵주도 만듭니다.

매듭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드립니다.

지도 성낙윤 010-5282-8431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 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 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의 한 종류로,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 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희담석 108염주 세트 40,800원(무료배송)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계좌 안내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02)2004-8216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2004-8216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탈종공고

- 사찰명 : 삼불사
- 법 명 : 경산, 일광
- 주 소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임불1길 28-124
- 승 번 : 1206-384, 1207-318

본 사찰과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불교조계종 삼화불교 총무원장 법하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

불자정보

1275호 | A24 | 전면광고

악을 싫어해 멀리할 것이며 술을 절제하고
덕행 쌓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마라.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삼보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8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34평
◎ 요사 : 34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대지 : 196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6억 8천

❖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절대 비밀보장 ●
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포교원 전세 안내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루원시티(인천전철2호선 5분거리, 서울7호선 연말개통)교통편리
- 주변재래시장 인근 유동인구 최다, 20년 운영중인 포교원
- 3층건물 : 반지하 1층 요사채(방2개, 공양간, 야외화장실), 2층 주지실, 상담실겸 서재, 거실. 3층 법당, 제반시설 완벽하고(삼존불, 신중탱화, 칠성, 산신, 소불, 인등)
- 주차장 및 도시가스 시설 완벽, 몸만 오세요
- 전세 사신 후 저렴하게 양도가능, 투자가치 확실
- 전세보증금 : 2억(절충가능)

문의전화 010-5002-7392

강남건물 안내

- 가액 : 41억
- 위치 : 서울 서초구 논현역 1분, 신사역 5분
- 대지 : 78평 • 연면적 : 165평
- 규모 : 지상1층 ~ 5층 2009년식, 승강기

010-5334-9814

광진불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00평
◎ 법당 : 50평
◎ 요사 : 60평 외
◎ 매가 : 27억 5천

◎ 위치 : 강원도
◎ 부지 : 7000평
◎ 법당 : 30평,외
◎ 요사 : 60평,외풍광보장
◎ 매가 : 20억 5천만원정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채권 채무상담 받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 임대합니다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근처에 있는 사찰
- 대지 700평 : 대웅전. 지장전. 관음전. 산신각. 요사채
- 전세 5천만원 / 월 50만원
- 공양주가 있어야 함

010-3636-6477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산청군
-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부속건물: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4층 건물에 3층, 40평
- 법당, 상담실, 방2, 주방, 화장실, 주차장, 옥상에 창고사용, 도시가스
- 보증금 1500만원 / 월세 50만원 (시설비 협의)

010-8695-6537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 50평 • 요사 : 65평
- 대지 : 5백평 • 임야 : 4천평
- 가액 : 11억

010-4547-4990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 종무소.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2층 공양간 / 3 층 법당(큰법당)

011-9394-8511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1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정류장 앞, 옥상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1,900만원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99만원

02-957-0824
010-7409-0490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가능)

010-5421-1536

스님을 모십니다

- 부산북구 재래시장 근처 신협~농협중간
- 건물2층 60평 냉온난방, 보안, 주차시설
- 포교원을 운영하실 스님 연락 주세요!
- 월세30만/관리비10만

010-4535-2568

사찰 안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사찰(급)다용도 안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 대지173평, 임야(밭)39평
- 건축 : 1층식당 7평(32평6홉) 방5개, 거실1, 실내화장실3개, 실외2개, 2층다용도(삼존불)외 논17평5홉
- 상수도, 용천수, 산천수(풍족)
- 가액 : 2억9천만원(절충가능)
- 농협은행 1억7천만원 담보대출

010-9612-1022

토굴 안내

- 위치 : 영덕군 창수면 소재 토굴양도
- 법당, 산신각, 요사채 각 1동
- 가액 : 3천8백만원
- 문중땅 도지세 1년 20만원

010-5714-787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경관 수려하고 아늑한 모든것이 완벽한 사찰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 대지 1천평, 임야 1천평, 법당 35평,산신각, 종각 육송소재, 주지실 14평, 요사채 60평
- 지하창고12평,화장실,욕실,차고 25평
- 가액 : 7억 5천만원(대출4~5억 가능)

011-9324-4461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 3층건물중 3층(약70평)
- 삼존불, 원불280불, 산신각
- 보증금 1천만 / 월 60만
- 시설비 : 협의후 결정

010-2125-4684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 2층건물에 2층, 약 80평 쑥뜸방 약 20평 겸업, 고정수입 있음.
- 삼존불 봉안, 호신불, 108불
- 보증금 250만 / 월 35만
- 시설비 3천5백만(조정가능)
- 역학하시는 분이나 법사 환영

010-9422-1233

포교당 안내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전세5천만원/월세50만원
- 시설비 1천 5백만원
- 도로변 상가건물 2층
- 132m²(40평) 법당, 접견실, 방1, 주방, 화장실

010-2535-9910

사찰 안내

- 위치 : 창원역 15분. 마금산 온천 5분 거리. 신도시 개발지 인접 • 대웅전(단청완료). 삼성각. 주지상담실(황토방). 요사채. 공양간. 대형 저온창고 대형창고 2개. 차고. 주차장 500평 • 총면적 : 6,200평 • 사찰 투자가치 35억 상당(신도시개발로 땅값상승함) • 가액:13억 (대출금5억포함) • 계약시 3억 주시면 등기부등본 이전해드림. 잔금 5억은 5년간 연차적으로 불사금으로 완납가능
- 신도시 개발로 4차선 30%진행중
- 대형버스 진입 공사 2차선 연결중

010-9647-0723

포교원 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4층 건물 내 2층(45평). 시설 특A급
- 법당 : 칠보 삼존불(석가, 관음, 지장) 천수천안. 신중단. 영단. 수미단 3단
- 소불 : 550불. 법당, 요사, 공양간, 창고
- 촛대, 향로, 불기, 다기(전체 방자) 등 320개
- 보증금 1천만원 / 월 35만원
- 시설비 : 3천 5백만원

010-8424-0042

도심 속 사찰명당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대지 : 262평
- 건물(판넬주택) 50평, 거실, 주방, 방2, 화장실, 조경, 주차시설완비
- 가액 : 9억3천만원(절충가)

010-2051-2588

토굴 터 전세

- 산자수려하고 한눈에 계룡산 전망을 볼 수 있는 명당 자리 전세놓습니다.
- 위치 :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하신소1길 56
- 가액 : 전세 1억(절충가능) (바로 입주 가능)

암자 안내

- 위치 : 태화산 경내 암자(효심원)
- 평수 : 약 2천평 • 가액 : 전세 1억5천만원
- 좋은 조건으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010-4233-3459

사찰·터(암자,포교당)상담전문

살분 ⇄ 팔분

- 사전문 중개한 경력이 많음
- 전국 보유하고있는 정보 많음
- 비밀보장, 일 처리가 원만합니다.
- 성심성의로 상담합니다.

(불자업소)공신공인중개사

010-3382-0555

사찰(급)안내

- 부산시 동구 좌천동 사찰 대지 133㎡(40평)
- 2층 법당 826㎡(25평 1층 요사채 76㎡(23평)
- 가액 : 2억5천 인수 급 양도

010-3808-4499
051-861-9300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포교원 안내

- 경남 진주시 봉곡동 서부시장 입구
- 5층건물중 3층, 40평, 방2개, 주방, 화장실2개
- 전세2천만, 월세 40만, 시설비1천5백만
- 삼존불(소불104위)에어컨일체
-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010-8503-576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 미로시장 입구
- 2.3층 30평씩 2층법당 3층공양간
- 보증금1천5백 / 월57만
- 시설비 절충

010-8339-5525

◑ 입종 안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불교조계종대학림 02)511-1080

불교조계종(총무원) Tel 02)511-2026~7 | Fax 02)511-2028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익산 근교 종중땅
- 평수 : 850여평중 텃밭432평,국유지250여평,법당30평,요사채2,종각,논1200평 • 타인에농사 맡겨 백미80kg 10가마 수입 • 위 건물과 전답, 국유지는 승계 개인화 • 사찰 모든 권한위임을 서류로 해줌
- 가액 3천 5백만원

010-7182-7646

사찰 기도(터) 안내

- 위치 : 부산 신평
- 토지 : 5,000평
- 주거지역 포함 (은) 3억3천
- 가액 : 7억 2천만원
- 위치 : 밀양 초동 토지 1136평
- 관리지역 (은) 1억5천
- 가액 : 1억6천만원

010-9906-3631

포교원 할분

- 위치 : 서울 강서구 목동 사거리 남부시장옆
- 2층건물 2층 25평
- 권리금 없음
- 보증금 일백만원
- 월세 오십만원

010-5381-1419

출강 및 통신 2020학년도 29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29년의 전통과 법사 양성 기술 축적을 자랑과 긍지로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① 법사자격 법위품수를 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입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02)733-1959
720-1836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0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치유 · 평화 · 행복의 여정 '명상'



최훈동의
마음 사용 설명서
① 진정한 '나'로의 길



연재에 들어가며

명상은 동양의 마음 치료법이고 정신치료는 서양의 마음치료법이다. 양자는 모두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여 평화와 행복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같다. 불교 또한 마음을 잘 이해하고 다루어 마음의 모든 번뇌가 소멸된 니르바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위 둘과 같다. 따라서 명상, 불교, 정신치료는 마음공부(心學)라는 점에서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삼자 모두 우리의 마음이 공부와 노력에 의해서 우리 모두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헤쳐나갈 힘이 우리에겐 갖추어져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뇌과학의 발전으로 변화할 수 없고 재생 불가능해보이던 뇌세포들이 신경 가소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무한한 변화로 새로운 신경 회로들을 만들어낸다는 게 입증되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면을 조절 가능하다는 명상의 인식과 일치한다. 본고는 명상과 불교와 서양의 정신치료를 융합하여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잘 다스리고 길들이는 마음공부를 함께 배우고, 마침내 내면의 지혜와 자비를 일깨워 진정한 나로서 살아가는 길을 차근차근 밟으려 한다. 마음이 아픈 이에겐 치유의 여정이 마음이 괴로운 이에겐 평화의 여정이, 마음이 불행한 이에겐 행복의 여정이 될 것이다.

마음 사용의 첫걸음

마음이 내 마음 같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구요? 어떻게 하면 마음먹은 대로 마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 눈을 감고 자신을 들여다 봅니다. 마음이 어떤가요?

편안한가요?

아무 잡념 없이 고요하고 평화롭다는 분들은 눈을 뜨고 나가십시오. 여기 계실 분이 아닙니다.(웃음)

아니라면 현재 내 마음이 어떤가요? 이제 편치 못한 분들도 눈을 뜨세요.(웃음)

복잡하고 수많은 걱정 근심과 상념들이 오가고 마음이 들끓고 뒤엉켜 실타래 헝크러진 듯하고 앞날이 불안하고 출렁이고 비탄, 슬픔, 분노, 원망, 후회, 비교, 질투, 실망, 절망, 그만 살고 싶고 살아서 무엇하나 회의하고 아무 의미를 못느끼겠고 암울하고… 이 중 어느 하나나 여럿이 해당되는군요. 또는 모두 다인 경우도 있군요.

괜찮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현재 이 마음에서 깨달음은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이러하구나라고 아는 것 자체가 자각이요 깨달음입니다. 이 마음의 현주소에서 출발합니다. 좀더 명료하게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듯이, 괴로운 마음을 극복하려면 괴로운 마음의 상세한 내용을 애매하게 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명료한 앎은 깨달음의 기본입니다. 명료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외면하고 대충 보거나 흘낏 보는 것은 잘못된 앎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제 깨달음으로 향하는 여정의 한 걸음을 막 떼었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볼까요?

어떻게 보는 게 바른 '봄'일까?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파도를 만나며 삽니다. 병들고 늙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가 아픕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안타까움이 아기의 아픔보다 더 아픕니다. 그러나 부모가 마음 아파한다 해서 아기의 병이 낫지 않습니다. 부모가 대신 아파줄 수 없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파도도 모두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그 극복도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누가 대신 해결해주기를 기대하나 그것은 허망한 기대임을 우린 곧 경험하곤 합니다.

자 이제 '마음 바라보는 이 한 길이 모든 해결책 가운데 으뜸이자 전부' 라는 달마 조사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괴로운 마음을 해결하려면 마음을 잘 보고 이해하는 게 우선 할 일인 건 분명합니다. 마음을 건성으로 보고 대충 봐서는 이해할 수 없지요.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하는 건 아기의 병을 잘 보고 정확히 진단하여 처방하는 의사의 자세입니다. 부처님을 대의왕이라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부처님도 마음의 괴로움을 겪었기에 마음의 대의왕이 되신 것이지요.

이제 현대의 정신의학 및 심리학과 동양의 심리치료인 불교의 명상법을 조화롭게 다루면서 마음을 잘 다루는 법을 함께 정립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정신의학 · 심리학 통한 정립
명상의 불교 기원 조명 시도
마음의 사용방법도 함께 제시

삶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다.

살면서 우리는 격정에 휩쓸리곤 합니다. 화를 걷잡을 수 없고 슬픔을 가눌 수 없고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왜일까요?

많은 고통이 관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이나 직장 탓을 하고 부모나 배우자 탓을 하고 자식 탓을 하며 신세 한탄을 하지요. 모두 관계로부터 비롯된 고통이군요. 사실 경제적 고통이나 재난들도 관계에서 온 것이지요. 내 안의 단독 문제라기 보다 상호 관계, 상호 작용에서 발생한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을 잘 들여다 보는 것만으로는 고통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 관계를 보기 위해서 남의 마음도 잘 보아야 하겠군요. 그래서 나홀로 편안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 평화 속에 있다가 관계의 돌풍이 몰아치면 어느새 소용돌이로 휩쓸리곤 합니다. 감정의 격랑이라 할 수 있겠군요. 사실 감정이 평온하게 늘 유지되는 평정심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이 요동치는 경우를 잘 보아야겠지요.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해 가노라면 어느새 마음의 힘이 커지면서 웬만한 자극에 감정이 무너지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음의 힘 배양하기

그 마음의 힘은 어떻게 배양할 수 있을까요? 참아야 할까요? 참으면 병이 되지요. 표출해야 될까요? 그 즉시 표현하면 시원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감정이 꺼지긴 커녕 더 드세집니다. 인류가 생존한 이후 사용했던 방식이 바로 피하거나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와 맞닥뜨렸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도망치거나 돌아서서 싸우거나 두 가지 방법 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삼의 방법이 있을까요?

예. 호랑이와 대화 나누고 친구가 되는 길입니다. 쉽지 않겠지요.

선사들은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넣어라.' 고 말합니다.

온몸이 삼켜지는 길인데요.(웃음)

잡아먹으려 으르렁거리는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미는 길입니다.

가능할까요?

호랑이가 무엇인가요? 고통입니다. 머리를 드민다는 것은 고통과 피하지 않고 직면함이고 삼켜진다함은 고통을 충분히 경험한다는 것이지요. 고통스럽다고 피하거나 무지하게 참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호랑이 아가리에 삼켜지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힘- 관찰력이 커져야 합니다. 관찰을 잘 하려면 집중력이 커져야 합니다. 명상 시작 무렵엔 호흡에 집중하려 해도 금방 잡념으로 빠지곤 합니다. 호흡을 놓치지 않고 잘 보려면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집중력과 관찰력을 키우려면 역시 명상하는 게 으뜸입니다. 많은 서구 학자들이 동양 명상에 대해 연구하여 내린 결론입니다. 집중력과 관찰력이 늘어나면 창의력까지 키워진다는 연구이지요.

명상의 기원

이제 명상의 기원에 대해 살펴볼 차례입니다.

인더스 문명 유적지에서 좌선하는 조각이 발견됩니다. 인도에서 명상은 5천년 역사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리안 족이 서쪽으로부터 도래하여 원주민들 위에 군림하며 토속 사상과 서구 사상을 융합하여 브라마니즘이 형성되고 그 경전이 베다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미 우파니샤드 철학이 꽃을 피웠구요. 바가받기타 등을 보면 그 내용이 불교와 방불함에 놀랍니다. 부처님은 불교를 기존의 힌두이즘(인도 사상)과 요가 명상을 배제하고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기존의 사상과 명상체계를 충실히 공부하고 마스터한 후 그 토양 위에다가 새로이 하나를 추가했으니 바로 연기관법입니다. 연기관법은 불교 명상의 핵심이니 차차 상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명상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어원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상(meditation)은 라틴어(meditatio)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심사 숙고, 묵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심신 수련의 뜻도 있다고 합니다. 명상을 불교에서는 선(禪)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를 좋아하는데 선은 산스크리트어 dhyana를 소리나는 대로 선나(禪那)로 중국 역경학승들이 번역했고 이 선나가 나중에 나자가 탈락하여 선이 되었지요(일본에선 zen). dhyana를 뜻으로는 정려(고요히 생각함) 사유수(사유하며 닦음)로 역경승들은 번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언어를 떠난 생각을 없애는 명상과는 거리가 있지요?

집중 · 관찰, 명상의 두 날개

명상은 인도나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묵상이나 관상, 이슬람교에서는 수피즘, 유대교에서는 카발라 등으로 표현하는 수련법이 있지요. 물론 인도의 요가, 중국의 기공이나 우리나라의 단학 수련 등도 포함되지요. 요가도 신체적 수련을 주로하는 핫타요가와 정신적 수련을 강조하는 라자요가가 있지요. 그러니 선은 불교명상을 지칭하고 명상은 모든 걸 포함하는 명칭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이러한 다양한 명상 유파를 일일이 다 배울 수는 없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명상은 두 날개라 할만한 집중의 요소와 관찰의 요소가 있는데 전자를 지(止) 후자를 관(觀)이라 하여 예로부터 지관병수(止觀竝修)라 하였습니다. 새가 날려면 두 날개가 동시에 저어야지요. 생각을 멈추고 고요히 관찰함이 함께할 때 마음은 밤하늘의 별처럼 밝고 반짝반짝 깨어있는 상태로 이릅니다(惺惺寂寂). 정혜쌍수(定慧雙修)라고도 하지요. 집중을 통해 선정(삼매)에 들고 관찰을 통해 지혜와 통찰(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명상입니다.

〈한별정신건강병원장〉

최훈동 원장은
50년 간 불교 공부와 명상 수행을 하고 38년간 정신치료를 해왔다.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수련을 마친 정신과 의사로 현재 한별정신건강병원장이자 서울의대 외래 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로 〈정신건강교실〉 〈나를 넘어선 나〉 〈나를 안아주는 명상연습〉 주요 논문으로 〈유식사상과 심층심리학의 비교시론〉 〈무아사상의 정신치료적 의미〉 〈사무량심과 치료적 자질〉 〈불교와 정신치료〉 등이 있다. 밴드 〈휴앤심〉에서 불교를 새롭게 조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조계종

계율청정종단

■ 종 정 혜 인
총무원장 대행 : 법 광
원 로 원 장 : 혜일
율 원 장 : 무공
중앙선원장 : 도일
■ 원로원 : 혜정,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동안, 도불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 총무원
부 원 장: 서봉금산
총무부장: 법산
재무부장: 혜만
교무부장: 혜일
사회부장: 동오
문화부장: 자명
총무국장: 남산
재무국장: 정일
교무국장: 율조
사회국장: 법일
문화국장: 화광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교육원장: 무공
교육부원장: 덕산
교육부장: 태산
교육국장: 진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부장: 송산
포교국장: 학산
국제포교원장: 천산
기획원장: 혜타
기획실장: 대덕화
호계원장: 법철
호계부장: 태산
규정부장: 명원
규정국장: 지산
호법부장: 법안
호법국장: 지호
감찰원장: 정오
감찰부장: 백산지견
감찰1국장: 금산
감찰2국장: 인산
비구니회장: 지성
비구니부장: 혜승
교수사: 덕산
비구니총무부장: 금산
부회장: 도은
재무: 정해
교무:본각, 수정
교육: 보림, 성담
문화: 남산, 진화
포교: 보명, 홍산
강원: 각원, 해인
복지: 화광, 무연
감찰: 서호, 보현
불화: 혜담, 인산
의식: 련성, 지해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현조
경기종무원장: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해인
인천종무원장: 혜원
강원종무원장: 광덕
충북종무원장: 법산
충남종무원장: 혜덕
경남종무원장: 백산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천산
경남창원종무원장: 지원
경북종무원장: 덕운
부산종무원장: 서봉금산
울산종무원장: 법철
전남, 광주종무원장: 도명
전북종무원장: 법성
제주종무원장: 청호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베트남종무원장: 청목

▣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기자: 나윤하
사회부기자: 이근진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문화국장 황산, 사회국장 법산
이사: 혜원, 정산, 각원, 덕산,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경기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경북총림 대국사
경남총림 봉곡사
제주총림 법련사

▣ 전국신도회
전국신도회장: 홍창석
고문: 설주성
수석부회장: 윤근
여신도회장: 김준자
서울신도회장: 서우연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 청년신도회
회 장: 손정일
홍보처장: 이근진
기획대리: 나윤하
기획실장: 홍의현

◆ 학교법인 삼화학원 ◆

▣ 불교조계종 대학림
학 장 : 혜일
교 수 : 해운, 진산, 태산, 덕산, 현조, 혜승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오,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 불교조계종 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교 장 : 혜인
부 교 장 : 손영진
한국총장 : 홍창석
교학처장 : 손 정
학생처장 : 지안영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총무원 :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6가길 50-1 (돈암동 83-2)
총무국 : 02)511-2026~7 / 팩스 : 02)511-2028
총무원장실 :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 02)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 02)511-1080
홈페이지 : 불교조계종.kr (www.jogye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buddhijogyes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이메일 주소 : jogyebuddhism@naver.com
samhwade@naver.com
samhwade@hanmail.net

2020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 수행이 곧 포교, 포교가 곧 수행 ”
포교현장을 찾아가는 포교사
전법의 선원을 실천하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단 장 정분남
감 사 김영신 김병관
부 단 장 송재린 박종안 이양희 주태돈
사무국장 강현중
총괄팀장 홍순창 이수임 김옥희 최우성 서영우
황기훈 심태섭 진상근 외 포교사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 501호
☎ (051) 633-3011. 3015 Fax(051) 633-3012
www.pogyosadan.org http://cafe.daum.net/bgpogyosadan

재단법인 부산동명불원 東明佛院

주 지 대옥 승찬

신도회장 성재곤 외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 57(용당동) www.btbf.kr
Tel (051)626-4337, 624-7667 Fax (051)626-4330



사하구 불교연합회

고 문 현각(서림사), 만일(미륵암)
회 장 법인(약천사)
부 회 장 혜원(성불사), 승공(칠보사)
총무국장 송우(해장암)
포교국장 자은(성불사)
조직국장 보성(무학사)
감 사 선혜(대부암)
회 원 서천(미륵암), 정홍(용주암)
지화(감로암) 지효(남원정사)외 회원일동

사하구 불교신도연합회

회 장 김흥남
부회장 조민숙, 박귀남, 김전옥, 전향란, 이보혜
김순자, 김호순, 이경순, 김정옥, 김말연
총 무 박형숙 재 무 김점순

사하 사암 무료급식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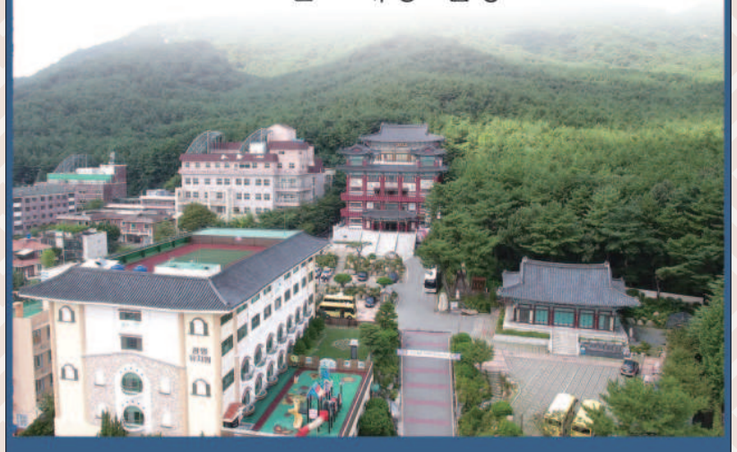
약천사, 성불사, 대부암, 길상사, 해장암,
무학사, 칠보사, 용주암, 감로암, 이경애 외 10명

▷ 운영시간 : 매주 월, 화 오전 9시
▷ 후원계좌 : 부산은행 101-2007-6614-08
사하사암 무료급식소

대한불교 천태종

부산 광명사

주지스님 이 개 문
신도회장 이 창 욱
신도대중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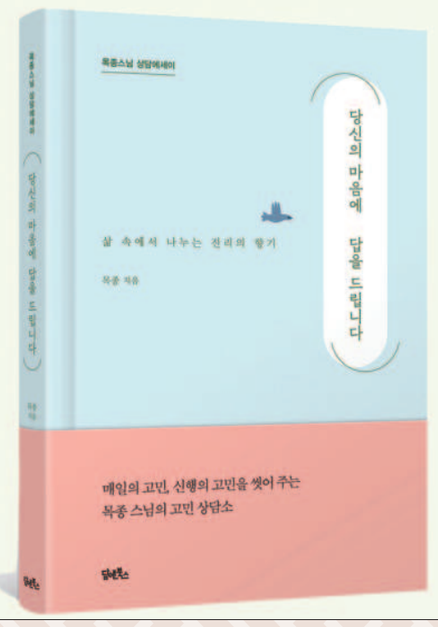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51 T.051)581-1331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대광명사

차 한잔하듯 나누는 스님과의 고민 문답
36개의 일상적 고민, 36개의 부처님 해답

당신의 마음에 답을 드립니다



목종 스님 지음

약 수 사

주 지 혜 우
신도회장 김미자
총 무 김정녀
자비회 회원 일동



부산 사하구 감천로139번가길 41
TEL 051)291-9681

자비 사랑 행복 나눔을 실천하는 사찰

백양산 참회기도성취도량

견 강 암

주 지 향 공

정각회, 금강회, 보현회, 관음회, 다도회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934번길 52-35(모라동)
(모라벽산아파트 107동 뒤편) Tel 051)361-8511 Fax 051)317-7665

미세먼지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겨 낼 수는 있습니다.

五仙 (오선) 홍도라지 津液 (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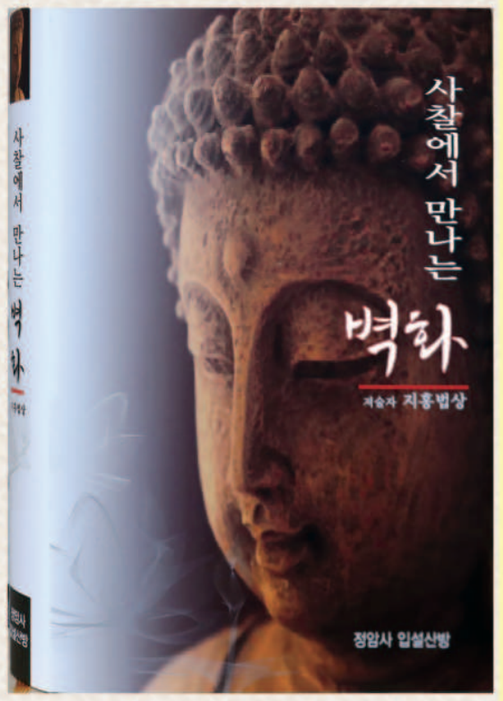


五仙 (오선)홍도라지 津液 (진액)이란?
직접 재배한 6년 근(根) 약 도라지를 수작업으로
일곱 번을 찌고 일곱 번을 말려 약성이 뛰어난
명품 홍도라지와 仙藥 (선약)이라 불리는 한약초인
구기자, 하수오, 당귀, 창출(삽추)과 계피, 생강, 대추를
물을 전혀 넣지 않고 배 과즙만으로 달인 진액으로
공해와 미세먼지로 부터 목을 보호하고
감기예방과 기관지, 폐 질환에 좋으며,
간기능 개선과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정 인 H & C 부설 금천자연농원
구입 문의 및 상담 051-915-9988, 010-5002-3050
100ml 50포 6만원 계좌번호 : 부산은행 208-12-000697-5
(2박스 이상 무료배송)

전국 사찰을 순례하면서 발품을 팔아 사진을 촬영하고
340여 개의 벽화를 알기 쉽도록 해설하여 놓았습니다.

벽화는 부처님 말씀을 축약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또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올컬러 / 양장본 / 780쪽 / 값 50,000원
문의 010-4037-3539 / 농협 정암사 817101-51-067379

2020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지원장 **혜연**

사부대중일동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45-230
Tel 055)643-0643 Fax 055)643-0642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사부대중 합장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35
Tel 055)342-6639, 345-9900 Fax 055)346-2179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원장 **혜 안**

사부대중일동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26-12(천곡동)
Tel 052)295-2335 Fax 052)295-2336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울산포교당

해 남 사

신도회 회장 정갑윤 부회장 김명호 고문 법성심
동문회장 윤경래 유마회장 문성욱
학생회장 김두영 주 지 혜원

"해남사는 포교와 수행정진 도량입니다.
다함께 열심히 정진합시다."

- 법성심(85세. 해남사 노보살님)
해남사 금강경 21일 정진대법회 회향발원 중에서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기상대로길 13
핸드폰 010-7450-3340 전화 052)211-3340

대한불교조계종

미륵산 용화사

주지 **종 묵**

사부대중일동

템플스테이

경남 통영시 봉수로 107-82(봉평동404)
Tel 055)645-3060, 649-3060
템플스테이 : ts6463090@templestay.com

대한불교조계종

신어산 은하사

회주 **서림 대성**

주지 **혜진**

사부대중일동

부설
서림불교대학



경남 김해시 신어산길167
055)337-0101~5

대한불교조계종

진불선원

진불선불교대학

선원장 **설우**

주지 **무아**

대중일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로 112(용호동)
Tel 055)275-3222 Fax 055)275-1222
http://cafe.daum.net/jinbulcenter

대한불교 원효종

벽 선 암

주지 **홍법혜진**

회장 손규익
자문위원장 양범수
운영위원장 김영란
총무 이금화



울산시 북구 동산길36-6
HP) 010-5101-0093

대한불교 법화종

신라고찰
비 음 산 **불곡사**

주지 **서암 도홍**

소장문화재

- 보물 제436호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
- 지방유형 문화재 제133호 불곡사 일주문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55
Tel 055)282-7402

2020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울산 유일의
영구봉안 **납골당**

정토사 극락원

도심에 위치
왕래,참배용이



비용 : 100 – 1,000 만원까지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217번길15 (옥동)
052)258-9944, 212-7000

대한불교조계종

가락고찰
불 모 산 **장유사**

좋은 인연 지혜로운 삶

✷

불교대학 졸업생 및
사부대중 일동

경남 김해시 대청계곡길 170-563(대청동)
Tel 055)314-2799



대한불교조계종

연 화 사

주지 **성륜**

신도회일동



경남 진주시 향교로42번길13(옥봉동)
055)741-4852

대한불교조계종

여여선원

주지 **효암**

신도회일동

울산시 남구 문수로 488(신정동)c1020 8층
052)267-0108

대한불교조계종

함월산 **백양사**

주지 **지은산옹**

신도회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성 전 암

주지 **혜찬**

신도회일동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로 65번길291
Tel 055)754-7056 Fax : 055)753-8662

사 단 법 인
울산광역시 **불교신도회**

회장 **이병호**

회 원 일 동



(사)진주불교회

이사장 **상전 홍수승**

가야불교대학
학장 : 보선스님
부학장 : 광운 김종윤

무료급식소 보현의집
지도법사 : 원명스님
센타장 : 원명 안정임

붓다기행단
지도법사 :지현스님
단장 :혜월 윤재철

만일회
지도법사 : 성각스님
회장 : 일향 최형석

자비도량참법기도회
지도법사 : 보선스님
회장 : 대명 옥광주

법화경독송회
지도법사 : 지산스님

진불선원
선원장 : 만산 정재영

108인후원회
지도법사 : 원각스님
회장 : 상전 홍수승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1117
055) 747 - 0108

대한불교조계종

영축산 **청련사**

주지 **무영**

신도회장 박상재
총무 하순실

청 사 모 일 동
거 사 림 회 일 동
신 도 회 일 동

경남 창녕군 계성면 청련사길 99번지
055)521-2185



대행 스님

진짜 사람이 되려면 눈 없는 진짜 마음의 눈을 얻어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발심하고자

질문 벌써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참으로 시간은 빨리도 흐릅니다. 시공이 없는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저희 범부들은 아직도 시간의 흐름 속에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올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다짐으로 다시 발심하고자 하오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새삼스럽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새해를 맞이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을 해서 잘 돌리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고치고 잘되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사계절이 간다 하더라도 모두 초월해서 돌아가는 걸 본다면 그날이 그날이고 우리네 마음들도 항상 그대로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함으로 해서 마음도 새록새록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가 지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새로이 해가 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은 변화무쌍하게 조절이 되고 화하게 되고, 그 어떤 것으로 마음을 쓰느냐 하는 것을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이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 공부를 하시면서 어떠한 것을 느끼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실천을 하면서 가야 하는지 그걸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몸은 바로 부처님의 법당과 같습니다. 내 마음을 깊이 이해해서 법당을 잘 지키면서 법당 속의 모든 자생 중생들을 제도하고 한마음으로 조복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근본 행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층 더 육신 법당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그 법당 속에 바로 자부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본으로 봐서는 죽고 사는 생사가 둘이 아니요, 영원한 것이지만 그 자부처가 없으면 내 몸뚱이가 움죽거릴 수도 없거니와 보고 듣고 행할 수도 없고 모든 게 침체해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몸뚱이 법당은 명이 다하면 다시 헐고 또 짓지마는 마음의 근본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하며,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으냐 하는 모든 것에 따라서 대뇌에, 즉 누진의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입력이 돼서 모든 게 현실로 차근차근히, 피할 수도 없이 감겼던 것이 풀어져 나오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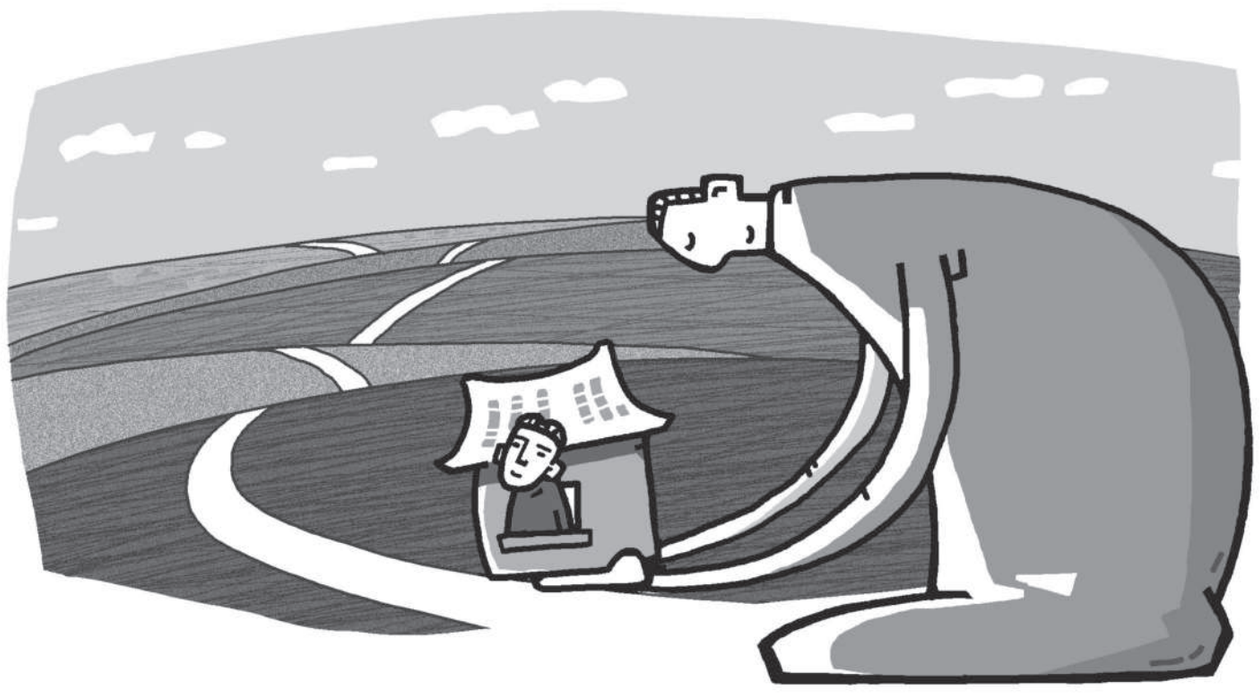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 그렇게 입력되어 풀려 나오는 업과 고를 어떻게 요리하여 오히려 나를 밝히는 재료로 쓸 것인가 하는 것도 오직 여러분의 한 마음의 선택에 있을 뿐입니다.

참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질문 우리가 진짜 참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여러분이 진짜 사람이 되려면, 눈 없는 진짜 마음의 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얻는다면 들음이 없이 듣는 귀를 얻을 것입니다. 냄새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음식이나 냄새 맡고 썩은 내나 맡고 이러는 냄새가 아닌, 한계가 있는 냄새가 아닌, 삼세의 그 돌아가는 이치의 그 냄새는 향으로써 바로 그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고 그러는 세계의 마음의 향이 온 누리를 돌고도 남음이 있으니 꽉 차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우리가 놓고 가는 것이 진리거늘, 여러분은 어찌 놓고 가려고 하질 않고 놓을 데가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항상 말을 하지만 내 몸이 지수화풍 사대로 뭉쳐져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지수화풍으로 뭉쳐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주 전체의 물체가 다 지수화풍으로 합쳐졌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하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항상 살고 있는 이, '돌아감도 없고 돌아옴도 없는, 이 삼각 원형을 이루고 있다' 이런 뜻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명과 마음과 몸을 한데 합쳐서 원형을 이루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생활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한 찰나 한 찰나 놓고 가는 것입니다. 놓고 가는 것이 없이 놓고 가고 있죠. 그런데 쳇바퀴 돌듯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밥을 먹었다고 해서 어저께 밥을 먹은 것을 생각을 하고 있기 이전에, 그거는 벌써 똥이 돼서 없어지고 오늘 또 밥을 먹어야 하는 그런 이치죠. 어저께 먹은 게 그대로 있고 그렇다면 오늘의 먹을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저께 먹은 밥이 체해서 꽉 위를 메워 가지고 있다면 오늘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죽는다고 병원에 갈 겁니다. 그러니 어저께 먹은 밥이 오늘에 없을 것이고 오늘 먹은 밥이 내일에 없을 것이니, 그것이 바로 삼세가 공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공했다면, 없다면 없다고 하는 말이 그게 해당한 말이냐고 하겠죠. 여러분이 사시는 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사람을 만나도 한 번도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붙잡고 있는 법이 없습니다. 식구들도 번갈아 가면서 만나죠. 또 만남도 그렇지만, 만날 때의 생각이 번갈아 가면서 딴 생각으로써 말을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애를 만나면 '해라' 가 나오고 어른을 만나면 존대가 나옵니다. 그건 자기가 스스로서 그렇게, 지금 과학이 발전이 됐다고 하지만 아주 스스로서 자동적으로 영원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영원하게 자기가 돼 있는 자체가 잠재의식 깊은 속의 테이프와 같은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테이프에 녹음을 금방 했는데 금방 그 녹음한 데다가 또 녹음을 하니까 그 앞서 녹음한 거는 없어지지요? 그러니까 연방 그 테이프에 자꾸 녹음을…. 억겁을 거쳐 오면서 자꾸 생활을 하면서 놓고 가다가 보니까, 전자에 짐승으로 있었던 것도 바로 화해서 인간으로 됐으니까 짐승은 찾을 것이 없죠.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녹음테이프에 자꾸 녹음을 하는 것을, 불가에선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릇을 비워야 담는 대로 바로 담아질 수 있는 거지, 그릇을 비우지 않는다면, 어쭙잖은 거, 아상과 모든 아만과 집착과 욕심 그런 것이 차근차근 담아져 있으면 새로 오는 그 계발적이고 생동력 있는, 지금 현실에 다가오는 문제를 담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항상 먹으면 싸고 먹으면 싸 버리듯이, 그래야 위가 시원하고 살 멋이 있듯이, 우리는 그릇이 항상 담으면 없어지고 담으면 없어지고, 우리 녹음테이프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진리라 이겁니다.

그러니 집착을 하지 마라. 욕심을 부리지 마라. 아상을 갖지 마라. 모든 점에서 그렇게, 일체의 살아나가는 생활이 바로 길이자 없는 길이다. 없는 길이면서도 당당히 이렇게 보이고 걷고 있는 것이다. 걷고 있으면서도 그건 한 발 떼 놓으면 한 발 없어지고 한 발 떼 놓으면 한 발 없어지기에, 나는 이날까지 걸음을 걸어왔다고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는 떼어 놓지 않았으니까 걸음을 걸어갈 거라고 말할 것도 없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생활에 근본적으로 있는 것을 말을 하지, 없는 것을 갖다가 조작해서 말하는 것은 미신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없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있는 것대로 고대로 사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보이는 거, 색상으로만, 물질로만 치달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은 걸 보면 좋다 그러고, 금방 울 일을 가지고. 금방 좋다고 그것을 웃고 즐겼다가 그 물건이 없어졌을 때는 금방 울 것을 왜 웃고 좋다고 합니

☞ A30면으로 계속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
신도회장 이금석
신도회 대중일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견지동)
TEL 02)2011-1934 FAX 02)732-4550

자기가 한 발 한 발 떼 놓는 거 다 주인공에 몰락 몰락 맡겨 놓으세요

☞ A29면에서 계속

까? 금방 또 울 것을 좋다곤 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아도 좋다고 할 게 없고 언짢아도 언짢다고 할 게 없다는 얘깁니다.

그 반면에 생활이, 모든 것이 그 내 잠재의식 속에서, 하나의 테이프 속에서, 모든 것이 거기서 테이프 소리가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가, 바로 내가 지금 현상계에서 살아나가는 그 자체 모든 걸 거기다 맡겨 놓고 돌아간다면, 과거의 인과응보나 유전성이나 모든 악보 같은 문제들이 얽히고설킨 게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어저께 한 일을 생각을 해 놓고 있고, 어저께 한 것을 집착을 하고 욕심이 있고 그렇다면 분별을 지키지 못하고 분수를 지키지 못한 채 건너뛰게 되니깐 물에 풍덩 빠지면 울고불고 야단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이자 불교고 불교자 생활이고, 그 생활을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느라고 사십구 년을 설했답니다. 사십구 년을 그렇게 설했어도 여러분이 여직껏 그 이치를…. 길 없는 길을 우린 발 없는 발로 광대무변하게 우주 천하에 어디에고 아니 닿는 데가 없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참자유인이 되라고 가르치셨는데 오늘날까지 기복으로 헤매고 돈다면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둘로 보지 않고 관한다는 것은

질문 둘로 보지 않고 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듯하면서도 확연해지지가 않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둘로 보지 않는 게 관하는 거지요. 관한다 이러는 거는 내가 이 사물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모든 것을 용도에 따라서 내가 주인공에 딱 맡겨 놓고 그거를 지켜보는 게 바로 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왜, 요새 이렇게 물질적인 연구라든가 정신적인 연구라든가 어떠한 연구를 한다, 또는 병고가 났다 또 어느 짐승이 지금 죽게 됐다, 개가 죽게 됐다 뭐, 이런 것도 실험하려면…. 실험하려면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번 한생각 내서 딱 넣어 놓고선 지켜볼 때에 그게 관이에요. 모든 것을 이렇게 둥글게 해서는 전체 거기다 맡겨서 놓고, 자기가 뭐, 용도에 따라서 온 거 있으면 거기다가 딱 놓고 지켜보는 거, 그게 관이에요. '해 주십시오' 가 아니에요.

'해 주십시오' 하면 노예가 돼 버려요! 자기 주인공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자기 주인공과 자기가 둘이 아니라는 점. 자유스럽다는 점. 자유인이 되고자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데 부처님께서도 49년 가르치신 것이 바로 그게 자유인이 되라고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有)에서는 유의 법으로 물질적인 이 몸이 움죽거리고, 보이지 않는 데 무(無)의 법은 무의 법대로 내 마음이, 체가 없는 마음의 한생각이 만약에 이 소용돌이, 우주 전체의 소용돌이에, 지금 네 군데고 다섯 군데고 허공에도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앞뒤 없는 그 불바퀴 소용돌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소용돌이를 나왔다 들어갔다 하려면 이 지금 우리 마음이 착을 두지 말고 욕심 두지 말고 모든 것을 놓는 작업을 해야 내 인식이, 즉 말하자면 불에 '아유, 내가 불은 뜨거워서 타 죽지.' 하고 못 들어가지마는 그 인식이 살아생전에 내가 마음은 불에 들어가도 타 죽을 염려가 없다는 걸 상식적으로 배운다면, 그게 완전히 배워졌다면 착이 뚝 떨어진 거죠. 이 인생의, 이 물질의 착이 뚝 떨어진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움죽거리게 되면 이 육체도 움죽거리게 되고, 그 마음이 움죽거리게 되는 건 무의 쪽에서도 쓸 수 있고 유의 쪽에서도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불바퀴, 앞뒤 없는 불바퀴 속을 들락날락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저승과 이승이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된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 어느 소용돌이 속이라도, 이 땅속을 들어가도 이 마음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순간에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 **앞뒤 없는 불바퀴 속을 들락날락할 수 있다면**
> **저승과 이승이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표면적으로 얼마나 되고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자기가 알 수 있고, 그 속이 어떻게 어떻게 된 것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속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것도 정신계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지금 앞으로는 살 수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 정치라든가 의학이라든가 또는 회사의 공업이라든가 또는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과학도 전부 정신계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니 되는 시대가 점점점점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물질계로 이론적으로 이게 그르고 이게 옳고 이게 정법이고 이게 저거고 그런다면 어떻게 그 세계에 따라설 수 있으며 앞장설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 몸으로 뛰는 거는 한계가 있고 지금 연구를 해서 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어느 인공위성을 띄워 놨다 하더라도 악의 의식이 점령을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쪽에서도 그거를 또 못 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마음의 인공위성은 항상 어디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고. 그리고 항상 한생각을 내서 쓸 수 있는 것이 마음의 도리란 말입니다.

육신에 대한 집착 놓고 싶어요

질문 육신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고 싶은데 몸이 많이 힘들 때는 오만 가지 생각으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생사 없는 이치를 배우면서도 이렇게 나약한 자신에 속상합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나는 이렇게 늙을 때까지도 병이 나서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해 보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응신이라는 보살이 즉 자긴데, 자기가 자기 모습을 형성시켜 놓고 어떡할 거예요? 자기 모습을 형성시켜 놨으니까 둘이 아닌데, 자기가 몸을 움죽거리고 다니려면 몸으로도 다녀야 되고, 몸 아닌 자기로도 다녀야 되고, 갖은 각색으로 다 움죽거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잖아.' 할 때에 그게 결국은 해결이 되는 거죠.

나는 사람들더러도 그러거든요. 어디가 아프다고 하소연을 하고 찾아오면, 당신이 이 마음의 공부를 해서 해결을 보려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아프면, 즉 자기 주인공에다가 그렇게,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하고 관하면 바로 약사보살이 돼 준다고, 즉 말하자면 일등 가는 의사가 돼 준다고 말해 줍니다. 또 좋은 데로 못 가면 '저 사람 좀 좋은 데로 가게 하는 것도 너뿐이잖아.' 이렇게 하면 또 지장보살이 돼 주고 이러니까, 어느 것이든 어느 이름이든 다 될 수 있고, 이름 아닌 이름도 될 수 있고, 뭐 하나 아니 되는 게 없으니까, 그 이름은 보살이지만 부처님의 도리를 보살들이 다 하잖습니까? 용도대로 말입니다.

예전에 산으로 다니며 공부할 때 말입니다, 가야지 하고 딱 나서서 길을 걷고 있으려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는 길을 어디까지 걸어야 되는가.' 그러다가 '어디까지 걸어야 하는가도 없지.' 그러면서 계속 길을 걷다가 어떤 길인지를 몰라서 발이 딱 묶였는데,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하고 내면에 물으니 아주 천야만야한 낭떠러지, 천야만야한 산 두메, 길도 아닌 그냥 억새풀이 만장한 그런 곳을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이구, 죽으나 사나 거기가 길이라니 가야지.' 그러고 반쯤 가다 보니 억새풀에 모두 그어지고 그러니까 찢어져서 피가 나고, 날은 다 저물고 캄캄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無)의 길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그랬죠. 그랬더니 웃음이 나잖아요. 그러고선 '아, 길은 천지가 다 길이지만 그 천지가 길이라는 걸 알고 네가 실천할 때, 구태여 나더러 묻지 않아도 된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 사는 것이 어떤 때는 좋고 평탄한 대로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억새풀이 빽빽한 소로, 길도 없는 길인 때도 있겠지만 그게 모두가, 깨달으면 한 걸음이고 깨닫지 못하면 천리만리인 거죠. 그래서 나는 그랬습니다. 죽일 테면 죽이고 살릴 테면 살리라 그거죠. 그래도 나중에 이 스승이 가르쳐 준 그 길을 보면, 세상에 이렇게 편한 것을 가지고 그랬다고 허허 웃음도 짓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아둥바둥거리고 악착스럽게 매달려 있는 바로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쪽 저쪽의 맛을 다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길 아님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을 해도 관하면 해결되나요?

질문 모든 걸 주인공에 맡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관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그건 억지죠. "잘못하는 것도 거기다 놓기만 하면 됩니까." 하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도둑질 열 번 하고도 신부한테 고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신부한테 고하면 다 죄가 사한다고 그러니까 아, 이건 잘못해 놓고 만날 고하네요. 그게 나는 모두 시원치 않았다고요. 고하면 뭘 합니까. 찌끄러기는 연방 남아 있는 거를.

그러니까 남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한테, 나한테서 나온 거니까 나한테다 놔 버려라 이겁니다. '나한테서 잘못된 거니까, 잘못되게 한 놈도 너니까 이제는 앞으로 내가 이렇게 잘못되지 않겠다.' 하는 거를 다짐하면서 또 거기다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깐 이건 잘못될 일이 없는 거죠. 그게 정말 고해성사지, 내가 잘못한 걸 타인에게 고한다고 해서 그게 고해성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잘못하기 이전에 잘못하지 않으면 고해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고등 동물이 돼서 사회 상식이나 인간 도리에 어긋남이 없이 나쁘고 좋은 것을 안다는 겁니다, 본래.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저지른 죄가 있다면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그 모르고 저지른 것을 테이프에 녹음해 놨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녹음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을 바로 지금 현재의 회개하는 마음으로써 지우라는 얘기입니다. 이왕 저지른 걸 어떡하느냐 이겁니다. 이왕 저지른 거라면 다시는 앞으로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 저지른 거라면 바로 앞으로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기에서 순수하게 깨달았으면 가면서 그 녹음테이프에다 다시 녹음을 한다면 그것은 모든 게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 놔라. 안되는 건 믿고 놓고, 되는 거는 감사하게 놓고, 모르는 거는 몰라서 놓고, 그래서 모든 것을 몰락 몰락, 자기가 한 발 한 발 떼 놓는 거를 다, "잘한 것도 감사하게 놔라." 이랬는데 하물며 잘 안된 거를 갖다가 놓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녹음테이프는 24시간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 초도 못 돼서 또 그 녹음에 또 녹음이 되고 또 일 초도 못 돼서 그 녹음이 또 되고 그러니깐 앞서 녹음된 건 자꾸 없어지면서, 또 자꾸 녹음이 되면서 없어지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놈의 거는 그렇게 해서 내가 가슴에 못이 되고 그것이 여직껏 몇 해를 두고 10년 20년이 가도록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자기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대로 세월이 그렇게 가만히 있나요? 그러니깐 걸리는 거죠. 그러니 세월 가는 대로 그것도 놔라 이겁니다. 어차피 잘못된 거를 알면 벌써 잘해 나갈 것을 예약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거기다 놓고 그러면은 그것은 없어지고 또 그게 들어오고, 앞으로 잘해 나간다면 잘해 나가는 것이 녹음이 또 되고 말입니다. 그러면 잘하겠다는 것이 또 녹음이 죄 지워져 버리고 잘하는 것이 녹음이 될 것입니다. 또 남이 잘못한 걸 보고 원망한다 하면 또 그놈의 잘된 녹음이 또 지워지고 원망하는 것이 또 녹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망하고 잘못되고 잘되고 하는 것 모조리 놔요. 그리고 자기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내 마음의 근본인 그 상식을 알아야 하고, 나와 더불어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걸 알고 모든 것을 겸손히, 자기 위로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하고 아래로는 자기 아래 사람들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몸으로 비유한다면 바로 자기 육신을 올바로 잘 끌고 다닐 줄 알아야 하고 자기 마음을 잘 쓸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대한불교 총화종

2020 謹賀新年 경자년

종정대행 김혜각

총무원장 김혜각 종회의장 백만우

교육원장 김법만 포교원장 김기태 호계원장 김월광
감찰원장 김혜암 문화원장 이지수 선 원 장 신본원

사회부장 성조향 재무부장 빈성혜 조사부장 김지현 교육부장 노법운 포교부장 김법능
포교지도부장 백청암 문화부장 양혜원 교육국장 이수연 재무국장 최수경

서울(북)종무원장	이해인	서울(강북)종무원장	이혜오	경기(동남)종무원장	김법만
경기(서)종무원장	김혜암	충청종무원장	김기태	경북종무원장	이보성
부산종무원장	강지성	강원(1교구)종무원장	정혜산	강원(2교구)종무원장	허승효
경남(서)종무원장	김월광	전남,광주종무원장	김현산	제주종무원장	김청해
유발승회 회장	이지수	유발승회 총무	옥지광		

외 임원 및 종도 일동



대한불교 총화종
종정대행 **혜 각**

신년사

새해의 발원!

우리 모두 함께 총화 단결하여 기대와 희망으로
庚子年을 맞이합시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지난 한해에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 아쉬워하고 후회합니다.
우리 모두 경자년 새해에는 바라는 서원을 세워
발원을 대적광전에서 부처님전에 축원을 올리고
모든 소원이 부처님 품안에서 원만히 성취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진할 것을
우리 모두 부처님전에 약속합시다.

총무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5마길 7, 2층
전화 02)743-0066, 8338 / 팩스 02)743-8448
www.chonghwajong.org

新年隨想

나눔은 '인간의 길'

정찬주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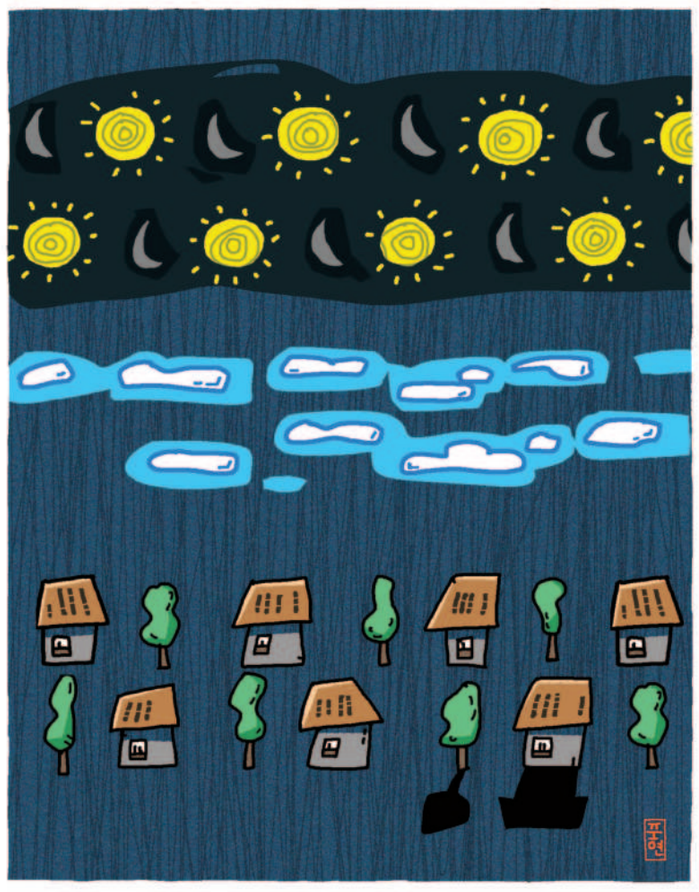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구랍 만난 인도 巨富 스리니바산 회장
요익중생 프로젝트로 사회적 나눔 실천
자비 구체화한 나눔, 본래인간 되는 길
경자년 내 첫 화두는 '베풀고 나누는 삶'

창호가 새벽빛으로 푸르게 물결치고 있다. 아래 절에서 수런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내 산방은 절 위 계곡에 있으므로 조그만 소리도 크게 공명이 되어 올라온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사람들이 해맞이를 하러 산길을 나선 모양이다. 나는 해돋이를 보러 굳이 산정으로 가지 않는다. 내 산방 건너편 산자락에 오르면 계당산 쪽에서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계당산은 내가 은거하듯 살고 있는 화순군과 보성군을 경계 짓는 꽤 높은 산이다. 무엇보다도 내게는 인생을 사유하게 하는 산이다. 계당산 허공의 빗방울은 화순군에서 불어가는 바람을 만나면 보성강으로 갔다가 섬진강이 된다. 반대로 그 빗방울이 보성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만나면 화순의 지석강을 흐르다가 영산강에 섞인다. 어느 바람과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 빗방울의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길이 크건 작건 달라진다고 본다.

며칠 전, 저녁식사 겸 술자리에 초대를 받아 읍내에 나갔다. 한 달 전부터 내 책의 애독자인 지인이 간곡하게 부탁해서 참석한 자리였다. 술을 마시지 않는 나로서는 어색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고, 식사하기 전 모두가 와인술잔을 든 채 갑자기 나더러 '덕담 한 마디' 해달라는 요청에 적잖이 당황했다. 할 수 없이 나는 생각나는 대로 말했다.

"세월은 가는 것인지 오는 것인지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세월이 간다고 여기면 아쉬운 마음이 들 것이고, 세월이 온다고 느끼면 가슴이 설레게 될 것입니다. 2020년 경자년은 여러분 모두가 가슴 설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덕담을 했는데 모두가 "만나서 반갑다, 영광이다"는 식이어서 특별하게 기억이 남아 있지는 않다. 다만, 나름대로 독서경험을 말할 때는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한 사람은 중학교 1학년 때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또 한 사람은 대학 2학년 때 법정 스님의 〈서 있는 사람들〉을 읽었다고 말했다.

나이가 가장 많은 70대 중반의 한 분은 내가 5.18광주항쟁 이야기를 G일간지에 연재하고 있다고 하자, 자신은 그 무렵 광주에 있으면서 직접 목격했으니 증언해줄 수 있다고 제의했다.

만남이 중요하고 사람이 소중한 것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듯하다. 중학교 2학년 때 톨스토이의 〈인생독본〉을 읽었는데 다 잊다시피 했지만 한 구절만은 50여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말뚝처럼 내 가슴에 남아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만나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이 순간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과 기쁨을 주는 일이다.'

지난 12월 5일 부산 안국선원에서 만난 인도 첸나이 TVS그룹 베뉴 스리니바산 회장과의 만남도 오래도록 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인도에서 세 번째 부자라고 하니 지금까지 내가 만난 기업가 중에서 최고의 거부(巨富)였다. 스리니바산 회장이 불교와 인연을 맺은 까닭은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그의 어머니 스승은 달라이라마와 함께 티베트를 넘어온 삼동린포체였다. 브라만으로서 힌두 신자인 스리니바산 역시 삼동린포체의 법문을 듣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내게 말했다. 그러면서 힌두 사두와 삼동린포체나 수불 스님이 울타리가 되어 삿된 기운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아준다고 고백했다.

몇 년 전 수불 스님을 범어사에서 처음 만났을 때 마음속에 햇살 같은 평화로운 빛이 가득했다고 회상했다.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한 뒤 수불 스님이 범어사 선방을 들어갔다가 나오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그 의미를 몰랐지만 3년 뒤에야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 마음부처(心佛)를 찾으라는 것인 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스리니바산은 카르마(Karma, 業)를 많이 이야기했다. 수불 스님을 만난 것도 카르마요, 기업이 흥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것도 카르마라고 했다. 이 부분에서 나는 아침저녁으로 무념무주(無念無住)의 명상을 한다는 그가 수행자로 여겨졌다.

특히 기업경영 목적이 기업의 사회화에 있다고 하므로 부럽기조차 했다. 불가의 말로 표현하자면, 그의 회사는 모든 이웃을 이롭게 하는 '요익중생(饒益衆生)의 사회적 기업' 이었다.

그는 자신이 벌이고 있는 요익중생 프로젝트를 전생에 진 빚을 갚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현재 인도의 130개 힌두사원을 보수 수리했고, 제일 큰 두 개의 사원은 세계문화유산이 됐단다. 가난한 인도인 380만 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생계를 해결해 주고 있는데 목표는 500만 명이라고 한다. 그들 중에는 무슬림, 기독교 신자, 힌디, 불교신자가 있지만 자신은 종교에 대한 편견은 없다고 말했다. 부처님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인간은 본래 평등한 존재가 아니냐고 내게 되물었다.

그를 만나고 아내와 함께 내 산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눔을 깊이 생각했다. 자비와 사랑을 구체화한 베풂과 나눔이 본래인간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깨달음이 들었다. 상대를 존중하는 베풂과 나눔이야말로 궁극적으로는 자기 구원이라는 자각이 사무쳤다.

개인적으로는 참사람이 되는 자기 구원의 길이고, 사회적으로는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21세기 혹은 미래의 삶에 대한 최상의 대안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었다. 그런데 물질을 많이 가진 자만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닐 터였다. 가난한 사람도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베풀고 나눔이 가능할 것 같았다. 친절한 말씨, 다정한 눈매, 정다운 얼굴, 배려하는 태도 등도 열린 마음의 나눔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작가인 나는 내 산방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주로 내 저서를 선물하고 있다. 내가 사는 산중마을의 농사꾼 이장에게 고생한다며 내 소설책을 주었더니 중학생 시절 학급문고의 이광수와 황순원의 소설을 다 읽었다며 너무 좋아했다. 그러고 보니 베풀고 나누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나름대로의 몫이 있을 것 같다.

어느 새 창호에 날빛이 투과하고 있다. 이제 나도 해맞이를 하러 아내와 함께 건너편 산자락으로 나갈 시간이다. 경자년 나의 첫 화두는 베풀고 나누는 삶이다. 늦은 자각이지만 남은 여생이라도 그렇게 살고 싶다.

社說

새로운 변화 움트는 한 해 되길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한국불교 장자종단 조계종에서는 올해 총 25개 교구본사 중 8개 본사의 주지 임기가 만료된다. 특히 8개 본사주지 모두 4월까지 임기 만료된다는 점에서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새로 선출된 본사 주지들이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불교 황금어장인 군포교에서도 변화가 이뤄졌다. 새해부터는 군포교 현장에서 5계 대신 10선계가 설해진다. 군 실정에서 5계 수지 장병의 현실적 난관을 보완하고, 계율이 일상의 생활에서도 구체적 실천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당장 1월 11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계사로, 삼귀의 10선계 첫 수계법회가 봉행된다.

주요 불교단체들도 창립 행사를 준비 중이다. 대한불교청년회는 6월 20일 창립 100주년을 맞고 전국 공무원 불자들의 결집체인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도 10월 7일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조계종 포교사단도 3월 12일 창단 20주년이 된다. 2020년 불교학계는 대형 국제학술행사가 잇달아 열리는 호재를 맞았다. 서울대가 주최하는 세계불교학회(IABS) 학술대회로 오는 8월 16~21일 열린다. 동국대는 국제불교인식논리학회 제6회 학술대회를 8월 24~28일 부산 신라스테이에서 개최한다. 두 대회 모두 높아진 한국불교학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자년은 쥐의 해로, 쥐는 풍요와 희망과 기회를 의미한다. 한국불교가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불자와 한국사회에 희망과 기회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성도'는 이웃과 함께하는 것

불교 수행은 번뇌를 떨쳐내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서 이런 굴레에 벗어나 성도한 날을 우리는 성도절이라 한다.

양력 1월 2일, 음력 12월 8일은 불자들이 부처님이 닦은 수행을 본받아 용맹정진하는 성도절이다. 성도절의 진정한 의미는 부처님이 깨닫기 위해 행한, 그리고 깨달은 다음 행한 실천과 이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것이다. 성도절을 단순히 기도로 일관하는 기복적 행태에서는 이러한 성도절의 본 뜻을 깨칠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오직 이번 삶 동안 마땅히 모든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직접 평생을 인도 전역에서 중생교화에 임했다. 성도란 바로 깨달음의 증득이며 대중의 삶 속에서 이들의 고통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절을 맞아 바로 우리 이웃을 향한 자비심을 발현해야 한다. 이웃을 향한 보살도를 실천할 때 성도의 참다운 의미가 구현되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성도절에는 이러한 전법과 보살행의 모습은 적다. 각종 공양과 기도로 점철되어 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적 세계관에서 보면 나는 내가 아니요, 둘도 아닌 불이(不二)다. 오늘과 같이 계급간의 갈등과 대립, 세대 간 또는 계층 간의 반목을 극복하는 해결책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 속에 있다.

이러한 깨달음의 지혜를 우리 세상에 실천해 나갈 때 진정한 공덕이 뭇 중생들에게도 모두 회향되고 그 가피가 자신에게도 함께할 것이다. 다가오는 성도절,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용맹정진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복지 현장, 전법포교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정진해나감이 어떨까.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경자년 마음이 넉넉해지는 자비도량에서 나를 찾아 떠나는 행복명상 배워요!



대광사 명상상담대학교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본 대학은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명상상담대학으로, 대승의 보살정신을 기초하여 기본, 심화, 전문의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오늘날 현대인이 겪는 스트레스와 자기소외 등을 명상과 심리상담 치유와 올바른 자아성찰을 통해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고 전하는 곳입니다.

과정	강의시간	교과목		자격	전형요강	수강료	자격증
空 기본 (1년)	【화】 [야간] 1교시 19:00 ~ 20:20 2교시 20:40 ~ 22:00	1학기	• 불교개론(연기, 공) • 명상과 상담의 이론과 실제	1)자격심사 없음 (연령, 학력, 종교불문) 2)명상과 심리 상담을 배우고자 하는 자	1차: 서류전형 • 입학원서 • 사진2매 (반명함) 2차: 면접 대광사 종무실 접수	학기당 17만원	명상상담지도자 2급
		2학기	• 명상개론 • 사념처관법				
假 심화 (1년)	【수】 [주간] 1교시 13:00 ~ 14:20 2교시 14:40 ~ 16:00 [야간] 1교시 19:00 ~ 20:20 2교시 20:40 ~ 22:00	1학기	• 상담심리 • 대승 반야사상	1)명상과 상담 1학년을 수료한 자 2)1학년이상의 과정 또는 이와 동등한 과정을 취득한 자			
		2학기	• 면접상담 • 유식과 명상				
中 전문 (1년)	【목】 [야간] 1교시 19:00 ~ 20:20 2교시 20:40 ~ 22:00	1학기	• 천태소지관 • 상담응용	1)명상과 상담 2학년을 수료한 자 2)정규 명상과상담 2년 과정 및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1급
		2학기	• 자비명상				
요가	【화】 오전 10:30 ~ 11:50	• 테라피 재활 요가		관심이 있으신 분 누구나	접수	매월 3만원	-

▶수강료 : 1학기당 17만원
▶주 소 :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85번길30 대광사 ▶Tel. 031) 715 - 3000, Fax 031) 715 - 3409
▶교 통 : 분당선, 신분당선 / 정자역, 미금역 3번출구 마을버스 1번, 2번,19번 / 오리역 7번출구 마을버스 19번

분당 대광사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85번길 30 (TEL) (031) 715-3000 / (FAX) (031) 715-3409

謹賀新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동국의 오늘은 새롭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며 힘차게 정진하겠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이법산

동국대학교 총장 윤성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총장 이대원 동국대학교 의료원장 조성민





서울캠퍼스 : 인류애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경주캠퍼스 : 세상을 움직이는 참사람 양성



의료원 : 자비인술과 약사여래의 원력 실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 교육기관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금산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영석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금산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홍제중학교 / 은석초등학교 /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 / 동국대학교 전산원

山門서 꿈꾸고 娑婆서 이룬 三絕



강행원 작가는… 1947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났다. 한때 출가하여 청화 스님 문하에서 수행했다. 동국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장을 역임했다. 개인전 19회를 비롯해 국제전과 그룹 및 초대전 등에 400여 회 참여했다. 故 권일송의 특별 추천으로 문단에 나왔으며, 한국문학예술상, 민족정기예술상 등 다수 수상했다. 시집으로 〈금바라꽃 그 고향 그림자 여로〉 등이 이 있으며, 미술이론서 〈문인화론의 미학-그림에 새긴 선비정신 한국문인화사〉 등이 있다. (사)민족미술협회 대표, 한국불교 미술인 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포스트모던 시문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산문 밖의 禪

강행원(72) 서예가 · 화가 · 시인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매일 '이뭣고'를 들고 좌복 위에 앉았지만 이내 '이뭣고'는 멀어지고 머릿속엔 온통 '붓'이다. 소식은 없고 번뇌만 인다. 그림과 서예에 대한 생각을 지우고 다시 '이뭣고'를 품어보지만 끝내 '이뭣고'는 다시 멀어진다. 어느새 마음속에서는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한다. 그때부터가 한 소식이다. 그의 '이뭣고'는 詩 · 書 · 畵, 삼절(三絶)이다. 하지만 선방 좌복 위에서 매일 삼절을 꿈꿀 수는 없는 일이었다. 매일 붓 대신 '이뭣고'를 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결국 그는 사문의 길을 접고 산문을 나섰다. 그리고 삼절의 꿈을 향해 걸었다. 한국문인화의 새로운 길을 열고, 서예와 시를 함께 이룬 강행원이다. 그렇게 강행원의 삼절은 산문에서 시작됐다.

출가, 스승 청화 스님

"비록 사문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사바로 돌아왔지만 제가 출가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글과 그림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청화 스님의 그늘이 없었다면 저의 삶 자체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겁니다."

전남 무안에서 태어난 강 작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출가한다. 은사는 청화(1924~2003, 前 성륜사 조실) 스님이다. 강 작가는 청화 스님의 사촌동생이다. 강 작가와 스물네 살 차이인 청화 스님은 강 작가가 어렸을 때 출가했다. 강 작가는 청화 스님을 가까이서 보며 자랐다. 사촌형은 새로운 세계였다. 강 작가는 다른 아이들이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가질 수 있었다.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가까워지는 것과 같았다. 물드는 것이었다. 강 작가의 불연은 그렇게 가까워지는 것으로 시작됐다.

중학교 2학년 때 모친을 잃었던 강 작가는 고2 때 다시 부친마저 잃게 된다. 양친을 잃은 열여덟의 고등학생이 이 세상을 여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다. 강 작가는 갑자기 많은 생각을 짊어져야 했다. 우선 학업을 이어가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었다. 강 작가는 배움이 반드시 사바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강 작가에겐 그동안 가까이서 바라본 또 다른 세계가 있었다. 그곳에도 배움의 길이 있다는 것을 강 작가는 일찍이 알고 있었다. 강 작가의 고민은 그 또 다른 세계가 해결했다. 출가를 결심한 강 작가는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에게 또 다른 세계를 보여준 청화 스님을 찾아간다.

청화 스님은 해남 대흥사 진불암에 있었다. 청화 스님의 반대가 있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강 작가는 청화 스님 밑에서 머리를 깎고 행자 생활을 시작한다. 얼마 후 강 작가는 청화 스님을 따라 광주 추강사로 자리를 옮기고 그곳에서 청화 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받는다. 그때 강 작가는 사바에서 마치지 못했던 학업을 다시 이어간다. 조선대부속고등학교(야간)에 복학한다. 낮에는 추강사 사미였고, 밤에는 조선대부고 학생이었다.

다시 사바로, 붓을 들다

강 작가의 불연은 여느 불연과는 조금 달랐다. 정해진 날들을 정해진 바대로 살 수 없었던 출가였다. 강 작가의 출가는 사바로 돌아오기 위한 출가였다. 강 작가의 삶에는 부처님의 글자들과 발자국이 있어야 했던 것일까. 그는 부처님의 그늘을 거쳐 다시 사바로 돌아왔다.

"큰 욕심을 지니고 생사의 문을 부숴버리는 영생의 길을 택했으나 그 큰 욕심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세간의 작은 욕심에 매달려 결국 사문을 떠나는 바보가 됐다.

강 작가는 출가한 지 10년 만에 다시 사바로 돌아온다. 하지만 출가와 마찬가지로 그의 환속 역시 여느 환속과는 달랐다. 그의 환속은 산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산문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었다. 강 작가가 사바로 돌아와 지금까지 산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림과 글씨를 이루기 위함이다. 비록 그는 다시 사바로 건너왔지만 그는 이미 불가의 법으로 마음을 정한 불제자였다. 세상을 따지는 이름은 필요 없었다.

강 작가는 네 살 때부터 붓을 잡았고 천자문을 시작했다. 가까운 곳에 붓이 있었고 글이 있었다. 강 작가의 부친은 서당 훈장이었다. 강 작가에게 불연이 숙연이었던 것처럼 강 작가에게 붓은 같은 숙연이었다. 지나칠 수 없는 인연이었다. 강 작가는 조선대부고에 복학하면서부터 다시 붓을 잡기 시작했다. 붓글씨를 쓰고 그림도 그렸다. 그리고 붓을 잡으면 마음속에선 시가 일었다.

"그때 청화 스님이 많이 걱정하셨죠.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충고도 주셨고요. 수행자가 부처님 공부를 우선으로 해야지 다른 것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사람으로 태어나 한 생이 참으로 짧은 것인데, 부처님법 공부하는 출가자에게는 촌각도 아까운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강 작가는 사바에서의 공부에 미련이 남아 있었다. 서당에서의 공부와 산문에서의 공부만으로는 왠지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 강 작가는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스승의 생각은 달랐다. 또 한 번 강 작가는 많은 생각 속에 놓인다. 그는 스승의 곁을 떠나기로 한다. 강 작가는 스승을 떠나 화엄사, 만경사, 두방사 등을 거치며 자신의 길을 다시 점검한다. 그리고 갈림길에 선다. 스물여덟 살이었다. 강 작가가 택한 길은 사바였다.

고2때 청화 스님 문하서 출가
10년 후 환속, 서예 본격 시작
서예 이루고 인문화로 전환
스승 없어 전국 돌며 자연사생

사바로 돌아온 강 작가의 마음속에는 온통 서예와 그림뿐이었다. 서울로 올라온 그는 서예학원을 열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서예를 시작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이에게 성과는 생각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고2 때 전남도전에서 특선(서예부문)을 경험했던 그의 글씨는 시간의 문제만 남아 있었다.

한국문인화의 새 역사

1977년 9월 8일. 강 작가는 한국문인화의 역사에 이름을 올린다. 아니 역사가 그의 이름을 적는다. '강행원 한국화사생전', 강 작가의 첫 문인화 개인전이 열렸다. 역사가 적어야 했던 큰 글씨는 '사생전'이라는 것과 '강행원'이라는 신진작가의 이름이었다.

'나의 스승은 자연'이라는 제목으로 쓰인 모 일간지 기사는 그 날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한국미술협회 회원도 못되고 74년 국전에서 서예부문 입선 1회뿐 그밖에 화가로서의 공인도 아직 받지 못한 강행원 씨(30)가 9월 8일부터 14일까지 예정인 미술회관에서의 첫 전시회 준비를 위해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다. 〈중략〉 그에게 있어서 그림은

B2면에 계속

INSIDE

B5~9 신년특집 채식은 방생이다
B11~13 신년특집 자비 24시
B27 사유&삶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강행원 作, 선운사, 가공캔버스 수묵혼합채색 60.6X50.0



강행원 作, 산명곡응(전서 45X35) 화선지 먹 1993.

“번뇌 사라질 때 ‘그림’ 나와”

1977년 ‘강행원 한국화사생전’
끊어진 사생 전통 다시 이어
새로운 소재 한국문인화 선보여
‘동양화’ 명칭 버리고 ‘한국화’

1988년 전시 민중미술운동 시작
‘관세음보살의 민중불교 역할도’

문인화, 서예 등 작품 1200여 점
〈금까마귀~〉 등 시집 5권 출간

‘강행원 작가’ B1면에서 계속

조용한 가운데 정진이 아니라 도전이요 대전이요 응전이다. 5년 전부터 시작한 현장사경(現場寫景)의 작업은 굶주림과 질시 속의 강행군이었다. 스승도 없고 화우(畵友)도 없고 고달픔을 어루만져주는 가족도 없었다. 그 속에서 뙤약볕과 설한풍(雪寒風)의 아픔을 견디며 한 점 한 점의 현장사경을 끝마쳐야 했다. 〈후략〉”

강 작가의 첫 개인전이 주목을 받은 대목은 ‘사생전’과 ‘한국화’였다. 그때까지 우리의 그림(한국문인화)은 동양화라는 애매하고 불분명한 이름 속에 있었고, 일제는 ‘조선화’라는 이름을 낳았다. 그렇게 오랜 세월동안 우리의 그림은 정체 없는 이름과 사라진 시대의 이름으로 불려왔다. 그리고 한동안 ‘사생화’를 볼 수 없었다. 강 작가는 끊어졌던 사생의 전통을 다시 불러온 것이다.

강 작가는 자신의 글씨가 시간의 문제를 넘어서자 그 붓끝을 그림으로 돌렸다. 3년여 동안 운영했던 서예학원을 접고 그림을 시작한다. 강 작가는 조선대부고 시절 김용구 화백으로부터 서화(書畫)를 시작했었다. 글씨에서 그림으로 넘어가는 것은 정해진 일이었다. 글씨를 놓고 그림을 시작한 강 작가는 우선 스승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마침내 스승들을 찾아내긴 했으나 그 스승들을 모두 스승으로 모실 수가 없었다. 산문에서의 공부와 사바에서의 공부는 그렇게 달랐다. 산문에서의 공부는 마음만 정하면 되는 일이었으나 사바에서의 공부는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았다. 현실의 벽에 부딪힌 강 작가는 시련을 기회로 삼았다. 스승으로 삼고 싶었던 이들의 그림은 모두 관념속의 산수였다는 것을 알았다. 강 작가는 그들과 다른 그림을 그리기로 했다. 관념이 만들어낸 자연이 아닌 생생한 눈앞의 자연을 그리기 위해 전국을 돌기 시작했다. 그는 3년여 동안 전국의 자연을 화가의 눈으로 밟았다. 날이 저물면 절에서 잠을 자고 날이 밝으면 다시 일어나 걸었다. 그야말로 운수납자였다. 강 작가는 산문의 안과 밖 어느 쪽에 있었던 것일까. 그는 전시회 인터뷰에서 “나의 스승은 자연”이라고 했다.

그의 전시와 그림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모두 한국문인화의 새로운 역사였다. 그의 전시와 그림이 역사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한문에 밝았던 그는 중국문인화에 대한 서적을 섭렵했고, 한국화와 닿아있는 모든 그림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그림을 찾아낸 것이다. 그의 그림은 당시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한국문인화였다. 그의 그림은 시대의 흐름이 됐다. 많은 주요 매체들이 강 작가의 그림을 찾았다. 삽화가 필요한 곳엔 그의 그림이 있었다. 강 작가의 작품은 산수, 인물, 문인화, 서예, 전각, 석고문인 비석글씨까지 1200여 점에 이른다.

강행원이 그리는 정토

1980년 10월 한국화를 전공하는 젊은 작가들이 모 일간지 회의실에 모여 ‘전통과 형상’ 그룹을 결성하고 매달 정기 모임을 가지기로 했다. 당시 강 작가는 간사였다. 모임은 제도미술의 허위의식과 시대정신의 부재를 일깨우고 일제잔재의 틀에 갇힌 미술을 해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민중미술운동의 시발이었다. 하지만 전통과 형상 그룹에서 민중미술운동에 뛰어든 작가는 강 작가가 유일했다. 그가 민중그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1987년 신세계 화랑에서 개최한 개인전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개인전에서 선보인 ‘관세음보살의 민중불교 역할도’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이구열 평론가는 “불교와 민중의 관계사회의 시각 관세음보살과 난지도 서민의 모습을 담은 새로운 시각의 변환, ‘역원근법 시각의 묘사’ 등을 통해 잠재적 역량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그림은 당시 불교종단이 하화중생의 보리심을 갖지 못한 세태를 풍자하고 힐난하고 있다. 당시까지 한국화뿐만 아니라 어떤 공모전에서도 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강 작가의 그림은 의미가 컸다.



청화 스님(왼쪽)과 강행원.

그렇게 강 작가 그림의 중심엔 ‘민중’이 자리잡기 시작했고, 불교가 그 내용의 한 축을 이루었다. 새로운 한국화였고, 새로운 한국문인화였다.

그의 그림의 소재는 폭넓고 다양했다. 그의 만리행이 보여주듯이 국내 산천은 돌아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고 일본, 중국, 유럽 등 해외의 풍경도 그의 그림 속에 있었다. 무안 갯벌을 여행하면서 갯벌에서 일하는 여인상을 그리고 갑오농민전쟁이 발발한 만경강을 탐사하면서 ‘보국안민의 기치를 든 전봉준 화상그림’을 남긴다. 묘길상과 삼선암이 등장하기도 하고 선화 ‘차 한 잔 하고 가시게’에서는 차 한 잔으로 품을 수 있는 삼라만상의 묘법을 화두로 던지기도 했다. 그가 그려낸 그림들은 강행원이 그리는 정토였다. 그리고 그 정토는 다름 아닌 부처님의 세계 서방정토와 닿아있다고 할 수 있다. 한 시대의 선지식이었던 청화 스님의 그늘은 그의 말대로 지금의 그를 있게 한 자양분이었던 것이다.

“그림에 몰두하면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번뇌 사라질 때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강 작가는 1977년의 첫 전시를 시작으로 수없이 많은 개인전과 국내외 그룹 및 초대전을 가졌다. 그렇게 그는 세상을 향해,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삼절을 이루다

2019년 10월, 강 작가의 시집 〈금까마귀 들락날락〉이 출간됐다. 그의 다섯 번째 시집이다. 그의 첫 시집은 1989년에 나왔다. 그는 고등학교 때 어느 문학의 밤에 다녀온 후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동안 자신이 그려온 그림들과 함께 선적인 시어로 그려낸 시화집 〈금까마귀 들락날락〉에서는 출가를 경험하고 민중미술을 이끌며 한국문인화의 새로운 길을 열었던 자신의 삶을 진하게 드러냈다. 존재의 이치에 다가간 불교적 메시지를 작가 특유의 감성으로 풀어냈으며, 폭넓고 깊은 불교사상과 사유에 바탕을 둔 그림도 눈길을 끈다. 책을 읽다보면 우리가 왜 종교를 찾고 시를 읽는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하게 된다. 무위한 자연으로부터 오는 감성을 느끼고 더 나아가 마음수행을 강조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새기게 한다.

강 작가는 인터뷰 내내, 그리고 인터뷰가 끝난 뒤에도 자신의 이름을 ‘삼절’ 앞에 놓지 않았다. “태어나보니 붓과 글이 가까이 있었고, 붓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좋아 평생 붓과 함께 살다보니 글씨를 쓰고 그림도 그렸고, 또 글씨와 그림을 그리다보니 시를 쓰게 됐다”고 했다. 그리고 “그 속에 ‘나’를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그늘을 지나온 덕분”이라고 했다.

강 작가는 인터뷰가 끝나자 기자에게 자신의 시집을 전하기 위해 펜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책 표지를 넘겨 자신의 이름과 기자의 이름을 적었다. 그에게 모든 글씨는 서예였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짧은 글에서도 그는 분명 서예가였다. 강 작가는 한 자 한 자 온 마음을 다해 글씨를 썼다. ‘삼절’이란 그림이나 글씨의 모습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붓을 잡는 마음의 모습으로 따지는 것이 아닐까. 얼마나 그림과 글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삼절의 기준이 아닐까.



2020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관음성지

휴휴암

사부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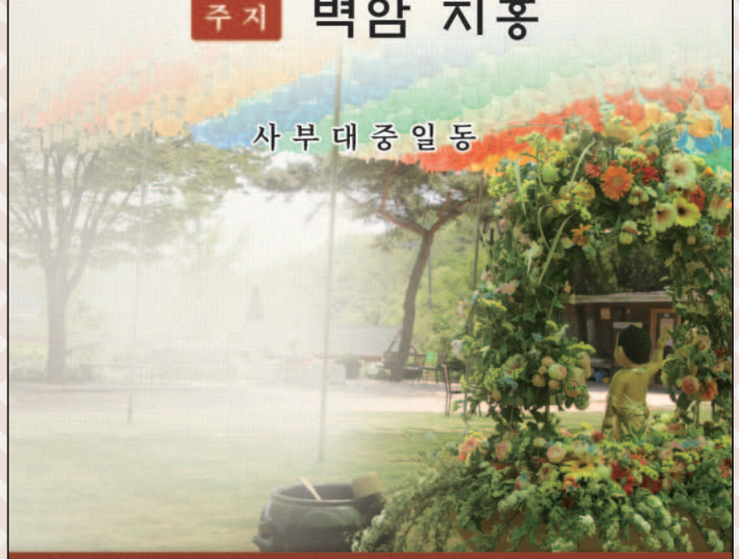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2길 3-16
TEL : 033-671-0093 ~ 5 FAX : 033-671-0525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정사

주지 벽암 지홍



경기도 광명시 설월로 58(소하2동 341-2)
우 14332 |
전화 | 02)898-8200
팩스 | 02)898-1844
www.sejon.org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 무등산

證心寺

회주 중현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증심사길 177
TEL 062)226-0108 FAX 062)222-5997
www.jeungsimsa.org

대한불교조계종

신 광 사

회주 경 주

주지 동 현

대중일동 합장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66번길 42-10
062)261-1529

대한불교조계종

소원정사

주지 도 계

연꽃향기자비나눔본부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79-5번지
062)279-3332



대한불교조계종

길 상 사

주지 도 제

길상사 법회안내

- 일요가족법회 : 일요일오전11시
- 어린이법회 : 토요일오후2시
- 경전반 : 매주 화요일 저녁7시
- 목련합창단 : 매주 수요일 1시
- 아함경강의 : 매주 월요일 오전11시(4월개강 예정)
- 신묘장구대다라니독송기도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 불교입문(기본교리) 13기 모집중 : 매주화요일 오전11시 (4월개강예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로 5번길 7(산정동)
062-955-4407

성각사(聖覺寺)

주지 정 신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772-3
TEL 062)574-4348 / FAX 062)573-4348



대한불교원효종

성황산 미 타 사

주지 경 오
(전북교구 종무원장)

사부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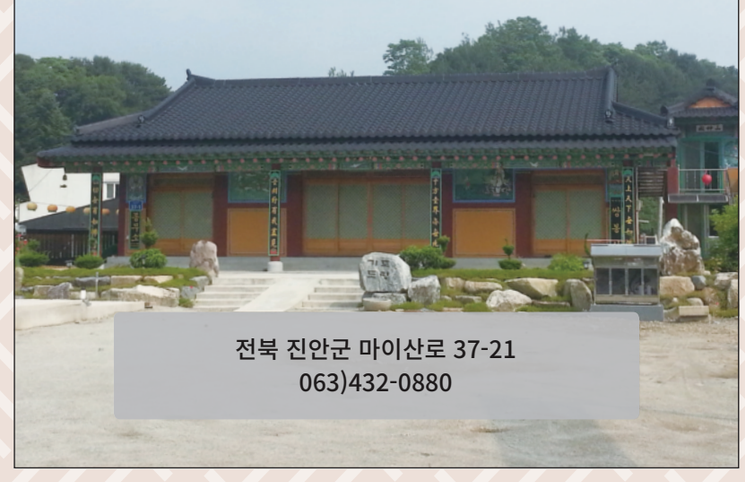
전북 정읍시 마곡로 141 (수성동)
063)533-1373



마이산 쌍 봉 사

주지 보경

사부대중일동



전북 진안군 마이산로 37-21
063)432-0880

2020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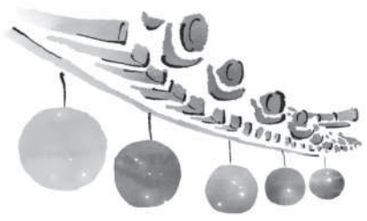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삼선포교원

삼선불학승가대학원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마길 40
Tel 02)923-0582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

주지 **계 호**

사부대중일동

부설기관

- ㈜진관사수륙재보존회
- 코끼리 유치원
- 진관사 불교대학. 대학원
- 진관사 템플스테이
-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
- 사.복) 진관무위원
- 불광노인복지관
- 불광데이케어센터
- 진관지역아동센터
- 구파발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73
Tel 02)359-8410
www.jinkwansa.org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진산 종하**

사부대중일동

서울시 관악구 승방1길 109-80 (남현동)
Tel 02)582-8609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도량

신 흥 사

회주 **성 일**
주지 **선 관**

대중일동·신도일동

부처님교화공원,
청소년수련원
불교대학, 경전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신흥사길 17-34
Tel 031)357-3916, 2695
FAX 031)357-8687

대한불교조계종

한라산 천왕사

조실 **월 서**
주지 **지 오**

사부대중일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2528-111
Tel 064)748-8811, 8822

대한불교조계종

노 적 사

주지 **종 후**

사부대중일동

남북평화통일기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315-35(북한동)
TEL 02)353-4924 / FAX 02)386-4198

대한불교천태종

삼 룡 사

경자년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주 지 **춘 광**
신도회장 **김용규**

사부대중일동

법회 안내

매월 둘째주 일요일 **정기법회**
매월 넷째주 일요일 **법화경 법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112나길 41
Tel 02)496-3839

달빛이 문처를 더하는
소박하고 작은 절

대한불교조계종

만월산 현 덕 사

주지 **현 종**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싸리골길 170
Tel 033)661-5878 / Fax 033)662-1080
www.hyundeoksa.or.kr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대전포교원

용 수 사

주 지 **설 문**

통도사대전불교대학
학 장 **설 문**

사부대중일동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191 2층
Tel. 042)531-1332
cafe:cafe.daum.net/yongsoosa

대한불교조계종

나한기도 영험도량

오봉산 석 굴 암

주 지 **오봉 도일**
신도회장 **김석진**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굴암길 519
031)826-3573 / www.sukgulam.com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하지권 작가

매일 실천하는 방생 '채식'

Cover Story
왜 채식을 해야 하는가

올겨울에도 각종 지역 문화축제는 빠지지 않고 살육제의 광고가 한창이다.

어느 해인가 겨울 방생법회를 강원도로 간 적이 있었다. 그때 가는 길에 잠시 들르게 된 화천에서 산천어 축제를 잠시 볼 기회가 있었는데, 멀쩡한 물고기들을 가두어 놓고 재미로 살생을 즐기는 모습은 비단 불살생과 방생을 하는 불교인이 아니어도 충분히 보기 불편했다. 좁은 공간에서 살기 위해 퍼덕거리는 산천어를 손으로 잡아 마구잡이로 주물러 터뜨려가면서 사냥놀이를 하는 어른과 아이들의 모습은, 그들이 휩쓸고 지나간 후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물고기들의 시체를 보는 것 이상으로 괴로웠다. 한쪽에서는 방생을 위해 물고기를 차에 싣고 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물고기들을 재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이유로 살생을 저지르는 모습이 공존하는 실상을 보면서 진정한 방생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난다.

10여 년 전 구제역으로 수백만 마리의 돼지가 산채로 매장당하는 모습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식탁에 오르기 전까지는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생명이었다는 것을 그전까지 크게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매장당한 이후에도 살기 위해서 버둥거리고 구덩이에 깔아놓은 비닐을 온몸으로 찢는 동물의 모습은 살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트라우마를 갖게 했고, 방송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먹거리에 대해 고민하게 했다. 그 당시 많은 사찰에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생명들을 위로하는 천도재를 지내고 이웃종교에서도 죽은 돼지의 영혼을 달래는 위령제를 지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해마다 구제역과 조류독감 같은 질병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고, 예방적 살처분이란 이름 아래 해마다 살처분되는 가축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심지어 매해 반복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미안함과 충격은 무뎌져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모든 가축의 질병은 가축이 다뤄지는 환경에서 오는 이유가 대부분이고 우리가 육식을 줄이지 않는 이상 가축을 키우는 환경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삼정육, 육식문화가 아니다

부처님은 사실 탁발을 하면서 음식에 대해 정확한 규율을 정하신 게 없다.

경전에는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의 육신을 먹는 것과 같다는 생각으로 모든 음식을 귀하고 여기고 음식에 대한 탐심을 버리며, 단지 공부하는 육신을 버티게 하는 약으로 삼아 음식을 주는 사람들의 공덕을 생각하면서 공부와 수행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먹을 수 있는 고기에 대한 설명이 '삼정육(三淨肉)'이란 표현으로 〈사분율(四分律)〉에 나오지만, 요즘 들어 일부에게는 불교 수행자도 육식이 가능하다는 이유 아닌 핑계로 이용되기도 한다.

삼정육은 △자기 눈으로 직접 죽이는 것을 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이는 소리나 이야기를 직접 듣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였다는 의심이 가지 않는 세 가지의 깨끗한 고기는 먹을 수 있다는 규정이다. 요즘처럼 공장식 축산으로 식품이라기보다 거의 공산품에 가깝게 마트에 진열된 고기는 어찌 보면 모두 삼정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익명의 다수를 위해 키워지고 살육되는 가축은 꼭 집어 나를 위해 죽인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 **산천어축제 · 공장식 밀집사육은 대중 자각 없이 자행되는 살육**
> **불교도가 불교적 삶 지향한다면 식탁에 오르는 고기, 진실 알자**

하지만 초기불교에서 육식에 대한 규정이 딱히 정확하게 필요하지 않았던 건 그 당시 인도의 사회 모습과 관련이 있다. 이미 고대 인도의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는 불살생과 비폭력을 강조하는 '아힘사(ahimsā)'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또한 정신적 지도자 대부분은 오늘날 락토베지테리언(lacto-vegetarian)에 해당되는, 우유나 치즈만을 허용하는 채식인들이었기에 따로 육식을 엄격하게 금할 필요가 없었다.

단지 탁발의 전통을 가진 불교는 탁발을 하면서 까다롭게 음식을 고를 수 없는 까닭에 보시자가 주는 대로 감사히 받아먹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육식에 대한 최소한의 규칙을 잡아 놓은 것이 바로 '삼정육'이다. 물론 이 규율도 출가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규칙일 뿐이다. 오히려 육식이 터부시된 것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 인도에서 일반적인 전통이었던 '희생제'를 강력하게 금하고 비폭력을 강조한 아쇼카 대왕에 이르러서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초기불교에서는 비록 엄격한 채식이 아닌 개량주의적이거나 중도적인 채식을 선택했지만 '불살생'의 계율을 전면에 내세우고, 깨달음을 위해 요구되는 단계인 계(戒)·정(定)·혜(慧)의 삼학 중 '계'가 제일 앞선다고 이야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살생의 계를 지키지 않는다면 깨달음에 이를 수 없는 기본 교리를 갖추고 있다.

육식 금지의 교리가 더욱 강력해지고 보편적 규범이 된 것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파된 이후였다. 인도와 달리 사계절이 뚜렷한 중국의 기후에 걸식의 전통은 적합하지 않았고 이에 걸식의 전통에서 직접 음식을 해먹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사찰 안에 공양간이 생기고 음식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면서부터다. 특히 양무제(464~549)에 이르러 술과 고기를 일체 금하는 단주육문(斷酒肉文)은 불교 수행자에게 반드시 엄격한 채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이후 대승불교로 일컬어지는 동북아시아의 불교 전통에서 채식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규범이 되었다.

당장 불국토를 이루는 방법

요즘 학대받는 동물의 권리에 대한 관심으로, 그리고 기후위기의 대응책으로 채식을 지향하거나 비거니즘으로 대표되는 엄격한 채식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채식은 이제 특별한 소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보편적인 문화로 거듭났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채식 급식권을 부여하는 지자체도 하나둘 생겨나고, 군대에서도 채식 선택권을 주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이야기되는 형편이다.

물론 일부 극단적인 채식주의자들이 채식이 무슨 특권인양 행동하는 것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고, 먹는 것이라는 게 단순히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닌 역사와 문화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에 대체로 육식문화가 발달한 한식에서 완전한 채식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프랑스에서는 먹는 것도 일종의 교육이라는 신념 아래 아이들에게 채식 교육을 하는 것처럼, 교육을 통해 우리의 식습관은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 매 끼니 채식을 하는 게 어렵다면, 육식을 조금 줄이는 것만으로도 채식을 향한 걸음의 첫발을 뗄 수 있다.

해마다 이상 기온으로 명명된 비상식적 기후의 징후가 늘어나고, 미세먼지는 노약자에게 치명적 질병 요인이 된 지 오래다. 또한 항생제로 범벅된 먹거리로 구성된 우리의 식탁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불교적 삶에서 찾아보는 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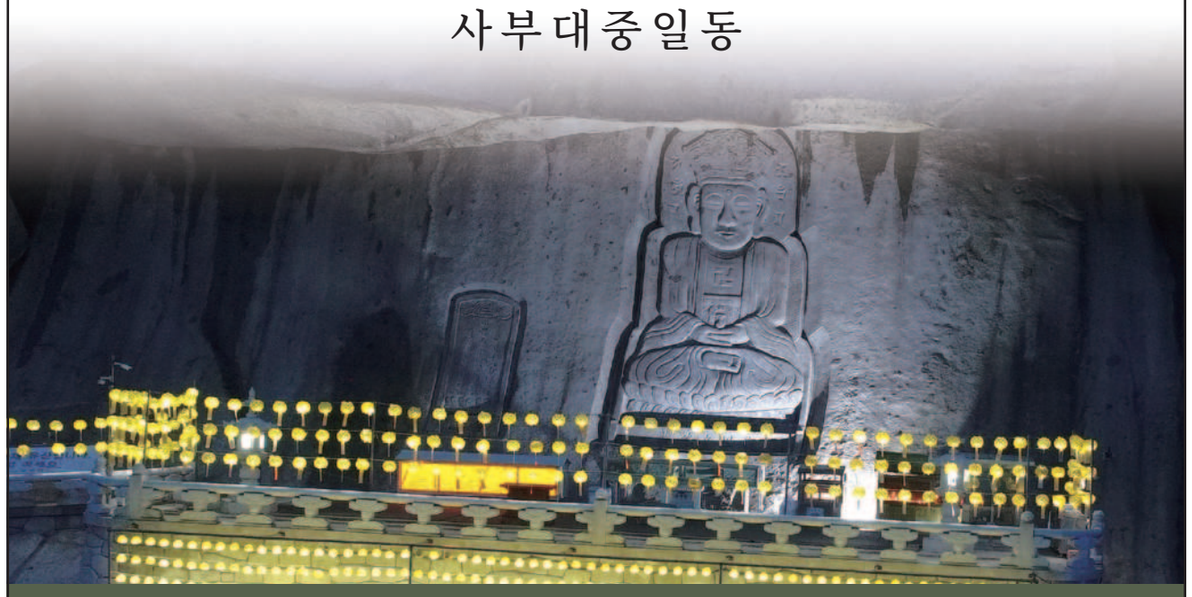
예를 들어 '방생' 같은 경우, 단순하게 물고기 몇 마리 강에 풀어주면서 복을 비는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비폭력과 자비의 적극적 행위이고 나를 포함한 모든 생명에게 적용되는 행동이다. 죽음을 앞에 둔 생명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위기에 직면한 지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씩을 실천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넓은 의미의 불교적 삶인 방생일 수 있다.

또 모든 음식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 전에 하나의 생명이었음을 잊지 않고 음식을 귀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여기는 것. 그 방생의 태도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국토를 머릿속에서만이 아닌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에 이루는 방법이 아닐까?



특별한 날 차를 타고 방생법회에 동참하는 일도 의미 있지만, 일상에서 매일매일 방생하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다.

김현진(아카마지 대표 · 종교음식연구가)

2020 謹賀新年 경자년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성지 나한도량
낙가산 보문사
사부대중일동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828번길 44 TEL.032)933-8271~3 www.bomunsa.me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시는 갓바위 부처님!
높은 산중턱에 좌정하시어 묵묵히 자비와 지혜로 중생들의 서원을 이루어 주시는 갓바위 부처님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도 어려움과 수고스러움을 마다 않고 갓바위 부처님 도량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선본사 사부대중은 올해도 모든 이들의 소원성취와 인연공덕을 짓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庚子년 새해에도 갓바위 약사여래부처님의 광명이 모든 가정에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서원합니다.
- 주지 법성 외 사부대중 일동 -
대한불교조계종 선본사 갓바위 Tel. 053.851.1868 / 853.9877

Vegan Life

‘비거노믹스’

육류 배제한 불살생의 가치

채식은 문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과거 소수의 개인취향으로만 여겨졌던 채식. 이제는 정말 과거의 이야기다. 최근 채식인구의 확대는 하나의 산업군 형성으로 이어졌다. 이른바 ‘비거노믹스(비건+이코노믹스)’ 다. 빌 게이츠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맥도날드 전 CEO 돔 톰슨 등이 투자자로 참여한 비건 식품회사 비욘드미트(Beyond Meat)는 지난해 5월 나스닥 상장 첫날 시가총액 38억 달러에 달하는 대기업으로 거듭났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는 2017년 42억 달러 규모인 대체육류 시장이 2025년 75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채식문화 형성에 따라 국내에서도 채식시장이 발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채식을 알리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시대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는 채식, 그 트렌드를 정리했다.



비건 유튜버 ‘초식마녀’의 유튜브 페이지. 비건 레시피부터 비건의 일상생활, 비건 먹방, 비건 제품 후기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CU에서 출시한 비건 음식들. 양사 모두 버거와 김밥을 선보였으며, CU는 간편식 도시락도 출시했다. 사진=각사 공식 페이스북

전 세계서 급성장하는 비건 사랑… 한국도 마찬가지
유튜브 · 어플리케이션 채식 콘텐츠 늘어 ‘녹색바람’

뉴미디어로 만나는 채식

세상의 모든 정보가 유튜브로 이어지는 시대, 비건들도 유튜브를 활용해 채식을 알리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유튜버는 ‘초식마녀’ 박지혜 씨와 ‘단지양’ 장지은 씨다. 둘은 현재 채식 유튜버의 양대산맥으로 꼽힌다.

이들이 제공하는 영상은 여느 유튜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먹방을 찍고, 여행이야기를 올리고, 화장품 사용 후기와 음식 레시피 등을 공유한다. 다만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음식과 제품이 ‘비건’ 이라는 게 특징이다. 수십 · 수백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는 아니지만 수천 명의 구독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채식은 먹을 게 없다’ 는 대중의 편견을 바꾸고 있다.

이들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채식’ 을 검색하면 비건 전문 유튜버는 아니어도 수많은 유튜버들의 채식이야기와 채식의 장점을 설명한 다큐까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는 채식 레시피를 정리한 어플리케이션이 다수 등장했다. 대체적으로 해외업체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인기가 높다. 많지는 않지만 한국어로 정리된 어플리케이션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이어트 초콜릿 치즈케이크 · 딸기 오트밀 스무디 등 채식요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저트를 만드는 방법까지 소개하고 있다.

어플리케이션 ‘채식한끼’ 는 전국에 위치한 채식전문 식당을 소개하고, 주소와 메뉴 · 가격 등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식당 이용자들의 후기도 볼 수 있도록 연계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직접 개발자들이 발품을 팔고,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의 제보를 받아 식당을 추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만 식당 244곳과 메뉴 867개가 추가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다.

비건 작가 ‘민김이(본명 김민결)’ 는 지난해 9월 비건 요리일상만화 〈냠.짭.꺽〉 출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에 나섰다. 민김이는 현대인의 식탁에 오르는 고기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알게 된 후 비육식을 시작했다. 동물에게 행해지는 폭력과 착취, 기후위기 등을 바라보며 채식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가벼운 만화책을 만들었다.

민김이의 크라우드펀딩은 123명의 후원자들 덕에 성공적으로 목표액을 채웠다. 총 116페이지의 분량으로 완성된 만화책은 머리말부터 등장인물 소개, 프롤로그(꿈 이야기), 프롤로그 2(이야기 시작), 레시피, 감사의 말로 이어진다. 또한 비건으로 살아가며 경험하게 된 고민은 ‘우물 안의 개구리’ 라는 코너에 담았다.

편의점 업계도 채식 주목

채식은 현대인의 소비성향을 가장 밀접하게 공유하는 편의점 업계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편의점 업계에서 비건 메뉴가 등장한 것이다. 그동안 소수로 여겼던 완전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메뉴 선택지가 생겨 이목을 끈다.

가장 먼저 비건 메뉴 생산에 나선 업체는 CU다. 100% 순식물성 원재료를 활용해 만든 ‘채식주의 간편식 시리즈’ 를 지난해 11월 내놨다. 도시락과 버거, 김밥 등 3가지 종류로 선보인 채식주의 비건 메뉴는 통밀이나 콩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만든 식물성 고기가 사용된다. 달걀 · 우유 · 버터도 들어가지 않으며, 소스에도 동물성 성분을 없앴다. 콜레스테롤 함량도 0%에 단백질 함량이 높아 영양면에서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 가격도 기존 편의점 간편식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부담을 줄였다.

CU에 이어 세븐일레븐도 곧바로 식물성 고기로 만든 ‘언리미티드 만두’ 를 출시했다. 언리미트 만두는 3분 렌지업만으로 간편하게 즐기는 냉동만두다. 갈비맛 · 김치맛 2종으로 나뉘며 푸드 테크 스타트업 ‘지구인컴퍼니’ 가 개발했다. 현미와 귀리, 견과류로 만든 100% 식물성 고기 ‘언리티드(Unlimeat)’ 라는 대체육류를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탄수화물과 지방 수치를 낮추고, 소고기 등심과 비교해 단백질 함량은 2배가량 높였다. 세븐일레븐은 여기에 이어 콩단백질로 만든 고기를 사용한 콩불고기버거와 버섯콩불고기김밥을 내놓으며 편의점 업계 비건 메뉴 경쟁에 불을 붙였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되고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는 채식. 진정한 채식트렌드를 한눈에 보고 싶다면 비건축제로 떠나자. 오는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에서는 국내 최대 비건전문 전시회 ‘제3회 비건페스타’ 가 열릴 예정이다.

비건페스타는 국내외 다양한 비건 제품을 비롯해 채식에 대한 세계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비건 산업 플랫폼이다. 지난해 열린 제2회 비건페스타에는 96개 업체가 참가해 3일간 2만 4000여 명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당시 참가업체 78%가 재참가 의향을 밝히고, 87%의 업체가 행사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약 3만여 명의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3회 비건페스타는 B2C(Business to Consumer)뿐만 아니라 B2B(Business to Business) 상담도 이뤄진다. 조기신청 마감일인 1월 10일까지 참가 신청한 업체에는 20%의 할인혜택이 주어지며, 관람객은 2월 3일 이전 1차 사전등록 시 40% 할인된 금액으로 관람할 수 있다.

[채식 트렌드, 어디까지 왔나]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국내 채식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섰다. 10년 전보다 약 2배가량 증가한 숫자다. 해외에서는 이보다 빠르게 채식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2019년을 ‘비건(vegan)’ 의 해로 선정했다.

혹자는 말한다. 채식은 먹을 것이 없다고. 그리고 건강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혹은 채식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소리친다. 과연 그럴까? 우리는 채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을까.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채식 트렌드를 소개한다.



대한불교조계종
꿈이 이루어지는 낙산사
낙산사 대중일동

무산사(양양포교당)
낙산유치원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
낙산사템플스테이 낙산사 불교대학
낙산사 불자마을(용호리, 낙산, 사천리, 손양면)
무산복지재단
낙산요양원 노인복지센터
양양군노인복지관 의상도서관
무산지역아동센터 1318무산지역아동센터
양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Tel 033)672-2447~8 www.nsksans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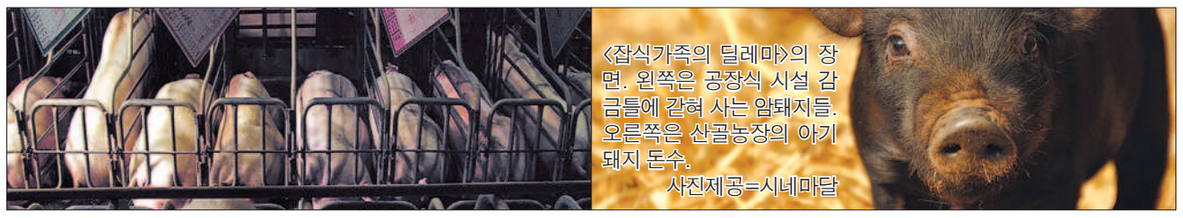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호암산 호압사
날마다 좋은날 되세요
호압사 대중일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호암로 278 (시흥동) www.hoapsa.org
☎ (02)803-4779 Fax (02)891-0770

“연기법과 業 생각하면 채식지향 당연한 일”

[황윤에게 듣다] 공장식 축산 현실과 기후위기 대안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 ‘자비사상’



〈잡식가족의 딜레마〉의 장면. 왼쪽은 공장식 시설 감금틀에 갇혀 사는 암퇘지들. 오른쪽은 산골농장의 아기 돼지 돈수. 사진제공=시네마달



황윤 감독은
2001년 동물원에 갇힌 야생동물들의 삶을 담은 〈작별〉을 시작으로, 멸종위기에 내몰리는 야생동물 이야기 〈침묵의 숲〉, 야생동물 로드킬을 소재로 한 〈어느날 그 길에서〉 등 현대사회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성찰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2010년 구제역 사태 이후 〈잡식가족의 딜레마〉를 선보이며 육식위주 식문화에 경종을 울리고, 저서 〈사랑할까, 먹을까〉를 통해 식생활 전환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푸른 초원의 돼지는 현실 아냐… 감옥만도 못한 삶
과학자들 “기후위기 대안은 채식, 육식은 건강 악화”

“도살장의 벽이 투명한 유리라면 사람들은 모두 채식주의자가 될 것이다.”

1960년대 전설적인 록밴드 비틀즈의 폴 매카트니가 채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남긴 소신발언이다. 한때 취미가 낚시였던 매카트니는 어느 날 낚싯바늘에 찔려 고통스러워하는 물고기를 보고 채식의 길을 걸었다고 한다.

2015년 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로 공장식 밀집축산형 시설에서 살아가는 돼지와 생태형 산골 농장에서 살아가는 돼지의 삶을 따라가며, 육식위주의 식문화에 화두를 던진 황윤 감독을 12월 23일 만났다. 한 사람의 채식주의자, 그리고 불자로서 채식의 당위성을 알리는 그에게 채식이야기를 들었다.

공장식 축산의 무자비함

“돼지를 실제로 본 적 있으세요?”

만난 지 불과 몇 분 지났을까. 황윤 감독의 짧은 질문에 기자는 고민에 빠졌다. ‘내가 돼지를 본 적이 있나…?’ 아무리 곱씹어도 돼지를 만난 기억이 없다. 황 감독의 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는 그렇게 시작됐다.

오래 전, 황 감독의 ‘최애(최고로 애정하는)’ 음식메뉴는 돈가스였다. 동물원에 갇힌 호랑이들의 삶을 담은 〈작별(2001)〉과 길에서 로드킬로 죽어가는 야생동물을 그린 〈어느날 그 길에서(2006)〉를 제작할 때만 해도 직접 입으로 먹는 가축의 삶에는 관심이 없던 그였다. 이때는 종(種) 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 같았다.

2009년 한 아이의 엄마가 된 황 감독. 차기작을 뒤로 하고 육아에 전념하던 2010년 말, 구제역이 터졌다.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대됐고, 돼지 330만 마리와 소 15만 마리가 땅속에 묻혔다. 소와 돼지의 비명소리가 황 감독의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돼지를 본 적이 없구나.’

“구제역 살처분이 확산되던 때 제 아이가 한창 말을 배우고 있었어요. 어느 집에나 있는 동물그림 책을 보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책 안에 있는 돼지들은 푸른 초원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궁금해졌어요. 이 그림책 속 돼지들처럼 실제 돼지들도 푸른 초원에 사는지.”

그렇게 황 감독은 차기작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다. 한데 시나리오를 쓰면 쓸수록 돼지는 참 이상한 점이 많았다. 사람들은 돼지가 ‘더럽고 게으르고 식탐 많은 동물’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돼지들은 자는 곳과 배변하는 곳을 알아서 가리는 깔끔한 동물이고, 개 못지않게 아이큐가 높다. 그리고 적당히 먹을 만큼만 먹는다. 사람은 돼지를 먹으면서도 누군가 혐오스러운 사람에게 ‘돼지 같다’고 욕한다. 그리고 공장식 축산이라는 제도로 학대한다.

당초 소를 주인공으로 시나리오를 쓰던 황 감독은 돼지의 이런 모순점들을 발견하면서 돼지가 흥미롭게 느껴졌고, 돼지를 주인공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다.

“한 번은 구제역 살처분으로 모든 돼지를 매장한 축사를 조사했습니다. 그 안에 피부병약, 장 치료제, 호흡기 치료제, 심장 관련한 약, 호르몬제, 항생제 등 온갖 약병이 널브러져 있더군요. 그만큼 좋지 못한 환경에서 열악하게 사육됐다는 것이겠죠. 전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돼지를 사육하다 다 살처분 해놓고 또 다시 정부예산 지원을 받아 밀집사육하는 이 시스템. 언제까지 반복해야 할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같은 현실을 보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돼지를 직접 보지 못한 기자는 황 감독에게 공장식 시설에 사는 돼지의 삶을 물었다. 그러자 그의 눈동자가 일렁였다. 잠시 마음을 진정시킨 황 감독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다.

“1000만이 넘는 국내 99.9%의 돼지들은 공장식 시설에서 사육됩니다. 새끼돼지들은 스트레스로 서로 무는 것을 막기 위해 꼬리와 송곳니가 잘리고, 수퇘지는 마취 없이 고환이 적출됩니다. 암퇘지들은 ‘스톨’이라는 감금 틀에 갇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임신하고 출산하고, 새끼를 빼앗기고, 그러다 새끼 낳는 ‘성적’이 떨어지면 도살장으로 보내지죠.”

이런 시스템에 더 이상을 힘을 보태고 싶지 않은 황 감독은 채식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심각한 동물권 침해가 벌어져도 사람들은 실상을 잘 알지 못한다.

“깔끔하게 포장돼 판매대에 놓인 고기를 보며 축산현장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죠. 철저히 가려져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폴 매카트니가 했던 말을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도살장의 벽은 더 이상 불투명하지 않아요. 인터넷과 유튜브라는 창이 있거든요. 고깃집과 정육점에는 소, 돼지, 닭이 요리사 모자를 쓰고 프라이팬을 든 채 웃고 있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상한 그림인가요?”

지구가 병들고 있다

황 감독은 이처럼 자비와 연민에서 채식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채식을 알리고 있다.

“고기와 유제품 위주의 서구식 음식섭취가 지구온난화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세계의 과학자들은 거듭 강조하고 있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 배출 총량의 18%를 차지한다는 2006년 유엔식량농업기구 보고도 있었다. 당시 자동차 · 비행기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 나오는 걸 합쳐야 13.5%였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인간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약 8년 정도 남았다고 봅니다. 이후에는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없다고 해도 지구가 스스로 더워져 ‘찜통 불가마’ 상태가 돼 식량재배가 어려워지고 극도의 사회혼란이 오며 재앙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한 세계의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기후행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우려 때문에 황 감독의 꿈은 우스갯소리 같지만 ‘할머니가 되는 것’이다. 과연 지구가 그때까지 버텨줄 수 있을까, 아이들이 기후 재앙으로 인한 멸종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화두를 풀고자 황 감독은 매일매일 식생활 전환의 필요성을 곳곳에 알리고 있다.

“이렇게 막대한 희생으로 생산된 육류와 유제품. 인간의 몸에는 유익할까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붉은 고기는 2군 발암물질, 소시지, 햄, 베이컨 등 가공육은 1군 발암물질에 속한다’고 2015년 발표했습니다. 반면, 사찰음식, 그리고 우리가 대대손손 먹어온 텃밭 야채와 콩, 두부, 된장으로 이루어진 식단은 몸을 살리고 동물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밥상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육식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채식은 독특한 것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사회 심리학자 멜라니 조이 박사는 육식을 가부장제와 같은 하나의 강요된 이데올로기라고 규명하며 ‘육식주의’라고 명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식은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거부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제 채식은 하나의 취향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내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가에 대한 선택이자 투표입니다. 한 사람의 비건보다 100명의 채식지향자가 세상을 더 크게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급식부터 군대의 식단까지, 그리고 ‘회식=고기’라는 프레임을 바꿔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일상 속 많은 회식이 비건 파티이거나, 최소한 비건 옵션을 제공하는 채식위주의 파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새로운 회식 문화, 우리 불자들이 일으키면 어떨까요.”

황 감독은 인터뷰 내내 불자들의 채식동참을 호소했다.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계율이 불살생이고,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연결돼 있다고 가르친 만큼 깨달음으로 가는 열쇠는 자비에 있음을 강조했다.

“부처님 당시 식문화가 육식이었는지 채식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동물에게 가혹한 고통을 주는 공장식 축산 시스템은 이제 인간의 건강은 물론 지구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식물은 생명 아니냐고요. 아니라고 주장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을 콩과 옥수수를 사료로 만들어 동물을 살찌우고, 그 동물을 먹으면 다른 20명이 굶는 것과 같습니다. 자비만 생각해도 우리는 육식을 줄여야 합니다.”

소고기 1kg을 얻기 위해선 10kg에 가까운 곡식과 물 1만5000L가 필요하다고 한다. 채식보다 훨씬 더 많은 식물을 없애는 일이다. 식물에게 생명이 있다면 채식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적은 살생일 것이다. 한동안 ‘카르마(業)’와 윤회를 강조한 황 감독은 연기법으로 채식의 가치를 설명했다.

“부처님께서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고 하셨듯이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 그릇의 스테이크 안에 가축의 눈물이, 아이들의 눈물이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나무가 베어지고, 마지막 강이 더럽혀지고, 마지막 물고기가 잡힌 뒤에야 그대들은 깨달을 것인가.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美 인디언 스쿼미시족 추장 시애틀(1786~1866)

2020 謹賀新年 경자년

미륵부처님이 계시는 아름다운도량

안양 수리산 용 화 사

주 지 혜 우

신도회장 송창록 및 신도일동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배울수 있는 미륵부처님의 깨우침을 배우세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16 공평빌딩 6층 (우)14032
blog.naver.com/wiserain10
•네이버 검색 의철미륵부처님 •유트브 불교방송 의철미륵부처님 TV
TEL. 031-444-9985





2020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대한불교조계종

왕 산 사

주 지 **왕 산**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포천시 호병골길 193
Tel 031)533-3245 / FAX 031)553-3246
www.wangsansa.org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 화 사

조실 **송 월 주** 스님

사부대중일동

다음 단체는 영화사에서 후원합니다
(사)지구촌공생회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복지법인 나눔의 집

서울시 광진구 영화사로 107
Tel 02)444-4321, 7215

대한불교천태종
힐링행복도량 다문화사찰

광 수 사

주 지 **무 원**

신도회장 **박병호**

신도일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서로 63번길 26
Tel 042)823-0332~4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포 란 사

주지 **자 혜**

포란사 신도회 일동

충남 청양군 비봉면 충절로 1850-48
041)942-5106

대한불교
조 계 종

포 교 사 단

포교사 일동

포교가 곧 수행
수행이 곧 포교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5층
Tel 02)927-0588 / FAX 02)927-5390

명상은 행복으로 가는 큰 길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명상지도자협회회
Korea Association of Meditation Teacher

이사장 **혜 거** 큰스님

원 로 **용 타** 큰스님

사부대중일동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82길 11 삼우빌딩 405
TEL 02-953-5307
FAX 02-2232-5364

대한불교조계종

— 오백나한기도도량 —

등 명 락 가 사

주 지 **청 우**

신도일동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괴방산길 16
033)644-5337, 5475

대한불교조계종

수 안 사

회 주 **세 민**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68길 30
Tel 02)587-4677 Fax 522-5666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법주 **법산 경일** 대종사

이사장 **이종현**

사부대중일동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Tel. 02)732-1206 / FAX. 02)732-1207
www.dongsanbud.net

한국불교태고종

능 하 사

주 지 **성 련**

사부대중일동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길 6 (4층)
02)701-7488



[명장에게 묻다] 채식문화 확산, 불교계 역할은?

불자들 채식문화 선한 에너지 만든다

대안 스님(사찰음식 명장)
금당사찰음식연구원 이사장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사찰음식은 채식보다 더 엄격한 수행식이다. 불교계가 채식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이유다.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하지권 작가

채식은 방생이다. 채식은 더 이상 취향이 아니라 시대 흐름이다. 그리고 채식문화의 확산은 육식을 경계하는 한국불교에 기회로 다가온다. 이에 발맞춰 한국불교 전통문화인 사찰음식이 해야 할 역할은 없을까?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대안 스님과의 1문1답 인터뷰에서 채식문화 확산과 사찰음식의 가치, 앞으로 불교계가 고민해야 할 것들을 들어봤다.

Q.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현대인이 채식에 관심 갖게 된 계기를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생명에 대한 존중심, 다른 하나는 건강인데요. 현대사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어가는 동물에 대한 배려와 개개인의 식사법 고찰로 채식주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환경문제 등 다양한 정보수집이 이뤄지고, 채식관련 서적이 잇달아 출간되면서 대중의 사고 전환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사회심리학자 멜라니 조이의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를 들 수 있겠죠. 인간이 육식주의 스키마(schema)에 빠져 생명을 경시하고, 살아있는 것을 모두 식탁에 올리는 잔인한 오류가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깨워주지 않았습니까?

Q. 채식은 개인의 건강을 넘어 모든 생명을 살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꼽힙니다. 이를 하나의 방생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채식은 우리가 지켜 나가야할 고유한 전통문화이자 뭇 생명의 평화를 기원하는 비폭력적 식사법입니다. 역사 속에서 깨달은 선지식이 남의 살을 함부로 먹었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우리가 먹은 음식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 보리심을 발현해야 하는 불교도가 자신의 뱃속을 동물의 무덤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청정하고 여법한 수행자가 많아져야 불교가 빛이 납니다. 그리고 수행자들의 이 같은 채식은 다른 생명의 방생으로 이어지겠죠.

Q. 일부 불자들은 "부처님도 고기 먹었다"는 말로 채식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런 항변에 어떤 대답을 들려주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요?

한국불교, 특히 조계종은 스님들의 독신출가와 육류·오신채를 경계하며 살아온 전통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론 '삼정육'을 통해 제한적인 육식을 허용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는 육식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행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도 망치고, 불교도 물을 흐리게 됩니다. 다만 채식 안에서의 자유로운 식사법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대사회는 식품공학의 발전으로 대체육을 개발하고, 콩으로 많든 수많은 가공식품으로 편리성까지 더해 질 좋은 식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한국불교는 대중의 입맛을 맞춘 채식공양으로 밖의 음식을 먹지 않는 습관을 키워내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Q. 사찰음식도 채식 범주에 들어가 채식문화 확산을 위해 불교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대사회에서 '비거노믹스'라는 경제용어가 떠오르고 있죠. 그만큼 채식이 또 하나의 경제를 형성할 만큼 많은 이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채식음식점을 비롯해 비건 베이커리가 생겨나고, 편의점에서도 채식메뉴를 선보이고 있죠. 분명 불교계도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찰음식점을 운영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문화의 차원과 사업의 차원에서 잘 선택해야 하죠. 예를 들어 사찰음식을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음식으로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음식점과 겨뤄 사업성을 따져 접근할 것인지 말입니다. 이런 고민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라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사업팀이 불교계에 있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Q.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찰음식전문가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설 무대가 없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사찰음식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든지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 그리고 최고의 권위자 그룹이 많은 것을 선점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건 다음 세대에 대한 배려와 응원차원에서 함께하는 무대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사찰음식을 배운 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가령, 사찰음식점을 하고자 한다면 전문가 그룹을 묶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죠.

이와 함께 채식음식점 등이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대중의 접근성이 떨어지니 지역적 안배도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교구본사급 사찰에서 사찰음식점과 문화관을 동시에 운영한다면 현재 배출된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불교문화를 더욱 널리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끝으로 채식문화 속 사찰음식 고유의 가치와 불자들이 육식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찰음식은 일반식과는 조금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만드는 이의 마음을 가르친다는 점, 그리고 가장 좋은 식재료를 선별하고 조리법은 단순하지만 맛이 좋다는 점인데요. 이런 사찰음식의 가치는 현재 확산되는 채식문화와 함께 더욱 발전하리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불교계에서는 이를 새로운 기회로 여겨 더욱 발전시켜야겠죠.

불교는 한 생을 통해 종교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미래까지 연결된 수행과정을 거쳐 중생에서 부처로 거듭나는 종교입니다. 인과와 윤회를 말하며 계율을 지키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겠죠. 선한 에너지는 수행의 기본입니다. 바로 나 자신, 그리고 가족, 전 세계와 지구를 위해 우리가 채식을 지향한다면 세상은 보다 선한 에너지로 가득 찰 것입니다.

2020 謹賀新年 경자년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조 실 현봉 근일
주 지 법산 자현
부주지 등현
총무국장 성오 기획국장 등안
교무국장 광해 재무국장 청암
사회국장 도선 포교국장 원경
호법국장 혜오
의성군노인복지관 관 장 휴 담
영주장애인복지관 관 장 도 선
연 화 마 을 시설장 구 견
안동청소년문화센터 관 장 김성동
안동장애인복지관 관 장 변만호
고운노인요양원 원 장 정명관
의성지역자활센터 센터장 김옥희
사부대중일동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구계리 116) | www.gounsa.net
전화 054)833-2324 | 팩스 054)834-6935 | 사찰음식체험관 054)834-2324

2020 謹賀新年 경자년
한국불교조계종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 봉
종도일동
KBB한국불교방송주식회사
KBB한국불교방송신문. 월간시사뉴스
KBB한국불교방송자문위원회
KBB한국불교방송불자총연합천불회
사)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본산
총본사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4 문경백봉사
방송국 :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545번지 예림빌딩 606호
전화 : 1577-1016(방송국) 1670-2010 팩스 : 054-571-7498

2020년 새해 福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금정구 불교연합회

고 문 경선스님(범어사) 계전스님(국청사)
월인스님(승가종 종정) 동원스님(연화종 종정)
자문위원 조연스님(법연원 회주)
회 장 고담스님(천불정사)
수석부회장 지홍스님(보광정사)
상임부회장 혜창스님(원효사)
부 회 장 법일스님(법장사) 개문스님(광명사)
홍일스님(법전사)
사무총장 동암스님(금용사)
감 사 운곡스님(관음사)
기획국장 석산스님(안국선원)
문화국장 지광스님(대운사)
사회국장 혜공스님(구룡암)
포교국장 현수스님(홍법사)
재무국장 박 분 순(달오사)
사서국장 심일스님(천불정사)
회 원 승공스님(칠보사) 진여스님(다보사)
청명스님(붇다사)

금정구 불교연합회 회원 사찰 주지 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230-9
천불정사 內 | Tel 051)583-9233

대한불교진각종 부산교구

교구청장 진 광
종무국장 원 경

부산교구신도회
신교도 일동

부산 동구 구청로 18-1
Tel 051)464-0668

대한불교조계종

광 명 사

주 지 무 아

신 도 일 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창로14번길 46
Tel 051)646-0843

부산광역시

남구불교연합회

회 장 회중 지원(문수사)
수석부회장 승 찬(동명불원)
부 회 장 법 천(소원사)
감 사 능 후(대연정사)
대 각(옥천암)
사무총장 호 명(무문홍법사)
사무부총장 혜 광(대연사)
사 무 국 장 대혜법사

남구불교연합회 회원 사찰 주지 일동

남구불교연합회 신도회
신 도 회 장 신선덕행
부 회 장 광혜 성재곤

부산시 남구 홍곡로 336번길 41 (용당동)
문수사內 Tel 051)623-9253

보건복지부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원 범

부본부장 자인, 목종, 심산
고담, 해암, 이욱태
감 사 성림
기획이사 마나
재무이사 성관, 김법영
홍보이사 혜산
운영이사 성문, 주석, 심행

이 사 일 동

<주요사업>
장기기증, 환자 치료비 지원

전화 051-853-0429
팩스 051-853-0429
메일 bssangmung@hanmail.net
부산시 동구 고관로 63번길 1, 2층(수정동, 은정빌딩)

한국불교태고종

동래 읍성 마안산 자 비 암

부산유형문화재 151 육경합부
부산유형문화재 152 선림보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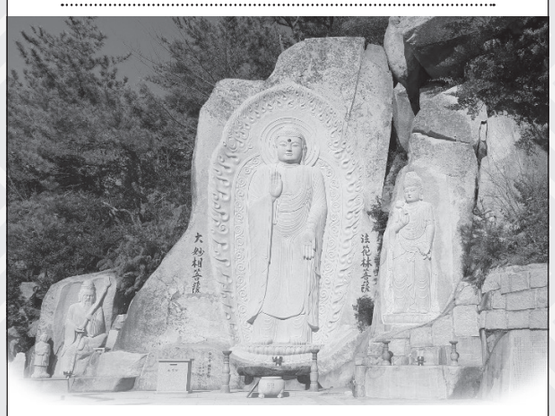
주 지 청 암 자 관

신 도 일 동

부산 동래구 복천로 5번 가길 46
Tel 051)552-3320

미륵도량

백양산 선 광 사



주 지 성 문

신도회장 강 귀 자 부회장 유 미 점
사무국장 이 미 희 연화회장 김 복 자

신 도 일 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2동 21-1번지
Tel 051)302-5657, 303-4848
Fax 051)301-4854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

회 주 법 흥
주 지 지 원

신도회장 신선덕행 외 신도일동

사회복지법인문수복지재단
사단법인 위드아시아
용호 종합사회복지관
용호 종합 어린이집
문수 노인 통합지원센터

부산시 남구 홍곡로336번길 41 (용당동)
Tel 051)624-3754, 7848
Fax 051)623-9253

부산교수불자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성불합시다.

"대학생불자활성화 108후원"모집

불교인구 감소와 탈종교 시대에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현재이자 미래인 대학교 불자동아리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08후원회'에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부산교수불자연합회 회원일동 합장

자동이체 : 1만원/월
계좌번호 : 농협 301-0169-1519-21
(예금주 : 부산교수불자연합회)
문의 : 010-7268-9959 (회장 정상목 교수)

맑고 향기로움이 머무는
백옥 부처님 천불도량

봉화산 길 상 사

주 지 자 인

연등회 회원일동
관음회 회원일동
신 도 일 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촌소류지길163-4(송정동)
Tel 051)973-5224, 3076

지장기도도량

천 불 정 사

주 지 선 묵 고 담
부 전 지 원
원 주 조정자

신도회회장 이정민 변호사
신도회부회장 양귀임 박상옥
신도회총무 김영애
거사림회장 이경철
고담나누미회장 신희숙

사 부 대 중 신 도 일 동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230-9 (장전동)
Tel 051)583-9233 Fax 051)583-6362

송 광 정 사

[부설] 송광정사문화대학

주 지 진 각 (교육학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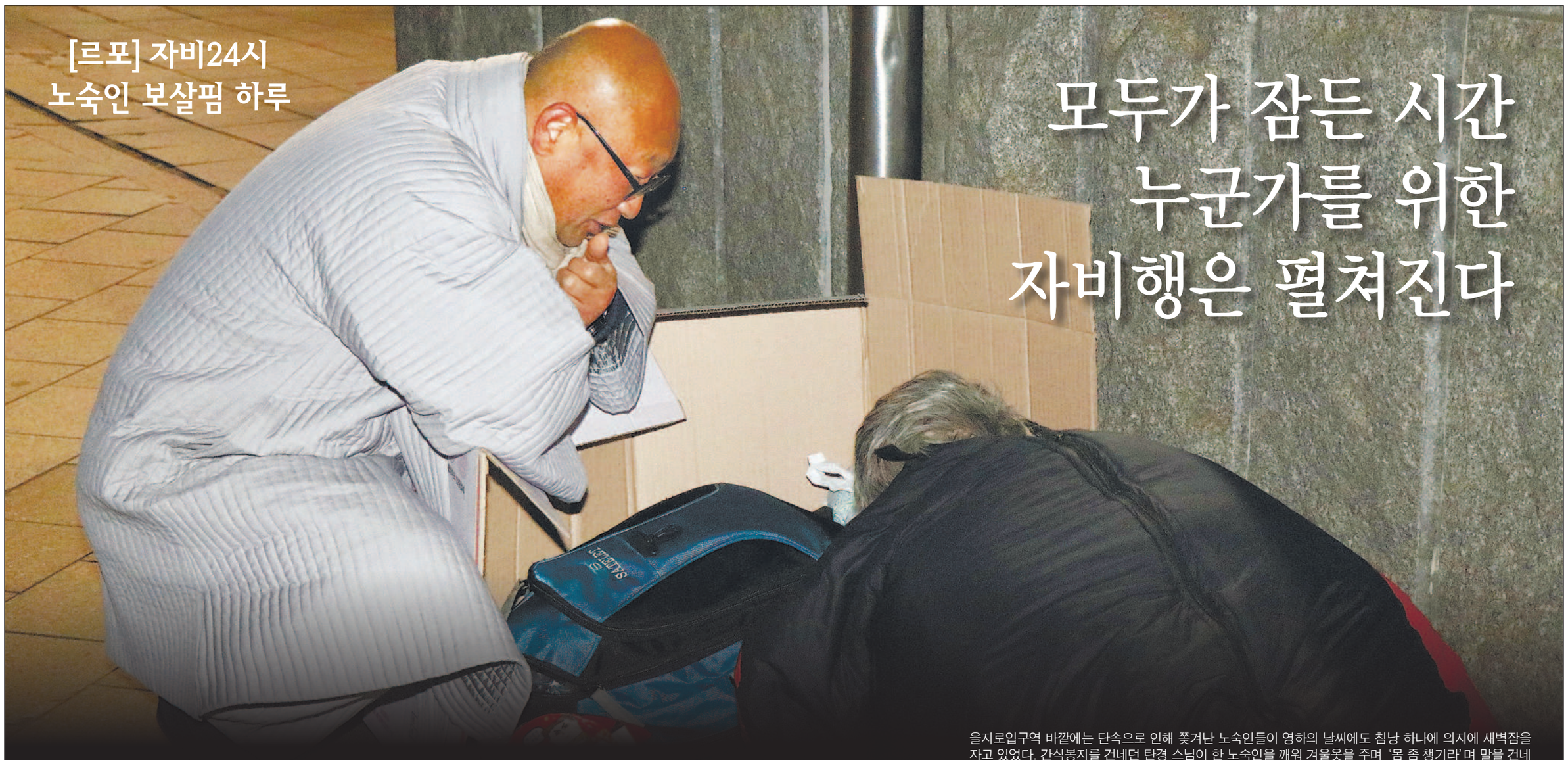
현)서울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현)연제불교사회복지센터 대표 국세청등록
현)부산경상대학교 사회복지 명예겸임교수
현)동국대학교불교문화대학원 객원교수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정 토요스쿨 우수기관
송광정사 토요 한자교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 225번길 15
TEL 051)867-8438

[르포] 자비24시
노숙인 보살핌 하루

모두가 잠든 시간 누군가를 위한 자비행은 펼쳐진다



을지로입구역 바깥에는 단속으로 인해 쫓겨난 노숙인들이 영하의 날씨에도 침낭 하나에 의지에 새벽잠을 자고 있었다. 간식봉지를 건네던 탄경 스님이 한 노숙인을 깨워 겨울옷을 주며 '몸 좀 챙기라' 며 말을 건네고 있다. 이 노숙인은 새해 소원이 '스님의 건강' 이라며 밝게 웃었다. **노덕현 기자**

자비보살들의 하루는 해도 뜨지 않은 어두운 새벽에 시작된다. 새해 맞이 새벽 취재를 위해 서울 종로에 위치한 사단법인 다나의 작은 법당에 등을 대고 누웠다. 다나의 작은 법당은 쌀과 물, 라면 등의 물품으로 법당인지 창고인지 모를 지경이었다. 작은 사무실에는 봉사자로 동참한 대학생 2명이 쪽잠을 자고 있었다. 매주 토요일 새벽 3시면 시작되는 노숙인 보살핌을 위해서다.

잠시 몸을 뒤척이고 시계를 보자 어느새 새벽 2시 40분이다. 다나 대표인 탄경 스님은 이미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다. 스님이 먼저 주섬주섬 작은 손수레에 준비한 음식을 싣자 작은 방에 있던 학생들이 나와 스님을 돕는다. 하얀 봉지 안에는 컵라면 한 개와 주스, 초코파이 100개가 들어있다.

한파가 몰아친 구랍 21일 토요일 새벽 3시, 거리에서 잠시 기다리니 멀리서 온 이들이 합류했다. 네팔 이주민법당에 있는 네팔인 스님과 네팔인 자원봉사자, 그리고 진해에서 올라온 해군 출신 정의정 씨다. 탄경 스님을 필두로 6명의 불자들은 카트 2대에 물품을 나눠 담아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새해 거리로 나섰다.

스님의 노숙인 먹거리 배달은 2016년 5월 시작됐다. 스님이 2005년 파키스탄 지진 때 현지에서 봉사하며 나눔의 기쁨을 느끼면서 부터다. 이후 네팔이주노동자 공동체를 돕고 진해 대광사에서 주지로 있을 때의 인연으로 오늘의 일행이 모였다.

이날 새벽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여느 때 같았으면 술자리를 파한 후 택시 잡는 이들로 붐볐겠지만 강추위에 광화문 일대는 연말임에도 사람 한명 볼 수 없이 조용했다.

일행은 먼저 조계사 인근 오피스텔에서 출발해 광화문역 지하로 향했다. 매주 진행하는 만큼 손수레를 끄는 모습이 매우 익숙해 보였다. 광화문 우체국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이미 깨어있는 노숙인 2명이 일행을 반겼다. 스님과 간단한 안부인사를 건넨 이들은 박스를 걷어 24시간 ATM부스 안에서 추위를 피하고 있었다.

"지금 만난 분은 그래도 깨끗한 분이에요. 머, 이른바 자기관리를 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광화문 지하도에 도착하자 종이상자 10여 개가 눈길을 끌었다. 노숙인들이 바람을 피하기 위해 만든 작은 안식처다. 행여나 잠이나 깰까 스님과 봉사자들은 그들의 발밑에 먹거리 봉지를 조용히 놓았다.

"받는 분들도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르게 갖다 주는게 제일 좋아요. 괜히 소란스럽게 하면 이분들 주무시는데 방해되니 그만 얼른 갑시다."



네팔인 봉사자와 정의정 씨가 스님을 도와 보시행을 펼치고 있다.

라면 · 주스 등 봉지 담아
매주 토요일 노숙인 전달
뜨끈한 국물 보시가 소원



종각역 노숙인 발밑에 놓은 간식 봉지.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소리에 이들이 깰까 조심스러워지는 찰나 스님이 길을 재촉했다. 광화문역 지하를 거쳐 일행은 다시 종각역으로 향했다.

종각역 입구에는 스님 일행을 기다리는 반가운 얼굴이 있었다. 바로 신문배달원들이다. 기다렸던 이들은 스님을 만나 간식 봉지를 받는다. 사람이 없이 쌓인 신문더미 위에도 간식 봉지를 놓는다.

종각역을 거쳐 을지로입구역으로 일행은 이동했다. 을지로입구역에 가자 많은 노숙인들이 거리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다. 스님은 "아마 단속이 떠서 지하철역에서 쫓겨난 모양"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이들은 봄여름가을에 벌어서 겨울에는 쪽방촌이라도 찾아서 들어간다. 겨울에 이렇게 지하철역 등에 있는 분들은 상황이 매우 어려운 분들"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다른 곳과 다르게 자고 있는 한 노숙인을 깨웠다. 오랜 인연이어서인지 그 노숙인은 스님을 보자마자 웃었다. 스님이 손수레에서 꺼낸 것은 두꺼운 겨울옷. 전에 부탁한 옷이라고 말한 스님은 "어디다 팔지 말라"며 신신당부하며 길을 재촉했다. 스님의 등을 향해 노숙인은 "스님, 새해에도 건강하세요"라고 말했다.

이날 먹거리 배달은 남인사동 마당에서 끝이 났다. 인사동 마당에서 일행은 테이블을 폈다. 손수레에 싣고 온 쌀과 칫솔 등 생필품이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 청소노동자를 비롯해 폐지를 줍는 노숙인들 등이 모여 저마다 필요한 것들을 가져갔다.

스님은 "처음에 술취한 노숙인에게 '조심하시라' 고 하자 들려온 말은 '당신이나 잘해' 라는 말이었다. 지금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도 한답니다"고 말했다.

LIG넥스원에 근무 중인 정의정 씨는 해군 제대 후에 잠시 노숙을 했다. 정씨는 "노숙 기간 스님 생각이 많이 났다. 그때의 경험으로 노숙인 보살핌 봉사를 하다가 이제는 아예 정이 들어버렸다"고 털어놨다.

스님의 새해 꿈은 작은 국밥집을 여는 것이다.

"노숙인분들이 아무 때나 와서 먹을 수 있는 간식이 아닌 뜨끈한 국밥을 대접하고 싶어요. 교구본사에서 포교국장을 할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주변 어려운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걸 할 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요?"

대한불교조계종
우리말 금강경 특별기도 영험도량
수 국 사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23길 8-5 (구산동)
TEL. 02)356-2001 / FAX. 02)359-6297

"봉사와 나눔은 우리동네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마이산 탑사
회 주 원암 해명 스님
주 지 청파 진성 스님
총 무 정해 스님
신도회장 윤복길
봉 사
연탄나눔 봉사
갑룡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진안군 어르신 생신잔치 봉사
전주교도소 불교반 특별법회
사랑의 백미나눔
마이산탑사 색소폰 봉사밴드
마이산탑사 나누우리 봉사단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367 | Tel. 063) 433-0012



배식 전 팥죽을 쑤며 쪽방촌 도우미들이 손하트를 하고 있다. 추운 겨울이지만 따뜻한 죽의 온도 만큼 이들의 자비심은 따뜻했다.

[르포] 자비24시 쪽방촌 도우미들의 하루

죽 한그릇에 자비 온도 36.5°


쪽방촌 주민들에게 직접 배식하는 김윤석 경위(사진 오른쪽)


배식 전부터 길게 줄을 선 쪽방촌 주민들.


새벽 5시 방앗간에서 팥을 빻는 모습.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이틀 전부터 식재료 다듬어
새벽잠 줄여가며 준비 박차
한끼 음식에 정성담아 보시

"이야, 이제야 물이 깨끗해졌네. 이제 잘 삶아질 겁니다. 드디어 따뜻한 죽 한그릇 대접하겠네요."

체감온도가 영하 3도까지 내려간 구랍 18일 오후 4시, 영등포역 6번 출구 쪽방촌으로 들어가는 골목에 세워진 무료급식소에서는 큰 통을 채운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연신 넣어 팥을 씻는 봉사자들이 있었다. 손이 시려울 만도 하지만 주방용 고무장갑 하나 끼고 검게 나오는 물을 계속 비워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고스란이 모여주는 쪽방촌 골목에는 불자인 쪽방촌도우미봉사회 사람들이 삶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매주 한끼 식사를 대접한다. 쪽방도우미봉사회는 김윤석 경위가 2001년 박부득 봉사팀장과 함께 조계사 붓다맘봉사회를 비롯한 불자 봉사자들을 모아 영등포 쪽방촌을 돕기 위해 구성한 단체다. 이들은 보통 목요일이면 국수를 마련해 쪽방촌 주민들에게 점심공양을 올린다.

평소 만드는 국수는 새벽부터 준비가 시작되지만 이번 공양은 배식일 전날부터 수고가 더해졌다. 바로 준비되는 음식이 국수가 아니라 팥죽이기 때문이었다.

멸치육수를 우려내 소면을 삶아 완성하는 국수와 달리 팥죽은 조금 더 많은 손길이 가는 음식이다. 이틀간의 대작전 끝에 나오는 것이 팥죽이다. 먼저 배식전날 밀가루 반죽을 하여 새알을 빚는다. 숙성될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주재료인 팥을 씻고 삶아 방앗간에서 빻은 뒤 죽을 쑨다. 팥의 경우 잘 쉬는 재료로 빻은 뒤에는 쉬기 시작하기 때문에 미리 물에 씻어 불리지만 보통 배식 당일 새벽에 방앗간에서 빻는다.

그렇게 때문에 배식 전날부터 봉사자 10여 명은 배식소에 모였다. 홍두깨를 들고 밀가루 반죽을 하는 남성 봉사자들부터 반찬을 만들고 옹심이를 만드는 여성 봉사자까지 옹기종기 모여 준비하는 모습에서는 예전 시골 마을의 모습이 비쳐졌다. 주민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었던 정이 이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배식소 바깥에서 새알을 가지런히 정리하던 김재금 씨는 "조계사에서부터 함께 오래 같이 해 낯이 익다. 다들 아침부터 나오지만 힘든 것 모르고 매주 모이고 있다"며 밝게 웃었다. 김씨는 본인도 아침 일찍 집에서 나오지만 20년 넘게 봉사팀을 이끈 김부득 팀장의 경우 새벽에 인천 집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뭐 음식 하나 만들어 보시하는게 대수냐"며 말을 아꼈다. 어떻게 어떻게 하고 누구는 여기서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마을 반장 같았다.

10여 명의 봉사자들이 도란도란 웃으며 대화를 나누며 새알을 빚다보니 어느새 700명 분의 팥죽 옹심이가 완성됐다. 빨간 바구니에 담긴 하얀 새알 옹심이들이 나란히 반짝였다.

새벽 5시, 방앗간에서 시작된 하루

여성봉사자들의 수고가 전날부터 이어졌다면 김윤석 경위를 비롯한 남성 봉사자들은 배식일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였다. 19일 새벽 5시 영등포 청과시장에 위치한 방앗간에서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무료급식소에서 삶아진 팥은 바로 큰 말통에 담겨 방앗간에 도착했다. 1톤 탑차에서 팥이 담긴 통을 나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 방앗간 주인까지 장정 서너명이 함께 힘을 모아 통들을 내리고 나면 등줄기에 땀이 흥건했다. 쿵쿵거리는 방앗간 기계가 돌아가는 중에 막간에 쉬는 틈이 생겼다.

김 경위는 "무거운 것을 나를 일손이 필요하면 이 곳 저 곳 도와줄 곳에 연락을 넣는다. 본인들 일정도 바쁘겠지만 잠시나마 도와주러 나오는 이들이 있어 일이 돌아간다"고 전했다.

방앗간에 곱게 빻여져 나온 팥을 다시 탑차에 실어 무료배식소에 도착한 시간은 8시. 보통의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시간이지만 이때부터 배식소는 바빠진다.

기다렸던 봉사자들이 팥을 삶았던 솥에 다시 불을 당기고 밑반찬 준비도 빠르게 진행된다. 서서히 죽을 쑤기 시작해 걸죽하게 팥죽이 완성되면 어느덧 배식시간인 12시가 되어 간다. 팥죽이 거의 완성되면 전날 빚어 논 새알옹심이가 솥 속에 투입된다.

다들 10여 년 넘게 호흡을 맞춰서 인지 솥을 책임지는 남성 봉사자들부터 주방에서 재료를 다듬는 여성 봉사자들까지 손발이 척척 맞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이 고소한 냄새를 내기 시작할 때면 무료배식소 바깥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선다. 아예 집에서 쓰는 그릇을 챙겨온 이들의 모습도 보였다.

김 경위는 "보통 두 그릇 이상씩 잡숫고 가신다. 국수의 경우 많이들 드시기 때문에 그릇도 아예 큰 걸로 준비한다. 이분들 사이에도 거동이 힘든 분들이 있는데, 대신 나와서 전달해주는 분들도 있다.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서로 보듬어 안는 정이 살아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소박한 희망, 새해를 열다

"어서 많이들 드세요. 넉넉하게 준비했으니 천천히 체하지 않게 드세요."

이윽고 배식시간인 12시가 다가오고 첫 팥죽을 이들에게 전하며 봉사자가 건넨 말 한마디에는 쪽방촌 사람들을 위한 이들의 모든 노력이 응축돼 있었다.

연말연시 선물을 사기 위해 인근 대형쇼핑몰에 줄을 선 모습과 한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줄을 선 모습이 5분 거리를 두고 우리 사회에도 상반된 모습이 같은 동네에도 공존함을 느끼게 했다.

이들의 새해 희망은 소박했다. 몸을 크게 다쳐 일할 수 없게 되어 쪽방촌에 왔다는 김OO 씨는 "새해에는 몸이 건강해져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인력시장에서도 몸이 불편하면 일거리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호소한 김 씨는 "작은 일이라도 정기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황OO 씨는 "새해에는 날씨만 조금 좋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배식까지의 모든 일정에는 탤런트 윤서현 씨 등이 참여했다. 그동안 후원자로만 있었던 윤 씨는 일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봉사자로 동참했다.

윤 씨는 "평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많다고만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나와 보게 되니 저는 그동안 편하게 살았구나를 느끼게 된다. 앞으로 조금 더 주변을 보살피며 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직접 나와서 돕다보니 체감이 많이 된다. 새해에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내는 계기가 만들어 졌으면 한다"고 미소 지었다.

옆에서 듣던 김윤석 경위도 한마디 거들었다. 김 경위는 "쪽방촌도 최근에는 매년 봉사자들이 나이를 먹고 젊은 봉사자들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대가도 못 드리는데 이렇게 나와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 경위는 이어 "여러 사람들의 노력 끝에 지난해 무허가 건물이라고 철거까지 진행되던 배식소가 벌금을 내는 수준에서 그쳐 참 다행"이라며 "새해에는 불자들 사이에서도 봉사가 수행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라는 마음에 모두들 주변을 돌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죽을 담은 그릇이 쉴새없이 오가는 동안 어느덧 오후 2시가 가까워졌다. 배식소 앞에 길게 섰던 줄도 사라졌다. 따듯한 죽 한그릇 먹고 다시 힘을 얻어 돌아가는 이들을 보며 배식소 봉사자들의 마음에는 새해를 맞는 또 다른 힘이 생겨나고 있었다.





죽음 기다리며 '행복'을 찾다

[르포] 자비24시 호스피스봉사자의 하루

영적돌봄은 24시간 지속
새벽 4시 출근해 대기해
죽음 인식 변화가 '행복'



영적돌봄가 능인 스님과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가 환자를 돌보고 있는 모습. 죽음을 앞둔 환자지만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돌보고 있다.



손가락이 하나 없는 장애 환자의 손을 잡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손.



자원봉사자가 아로마테라피 요법으로 환자의 발을 마사지하고 있다.



영적돌봄가 능인 스님이 폐암 환자와 생을 회고하며 의미있는 삶이었다며 격려하는 모습.



한국불교호스피스 협회장 능행 스님(오른쪽)이 임종하신 스님을 배웅하는 모습.

24시간 임종의 순간

마지막 죽음의 순간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처럼,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도 짐작만 가능할 뿐 정확한 시간은 알 수가 없다. 방금 전 눈을 뜨고 바라보았던 환자가 새벽에 갑자기 죽음을 마주하듯 영적돌봄가 스님들의 일상은 항시 죽음을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새벽이든 어두운 밤이든 죽음이 선택한 시간에 환자의 임종을 마중하기 위해 호스피스 병동을 찾아야 했다.

하루를 알아보고자 방문했던 영적돌봄가 스님들의 일상은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무의미할 수도 있겠다. 휴가는 말할 것도 없고 잠자는 것 조차 반납한지 오래다.

그래도 들어본 스님들의 첫 하루 시작은 새벽 4시 쯤이라고 했다.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바로 앞에 위치한 기숙사가 스님들의 처소이다. 하숙집처럼 잠만 자는 곳이라 표현했다. 일어나자마자 공양을 하고 나면 도시락 두 개를 쌌다. 점심과 저녁 공양을 하기 위해 기숙사를 찾기엔 멀다고 했다. 고작 100미터 가량 되어 보이는 거리지만 영적 돌봄가 능인 스님은 마음의 거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기숙사를 찾아 공양을 먹으면 작게라도 일어나는 게으른 마음을 경계하기 위해서 라고 설명했다.

정식 출근 시간은 오전 7시 30분이다. 그 전에 능인 스님은 하루 자신을 지켜줄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갖는다고 했다. 바로 법문을 듣는 것이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며 수행하는 시간을 빼먹지 않는다. 영적돌봄의 삶은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하기에 부처님이 주는 가르침으로 자신을 무장했다.

그렇게 찾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우선 오전 8시에 출근하는 의료진을 만나 호스피스 환자들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하루 동안 수십 차례 달라지는 환자들의 감정선을 파악하며 우울감이 있는 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자를 위해 구체적인 해결안을 연구했다. 우선 우울감이 높은 환자가 있으면 환자를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동안 찍어 둔 사진과 영상으로 동영상을 편집해 환자가 직접 가족을 위해 남길 메시지를 담기도 했다. 환자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연에 맞는 정보를 수집하고 스님은 독학으로 익힌 영상 제작에 나섰다.

이벤트 제작을 위해 영상을 만들기 시작한 능인 스님은 업체에 맡길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환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풀어내기 위해서이다.

능인 스님은 "환자 가족들에게 적절한 언어로 환자의 마음을 전하는 동영상을 만드는 작업인데, 일반 업체에 맡기면 정확한 의도로 만들 수가 없었다"며 "또 갑자기 발생하는 임종에 맞춰 그 전문업자들을 불러내기도 힘든 여건이라 직접 이벤트를 준비하고 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를 위한 이벤트 준비를 마치면 의료진과 직원 상담도 진행했다. 죽음을 마주하며 에너지를 소진하는 의료진을 향해 따뜻한 돌봄은 이어졌다. 호스피스 환자들은 말을 잘 전달 할 수 없어도 후각, 청각 등 모든 감각이 예민한 상태이기에 능인 스님은 '마음이 전달되는 곳' 이라 고 했다. 손길 하나, 목소리 톤 하나에도 마음을 알아차리는 환자들이란 설명이다. 에너지가 소진되어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올라갈 때가 있어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도록 돕는 것도 스님들의 몫이었다.

환자와 의료진들 돌봄에 이어 환자 가족들을 위한 돌봄과 상담도 이어졌다. 영적돌봄가 가운데 능행 스님(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장)은 "환자들이 죽어 가면 그 가족들도 죽음을 마주 한다"며 "환자와 같은 수준의 고통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환자들은 고통과 불안에 완전히 압도당하며 두려움에 놓이게 되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의 고통 속에 빠지게 되고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마저도 쉽게 에너지가 소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모두가 영적돌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의 존엄

12월 19일 호스피스 병동을 찾은 기자는 방문하자마자 임종을 맞는 가족과 환자를 만났다. 침대에 누워 영적돌봄가 능행 스님의 말씀에 따라 임종을 맞는 할머니의 얼굴은 평안해 보였다. 가족들도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임종하는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고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능행 스님은 환자에게 "정말 열심히 잘 살았다"며 다독거렸고 가슴에 손을 얹었다.

임종 전에 병원에서는 미리 영적돌봄가 스님들과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임종 전에 다리 끝에서 올라오는 청색증과 물을 한모금도 마실 수 없는 장폐색 등 여러 임종 신호를 파악한 의료진들은 차분히 죽음을 준비했다.

가족들이 달려오면 영적돌봄가 스님들이 가족들을 먼저 만났다. 환자의 상황을 설명해주며 감정을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돕고 환자를 마주하도록 했다. 한번 마음을 차분하게 한 가족들은 고요하게 임종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못다한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8시간을 머물게 했다. 바로 시신을 옮기지 않도록 했다. 살아있는 사람의 편의대로 급하게 장례를 치르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환자의 죽음이 존엄할 수 있도록 도왔다.

능행 스님은 "죽음이라는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다. 그들의 마음을 다뤄야 하기에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아는 사람을 영적돌봄가라고 한다"라고 정의 했다.

이렇게 중요한 불교계 영적돌봄가 스님은 10명뿐이다. 그래서 인재를 더 양성하기 위해 영적돌봄가 스님들은 교육도 담당한다. 세미나 및 교육 등을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영적돌봄가를 양성하기 위해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갠다.

능행 스님은 2020년 새로운 한해를 마주하는 독자들에게 '죽음' 을 기억해 '행복한 삶' 을 알기를 바란다고 했다.

"내년 한 해 동안은 언제 어디서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루에 한 번씩 꼭 사유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질이 좋아지고 행복해 집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원당암
"혜암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도량"
사부대중일동



〈법회안내〉
■철 야 용맹정진 ·매월 1,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7일 철야 용맹정진 ·음력 7월 1일 ~ 8일 / 음력 12월 1일 ~ 8일
■재가불자 참선결제 ·동안거 결제 음.10월 15일 ~ 1월 15일
·산 철 결 제 음. 2월 15일 ~ 3월 29일
·하안거 결제 음. 4월 15일 ~ 7월 15일
·산 철 결 제 음. 8월 15일 ~ 9월 30일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치인리) http://www.wondangam.org
전화 055)932-7308 / 전송 055)931-7515 (상담시간 : 오전 8시 ~ 오후 6시)

2020 謹賀新年 경자년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 전화 053)767-3100 | 팩스 053)765-1600

2020년 새해 福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부산광역시
영도구불교연합회

증명대법주 도 성 큰스님
정 각 큰스님

고 문 혜주, 해정, 법공
명준, 해문
회 장 호법
부 회 장 혜도, 해암, 혜진
정오, 혜각
사 무 총 장 석인정사
이 사 대범, 성연, 청우
대수, 진명
감 사 해암, 혜진

회원 일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310-78
발원사內 Tel 051)405-2326

천 태 암

회 주 정상화
주 지 김동효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
129번길 175(온천동)
Tel 051)506-0642

마음 편한 절
관음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용두산 미타선원

주 지 **종 호**

사부대중 합장

가장 행복한 이 길에 초대합니다!
행복명상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불교연합회

고 문 원광스님(정수사) 원허스님(혜원정사)
지현스님(마하사) 무관스님(장안사)
자 문 위 원 보운스님(금용암)
회 장 보당스님(보국사)
수석부회장 법승스님(화엄사)
상임부회장 월광스님(보은사)
이 사 법호스님(정토사) 희공스님(불심사)
사 무 장 동선스님(내원암)
감 사 지공스님(불이중도사)
재 무 눌은스님(해련사)

연제구 불교연합회 회원 일동

부산시 연제구 고분로 131-3 보국사 內
Tel 051)861-6961

대한불교조계종
발 원 사

주 지 호 법

신도회장 김해림
화엄회회장 권인락
순례단장 김상욱
다도회회장 윤선영
학생회회장 류홍수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310-78
Tel 051)405-2326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포교원
파불부처님 가피도량
효 심 사

어르신 무료급식 · 봉사 · 후원
'효심공동체 효심밥상 무료급식소'

주 지 **효 문**

봉사자/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37번길 31 6층,7층
(동래시장 입구)
Tel 051)558-2108

대한불교조계종
청 량 사

주 지 운암 현엽

재단법인 청미단 운암 장학회
(사) 청미단 생활문화 학림원

[마에뜨리아 불교대학]
포교사반(1년)
입문자반(3개월)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도로 29
Tel 051)271-2774 Fax 051)271-0936

불교TV
염불공양회

고 문	김유리자 강명자 김정순
회 장	하정선
수석부회장	김순이
부 회 장	정승자 김복선
운영위원장	윤정희
재 무 이 사	강지원
총 무 이 사	강행순
감 사	윤미자 안상희
팀 장	송순애 신미자 장순희



회 원 일 동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102번길 16-10
동양빌딩 7층(범일동) | (051)633-4020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登一段하는
(社)釜山佛敎實業人會
妙 光 禪 院

회 장 김윤환
고 문 강병중 서춘석
최 찰 이상태
하문원 박수복
부 회 장 이근철 이달수
강양수 정영철
감 사 지호경 박신욱
총무이사 이환길
재정이사 송우근
사업이사 이종환
관리이사 이규인
연수이사 박주영
부 총 무 양동회

회 원 일 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37
부산불교실업인회관 4층 / Tel 070-8133-9917

대한불교조계종
황령산 홍 제 사
황령선원(재가선원)

회주 금아 혜국
주지 성 문

매월 음력 초하루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신중기도 (3일간)

사회복지법인 화엄도량
❖ 노인요양시설 효림원(부산)
❖ 정토노인복지센터(부산)
❖ 노인요양시설 정효원(제주도)
❖ 무료양로원 법성원(충주시)

부산시 부산진구 진남로304번길 34(전포동)
TEL 051)802-0130 / Fax 051)804-1037
www.hjsa.or.kr

부산불교복지기관의 상호교류와
불교사회복지 역량강화에
부산광역시 불교복지협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사)부산광역시
불교복지협의회

Since 1999

회장(대표이사) 정 여
수석부회장 범 산
상임이사 원 광

이 사 범산, 정현, 명현, 성문, 세운, 심산, 정오, 보혜, 김수현
감 사 박용하, 이륭우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 불교회관 3층
Tel 051)243-3531 http://www.bswia.org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

회 장	정종원
상임고문	최주덕
고 문	박영근 박수관 박순곤 허인구 설동근 김재운 김재진 조효식 이윤희 권청길 이시영 장남인 이상수 박민식 정홍섭 김수현
부 회 장	김종백 배영호 배상진 공정근 최삼섭 양재생 최금식 허성하 류재호
감 사	최상곤 정연식
사무총장	장병주
재무총장	이현수
총무이사	안천일
친목이사	배도정
홍보이사	박차수
기획이사	박창근
섭외이사	이헌호
대외협력이사	안병호
자문이사	김상훈

이사·회원일동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1705호 (부전동, 유원골든타워)
Tel 051)334-0108 Fax 051)867-4397

2020년 새해 福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부산분원 **관 음 사**

持戒念佛萬日修行道場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연불



늘기쁜마을 관음사

cafe.daum.net/gwanumsa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석로 79번길 33
TEL 051)294-9300

대한불교조계종

가 야 사

주지 정현

✽ 가야사 다도회 모집
(매주 월요일 10시~12시)
: 차의 세계와 문화, 다법과 예절(다례), 차명상과 참선
✽ 금강경 수업반 모집
(매주 1회 19시~21시)
문의 : 051)893-0428

< 운영지원기관 >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보현어린이집, 부산진시니어클럽, 연제시니어클럽,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복센터

※ 만60세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이나 어른신들의 채용을 원하는 단체는 언제든지 문의 전화 부탁드립니다.
부산진시니어클럽 ☎ 051) 893-9060
연제시니어클럽 ☎ 051)851-2190

청정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여여선원**

(양정시장 꽃상가 5층)

[부설 자선단체]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

선원장 **정여** (前범어사 주지)

영도대흥사	주지	**정여**
대연동 붓다선원	주지	**도경**
서울진여선원	주지	**도일**
삼랑진 여여정사	주지	**도명**
김해 여여정사	주지	**도명**
해운대 여여선원	주지	**도우**
거제 여래선원	주지	**효산**
사량도관음낙가사	주지	**효원**
울산 여여선원	주지	**효암**
동래 효심사	주지	**효문**
금정 보현선원	주지	**효범**

여여선원 신도회 명예회장 **김경환**

부산시 부산진구 동평로420번길 18, 5층(양정상가 아파트)
TEL 051)853-5486~7, FAX 051)863-6422
(사)세상을 향기롭게 : TEL 051)702-9944

삼천불삼천배 참회기도 근본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감 로 사**

조 실 **현담 의현** 대종사
회 주 **수봉 세민** 대종사

주 지	혜총	부주지	경성
총 무	경원	교 무	경무
재 무	경증	사 회	경동
포 교	경소	복 지	경지
연 수	경상	교 육	경증

군포교 경제, 경진, 법설
해외포교 경적, 경본
사 서 경여

감로사 신도 일동

부산시 부산진구 진남로 432(전포동)
Tel 051) 809-0926



21세기 새로운 불교 수행 공동체

사단법인 **통섭불교원**

원 장 **김 성 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매월 8일, 15일, 23일, 30일 사재일에는 오계를 꼭 지키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불법을 배우고 수계를 받고 사재일에 오계를 지킴으로 스스로 불자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 불교강의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명상·힐링 상담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참선수련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참선 철야 수련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www.tongsub.com

대구 남구 대명역 1길 11 통섭불교원
Tel 053) 621-2256

사회봉사단체

부산불교 보현회 보 현 정 사

회 장	안성이
재 무	조영희
총 무	전영자 윤점자 최본자성
감 사	김선언
홍보부장	유기선
청년회회장	전진호

회 원 일 동

부산시 동구 좌천동 532-1
Tel 051)636-4531



홍코치 한의원

구, 동국한의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로 45 (동삼동)
Tel 051) 413-1155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금 강 암**

주 지 **정 만**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
TEL 051)508-4509 FAX 051)508-4870

청소년 문화포교 전문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기 장 **동 림 사**
동림미술관

주 지 **성 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143-12
TEL : 010-6609-8011

HW **(주)한마음 윈스피아**

영림 PVC창호, 도어,
돌벽지 제작 및
통합인테리어 시공서비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산봉로 19 (청학동)
TEL 051)412-4287 FAX 051)412-4286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봉사일번지

사단법인 **미 소 원**

상담 · 봉사 · 수행 · 후원

이사장 **장 유 정**

[자원봉사 인증 등록기관]

지역 독거어르신 영양식 반찬봉사 / 만성질환자 죽봉사 어르신 심리상담
생활상담 및 심리상담 / 결핵환우 밑반찬 및 후원활동

대한불교조계종
천년 관음도량

계 명 암

감 원 **선 재**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TEL : 051)508-4345

보현행원으로 보리이루리

무 량 사

주 지 **법 천**

부산 동래구 금정마을로 59-9번길 온천2동
TEL : 010-2426-1766

한마음 건축

건축 인테리어
설비·배관 리모델링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25(염포동)
TEL 052)289-1276
이메일 sxo1213@naver.com

대한불교조계종 직할포교원

진여원불교대학
(사)진여사회복지원

회 주 **혜 총**
원 장 **남보타월**
봉사단장 **정보덕심**

신 도 일 동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664(구포2동) 3-4층
TEL 051)338-1008. 337-1080

2020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대한불교조계종
정혜결사도량 오백나한기도도량
팔공산 **거조사(암)**

주지 **태 관**

사부대중일동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
TEL 054)335-1369 FAX 054)335-2609

대한불교조계종
관 운 사

주지 **장 현**

신도일동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38
TEL 054)931-7777 / FAX 054)931-3000
www.gwanusa.org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임 대**

사부대중일동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939-1
054)247-2729(FAX 겸용)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구룡사**

주지 **용담 효재**

사부대중일동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2리 328
TEL 054)975-9045, 010-9045-9045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광덕사**

주지 **운 성**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90-2
TEL 053)763-0068

대한불교조계종
대 전 사

사부대중일동

경북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226
TEL 054)873-2908 FAX 054)874-9137

대한불교조계종
보 경 사

회주 **법 달**
주지 **철 산**

사부대중일동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TEL 054)262-1117 FAX 054)262-0149

대한불교조계종
보 리 사
보리불교대학

학장 **증 악**

사부대중일동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신묘장군대다라니독송법회(문화강좌안내)
선체조 / 다도 / 어린이 천자문 교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58-10
T.053)522-7611 F. 053)522-7612

대한불교조계종
불 광 사
경북불교대학

"나와 이웃과 자연이 함께하는 삶"

학장 **운곡 돈관**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444
TEL 053)792-1353, 1181
FAX 053)791-4951

'부처님의 가피를 가족과 함께하는…'
대한불교조계종
문수급식센터

센터장 **효 신**

급식센터봉사자 일동

「매월 둘째 토요일-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점심무료급식」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470-5
TEL 053)637-0900

새해 소원 담아 별들에 치성드리나니…



조성금의
한국불화 원류를 찾아서

① 치성광여래도







사진 왼쪽부터 돈황 장경동서 출토된 당대 897년 조성 '치성광불병오성도', 10~11세기 조성된 베제클릭 18굴의 '소제재난경변상도', 1925년 조성된 송광사 성산각 '치성광여래설법도.' 별을 신앙했던 치성광여래의 도상이 어떻게 변화 · 전래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새해가 시작되는 이른 아침에 많은 사람들은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새해의 소원을 빌고 각오를 다짐한다. 그리고 정월 대보름에는 첫 보름달을 보면서 나쁜 기운을 없애고 한 해의 풍년을 빈다.

별 즉 '성수(星宿)'는 기원전부터 동 · 서양에서 신격화되었으며, 다양한 모습과 명칭으로 구체화되어 재앙의 소멸과 구복의 대상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별과 관련된 여러 신들은 바빌론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지역의 천문도상이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인도를 거쳐, 불교와 함께 동아시아에 전파되면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별자리 숭배가 중국불교에 전래 되어 도교(道敎)의 북극성신앙(北極星信仰)을 여래화(如來化)한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를 성립시켰다고 한다. 불교에서 치성광여래는 별에 의한 환난을 물리치고 화를 복으로 바꾸는 위력(威力)을 지닌 여래로서 대중이 선호하는 신앙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점차 특정한 도상과 의식까지 갖추게 되었다.

사찰의 칠성각(七星閣) 혹은 성산각(星山閣)에 모셔지는 치성광여래는 지물인 법륜과 좌우협시인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통해서 여래의 존명을 알게 된다. 그러나 치성광여래의 소의경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치성광여래라 호명되며 법륜을 들고 계시는지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치성광여래에 관한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투르판의 베제클릭 석굴 18굴에서 출토된 벽화 '소제재난경변상도(消除災難經變相圖)'에서 찾고자 한다.

그림을 살펴보면 화면 중앙의 여래는 사자가 표현된 연화대좌 위에 가부좌하고 있으며, 화염형의 두광과 신광을 갖추고 설법인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의 여래를 중심으로 보살과 비구, 십이궁(十二宮)과 구요(九曜=일성신, 월성신, 수성신, 금성신, 목성신, 토성신, 화성신, 나후성신, 계도성신)가 표현되어 있으며, 그림의 하부에는 가로로 긴 화면에 별에 의한 환난과 구제방법을 묘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별에 관한 신앙, 공양법 및 재난을 다룬 경전 중에 〈불설대위덕금륜불정치성광여래소제일절재난다라니경(佛說大威德金輪佛頂熾盛光如來消除一切災難陀羅尼經, 이하 소제재난경)〉이 여래, 구요, 십이궁, 별에 의한 환난장면 등이 구체적으로 서술된 유일한 경전이다.

〈소제재난경〉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거천궁(淨居天宮)에 머물 때 문수보살과 네 무리의 대중, 팔부, 구집, 칠요, 십이궁, 이십팔성, 일월 등의 여러 별들에게 이 다라니를 수지한 인연을 설하는 내용이다. 부처님이 전생에 사라수왕부처님에게 배웠다는 다라니는 이 경전에 등장하는 일월, 오성, 라후, 계도, 요괴, 악한 별 등이 동요하여 나라와 사람들에게 재난을 입히게 되는 경우에 외워서 별의 재난을 막는 방법으로, 이것을 염송하는 작법과 공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여러 별들이 자신의 몸에 재난을 일으킬 때 재해를 복으로 변화시키는 진언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경전의 끝에는 구요를 불러서 화를 복으로 변화시키는 게송이 적혀있다.

〈소제재난경〉에 비추어 베제클릭 18굴의 벽화를 살펴보면 화면 중앙의 본존은 정거천궁에 머물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를 묘사한 것이며, 화면 좌우의 사천왕, 여러 보살, 비구들은 여래가 과거에 사라수왕 부처로부터 다라니를 받은 이야기를 듣는 문수보살, 사중, 팔부, 유공대천을 표현한 것에 해당된다. 또한 화면 좌우의 구요와 십이궁 역시 경전 중에 석가에게 설법을 듣는 구집, 칠요, 십이궁으로 보인다.

따라서 베제클릭 18굴의 벽화는 소의 경전에 근거해서 '소제재난경변상도'이다. 현재까지 '소제재난경변상도'는 존재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아 매우 생소한 도상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과학원 동방고적문헌연구소에는 〈소제재난경〉을 도해한 서하(1032~1227)의 '불정소제일절재난다라니경변상판화(佛頂消除一切災難陀羅尼經變相版畫)'가 전해지고 있다. 이 판화에는 서하어로 〈소제재난경〉의 또 다른 명칭인 〈불정소제일절재난다라니경〉이라는 경명과 이 경전에 등장하는 여러 존상들의 모습 및 명칭이 방제 안에 뚜렷하게 새겨져 있다.

별 관련 신앙, 동서고금 존재
中불교선 '치성광여래'로 화현
돈황 '치성광불병오성도' 最古

베제클릭의 '소제재난경변상도'
치성광불 근원되는 소의경전이
〈소제재난경〉임을 확인시켜줘

두 그림의 차이점은 베제클릭 18굴의 '소제재난경변상도'에서는 본존인 석가여래가 지물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서하 판화의 경우 여래가 법륜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존하는 중앙아시아지역 및 주변 지역의 치성광여래도의 흐름을 살펴보면, 현존 최고는 돈황 장경동 출토의 '치성광불병오성도(熾盛光佛竝五星圖)'다. 이 그림은 화면의 좌측 윗부분에 '치성광불병오성신 건녕사년정월팔일 제자장회여화표경광(熾盛光佛竝五星神 乾寧四年正月八日 弟子張淮與畵表慶光)'이라는 화기를 통해 897년에 제작되었으며, 치성광여래와 오요를 함께 그렸음을 알 수 있다. 화면에는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법륜을 지니고 있지 않은 치성광여래와 그 좌우를 호위하는 오요가 오색의 구름을 타고 강림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이렇듯 897년 '치성광불병오성도'의 여래는 보편적으로 알려진 치성광여래의 지물인 법륜을 들고 있지 않다.

치성광여래가 법륜을 들고 있는 가장 이른 사례는 요대(遼代, 916-1125)의 산서(山西) 응현(應縣) 불궁사(佛宮寺) 석가탑(釋迦塔) 출토의 '치성광불강구요성관궁숙도(熾盛光佛降九曜星官宮宿圖)'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으며, 10세기 이후 치성광여래가 재난구제를 주관하는 여래로서 자리 잡으면서, 다른 여래상과의 뚜렷한 차별성이 있는 법륜을 들고 있는 형상으로 상징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륜을 들고 있는 여래가 치성광여래의 도상으로 확립되어 유행 · 확산된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법륜은 치성광여래의 대표적인 지물로서, 그 기원을 10세기 경 만들어진 의궤인 〈대성묘길상보살설제재교령법륜(大聖妙吉祥菩薩說除災教令法輪)〉와 〈치성광도량념송의(熾盛光道場念誦儀)〉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주존이 석가여래에서 인도에 존재하지 않는 치성광여래라는 새로운 여래로 바뀌게 된 이유는 〈소제재난경〉의 시작부분에 "이 때에 석가모니불께서 청정하게 천궁에 머물고 계셨다. 문수사리보살과 모든 사중, 팔부, 유공대천, 구집, 칠요, 십이궁신, 이십팔성, 해와 달 모든 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옛날 과거 사라수왕부처에게 이 대위덕금륜불정치성광여래소제일절재난다라니법을 받았다"의 다라니법명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치성광여래는 미국 보스턴미술관 소장 '치성광여래강림도'를 통하여 볼 때, 늦어도 14세기에는 법륜을 지물로 한 치성광여래의 도상이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조선 1569년에 제작된 일본 고려미술관소장 '치성광여래강림도'를 거쳐 20세기 초 송광사 성산각 '치성광여래설법도'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치성광여래도가 중앙아시아에서 기원한 도상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위의 내용을 통해서 치성광여래의 소의경전은 〈소제재난경〉이며, 치성광여래라는 존명은 다라니법을 차용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민중들의 하늘의 별에 대한 신앙이 창조해 낸 치성광여래는 지금도 하늘에서 그리고 불화 속에서 우리들의 새해 소망 성취와 구복을 위해 끝없이 반짝이며 다라니를 설하고 있다.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객원교수〉

조성금 객원교수는 중앙아시아 불교회화 연구자. 성신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2003) 졸업 후,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천산 위구르 왕국의 불교회화 연구'로 박사(2013)를 마쳤다. 현재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등에서 중앙아시아의 미술 및 서아시아의 미술에 관해서 강의하고 있다. 불교회화 도상의 기원과 도상학에 관해서 주로 연구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지원장 혜근
사부대중 일동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Tel 055)746-8162 Fax 055)746-7825

대한불교 지장사
복을 지어봅시다
사랑하는 사람도 갖지 말고 미운 사람도 갖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서 괴롭고 미운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 법구경 -
주지 성진
사부대중 일동
현대불교신문 무사태평하시길 축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충북 영동군 황간면 황간동로 284-28 (난곡리 523-1) TEL. 043-745-5738

2020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참! 좋은 인연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 지 **일각(경봉)**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신평로22길 87, 2층 (용계동 369-4)
H.P : 010-6570-9669

대한불교조계종

석 가 사

주 지 **경암**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97-3
T. 053)791-8137 F. 053)792-0784

대한불교조계종
'태양의 정기를 받은 와불산 기도도량'

금오산 약사암

사부대중일동

"부처님 만남은
일생일대 최고의 복이다
그 시작은 독경 염불 참선이다".

경북 구미시 금오산로 433의 3
TEL 054)452-8039

대한불교조계종

월 인 사

회 주 **포천 혜관**

주 지 **보해 성종**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로 85길 52
TEL 053)767-3971

대한불교조계종
부처님진신사리 모신 적멸보궁

비슬산 용연사

주 지 **능 도**

사부대중일동

포교원 인정 용연사
불교대학 운영
법화경 독송 및 관음 염송 법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882
TEL 053-616-8846 / FAX 053-616-0408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산 통천사

주 지 **선 지**
(대구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부처님 진신사리 모신 적멸보궁』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3-1(아양교옆)
TEL 053)941-3503, 053)953-4481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한불교진각종 대 구 교 구 청

교구청장 **증 혜**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584-1
TEL 053)255-1450,1411
FAX 053)292-0751
홈페이지 www.jingak.or.kr

운불련 호출택시

호출은 053-766-7777

Google play 에서
운불련을 검색하세요!

회 장 **조 신 제**

한국 운전기사 불자 연합회
대구지역회

보 현 사 신용협동조합

**스님…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스님들의 고민!!!
30년의 전통 전국유일의 불교신협
보현사신협이 확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찰매매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기타 대출상담**

自利利他 (자리이타)
남도 이롭게 하면서 자기 자신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대구 중구 중앙대로 67길 10 (상1가 101호)
보현사신협 문의 : 053)428-1133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모집◈

㉮ 최신 시설의 행자수행관 있습니다.
㉯ 울력, 노동의 최소화
㉰ 3개월부터 보시금 지급합니다.
㉱ 시대에 맞는 민주적 교육
㉲ 無一 우학 큰스님 상좌가 됩니다.
㉳ 수계 후 공부 및 수행비용 100% 보조합니다.
㉴ 만 50세 미만 남자 (여자는 위탁)
㉵ 기본 교육 마치면 미국에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TEL 054-753-8228, 010-8852-0075

불교 연기법은 세간의 법칙



윤성식의
붓다의 정치학

① 연재를 시작하며



그림 · 박구원

염세주의 철학자로 유명한 쇼펜하우어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식사는 식당에서 해결했는데 결국 그가 자주 갔던 식당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한 때 그가 식당에 갈 때마다 식사 전에 돈을 식탁 위에 놓은 다음에 식사가 끝나면 다시 그 돈을 주머니에 집어 넣는 일을 되풀이 했다. 그런 행동을 반복하자 궁금증을 견디지 못한 웨이터가 어느 날 그 이유를 물었다. 쇼펜하우어는 식당 손님들이 말(馬)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 돈을 웨이터에게 팁으로 주려고 했는데 매번 손님들의 식사 대화에 말 이야기가 빠진 적이 없어서 다시 그 돈을 주머니에 집어 넣었다는 것이다. 당시에 말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스포츠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니 남자들이 모여서 자동차 이야기 하는 게 가장 흔한 대화 주제에 몰두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말 이야기란 어쩌면 경마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스포츠에 관한 대화이다. 흔히 종교 이야기와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한다. 스포츠 이야기, 날씨 이야기가 가장 무난한 대화 주제이다. 말 이야기라면 경마를 대화의 주제로 삼을 수 있고 그건 스포츠다. 어떤 말이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는 자동차 이야기에 해당한다. 남자의 로망은 자동차이고 여자의 로망은 명품 가방이라는 말도 있다.

종교와 정치에 관한 이야기는 더구나 잘 모르는 사람과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주제이다. 종교와 정치 이야기는 과학에 의해 판가름 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고 쉽게 결론 낼 수 있는 주제가 아니기에 자칫 한쪽 생각을 고집하다보면 싸움이 난다. 가치관의 문제이고 관점의 차이에 좌우되는 쟁점의 성격을 가졌기에 정답이 없는 영역에 속한다. 불교 신도와 기독교 신자가 종교적 논쟁을 한다면 서로 가정하고 있는 전제가 다르기에 결코 편안한 대화가 될 리 없고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면 그나마 다행이다. 자칫하면 얼굴을 붉히거나 언성이 높아질 수 있다. 민주당 지지자와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정치에 관한 대화를 한다면 곧 불편해지고 만다. 대부분 사람들은 종교와 정치 이야기가 불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시시콜콜한 이야기 즉 스포츠, 연예계 이야기, 날씨 이야기, 여행 이야기 등을 하기 마련다. 그런 의미에서 가십거리가 대화로서는 제격이다.

종교가 같은 사람끼리 정치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봉은사 신도끼리 정치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혹은 소망교회를 다니는 신자끼리 정치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정치적 신념이 같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아마 다르다면 매우 불편해질 것이다. 종교가 같다고 해도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면 우리가 하는 정치적 대화는 크게 불편해질 수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이 종교가 다를 경우 서로 상대방 종교를 비방하는 일은 자제한다는 점이다. 타종교에 대해 배타적 공격을 일삼는 일부 눈쌀 찌뿌리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은 다른 종교적 견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묵인하고 상대방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

하지만 정치의 경우는 다르다. 민주당 지지자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상대방의 신념과 견해에 대해 묵인하거나 수용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에 관한 대화를 하다가 언성을 높이고 감정을 상하는 일은 부지기수이다. 언론 기사를 봐도 기독교가 불교를 공격하는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고, 불교가 기독교를 공격하는 기사도 찾아보기 어렵다. 민주당의 견해가 자유한국당의 견해를 공격하는 기사,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민주당의 입장을 공격하는 기사는 언론을 도배한다. 종교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종교이야기를 피하면서도 정치적 신념이 다른 사람에게 도발적으로 싸움을 거는 경우는 많다.

비록 종교와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 국민의 경우 종교 이야기는 스스로 자제하지만 정치 이야기는 자제하지 않는다. 그만큼 정치가 중요한지도 모른다. 종교는 이미 우리 삶에서 멀리 떠나버린 장식품에 불과하지 않을까? 종교가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종교 때문에 많은 전쟁이 있었다. 불교의 역사에서 종교적 견해 때문에 전쟁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기독교나 이슬람교의 역사에서는 종교적 견해 때문에 많은 전쟁과 갈등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평화의 종교, 화해의 종교, 희망의 종교이다.

무엇이든 정치적 이슈가 되면 불편해지고 그만큼 중요해진다. 최근 대형 교회의 목사 세습 문제가 언론에 요란하게 보도되었다. 명성교회는 매우 성공한 교회인데 목사 세습에 대한 교단의 판단이 처음에는 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위반이라고 판정해 논란이 되었다. 목사 세습 문제가 워낙 민감하다보니 명성교회 신자들끼리 세습 문제는 대화를 피한다고 한다. 언론 보도를 보면 "사실 몇 년 동안 다락방이나 소모임에서 가능하면 교회 현안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터놓고 대화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명성 교회 교인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다. 목사 세습 문제에 대해

불교는 평화 · 화합의 종교
하지만 정치 외면은 문제
세속 문제에 해답 내놔야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교인들의 의견이 갈라지면 이미 그 문제는 종교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이슈가 된다. 목사 세습으로 이익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면 그것이 정신적 이익 혹은 손실이건 재정적 이익 혹은 손실이건 정치적 이슈가 된다. 정치적 이슈가 되면 아무리 동일 교회 소속 신자라 할지라도 대화하기 불편하다.

얼마 전 봉은사 신도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봉은사는 비록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많은 강남에 위치하고 있지만 신도가 많다보니 민주당 지지자도 생각보다 많다고 한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놓고 민주당 지지자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시끌시끌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적어도 불교의 경우에는 종교보다 정치가 더 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불교를 자극하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 대해 불교 신도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고 투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불교의 경우엔 종교는 정치보다 더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어쩌면 불교는 이미 삶의 장식품이 되어 버린지도 모른다.

원래 인간은 대화가 쉽지 않은 동물이다. 주변을 봐도 알 수 있다. 부부 사이에 대화가 잘 되는 부부가 얼마나 될까?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잘 되는 사례가 얼마나 될까? 마음 맞는 친구 한 두 명 있기도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 연구도 있다. 미국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가까운 친구 한 두명 만 있어도 삶에서 위기의 순간에 큰 도움이 되는데 한 두명도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대화가 얼마나 될까?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아예 대화가 상실된지 오래다. 사랑의 종교라는 기독교와 자비의 종교라는 불교 사이에도 대화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정치에 관해서 대화를 잘 할 수 있겠는가?

종교가 삶의 장식품이 되어 버렸다면 죽고 살기로 매달려야 할 신념은 아니다. 그러니 종교적 대화는 살짝 피해도 문제가 없다. 정치적 신념은 약간 다르다.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만, 역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스티글리츠 모두 경제를 바꾸려면 정치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우리 국민이 정치 혐오증에 걸려 있지만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 방법이다.

뉴스를 보다가 채널을 돌리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닌가보다. 뉴스를 보면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난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럴 때 채널을 돌리고 음악이나 듣고 춤이나 보고 드라마를 시청하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전환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직면한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치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지만 정치를 외면 할수록 정치는 국민을 떠나 정치인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버린다. 불교의 지혜가 세간을 비추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인가? 불교가 세상의 이치를 밝히지 못한다면 연기법은 무엇을 위한 연기법일까?

불교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지 못하고 삶의 장식품으로 전락한 가장 중요한 징표가 있다. 불교가 경제와 정치라는 세속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현실이 바로 그 징표이다. 불교를 산중불교로 끌고 간다면 부처님 당시 도시에서 활발하게 중생의 삶속에 뛰어들었던 부처님의 뜻에 어긋난다. 경제와 정치를 외면하는 게 부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경제와 정치를 외면해야 한다. 허나 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경제와 정치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 출가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약을 두었지만 재가자의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다.

부처님의 연기법은 세간의 법칙이기도 하다. 경제와 정치를 외면할 수록 불교는 현대인의 삶에서 멀어지고 부처님의 뜻에서도 멀어진다. 부처에게 돌아가자. 그래야 불교가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불교 교리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현대인의 고통을 해결하는 불교교리의 현대화를 이루어야 불교가 세상을 비추는 지혜가 될 수 있다. 경제와 정치 문제부터 불교적 관점으로 보고 불교적으로 행동해야 부처님의 제자다. 부처에게 돌아가야 불교가 산다. 〈고려대 명예교수〉

윤성식 명예교수는
고려대서 행정학을 전공한 윤 명예교수는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경제학 학사, 버클리대학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 텍사스대 오스틴캠퍼스 경영대학원 교수도 역임했으며 1992년부터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맡아왔다. 저서로는 〈불교자본주의〉, 〈부처님의 부자수업〉 등이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으로 활동했던 윤 명예교수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장, 검찰미래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불기 2564(2020)년
부산불교계
신년하례회

불기 2564년 1월 6일 월요일 오후 6시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 주최 | (사)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 주관 |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경자년, 힘찬 기운으로 200만 부산 불자들의 신심을 결집하여 불도 부산을 일으키겠습니다.

회 장 박 수 관
수석부회장 양재생 정창교

2020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임원단

■ 고 문
박원양 장복만 김재진 박정오 조효식 이윤희 설동근
전광수 박정삼 이시영 이영숙 김동렬 김수현 하정선

■ 자문위원
이장호 김진수 이희길 박무성 김영섭 박태학 박한일
전호환 정홍섭 박흥대 박순곤 고영립

■ 부회장
국제교류부회장 최금식
섭외부회장 최영호
재무부회장 김원용
기획부회장 이희태
교육부회장 최대경
사회공헌부회장 박형연
총무부회장 박종문
홍보부회장 이경신
친목부회장 배상진
경조부회장 신기열

■ 부회장
강경희 공정근 김상훈 김영도 김정화 김종한 노종헌
류길자 마선수 박수곤 박영근 박효섭 손정원 손창옥
신상해 안병호 여예진 유영남 윤종경 이종우 장호익
정종원 최삼섭 최상곤 최순환

■ 집행부
사무총장 장병주
사무부총장 김기호
기획이사 김민성 노현주
총무이사 이현수 배도정
재무이사 이근욱
경조이사 최성진 오세룡
의전이사 박태원 정연식
홍보이사 손정현 정지원
섭외이사 이만수 정임숙
문화이사 이영숙 김민성
국제교류이사 이윤희 정미자
사회공헌이사 정진우 강미영
법률이사 성원석 홍재석
교육이사 이륭우 김윤희
친목이사 안경수 이상조
사찰협력이사 강갑균 박근배

집전 류상영

■ 이 사
강근순 강길주 권혁란 김선일 김성익 김순례 김영자
류강렬 박수진 백정진선 성재곤 안천일 유진상 이동진
이명학 정분남 정순천 하승준 허 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71 정산빌딩 9층 Tel 051)808-8600

2020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부설 학교법인
동곡학원
영천 선화여자고등학교

이 사 장 운곡 돈관
교 장 이봉오
교 감 윤이용
행정실장 은종도
법인사무국장 강희종

「새롭게 도약하는 선화여자고등학교에
새로운 교육의 가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경북 영천시 화룡동 산 7번지
TEL 054)333-3431 / FAX 054)333-3432

대한불교천태종
대구 동대사

주 지 김도산
신도회장 임응호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동 667-1
TEL 053)795-1357, 795-1733
FAX 053)795-1731

재단법인 선학원
기원정사

조실 우 록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152-5
TEL053)982-9329 FAX 053)983-1698

'효' 종찰 기도도량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도량
까치산 길조암

주지 보 현

「길따라 …
土樂 토락」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 3리 471
TEL 054)931-5204

대한불교융화법원미륵종
불 종 사

주지 현 진

사부대중일동

경북 경산시 남방동 276-2번지
T. 053)802-4043

팔공산 갓바위 앞산
용 주 암

주지 韓成鶴

사부대중일동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 44

高靈 Goryeong Roofing Tile Selection

(주)고령기와가
불교 건축문화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주)고령기와는 국내 1위
한식형 그을림기와 전문업체로서
지난 60년간 국내 주요 사찰을 비롯해
궁궐 및 각종 문화재 복원사업과
그 외 주요 건물에
기와를 생산, 공급해 왔습니다

(주)고령기와
Goryeong Rooftile Co., Ltd.
www.rooftile.co.kr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400-1번지
TEL.054)954-8008(代) FAX.054)954-5335

(株)玖峰·鍍金·精工
ISO 9000:2000 인증업체/QS 2000-1998 인증업체

代表理事 金明錫

■ 구봉정공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 3가 620-1
TEL 053)351-0009, 4856
FAX 053)352-1717
■ (주)구봉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905-9
TEL 053)582-0156 / FAX 053)582-0157
■ 구봉도금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100-65
TEL 053)581-0009, 8907 / FAX 053)582-4173
Hompage : www.goobong.com
E-mail : gnbong@kornet.net

합동석물(주)

석재가공 석공사
전문건설업체

대 표 탁 진 규

사부대중일동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TEL 054)955-8200 ~ 1
FAX 054)955-8202

대한불교조계종
화엄도량 부 석 사

주지 근 일

사부대중일동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 345
054)633-3464

‘선교일치’ 사상 일군 선지식



정운 스님의
인물로 읽는 禪이야기

① 법안종 3세 영명연수

선종은 당나라 중엽부터 당나라 말기 5대까지 200여 년간 훌륭한 선지식이 배출되면서 선풍이 풍미했던 르네상스였다. 선종 5가 가운데 법안 문익(法眼文益, 885~958)이 개산한 법안종은 가장 마지막에 성립되었다. 송나라로 들어서 선은 공안선과 염불선으로 발달하는데, 그 원류 역할을 했던 선사(연수 · 도원)가 법안종의 3세이다.

공안 · 염불선 시대 배경은

영명 연수(永明延壽, 904~975)가 선풍을 전개하며 활동을 전개할 무렵은 당대 말기 5대 10국 시대이다.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흥성했던 시대가 무너지면서 대륙은 크고 작은 나라로 분열되어 정치 · 문화 · 경제 · 사회 · 종교 등 각계각층이 혼란한 시기였다.

융성하게 발전되었던 선종도 5대 송대 초기로 접어들면서 차츰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러면서 종파의 특징을 논하고, 종파간의 우열을 논하였다. 크게는 선교의 대립적 구도요, 작게는 선종 각 분파간의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때 연수는 불교 종파간은 물론, 선종 간에도 사상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일심(一心)’이라는 표제로 모든 종파를 회통하며, 전체불교를 통합하고자 시도하였다. 연수는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불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한 뒤 그 해법을 제시한 탁월한 식견가라고 할 수 있다.

영명연수의 행적

법안종 3세 영명 연수는 904년 절강성(浙江省) 임안부(臨安府) 여항(餘杭) 출신이다. 일찍이 불법에 뜻을 두어 오신채를 먹지 않았고, 20세부터는 하루 한 끼 식사를 하며 〈법화경〉을 독송했다. 연수는 28세에 ‘화정진장(華亭鎭將)’이라는 관리로 활동했는데, 군용으로 사들인 생선과 새우 등을 모두 방생하였다. 연수는 이 일로 체포되었으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함으로서 누명을 벗고 석방되었다.

이후 연수는 옥에서 풀려난 뒤 31세에 취암영삼(翠巖令參)을 스승으로 출가하였다. 이후 천태덕소(天台德韶, 890~972)를 만나 절강성 국청사에 머물렀다. 연수는 법화참법을 닦을 때, ‘일생동안 선정에 들고 간경하며, 수많은 정진력으로 정토를 장엄한다(一生禪定誦經 萬善莊嚴淨土)’라고 적힌 심지를 일곱 번이나 뽑았다. 이로부터 연수는 일생을 참선하며 염불할 것을 서원하였다. 이후 명주(明州) 설두산(雪竇山)에 머물 때는 매일 아미타불을 염하고, 행도발원(行道發願) 등 108종의 불사를 행하였다. 960년 항주 영은산 신사, 961년 사주(師州) 영명(永明) 정자사(淨慈寺) 등에 머문 뒤, 다시 천태산에 들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를 주었다. 975년 세납 72세, 법랍 42세로 입적하였다. 이후 황제로부터 지각선사(智覺禪師) 시호를 받았다. 연수의 저서로는 〈만선동귀집〉과 〈종경록〉이다.

연수의 저서 ‘종경록’

〈종경록(宗鏡錄)〉은 연수가 전체 불교를 통합하고 시대에 부응코자 편찬한 저서이다. 〈종경록〉은 100권으로 되어 있으며, 종밀(宗密, 780~841)의 뒤를 이어 선교일치를 체계화함으로써 중국 불교를 재편한 것으로 평가받는다(961년). 한편 선교일치를 주장하면서 종밀의 입장과는 다른 선교일치론으로 선사상을 체계화하였다.

〈종경록〉의 구성요소 및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핵심 키워드는 선교일치 · 선정일치 · 삼교일치로서 일심이 전체 내용을 관통하고 있다.

첫째, 선교일치(禪敎一致)이다. 연수는 천태 · 화엄 · 유식 · 정토 · 율에 이르기까지 두루 섭렵해서 선교원융을 주장했다. 연수는 선을 우위에 두고, 선교일치를 주장했으며 일심을 바탕으로 선교를 회통하였다.

송대 오며 선종 쇠락의 길
사상적인 간격 좁히기 위해
‘一心’ 표제로 종파를 회통
종경록 등서 선교일치 주창

둘째, 선정일치(禪淨一致)이다. 불교가 중국에 유입되면서부터 정토사상은 늘 불교사와 함께 흘러왔다. 곧 선정일치를 연수가 최초로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극명하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선정합일을 주장한 승려는 연수가 처음이다. 연수의 선정일치를 근거로 송대 이후 청나라 말기까지 염불선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 점은 〈만선동귀집〉에서 자세히 거론한다.

셋째 삼교일치(三敎一致) · 삼교융합이다. 물론 삼교에 대한 주장은 연수 이전인 종밀에게도 나타나고, 송나라 때에 여러 선사들도 주장하였다.

연수의 저서 〈만선동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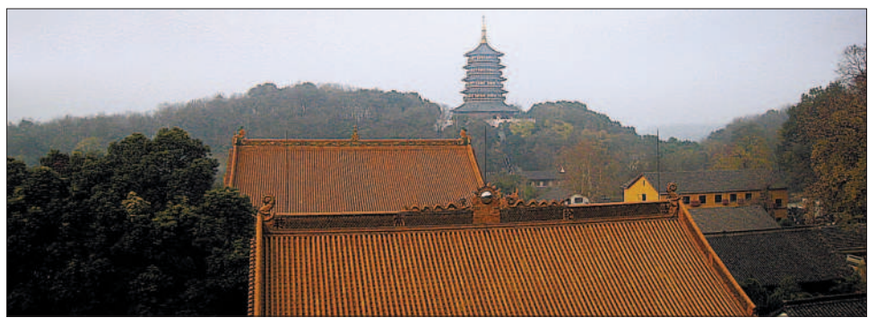
〈만선동귀집(萬善同歸集)〉은 선과 염불정토의 겸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선정일치는 중국에서 연수가 처음 시도한 것은 아니다. 〈법화경〉에서는 “나무불 한번만 불러도 모두 이미 불도를 이룬다.”라고 하면서 모두 제법실상을 증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마명보살은 〈대승기신론〉에서 “정토법문은 가장 수승한 방편”이라고 하였고, 용수보살은 〈십주비바사론〉에서 “정토법문은 쉽게 행하고 빨리 불도를 이룰 수 있는 도”라고 하였다. 한편 천태 지의는 ‘십의론(十疑論)’을 설하며, 서방극락세계에 전념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연수는 정토를 말하며 선과의 일치를 강조하였다. 송대 이후 중국 선종은 선정일치의 선풍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선과 정토의 일치에 대해서는 타방정토(他方淨土)가 아닌 자성미타(自性彌陀) 유심정토(唯心淨土)를 말한다. 물론 유심정토는 육조 혜능(638~713)도 〈단경〉에서 “마음이 청정하면, 곧 이것이 자성(自性)의 서방정토(西方淨土)”라고 하며, 누누이 주장했던 바이다.

그의 정토사상은 일심을 종(宗)으로 하며, 이사(理事)의 두 방면을 밝혀 선정쌍수를 권함과 동시에 이(理)에서 사(事)의 방면으로부터 그 자내증을 위하여 칭명염불을 닦고 서방왕생을 추구하였다. 또한 ‘참선염불사료간(參禪念佛四料簡)’ 게송을 지어 선정쌍수(禪淨雙修)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런 점으로 인해 연수는 법안종 3세인 동시에 송대 정토교의 백련사 7조 중의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법안종 3세 영명연수 선사의 진영. 혼란의 시대에 영명연수 선사는 ‘일심’을 통한 종파간 회통을 주창했다.


중국 절강성 항주 정자사 전경. 영명연수 선사는 정자사에서 머물며, 〈종경록〉을 저술했다.

연수가 불교사에 미친 영향

첫째, 연수가 주장했던 선교일치 · 선정일치 · 삼교일치 사상은 송대 이후, 중국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청나라 말기 태허(太虛, 1890~1947)는 〈조계선지신격절(曹溪禪之新擊節)〉에서 ‘연수의 사상으로 인해 중국 선종의 선이 모호해졌으며, 선종 특색이 사라졌다’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후대 중국불교의 흐름을 제시한 공헌자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다.

둘째, 우리나라 고려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 천태종의 원묘 요세(圓妙了世, 1163~1245)는 강진 만덕산에서 천태 사상을 기반으로 참회(법화삼매참)와 정토가 겸비된 백련결사(白蓮結社)를 주관하였다(1236년). 요세는 연수의 “천태의 묘해(妙解)에 의지하지 않고는 수행의 120가지 병(病)을 벗어날 수 없다”는 내용에 감득하고, 선에서 법화 사상으로 전향하였다. 곧 요세는 송대 백련결사를 본받아 결사한 것이다.

한편, 고려 초기 4대왕 광종(949~975 재위)이 연수의 〈만선동귀집〉을 읽고 감동을 받아 36명의 승려를 송나라에 유학 보냈다. 유학에서 다녀온 승려들 중 일부는 대각국사 의천이 종파를 통합할 때, 중심세력이 되기도 하였다.

법안종 3세 승천도원

승천도원(承天道原, 생몰미상)은 천태덕소의 제자로서 법안종 3세에 해당한다. 도원이 편찬한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30권은 후대 공안선, 즉 간화선이 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점은 다음에 거론키로 한다. 이 책은 경덕 원년(元年)인 1004년에 엮어져 ‘경덕’ 명호를 붙였다. 양억(楊億)이 교정하고 진종(眞宗)에게 상진하여 입장(入藏)이 허락된 선종 사서이다.

〈경덕전등록〉에는 과거 7불로부터 서천(西天)28대~동토(東土)6조~법안종 법안 문익에 이르기까지 1701명 선사들의 기연(機緣)을 언급하고 있다. 정확히 951명이고, 그 외는 선사들의 이름만 전한다. 이 책은 당대 선종의 역사와 그 유래를 서술하고 있으며, 선사들의 선시 · 오도송 · 선문규식(禪門規式) · 법계(法系) 등 다양한 내용이 전한다.

〈경덕전등록〉은 801년 〈보림전〉, 952년 〈조당집〉을 이은 선종의 사서이며, 〈전등록〉 가운데 대표적인 문헌으로 선종의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이 〈전등록〉에 영향을 받아 남송 때, 보제(普濟)에 의해 〈오등회원(五燈會元)〉이 편찬되었다(1252년). 즉, 〈보림전〉→ 〈조당집〉→ 〈경덕전등록〉→ 〈오등회원〉이다. 한편, 〈경덕전등록〉에는 우리나라 나말여초 승려들의 행적도 전하고 있어 한국불교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은
명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4년 수계했고, 운문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동국대서 석 · 박사를 받았고, 2011년부터 시작된 종단 교육아사리로 위촉돼 활동해왔다. 현재는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소임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구법〉 〈동아시아 선의 르네상스를 찾아서〉 〈경전숲길〉 〈경전의 힘〉 등이 있다.







(사) 창원 수산자비선원
창건30주년 기념법회 및 천도재 봉행


주지 야천당
수산(법상) 스님

초청합니다

창원자비선원은 30년간 오직 불교발전과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6회에 걸쳐 불교인 단합대회와 16회에 걸쳐 시민화합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창원자비선원은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는 사찰이 되도록 항상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창원수산자비선원 주지 야천당 수산(법상) 합장

일시
2020월 1월 21일
1부 천 도 재(오전 9시)
2부 기념법회(오전 11시)


법어
태종사 조실
도성 큰스님


법문
세계불교교황
석가산 성하

※ 별도의 초청장은 발송하지 않습니다.

경남 창원시 도계동 341번지 1호 14통 4반 부민상가 2,3,4층
전화 (055) 227-7626 | H.P 011-558-7626 | E-mail jebs0314@hanmail.net


치매/중풍/노인질환자
자비요양병원
최고의 시설과 진료시스템으로 환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055) 288-6300


명곡한의원
내과/소아과/부인과/침구과
☎ 055) 288-6500


수산자비선원 부설
자 비 마 을
보건복지부 인가 노인장기 요양시설
☎ 055) 237-4564

2020년 새해 福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한국불교태고종

보 현 사

회주 **혜화** 주지 **묵원**

신도회장 **유대암** 반야회장 **최진광월**
관음회장 **정반야월**

경남 통영시 도리7길 37
055)645-6448

자비나눔 실천도량
사단법인 **나누우리**

이사장 **도산**

사무국 : 경남 통영시 도리7길 37
055)641-7731

밀양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법기(표충사)**

상임부회장 **환명(약수암)** 감 사 **자명(무봉사)**
사무총장 **정무(용궁사)** **성정(수덕사)**
재무부장 **지공(어룡사)** 교무부장 **도청(신명사)**
포교부장 **현송(대원암)** 홍보부장 **덕향(미덕사)**
사회부장 **덕우(운수사)** 사무국장 **박영도**

회 원 사 찰 일 동

경남 밀양시 북성로1길 8-1
Tel 055)355-4518 Fax 055)354-5622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 법 사**

주 지 **도 문**

신 도 회 일 동

영축불교대학
055)242-8393

대 자 유 치 원
055)245-0108, 242-0108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몽고정길 46(추산동)
Tel 055)246-8393, 245-6544

한국불교태고종

정 관 암

주 지 **대 활**

사 부 대 중 일 동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대밭길118(하작마을)
HP) 010-4517-0097

대한불교조계종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길 상 사

부설 **삼계선원, 불교대학**
성현덕회, 단월회, 지장회, 참선반

주 지 **만제 혜수**

사 부 대 중 일 동

경남 김해시 삼계로 69번길 15(삼계동)
Tel 055)333-8202 Fax 333-8203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문화재단

이사장 **이산 현문**

이사 : 상우, 혜남, 운성, 산옹,
법진, 정우, 재원, 동주,
오심, 동진, 명신, 수진행.

감사 : 영산, 도광록세무사.

사무국장 : 홍성표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Tel 055)382-7081

한국불교태고종

약 수 암

주 지 **환 명**

사 부 대 중 일 동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국전로 879-119
055)356-1844

박해일 내과의원

“
한마음의 지혜와
자비가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발원합니다
”

한국불교태고종

굴 암 사

주 지 **자 광**

신 도 회 일 동

경남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산397-1
052)262-0456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말사 **관 룡 사**

주 지 **정 안**

신 도 회 일 동

경남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로 관룡사길171
055)521-1747

불교재단

달 마 선 원

선원장 **원 각**

“ 천년에 신비
달마도불사용
작품주문제작 ”

경남 양산시 평산로94
Tel 055)364-1145 HP 010-5433-1125

대한불교조계종
가야불교 중흥발원도량

김해 **여여정사**

불교대학경전반

주 지 **도 명**

신도회장 **조성진**

경남 김해시 가야로30번길1
055)311-2911

왕실 권위이자 부처님 공양물 '茶'



박동춘의

고려 茶 문화, 그 아름다움

① 연재를 시작하며



고려는 문화 다양성과 역동성을 구현한 시대였다. 어느 시대보다 발달한 차 문화를 구가했던 고려는 송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발달한 차 문화를 받아들여 독자성을 확보했다. 그러므로 송나라의 차 문화를 능가하는 문화를 구축했을 것이다.

이처럼 고려시대 차 문화를 높게 평가하는 연유는 무엇일까. 이는 좋은 차와 청자 찻그릇을 완성하고, 귀족층 · 승려 · 관료 · 문인으로 확산된 음다층의 문화적 수준이 높았다는 점 때문이다.

물론 좋은 차와 찻그릇을 생산할 수 있었던 저변에는 차에 밝았던 승려들과 개방적이었던 고려시대의 시대 환경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차 문화를 이끈 불교계의 풍부한 경제력과 사회적인 영향력 또한 차 문화를 융성하게 만든 토양이었다.

특히 차를 즐겼던 수행자나 문인, 왕실 귀족층들은 자신의 입처(立處)에서 차의 가치를 적극 활용했을 뿐 아니라 그 실효를 만끽했던 시대였다. 그러므로 차에 관심을 가진 현대인이라면 고려시대 차 문화에 관심을 가져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왜 그럴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고려인의 차에 대한 열정과 안목을 살펴봄으로써 차의 이로움을 어떻게 활용해야 좋은지를 알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신묘한 차의 내면세계를 찾아냈던 고려인의 차에 대한 지혜는 현대인의 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키워드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분명한 것은 고려시대 차를 즐긴 이들이 차에서 얻었던 심신의 안정과 여유를 우리도 함께 느낄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필자 또한 차에 대해 궁금증은 매한가지이다. 초의선사(1786~1866)를 연구하는 동안 초의가 차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지혜를 어렵풋이 짐작하였다. 그러므로 초의선사가 초의차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 말했던 차의 체용(體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주목했다. 여러 갈래로 퍼져나간 궁금증 중에서도 필자가 주목한 것은 조선후기 초의선사가 대흥사의 선차를 복원하는 과정에 드러난 차에 대한 열정이었다. 특히 그와 교유했던 선비들이 차를 곁에 두고자 했던 연유도 궁금했다.

이런 의문을 하나하나 해결하고자 초의선사의 발자취를 따라나선지 수십 년, 하나씩 의문이 풀려가는 동안 그 결과를 묶은 책도 몇 권이 되었다. 차 문화의 연원을 찾아가는 동안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차 문화의 기저를 이룬 차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원리였다. 결국 좋은 차를 얻기 위한 열정과 인내는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게 드러나지만, 어느 시대든 최선을 다한다는 제다의 치밀성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제다란 바로 차를 만드는 공정과정이다. 이는 점진적으로 발전한 차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므로 제다의 원리에는 오랜 경험의 축적이며 가장 세밀한 차의 과학화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차를 만드는 방법은 차의 이치를 알아차린 차의 선각자들의 경험적 노하우가 축적된 결과물이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한편 고려 문인들의 문집 속에 수록된 다시(茶詩)는 고려 시대 차 문화를 조명한 자료이다. 그들이 남긴 차의 예찬은 여운이 길다. 물론 그들이 차를 노래한 시어(詩語)는 고려를 대표하는 지식인이 남긴 차의 서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러므로 고려시대의 사상과 풍속, 문화, 예술의 저변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저 아스라이 피어오르는 운무처럼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았을 것이다. 완곡한 언어 구현, 감수성, 사의적인 표현 기법은 지금과 그 결이 다르다. 이에 대한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 시대로 돌아가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필자가 고려인이 즐겼던 백차(白茶)를 연구, 재현한 것도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 연구는 간단하지 않았다.

어느 날이던가. 문헌 자료를 살펴보던 중 문득 떠 오른 생각, 바로 조선후기 초의선사가 완성한 제다법과 고려시대 차를 만드는 법은 서로 통하는 줄기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바로 찻잎을 따서 열을 가하여 가공 방법은 다르다 할지라도 차를 만드는 목적은 같다는 점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 유익한 차를 얻고자 하는 목적은 같은 것이며 차의 원리에 접근하는 방법이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것인데, 고려시대에는 단차를, 조선후기에 초의는 산차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차를 잘 만들려는 목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 **고려, 문화 다양성 · 역동성 구현**
> **어느 시대보다도 차 문화 발달해**
> **조선 · 고려 등 시대를 불문하고**
> **좋은 차 만들려는 노력 매한가지**

차의 순수한 맛과 향기, 기운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고려시대에는 증기를 이용해 차를 쪘고, 조선후기에 초의선사는 솥에 차를 덖는 방법을 응용했다. 생잎이 가진 독성, 거친 맛을 중화시키기 위해 열을 이용했던 것은 동일하다.

어떻게 차를 익히는가는 차를 만드는 원리에서 가장 세심해야 할 공정이다. 차 문화사의 변천은 제다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탕법(湯法)도 제다의 변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아무튼 좋은 차를 얻어 인간의 삶에 유익함을 얻으려 했던 것은 어느 시대나 동일한 목표였다.

차는 영초(靈草)라 불렀다. 신령한 풀이라는 뜻일 터다. 8세기 당나라 육우(733~804)는 〈다경〉에서 "차는 남방의 아름답고 진귀한 나무다(茶字南方嘉木也)"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차를 영초라 여긴 것이다. 차를 귀하게 여긴 연유는 자명하다. 차는 단일 식물이지만 그로부터 얻은 영험함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 차는 맑고, 감윤(甘潤)하다. 쓰고 떫은 차의 맛을 감윤하게 만든 것은 차를 즐긴 이들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다. 특히 차는 정신을 맑게 한다는 효능과 잠을 적게 한다. 선종 승려들이 차를 수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연유다. 응체된 몸을 풀어주는 차의 효과는 불로장생을 꿈꿨던 신선들이 차를 통해 얻으려 했던 이상세계였다.

이에 부응했던 차는 신선들의 중요한 음료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차는 몸을 따뜻하게 한다. 바로 체온을 높여 면역성을 높여준다. 따뜻한 차의 품성은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기에 족하다. 그러므로 차를 칭송한 문인의 시문에는 차를 통해 회한(悔恨)이나 슬픔, 분노, 기쁨과 환희를 노래했다. 그뿐 아니라 참선하는 수행자를 삼매(三昧)로 이끈 매개물도 차였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차 문화의 근간은 잘 만든 차이다. 좋은 차의 정수를 드러내기 위해 적합한 물이 필요했고, 차의 정기를 얻기 위해 물 끓이는 법이 연구되었다.

고려시대 차는 단차(團茶, 가루차)를 선호했기에 물을 끓이는 방법이 잎차를 다룰 때와 다르다. 가루차는 설익은 물을 쓰지만 잎차는 완전히 끓은 물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찻물을 끓이는 도구의 디자인도 달랐다. 이는 차의 순수한 맛, 향기, 기운을 얻기 위한 장치일 뿐 차를 마심으로써 얻는 차의 효능은 같은 것이다. 심신의 안정은 결국 맑고 기운찬 한 잔의 차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인 선인들의 전언(傳言)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에 차가 전해진 것은 7세기 무렵이다. 9세기에 이르러 왕실과 승려, 관료에게 퍼져 나갔다. 물론 차를 전해 준 계층으로는 유학생, 상인, 승려, 사신들이 신문화를 가장 먼저 접한 그룹이었겠지만 특히 차와 불교 수행의 융합은 새로운 수행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신라 말, 차를 들여온 계층은 중국에 유학했던 승려들이었다.

고려초기 차는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하사품이며,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물이었다. 이는 차를 선진문물로 인식한 고려인의 차에 대한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고려시대는 차가 정신을 맑게 하고 몸을 평탄하게 한다는 효과를 국가제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시대였다. 그만큼 고려인의 차 응용은 지혜로웠으니 바로 다시(茶時)라는 제도이다. 이런 용례는 차 문화의 종주국이라 자처하는 중국에서도 없었던 사례였다.

고려인의 적극성은 서긍(徐兢, 1091~1153)의 〈선화봉사고려도경〉에 "하루에 세 차례 올린 차를 마신다. 이어 탕(湯)이 나온다, 고려인들은 탕을 약이라고 한다. 매번 사신들이 다 마시는 것을 보면 반드시 기뻐하고 만약 다 마시지 못하면 자기를 깔본다고 여겨 불쾌히 여기며 가버리기 때문에 항상 억지로라도 마셨다(日嘗三供茶而繼之以湯 麗人爲湯謂藥 每見使人飮盡必喜 或不能以爲만己 必怏怏而去故 常勉强爲之啜也)"라고 한 것에서 드러난다. 여기에서 탕이 나오고 이를 약이라고 한 대목이 눈에 띈다. 이는 "토산 차는 맛이 쓰고 떫어서 입에 댈 수가 없다(土產茶味苦澁不可入口)"고 했기 때문이다. 고려 왕실의 의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식은 차를 마셨다. 서긍이 고려 토산 차가 쓰고 떫다고 한 이유이다. 고려 사람들은 쓴맛을 탕(湯)으로 보충하여 중화시켰으며 차의 기운을 원활하게 하려하였다. 이는 식은 차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런 대목에서도 고려인의 지혜가 돋보인다.

앞으로 고려시대 차 문화를 연재하는 동안 차를 즐겼던 문인들의 차 생활을 살펴보고, 그들이 중정을 드러낸 차 한 잔을 얻기 위한 지혜를 엿보고 싶다. 특히 차에 알맞은 물의 기준이나 찻그릇에 대한 그들의 안목도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를 사랑했던 고려시대 사람들의 고뇌와 환희를 차로 회자했던 고려인의 차의 이상세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연재의 중요한 포인트다.

차 싹은 천기와 지기를 함축한 생명이다. 그 속에 담긴 맑고 기운 찬 생명성은 사람의 심신을 일깨워주는 기운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물은 생명을 잉태한 근원이다. 그러므로 고려시대 차를 즐긴 이들이나 조선후기 차를 애호했던 문인들도 차의 순선한 기운을 얻고자한 것은 아닐까. 그 길을 찾아가보려 한다.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박동춘 소장은

1979년, 한학을 공부하던 26세의 필자는 해남 백화사에서 86세 응송 스님을 만난다. 이곳에서 응송의 〈동다정통고〉 출판을 도우며 차 이론과 제다법을 전수받았고 '초의차' 5대 계승자가 됐다. 성균관대 유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자의 길을 걷고 있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딴 '동춘차'를 만들고 한국 전통차 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 謹賀新年 경자년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흥 천 사
사부대중일동
"흥천사에 오시면 당신의 꿈이 이루어 집니다"
서울시 성북구 흥천사길 29(돈암동)
TEL 02)929-6611

2020 謹賀新年 경자년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회 주 대궁 종상
주 지 성행
신도회장 무상행
사부대중일동
부설 정신지체장애인 복지시설 녹향원, 청계장애인주간시설, 의왕시립(희망나래)종합복지관, 대궁어린이집
경기도 의왕시 청계로 475(청계동)
TEL 031-426-2348, 2221 / FAX 031-426-3666

2020 謹賀新年 경자년
대한불교조계종
제천 와룡산 고산사
주지 무림 장산
신도회장 유일광심 외 신도일동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월악로9길 113
TEL 043)646-0198



2020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대한불교조계종

여 래 사

사부대중일동

경남 진주시 진주성로188번길 29(상봉동)

대한불교조계종

지리산 **금 수 암**

새해에도 부처님의 법향이
온세계에 전해지는
한해를 기원합니다.

마음수행 사찰음식

사부대중일동

경남 산청군 금서면 새터길 57-98
055)973-6601

대한불교조계종

운 흥 사

주지 **인 암**

영산대재 매년 음력3월3일
양력3월26일

신도회일동

경남 고성군 하이면 와룡2길
Tel 055)835-8656 Fax 055)835-8605

대한불교조계종

정 인 사

주지 **원 행**

신도회일동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천길 118
055)299-5450

대중불교 전법도량

봉화산 **정 토 원**

원장 **선진규**

신도회장 **이 장 명**

신도일동

김해시 진영읍 장방로136-200
055)342-2991~2
www.bonghwasan.org

한국불교태고종

금 왕 사

주지 **금 산**

신도회일동

경남 남해군 이동면 보리암로65-23
055)862-3794

대한불교조계종 18교구 포교당

금음산 **불 인 사**

주지 **송 산**

고불학당(불교대학)
불인사 파라미타

신도일동

경남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46번길 3
Tel 055)343-1638 Fax 055)343-1637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전단산 **우 곡 사**

주지 **우 담**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자여로 459
Tel 055)291-3100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산 **옥 천 사**

주지 **원 각**

사부대중일동

옥천사 마음챙김
템플스테이

경남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로 471-9
Tel 055-672-0100 Fax 055)672-0481
템플스테이 055)672-6296
www.okcheo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화왕산 **도 성 암**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8번지
055)533-2073

대한불교조계종

보 문 사

주지 **진 현**

신도회일동

경남 하동군 악양면 입석길 115-99
055)884-8000

대한불교조계종

용 화 사

주지 **현 덕**

신도회일동

경남 울주군 상북면 천전길54
052)262-0518

2020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소 운**

- 관음사 신도회
- 관음사 불교대학(원)
- 붓다스마일 합창단
- 연꽃향기 성지순례회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6번길 7
TEL 062)224-7666

대한불교조계종

법 림 사

주지 **무 진**

대해노인복지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649-1번지
TEL 062)234-2207

대한불교조계종

연 화 사

주지 **명 신**

부 설

연화유치원,어린이집
062)227-0173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 2동 448-2번지
062)227-7295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062)222-2202

대한불교조계종

비 전 사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 2동 489-22번지
062)951-3562

한국불교태고종

세심정사

회주 **지 암**
주지 **보 응**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길 57-15

지장도량

미 륵 사

주지 **혜 법**

사찰음식 전문점
수 자 타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469-3
062)222-1145

대한불교조계종

동 원 사

회주 **지 각**
주지 **지 장**

광주광역시 동구 지호로 164번길 54
062)227-3516

대한불교조계종

복 암 사

주지 **도 성**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449번길 68-32

대한불교조계종

원 효 사

주지 **해 청**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무등로 1514-35
062)266-0326



2020년 새해 福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대한불교조계종

신 흥 사

주 지 **법 공**

사부대중일동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101-1
061)554-2634

대한불교조계종

자 운 사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지호로 106번길 8-8
062)222-8296

대한불교조계종

운 주 사

천불천탑(千佛千塔) 도량

주 지 **무 안**

사부대중일동

전남 화순군 도암면 천태로 91-44
www.unjusa.kr
종무소 061-374-0660
템플스테이 010-5850-0661

대한불교조계종

광 덕 사

주 지 **상 진**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남구 화산로 129
종무소 062-652-6050

대한불교조계종

천 룡 사

주 지 **무 등**

❋ **신행기도회 :** 매월 둘째 일요일 명산명찰 순례
회장 관음성(류은경), 총무 감로수(이은정)

❋ **다라니 독송회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회장 관음화(윤금례), 총무 거향수(최진숙)

❋ **법화경 읽기 모임 :** 매월 음력 1일 ~ 음력 7일
회장 보문행(정기선), 총무 향적림(김명자)

❋ **성덕회 :** 천룡사 포교원 개설 준비 모임
회장 신행문(서인숙), 총무 여래향(송예분)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길 26-23
TEL 062)234-1338 FAX 062)234-0108

대한불교대광종

서 산 사

종 정 **무등 근원**

대자유인으로 살자

전남 신안군 비금면 서산길 260
010-5027-8894

대한불교조계종 제 24교구

월명산 동 국 사

주 지 **종 걸**

사부대중일동

전북 군산시 동국사길 16
063)462-5366
www.dongguksa.or.kr

군산불교사암연합회

동국사 **종걸** 흥천사 **법희**
성흥사 **송월** 보천사 **의종**
은적사 **석초** 삼보사 **법송**
관음사 **도천** 수도암 **무진**
불주사 **석화** 도안사 **명현**
광법사 **명각** 대명사 **법인**
호국군성사 **혜준**

회장 상주사 **도연** 재무 염불사 **행담**

사부대중일동

전북 군산시 서수면 함안로 57-29
Tel 063)453-7800

대한불교조계종

금 선 암

주 지 **덕 산**

사부대중일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1길 377
063)221-8486

한국불교태고종

군산 성 흥 사

(부설 성흥사 불교대학)

회 주 **송 월**
주 지 **보 위**

사부대중일동

전북 군산시 성산면 오성로 134-16
Tel 063)453-0050

지장보살의 사상을
실천코자 노력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오봉산 영 선 사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꿈을 실천하고 있는

등용청소년공부방

매 방학기간 **[국가사회 동량 양성기원 방학 학업 특별용맹정진]** 봉행됨

사단법인 사람과 희망

전북 남원시 인월면 상우리 산32번지
Tel 063)636-2195
www.youngsunsa.org
http://cafe.daum.net/youngsunsa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성 불 사

주 지 **월은 종명**
신도회장 **월광심**
칠성회장 **문수행**

사부대중일동

전북 군산시 경암동 서래내길 34
063)445-3266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15년 전에 해인사에 인접한, 고령 장기리 암각화를 처음 봤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이제는 매년 휴가를 얻으면 알타이 암각화를 순례하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암각화는 나에게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는다. 그저 스스로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아무런 말도 없는 그것이 오히려 나 자신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편집자주〉



기도하는 밤

온
하늘 이어라
깊은 하늘이어라

하늘이 온통 내려 앉은
신들의 밤이어라

아...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을까

한 백성의 눈물도
빠짐없이 담아 바친
무릎 끓는 밤이어라

중생의 어둠을 다 걷어내는
신(新) 새벽이어라

까잘만, 싸이말루이 따쉬

손가락 숫자가 다섯 개가 아닌, 특별한 사람이다. 손가락을 유난히 강조한 것은,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하늘을 쳐다보고 손에는 북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키르기스스탄 고고학자 따쉬바예바 교수는 '버섯모양 인간'이라고 불렀다. 형태로 봐서는 버섯 모양이다. 하지만 이 그림이 내포하고 있는 속 뜻을 생각하면, '밤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야 어울릴 듯하다. 머리위의 버섯 모양은, 모자나 어떤 장식이 아니라, '깊은 밤하늘'을 표현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얼마나 깊은 밤이었던지, 어둠이 양쪽으로 흘러내리는 느낌마저 든다. 바위표면이 벗겨져서 생긴, 황토색은, 마치 멀리서 동이 트고 새벽이 오는 모습 같기도 하다.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으니, 하늘이 소원을 들어주셨을 것이다. 중앙아시아 샤먼들은 아직도 이런 북을 사용한다.



대원성보살의
선지식 '산중서신'
① 연재를 시작하며

77세 노보살의 스승 이야기

오늘에서 육성을 들을 수 없는 선지식들의 이름은 불자들은 물론 고단한 시대의 대중 모두에게 커다란 그리움이 아닐 수 없다. 그 이름과 동시대를 지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였고 기대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남긴 흔적만으로 그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 오늘에서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음이 때때로 그 어떤 설법보다도 따뜻하게 다가온다.

1977년 부산 연꽃모임을 만들어 쉼 없이 이끌고, 부산 지역의 불교발전에 앞장서온 이대원성 보살은 오랜 세월 불연속에서 많은 신행의 공덕을 쌓아왔다. 특히 많은 선지식들과의 인연은 그의 공덕 중의 공덕이라고 할 수 있다. 고암 스님을 비롯해 일타 · 법정 · 운허 · 지관 스님 등과 대원성 보살이 주고받은 선식들의 서신을 격주로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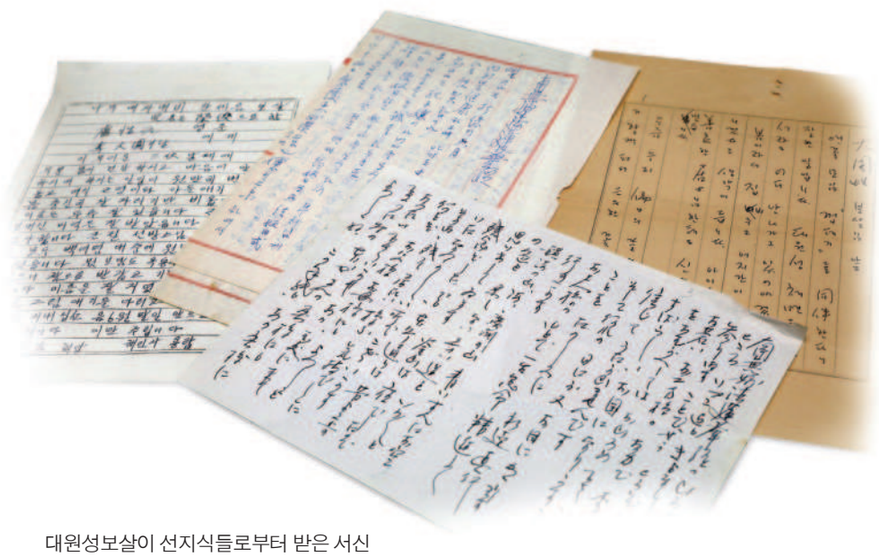
〈편집자주〉

올해 77세를 맞는 나 이대원성은 오랜 세월 불자로 살면서 많은 선지식들을 가까이서 뵐 수 있었다. 법문 속에서 가르침을 받기도 했고, 몸소 실천하는 수행자의 모습에서 가르침을 받기도 했고, 또 모든 경계를 떠난 한 인간의 모습에서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 그 중에는 선지식들과 주고받은 서신도 큰 가르침이 되기에 충분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러운 글자에서 전해오는 따뜻한 마음을 받아볼 때면 법회나 친견 자리에서 받을 수 없는 또 다른 감화를 느끼곤 했다. 현대불교신문의 지면을 얻어 그동안 선지식들로부터 받은 서신을 소개하고자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불법(佛法)에 마음을 정하고 한 생을 한 생각으로 살아온 선지식들의 일언일구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대중을 마음속에서 그리며 한 글자 한 글자 설법으로 써내려간 그 서신들을 다시 꺼내어 본다. 세월을 머금은 서신들은 빛이 바래고 글자는 무뎌졌지만 그 빛바랜 종이 위에 단단히 새겨진 글자들은 여전히 선지식들의 마음과 영혼을 전한다.

어릴 적 우리 집엔 언제나 일반 손님보다 승복을 입은 스님들이 더 많아보였던 것 같다. 그때 철없던 그 시절엔 스님을 공경하기보다 너무도 예사로이 오신 손님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내가 불자로 살게 되면서부터 내가 너무도 많은 복을 타고 났다는 것을 알게 됐다.



대원성보살이 선지식들로부터 받은 서신

스무 살이 갓 넘었을 때, 아버지의 권유로 어머니의 친구들과 통도사 백운암 기도에 따라가서 3일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때부터 하루에 두 번 아침저녁으로 부처님께 108배 기도를 하게 됐다. 그때 일주일에 두 번 불교청년회 법회 하는 모습을 보아왔지만 아버지의 봉건적인 가르침 때문에 가입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어느 날, 절을 하고 있을 때 당시 동국대학교 서경수 교수님의 법문을 듣게 됐는데, 그때 아버지 몰래 청년회에 가입하게 됐다.

1967년 11월 18일 부산 대각사 청년회는 해인사로 2박 3일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수련회에 참가하고 싶어서 처음으로 아버지께 거짓말을 하고 따라나섰다. 그때 그곳에서 처음 만난 스님이 평소에 아버지께서 자비보살이라며 늘 자랑하시던 고암 스님이었다.

스님이 종정으로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리고 성철 일타 지관 법정 보성 수산 지월 스님께서 주지를 맡고 있던 시절로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많은 선지식들이 한국불교를 이끌고 있을 때였다.

생전 처음 참가했던 수련대회의 기억은 지금도 그 환희심이 생생하게 가슴속에서 일어나게 하는 행복한 추억이다. 3일 째 되는 날 처음으로 5계를 받게 됐는데 우리 모두는 고암 스님께 계를 받고 싶어서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께서는 조용하고도 인자하신 모습으로 "나 말고 큰스님들이 많이 계시니 찾아가보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우리는 허락하실 때까지 절을 하겠다고 했더니 스님께서 벌떡 일어나 "절대로 절을 받지 않겠다"며 수산 · 법정 · 보성 등 몇몇 스님들을 증명으로 둘러서게 하고 우리 회원들은 계를 받았던 기억이 있다. 그때 난생 처음으로 대원성이란 법명을 받고 정식으로 불자가 됐다. 그리고 고암 스님을 나의 첫 스승으로 모시게 되어 가끔 편지로 안부도 주고받게 됐다.

1969년 그해 결혼을 하게 됐을 때에도 결혼식 날짜를 스님께서 정해주었다. 그리고 신혼여행도 스님이 주석하고 있던 해인사로 갔다. 그때 스님께서 손수 장을 보아 불전에 공양을 올리고 불공도 해주셨던 기억이 난다. 이런 복이 또 어디에 있을까. 지금도 너무나 그리운 큰스님 영정을 집에 모시고 날마다 감사하고 예경하고 있다. 앞으로 소개하는 선지식들의 서신이 많은 대중에게 특별한 설법이 되기를 바란다.

2020 HAPPY NEW YEAR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도서출판 한누리미디어
한국불교문인협회
한국불교문학

정치학/북한학 박사 김재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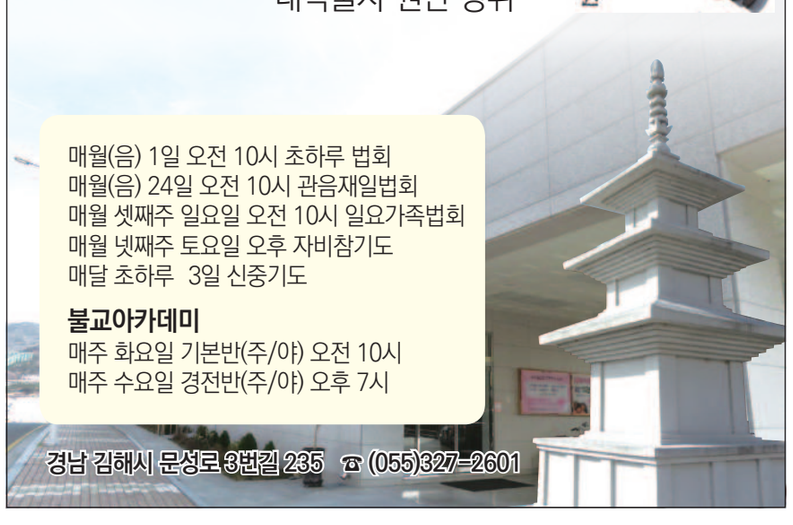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18길 40,2층(구로동)
TEL 02-379-4514
FAX 02-379-4516

2020 謹賀新年 경자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중심도량
바 라 밀 선 원

주 지 영경 태감
회 주 수담 인해

대웅전 법당 및 선원
대작불사 원만 성취



매월(음) 1일 오전 10시 초하루 법회
매월(음) 24일 오전 10시 관음재일법회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일요가족법회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후 자비참기도
매달 초하루 3일 신중기도

불교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기본반(주/야) 오전 10시
매주 수요일 경전반(주/야) 오후 7시

경남 김해시 문성로 3번길 235 ☎ (055)327-2601

대한불교조계종
참선 수행 도량
가지산 석남사

무주상 공덕행으로
복된 새해되시길…

사부대중일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석남로 557
Tel 052)264-8900 Fax 052)264-8908
E-mail : seoknamsa@hanmail.net

2020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종무원

부산종무원장	자관스님(자비암)	중앙원로위원	원묵스님(용화사)
부 원 장	마나스님(백운사)	중앙원로위원	경담스님(구봉사)
총무국장	봉진스님(혜성사)	포교위원장	고담스님(천불정사)
교무국장	성주스님(흥금사)	지방선관위원장	혜각스님(영월사)
재무국장	지보스님(연화사)	지방종회의장	도오스님(백룡사)
사회국장	도화스님(무심사)	지방종회부의장	청안스님(무량정사)
규정국장	법성스님(성불사)	지방종회사무국장	지운스님(연화사)
문화국장	일행스님(무애사)	중앙종회위원	태명스님(사천왕사)
		중앙종회위원	혜공스님(구룡암)

지방종회위원 지풍스님(법성사) 도성스님(구월사) 성각스님(보림사)
행암스님(대덕암) 지환스님(용천사) 도향스님(보문사)
보해스님(은혜사) 고담스님(해안사) 혜민스님(천불암)
지장행법사(대원암)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47(수안동)청하빌딩 4층 | Tel 051)558-5077 Fax 051)558-5076

대한불교조계종

안 국 선 원

사부대중일동

▷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단로 124 (남산동) 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TEL 051)583-0993·0994 / FAX 051)583-0991

▷ 서울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70(가회동)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TEL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2019년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영유아 행복드림사업**을 통해

9명의 소중한 생명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노력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자년..진정한 **인간방생의 길**이 실천되길 기원합니다.

상임대표: 정각
공동대표: 심산, 목종, 김종민, 장인화, 김진영, 한병호 합장

상담 및 후원

www.happywave.or.kr 전화 : 051) 664-7300
이메일 : happiness2121@hanmail.net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센텀서로 30 KNN타워 8층
TEL: 051)664-7300 FAX: 051)664-7301

홍법

심산 深山 주지
양재생 신도회장
이영숙 운영위원장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로33번길 202
전화 : 051-508-0345
팩스 : 051-508-6561
E-mail : 50800345@hanmail.net
www.busanbuddhism.net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복지화!
세계화를 위한 도약의 첫 걸음은
대한불교조계종 홍법사와 함께









B.TONIC
CAFE & BAKERY

카페 비토닉의
오리지널 블랜딩 커피, 아름다운 부산항과 하나 되다.

카페 비토닉 www.cafebtonic.com T. 051-997-4484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247번길 35, 6층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산 장안사

주지 무관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598 전화:051)727-2393

현대불교 제 1275 호
2020년 1월 1일 수요일



위례의 꿈

위례는 꿈꾸는 곳이 아니요
위례는 꿈 깨는 곳이어야 한다,
위례는 내가 살아 생존하려는 곳이 아니라,
위례는 나를 죽여 생존하는 곳이어야 한다.

서릿발 칼날로 무시겁래 삼독철벽
찰나 간에 철폐하고
철간 같은 굳은 신심
수미정상 깃발이라

구름 걷힌 높은 창공
휘영청 밝은 달빛
대천세계 모든 생명
반야의 등불되리.

거룩하여라!
위례에서 피어날
九天을 깨울 九坐의 선지식이여
가섭의 염화미소로
활짝 웃고 나오소서.

기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간절한 정성 다해
그 순간 기다립니다.

법산 스님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지난해 11월 11일 시작된 위례천막결사. 그 중심에 있는 상월선원에는 현재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9명의 스님들이 동안거 무문관 정진을 하고 있다. 결사 정진 이후 한 달여, 전국 5만여 사부대중이 상월선원을 찾아 9명 스님들의 정진이 원만회향하길 기원하고 있다. 울타리에 걸린 불자들의 간절한 소원 너머 보이는 '문없는 문' 상월선원 현판에서 초연함이 느껴진다. **사진=박재완 기자**

INSIDE

C2 상월선원 결사 어떻게 진행되나
C3 상월선원 결사 의미는
C4 박종수 본지 사장 무문관 체험기
C5 외호대중 STORY
C6 상월선원 결사 가치와 전망
C7 사진으로 보는 상월선원



지난해 11월 11일 열린 동안거 입재식에서 천막결사 안거 정진에 들어간 9명의 스님들이 입방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불교 미래 그리는 아홉 스님 용맹정진

상월선원 천막결사 시작부터 현재까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당신이 보리수 아래서 선정에 들며 맹세하듯 저희도 당신을 따라 맹세합니다. 이 자리에서 내 몸은 말라버려도 좋다. 가죽과 뼈와 살이 녹아버려도 좋다.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

지난해 11월 11일, 위례천막결사 상월선원에 방부를 들인 9명의 스님들이 무문관 동안거 정진에 들어가며 부처님 전에 고한 서원이다.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성곡 · 호산 · 무연 · 심우 · 진각 · 재현 · 도림 · 인산 스님은 현재 눈과 비, 최소한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상월선원에서 정진을 이어가고 있다.

입방 전 9명 스님들은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 △하루 한 끼 공양 △옷 한 벌만 허용 △양치만 허용하고 삭발 · 목욕 금지 △외부인 접촉 금지하고, 천막 벗어나지 않기 △묵언 등을 골자로 한 청규를 정하고 이를 지키며 수행 중이다.

또한 이들 스님들은 규약을 어길 시 조계종 승적에서 제외한다는 각서와 제적원까지 총무원에 제출했다. 생명과 같은 승적까지 걸고 수행에 들어간 것이다.

천막결사, 어떻게 시작됐나

이 같은 '천막결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퇴임 이후 2차례 백담사 무문관에서 동안거 정진을 했던 자승 스님의 "안거 한철만이라도 치열하게 정진해보자"는 제안으로 시작됐다.

본래 자승 스님의 처음 계획은 서울역에서 혼자 노숙 정진을 하며, 그곳을 배회하는 노숙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주위의 만류로 대중들이 꾸려졌고, 장소도 다시 논의됐다.

서울역을 비롯해 종로 탑골공원 원각사지, 광화문들이 후보지로 거론됐으나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위례신도시 법당 건립 부지로 결정됐다. 위례신도시 법당은 올해 중으로 본격적인 불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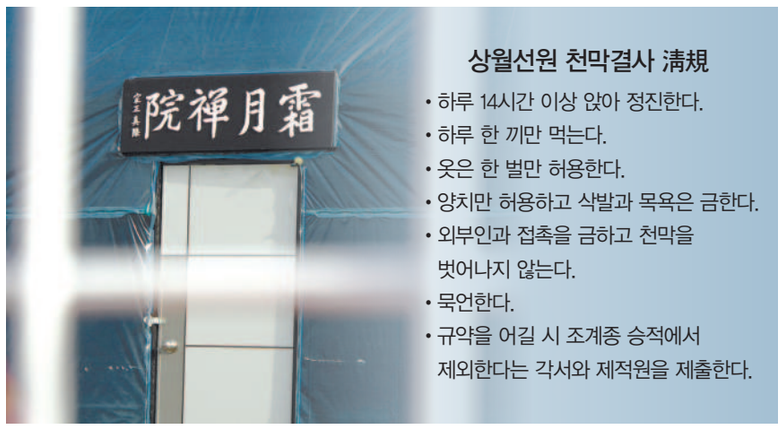
이에 대해 선원 지객 소임을 맡은 호산 스님은 동안거 결제 전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위례신도시 법당 건립 부지에서 이뤄지는 스님들의 용맹정진으로 신도시 포교를 위한 종단의 불사가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 최고의 도량을 건립하길 기원하며 정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거 정진 대중 어떻게 생활하나

'문 없는 문'을 의미하는 상월선원 무문관에서 스스로를 가둔 채 수행 중인 9명의 스님들은 어떻게 정진하고 있을까.

아홉 스님들은 새벽 2시 기상해 죽비로 예불을 올리고 하루 14시간 정진을 이어간다. 정진은 50분 참선, 10분 포행의 형식으로 이뤄진다.

공양은 오전 11시 선방 배식구로 하루 한 끼 도시락으로 제공한다. 도시락 내용물은 쌀밥의 경우 200g을 채 넘지 않는다. 과일의 경우 사과와 배 등 칼을 사용해 껍질을 벗겨야 하는 과일은 제외된다.



상월선원 천막결사 淸規

- 하루 14시간 이상 앉아 정진한다.
- 하루 한 끼만 먹는다.
- 옷은 한 벌만 허용한다.
- 양치만 허용하고 삭발과 목욕은 금한다.
- 외부인과 접촉을 금하고 천막을 벗어나지 않는다.
- 묵언한다.
- 규약을 어길 시 조계종 승적에서 제외한다는 각서와 제적원을 제출한다.

차와 커피 역시 검박하다. 선원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다구와 원두커피는 찾아볼 수 없다. 차는 티백으로, 커피는 봉지커피로 대체됐다.

가장 문제는 추위다. 하지만 9명 스님들은 최소한의 방한도구로 이겨낼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추위가 걱정된 외호대중이 발열조끼를 선방 안에 넣었지만, 9명 스님들은 다음날 바로 돌려보냈다. 핫팩 역시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상월선원 총도감 혜일 스님(성남 봉국사 주지)은 "선방 내 커피포트가 있는데 제공된 물통으로만 추위를 이겨내려고 하시는 것 같다. 결연한 정진 의지를 느낄 수 있다"면서 "사부대중이 함께 정진하며 9명 스님들에게 힘을 보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열린 결사'로 진화하는 중

9명 스님들의 동안거 입재 이후 52일째가 되어가는 현재 위례천막결사 상월선원은 9명 스님들의 용맹정진 수행처이자 외호대중들의 야단법석 기도 · 수행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안거 입재 이후 상월선원에는 평일과 주말을 가릴 것 없이 전국 사찰을 비롯해 동국대 등 종립학교, 포교단체에서 선원을 찾아 기도 정진을 하고 있다.

상월선원 측에 따르면 하루 평균 1000명 이상, 많을 때에는 3000명 이상이 선원을 찾기도 했다. 한 달여 만에 5만 명이상의 불자들이 선원을 찾아 정진 중인 스님들을 응원하고 기도 정진을 한 것이다.

외호대중을 천명한 사찰들도 게으름 없이 정진 중이다. 조계사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상월선원을 찾아 정진하고 있다. 봉은사는 둘째, 넷째주 목요일에 개최하던 상설음악회 '박범훈의 소리길 여행'의 장소를 상월선원으로 옮겼으며, 매주 토요일마다 봉은사 사부대중들의 정진 동참도 이뤄지고 있다.

두 차례의 철야정진도 있었다. 구랍 7일에는 조계사, 봉은사, 봉국사 대중을 중심으로 첫 철야정진이 봉행됐으며, 구랍 14일에는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철야정진으로 9명의 스님들을 외호했다.

자원봉사와 보시도 위례천막결사를 이끄는 힘이다. 용인 대덕사 명선다례원은 매일 자비로 다과 물품을 구입해 선원을 찾은 대중에게 보시하고 있다. 봉은사와 봉국사에서도 대중공양을 올리고 있으며, 화장실 · 법당청소 자원봉사자들도 20여 명에 달한다.

'상월선원천막결사' 유튜브 채널과 밴드 개설 · 운영도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대의 결사 모습이다. 특히 현재 1700여 명이 구독 중인 '상월선원천막결사' 유튜브 채널은 선원 일정 공지부터 정진 현장을 생생하게 불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뜨거운 '대중 무문관' 열기

일반 대중이 스스로 무문관 수행을 체험해보는 체험관 '대중 무문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 7일 공식적인 운영에 들어간 '대중 무문관'은 불교오피니언 리더 윤성이 동국대 총장,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선상신 前 불교방송 사장, 임명배 前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가 입방해 1박 2일동안 수행하며 시작을 알렸다.

구랍 8~9일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 수석부의장 장명 스님, 차석부의장 법원 스님이 '대중 무문관'에서 수행 체험을 진행했으며, 구랍 13~15일엔 조계사불교대학 최고위 과정 여성불자 4인이 정진에 동참했다. 박종수 본지 사장도 구랍 22일부터 23일까지 '대중 무문관'에 방부를 들이고 정진 체험을 하기도 했다.

올 1월 초에는 중앙종회분과위원장 각림 · 함결 · 제정 · 만당 스님이 대중 무문관에 방부를 들이고 정진할 예정이다.

한국불교사에서 유례가 없는 수행 · 기도 · 봉사의 현장이 되고 있는 위례천막결사의 의미를 조명하는 시도도 이뤄졌다.

구랍 28일에는 불교학자, 불자 교수들이 함께하는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학술토론회에서는 '중생과 함께하는 붓다, 붓다와 함께하는 중생-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시대적 지향(김응철, 중앙승가대)'과 '결사, 붓다 정신의 근원적 지평을 향한 불교의 의지-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역사적 의의(황순일, 동국대)'가 각각 주제 발표됐다.

이후에는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정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주제로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지정토론자로는 자현 스님(중앙승가대), 혜명 스님(동국대 경주캠퍼스), 김성규(영남대 의과대학), 박인석(동국대), 송일호(동국대), 최응천(동국대), 서운교(동국대), 이범수(동국대), 이병두(종교평화연구원장) 등이 참여했다.

총도감 혜일 스님은 상월선원 천막결사에서 새로운 수행 · 신행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봤다. 혜일 스님은 "한 달 동안 5만 명이 넘는 대중들이 선원을 찾아 자발적으로 법회를 열고 기도하는 것은 9명 스님들의 정진력에 감화됐기 때문"이라며 "9명의 스님들의 수행, 이를 통한 전국 불자들 기도 정진, 봉사로써 외호 실천이 상월선원에서 아름답게 구현되고 있다. 앞으로도 결사가 원만 회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德崇叢林 修德寺
叢林大衆一同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79
www.sudeoksa.com
전화 041)330-7700 팩스041)330-7702

"우리 모두가 부처님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본사
황학산 직지사
사부대중일동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www.jikjisa.or.kr
☎ (054)429-1700~3, 429-1713~15 Fax (054)436-3174

“천막결사, 한국불교 중흥 첫 걸음”

상월선원 결사 주목받는 이유는



상월선원 외호 대중으로 나선 서울 조계사 사부대중이 선원을 찾아 천막결사 원만 회향을 기원하고 있다.

최근 천막으로 엮은 상월선원(霜月禪院)의 동안거가 세간의 화두로 주목받고 있다. 천막으로 지어진 임시 가건물이라는 열악한 조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도 화제이지만, 이번 상월선원 동안거가 유독 세간의 시선을 받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입재로부터 두 달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 동안거가 진행되는 방식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파격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한국불교에서의 안거는 수좌들이 큰스님이 계시는 선원을 찾아 선방에 방부를 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들 선원의 대부분은 수좌 스님들이 안거 동안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선의 여건을 제공하는데 심혈을 기울인다. 때문에 대부분의 선원은 고요한 곳 곧 아란냐(Araṇya)라 부르기에 적합하면서, 동시에 온도의 변화가 심하지 않는 곳을 입지로 삼는다. 수행을 장애하는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상월선원 동안거는 이 같은 안거의 일반적인 요건을 벗어난 상황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전례가 없을뿐더러 파격적이다. 우선 상월선원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장소 자체는 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고 있는 현장 바로 옆이어서 공사장 소음이 끊이지 않는다. 거기에 콘크리트 바닥만 설치하고 그 위에 비닐 천막으로 비바람을 가린 정도이기 때문에 낮밤의 극심한 일교차를 견뎌야 한다. 여기에 안거 기간인 3개월 동안 샤워도 금지하고 단 한 벌의 옷만을 가지고 견딘다는 것은 더욱 고통을 가중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여러 모로 최악의 환경조건을 감수한 동안거이기에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밖에 없으며, 이 같은 요인들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파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둘째로 상월선원 동안거 천막결사에 동참한 스님들의 면면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구성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상월선원 동안거를 주도하고 동참한 스님들의 면면은 ‘굳이 왜?’라고 하는 의문을 저절로 떠올리게 한다. 어느 선원에서라도 기꺼이 방부를 받을 스님들인데다 굳이 가장 열악한 조건을 찾아서 동안거를 해야 할 마땅한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스님들이라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불자들의 고민은 ‘그렇다면 왜?’, ‘왜 저 스님들이?’라고 하는 것에 쏠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주목의 시선을 이끌어내게 하는 동인이기도 할 것이다. 필자 역시 고민은 ‘왜?’라는 것에 이르게 된다. ‘왜 아홉 명의 스님들은 이 같은 파격에 해당하는 동안거 행보를 택하신 것일까?’

필자는 그 실마리의 하나를 ‘결사(結社)’라는 명칭에서 찾는다. 동안거가 아닌 동안거를 계기로 하는 결사(結社)라고 한다면, 선원의 이름 ‘상월(霜月)’ 곧 ‘차가운 서리가 내린 새벽의 달빛’은 그 결사에 참여하는 수행자들의 서슬 퍼런 정진 의지와 그들이 세운 서원의 굳건함을 되새기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곧 동안거가 아니라 결사라고 읽으면, 그 세간이 주목하는 고민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가 닿게 될 것이다. 이미 선원의 이름에서부터 결사(結社)에 다른 용맹정진, 새롭게 나아가야 할 한국불교의 앞날에 대한 결연한 다짐을 담고 있는 것이기에.

그래서 안거처가 아니라 결사처를 택한 것이라 생각하면, 고요한 장소가 아니라 시끌벅적한 공사장 한 가운데이면서 내일 도심 한 가운데가 될 곳을 선택한 것이 납득이 간다. 더불어 온갖 열악한 조건에 대한 감내는 자연스럽게 그 결사체 곧 서원공동체의 원력이 향해야 할 바, 한국불교가 내일 그리고 지금 걸어가야 할 바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홉 스님이 감당하는 열악한 조건은 그 자체로 온갖 열악한 조건으로 상징되는 이 땅의 현실을 힘겹게 버텨내는 중생을 놓지 않고 함께 끌어안고 가겠다는 서원의 결기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상월선원을 만난 우리의 고민은 그것이 결사(結社)라는 것에 맞닿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결사는 필연적으로 그 결사에 동참한 스님들은 서원과 맞닿아 있다. 아홉 스님들이 결연히 내세운 서원은 다음과 같다.

“저희들은 이제 당신의 길을 걷겠노라고 다짐합니다.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이 필요한 곳, 당신의 가르침이 구현되어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당신이 고행을 버리고 은둔자들의 숲을 떠나 마을 가까운 숲으로 찾아가셨듯이, 저희도 이제 위례신도시의 황량한 뜨락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에겐 이곳이 부다가야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 선원, 고요한 곳에 입지해
공사장 한복판 천막서 정진 ‘파격’

“위례신도시 수행처를 부다가야로”
‘중생과 함께’서 불교 미래 발견한
9명 스님 ‘결사’ 서원에 주목해야

결사라고 하면, 흔히 우리는 산중 결사를 떠올린다. 하지만 아홉 스님들이 입재에 즈음하여 남긴 고불문은 산중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며, 도심 한 가운데를 ‘부다가야’로 만들겠다는 서원을 담고 있다.

불교의 역사에서 결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다. 멀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결집, 대승불전의 출현, 중국 여산혜원의 백련사 등이 모두 결사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것이며, 가깝게는 고려 지눌 스님의 정혜결사와 요세 스님의 백련결사가 있고, 현대 한국불교의 큰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되는 봉암사결사도 있다.

이들 결사라고 칭해졌던 역사상의 모든 서원공동체는 하나의 공통점을 지닌다. 바로 부처님이 가신 발자국을 따라 무소의 뿔처럼 용맹정진으로 나아간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은둔자들의 숲을 떠나 마을 가까운 숲으로 찾아가셨던 부처님’의 모습에서 그 발자국을 찾는다. 그래서 ‘위례신도시의 황량한 뜨락으로 찾아왔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무심코 넘겨버릴 수도 있지만, 이 대목은 한국불교의 최근 600여 년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상월선원 천막결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왜 집중되고 있는지에 대한 해명의 한 실마리를 엿보게도 한다.

억불숭유의 조선시대에 불교는 도심에서 저자거리에서 산간으로 내몰린 산중의 종교가 되었다. 아니 산중의 절간만이 살아남아 명맥을 이었다. 구한말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는 끊임없이 도시로의 진출을 시도해왔지만 그러한 시도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할 만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조선의 억불정책이 남긴 산간 사찰이 일제강점기에는 본산이 되었고, 다시 대한민국에 이르러서는 교구의 중심 사찰이 되었다. 이른바 큰 절이고, 이를 중심으로 큰스님들이 활동해온 것이 지난 600년의 역사인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괜찮았다. 일제강점기에도 버틸 만했다. 하지만 근대화 · 산업화와 함께 진행된 급격한 도시화에 이르면,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어버린다. 사람 사는 곳의 절, 사람 몰린 곳의 절이 아니라 사람 없는 산간의 큰 절이 불교의 중심으로 남아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물론 불교의 도시화, 불교의 대중화를 내건 많은 노력들이 낳은 성과들이 오늘날 우리 불교의 자산으로 그리고 숨통으로 남겨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불교의 중심이 도시가 아닌, 사람들 곧 중생 가운데가 아닌 산중 큰 절에 있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홉 명의 스님이 산중의 제대로 된 선원 선방이 아니라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아파트 공사장 한가운데 천막선방으로 향해 내딛은 그 발걸음은, 우리에게 그 자체로 우리 불교가 외면했던 현실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번연히 알고 있었던 사실에서조차 우리를 화들짝 놀라게 한다. 사실 우리 한국불교의 도시화 그리고 대중화는,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그 속에서 꽃피워내었던 찬란한 문화를 생각한다면, 여전히 미약하기 그지없다.

마땅히 감내해야 할 책임과 권리에서 한국불교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불교의 위기를 초래한 현실임을 자각하게 하는 것, 다시 불자(佛子)된 이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생 가까이서, 중생을 끌어안고서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자각하게 하는 것, 거기에서 한국불교의 내일을 발견한 아홉 스님들의 서원을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결사(結社)는 ‘동일한 서원을 세우고 그 서원을 성취하는데 동참하는 것’ 혹은 ‘동일한 서원을 세우고 그 서원을 성취하기 위해 모인 수행자들의 공동체’를 말한다. 여느 동안거와 다르게 이번 상월선원의 동안거 천막결사에는 대중들의 관심도 발걸음도 분주하다. 어떤 이는 수행정진에만 방점을 찍기도 하지만, 불교 집안의 결사에 대중결사가 아닌 것이 또 어디에 있으며, 대중이 동참하지 않고서 결사의 원력을 성취한 경우 또한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래서 상월선원 천막결사에 동참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진하고 함께 추운 밤을 지새우는 수많은 대중들의 소식을 들으면, 시작이 아니라 이미 성취하고 있는 서원의 걸음짓을 느낄 수 있다. 그렇기에 내일은 아니 이제 맞이하는 새해는 말 그대로, 우리 한국불교가 또 맞이하는 내일이나 새해가 아니라, 한국불교가 만들어가고 있는 내일이고 새해라는 생각이 기대감을 일깨운다.

그리고 그 한껏 설레는 기대감과 벅적거림이, 한 겹 비닐천막 아래 콘크리트 찬 바닥에서 하루 30도의 일교차를 묵언정진으로 버텨내는 아홉 스님들의 결사에 기꺼이 동참하게 하는 밑천일 것이고,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연유일 것이다.

내일 그리고 새해는 상월선원 수행대중의 서릿발 같은 기상과 중생을 끌어안고자 하는 한량없는 자비심이 만들어내는 지금의 하루로 다가설 것임에 기대감이 일어선다. 동시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서릿발 같은 자각과 경책이 오늘을 되새겨 나아가게 하는 내일의 밑천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달 후, 해제를 맞이하여 상월선원 천막 법당을 나서는 아홉 스님들의 첫 걸음이 한국불교의 내일을 만드는 큰 걸음이 길 간절히 서원한다.



석길암(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스님들 원만회향” 14시간 화두정진



박종수 본지 사장은 구랍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동안 위례천막결사 상월선원 체험관에서 무문관 정진 체험을 했다. 사진= 박재완 기자

박종수 본지 사장 상월선원 ‘대중 무문관’ 체험기

당나라 고승 동산 양개(洞山良价, 807~869)에게 한 제자가 찾아와서 물었다.

“매우 춥거나 너무 더우면 이를 어떻게 피해야 합니까?”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제자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가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입니까?”

이에 동산 양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추우면 얼려 죽이고, 더우면 쪄서 죽이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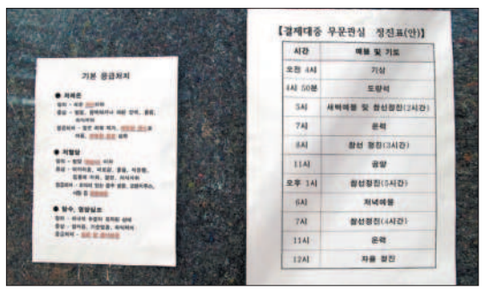
〈벽암록〉에 수록된 동산 양개의 어록으로, 이는 ‘추위와 더위를 피하려면 도리어 추위와 더위 속으로 들어가라’ 는 선사의 경책이다. 수행 정진에 있어서 ‘추위와 더위는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는 꾸짖음이라고 생각된다.

동산 양개 선사의 어록이 떠올랐지만, 위례천막결사 상월선원 한 켠에 마련된 체험관인 ‘대중 무문관’ 은 말 그대로 ‘얼음창고’ 같이 추웠다. 한밤의 온도계는 영하 4℃를 가리켰지만, 실제 몸에 스미는 냉기는 더 춥게 느껴졌다.

필자가 상월선원 체험관에 방부를 들인 것은 구랍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간으로, 정진 도반으로는 김형규 법보신문 대표가 함께 했다.

오전 11시에 도착해 상월선원 천막법당에서 108배와 예불을 하며 무문관 체험 정진의 시작을 부처님께 알렸다. 정오에 맞춰 체험관에 입방했다. ‘묵언’ 이 크게 쓰여진 표식이 목에 걸렸고, 핸드폰은 금고 안으로 수납 · 봉인됐다.

별좌 소임을 맡고 있는 효연 스님에게서 정진에 대한 수칙을 들었다. 정진 스케줄은 생각보다 빡빡했다. 입방 이후 오후 6시까지 50분 정진, 10분 포행을 이어가며, 저녁 예불 후에도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동안 참선 정진을 한다. 오후 11시 울력을 한 이후에는 각자 자율정진을 진행한다. 체험관의 기상 시간은 오전 4시이며, 5시 새벽예불 후 회향 시간인 10시까지 참선 정진이 이뤄진다. 예불, 자율정진 등을 제외하면 오롯이 참선 정진하는 시간만 14시간이다. 목에 걸린 표식처럼 입방 후 회향까지는 묵언을 지켜야 하며, 도반과의 대화는 체험관에 마련된 노트와 필기구를 통해 필담으로만 나눌 수 있다.



상월선원 체험관에 붙여진 정진일정과 응급조치 요령.

구랍 22~23일 무문관 입방 정진
얼음 같은 냉기로 수행에 어려움
가부좌 힘들어… 체험 후 근육통
9명 스님 정진 어려움 간접 체험
“위대한 정진에 함께 해서 감사”

사실, 한마음선원 신도로서 재가 안거에 여러 해 참여하며 3개월 간 매일 저녁 7~9시 2시간 동안 정진한 이력이 있어 무문관 체험 정진에 조금은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내 자신의 오만이었음을 곧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가부좌를 틀고 정진을 시작했지만, 도중에 반가부좌로 자세를 바꿨다. 가만히 앉아서 정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부좌를 틀고 허리를 곧추 세워 참선을 하는 것이, 평소 사용하는 근육과는 다르다는 것을 당장 신체적으로도 알 수 있었다.

몸은 힘들었지만, 정신만은 시간이 갈수록 한결 맑아졌다. 14시간 정진 내내 오로지 한마음, 한생각만으로 집중했다. 바로 “9분 스님들의 큰 서원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기원이자 회두였다.

정진 중 들려오는 법당 외호대중의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와 예불, 찬불가 등은 짧은 체험의 응원으로 다가왔다. 함께한 도반의 정진력도 많은 도움이 됐다.

단 하루만을 했을 뿐인데도 체험은 훈장 아닌 훈장을 여럿 남겼다. 가부좌와 반가부좌를 병행했던 무릎과 대퇴부는 걸음이 불편할 정도의 통증이 있고, 추위에 오래있어서 그런지 약간의 피부 발진이 생겼다.

그래도 상월선원 체험관 ‘대중 무문관’ 에서의 정진은 내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다. 지금도 정진하고 있는 9명의 스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하는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몸에 스미는 냉기와 배고픔을 이겨내며 석달여 간의 정진을 이어가는 것이 소위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결기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행위라는 것을 몸으로 알았다.

이제 나는 기대한다. 이 겨울의 끝자락, 안거를 마치고 나올 9명의 스님들이 어떤 가르침을 세상에 내보일지를. 또한, 상월선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수행 · 신행의 문화가 한국불교와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9명 스님들의 위대한 정진에 잠시나마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했다. 앞으로도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안거 기간 동안 9명 스님들이 정진을 무탈 · 원만 회향할 것을 부처님 전에 기원하려고 한다. 스님들이 품은 큰 서원이 세상에 펼쳐지길 바란다.

재가 오피니언 리더 ‘대중 무문관’ 체험 소감

스스로 삶 돌아보는 계기



윤성이 동국대 총장

춥고 참 수행법도 결가부좌 자세로 잘 만들지 못하는 불자의 순수한 무문관 체험 수행이었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불교 새 역사 창조의 일념으로 수행하시는 9명의 스님들의 정진의 일말이라도 동참할 수 있었고, 이는 제 생애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동국대 발전’ 과 ‘나 자신의 업장’ 을 화두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했습니다. 무문관 안에서 1박 2일동안 14시간을 꼬박 정진하면서 제 스스로의 삶과 역사를 복기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매일 아침 108배를 하며 제 자신의 업장을 녹여볼 생각입니다.

천막결사로 불교 중흥을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1박 2일간의 무문관 체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신선하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모처럼 일상에서 벗어나 한결 머리가 가벼워졌습니다. 또한 9명 스님들의 수행 정진이 얼마나 힘든 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체험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은 추위였습니다. 추위로 몸이 굳고 힘들면 108배를 하며 이겨냈습니다. 체험을 통해 정신만은 더욱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월선원에서 이뤄지는 위례천막결사로 한국불교가 중흥기를 맞을 수 있기를 서원하며, 우리 사회가 반목과 갈등을 벗어나 조화로운 사회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한국사회에 울려퍼지길 기원합니다.

추위 이기기 위해 정진



선상신 前 불교방송 사장

상월선원에서 수행 정진하는 9명의 스님들이 얼마나 열악하고 힘든 환경에서 수행하고 있는 절감하게 됐습니다. 수행처는 말 그대로 얼음창고와 같이 매서운 추위가 몰아닥치는 혹독한 환경이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중수행을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정진 초기에는 번잡했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안정을 찾았는데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의 정진력이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재가 외호대중의 기도도 수행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좋은 기회를 준 상월선원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9명 스님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원만회향을 서원합니다.

9명 스님께 귀의정례



임명배 前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

혹한 속에 1박 2일간의 정진. 실내온도가 너무 낮아서 자율정진할 때 잠시 눈을 붙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내복 2벌을 껴입었지만 추위가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수행하며 수마(睡魔)가 가장 큰 적이라고 들었는데 이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50분 정진과 10분 포행을 하며 내면을 들여다보려 노력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야 이를 악물고 하룻밤만 견디면 되었지만 앞으로 이어질 추위 속에 냉기가 몸에 쌓일 9명의 스님들을 생각하면 걱정만 가득해집니다. 추운 겨울 정진을 자청한 9명 스님들의 높고 깊은 뜻에 귀의정례합니다.



상월선원 외호, 우리가 이끈다

결사 외호대중 STORY

위례천막결사 상월선원에는 휴일이 없다. 밤낮 없이 정진 중인 9명의 스님들은 물론이거니와 매일 1000~3000명의 사부대중들도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기 때문이다. 9명 스님들을 시봉하고 전국 불자들을 맞이하는 것은 상월선원에 상주하고 있는 외호대중들이다. 이들은 상월선원에서 정진 중인 9명 스님들이 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고, 불자들이 법회와 기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상월선원을 이끄는 또 다른 힘, 외호대중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정리=신성민 기자


총도감 혜일 스님


중앙종회의원 환풍 스님


'상월선원천막결사' 유튜브팀



용인 대덕사 명선다례원


시자 효연 스님



법당봉사 박순덕 씨

"봉사자 대중에 감사할 뿐"
총도감 혜일 스님

혜일 스님은 상월선원 총도감 소임을 자임했다.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2번의 무문관 동안거를 나고 노천 안거를 제안했을 때 혜일 스님은 허리에 지병이 있어 정진대중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대신 백련사 주지 소임 당시 무문관을 운영하며 스님들을 외호했던 경력이 있어 "도감 소임을 보겠노라"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11월 11일 동안거 입재 이후 상월선원은 아홉 스님의 용맹정진 수행처이자 전국 불자들이 찾는 기도처가 됐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불자들이 상월선원을 찾아 법회와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좋지만, 혜일 스님의 목표는 오로지 '무탈 회향'이다.

그래서 혜일 스님의 가장 걱정은 9명 스님들의 건강이다. 9명 스님들은 오로지 물통 2개로 추위를 이겨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저체온증이 염려돼 응급처치 매뉴얼을 제작했고, 이를 응급물품과 함께 선방 안으로 넣을 계획이다.

혜일 스님은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외호하고 있다"며 "선원을 찾아 기도하는 불자들에게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뿐이다. 9명 정진 대중과 전국 불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모시고 있다"고 밝혔다.

말미 가장 감동스러운 순간을 물었다. 혜일 스님은 '봉사자'를 꼽았다. 스님은 "매일 자발적으로 법당과 화장실 청소하고 차와 음식을 공양하는 봉사자가 있어 상월선원이 운영될 수 있었다"면서 "봉사자들을 통해 보살을 보고 있다. 이들이 나를 가장 '심쿵' 하게 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기도로 외호정진합니다"
미륵불 기도처 환풍 스님

상월선원 천막결사 수행처를 내려다보고 있는 부처님이 계시다. 호국사자사 대중이 세운 미륵불로 이곳을 기도 정진처로 삼고 외호정진하는 스님이 있다. 바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환풍 스님(남양주 묘적사 주지)이다. 환풍 스님은 오전 9시까지 상월선원에 와서 법당 기도를 진행하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미륵불 기도처에서 9명 스님들의 안거 정진이 원만 회향하도록 기도를 올리고 있다.

환풍 스님은 현재 정진하고 있는 대중에 대한 무한한 존경을 표했다. 환풍 스님은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부터 동료 중앙종회의원 심우 · 도림 스님, 도반인 호산 · 무연 · 재현 스님까지 존경하는 스님들이 엄동설한 속에서 수행 정진하고 있다"며 "근기가 약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분들이 정진을 원만 회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이는 조계종도로서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환풍 스님은 "9명 스님들의 수행정진은 '이사무애(理事無碍)'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하며 "추위와 고통을 감내하며 보여주는 큰 서원이 무엇인지를 우리 대중은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환풍 스님은 앞으로 더 추워져 주석 사찰에서 오고 감이 어려워지면 상월선원에서 상주하며 기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기도를 통한 외호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환풍 스님은 "앞으로 추운 날씨만 남았다. 선원에서 정진하는 9명 스님들이 더 열심히 정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9명 스님 원만회향만을…"
시자 효연 스님

외호대중에서도 시자 소임을 맡고 있는 효연 스님은 상월선원에 24시간 상주하며 정진 중인 9명 스님들의 원만 회향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선원을 찾는 전국 불자들의 법회를 돕는 것도 스님의 역할이다.

스님은 매일 새벽 4시30분이면 기상해 도량석을 돌고 새벽 5시에 새벽예불과 참선을 한다. 오전 7시 공양그릇을 퇴공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기도객 안내, 사시불공으로 바쁜 일과를 소화한다.

양평 상원사 용문선원 의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효연 스님은 서울 수국사에 상주하며 동국대에서 공부하던 중 시자로 발탁돼 학교를 휴학하고 외호대중 역할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고생이 많았지만, 지금은 몸에 익어 조금은 시자 소임을 보는 게 나아졌다는 효연 스님은 "엄동설한 속에서 정진하는 9명의 스님들의 정진을 보면 허투루 살 수 없다. 젊은 제가 추위와 체력 부족으로 고생하는 데 석 달을 오롯이 정진하는 스님들을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된다"면서 "9명 스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이제는 묵묵히 맡은 소임을 실수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어른 스님들이 무탈하게 정진을 회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시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사 기록 · 홍보 맡겨주세요
'상월선원천막결사' 유튜브팀

상월선원 천막결사에 차별성은 '디지털'에 있다. 21세기 미디어 혁명시대의 결사임을 반영한 듯 상월선원은 '상월선원천막결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 이를 이끄는 것이 출재가 4인으로 구성된 유튜브팀이다.

전체적인 디렉팅은 정오 스님이 담당하고, 영상 편집은 원준 스님이, 촬영은 정상훈(동국대 대학원) · 김민겸(한국전통문화대학) 씨가 맡았다.

유튜브를 담당하고 있는 4인이지만, 결사에서 소임을 맡기 전까지는 유튜브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다. 재가자들은 유튜브를 보기만 했지 자신이 유튜버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정오 스님은 "지난해 10월 27일 소임을 맡고 평생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능프로그램부터 인기 유튜브 영상과 썸네일까지 샅샅이 찾아 분석했다"면서 "그래도 문외한이다 보니 처음 시작할 때는 하루 2~3시간 밖에 자지 못했다. 지금은 조금은 익숙해진 편"이라고 말했다.

유튜브팀이 올리는 영상콘텐츠는 오는 길 설명부터 법회 법문과 풍경, 선원 일상 브이로그까지 다양하다.

정오 스님은 "일반적으로 결사라고 하면 장엄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상월선원 유튜브 콘텐츠는 온 국민이 편안하고 즐겁게 접할 수 있게 시청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면서 "상월선원에 이뤄지는 모든 수행 · 신행 · 봉사들을 영상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유튜브팀의 주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추위 이기는 茶 한잔 어때요
용인 대덕사 명선다례원

상월선원으로 들어서는 초입에는 항상 차향(茶香)이 머문다. 그곳에 용인 대덕사의 명선다례원(원장 김정숙)이 다도봉사를 하고 있어서다.

용인 대덕사 명선다례원은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시작을 알리는 고불법회 때부터 현재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다도봉사는 매일 8명이 하고 있다. 주 2, 3회 봉사하는 인원 5명과 김정숙 원장을 비롯해 매일 참여하는 2인이 일정을 조율해 봉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매일 오전 9시 상월선원에서 봉사를 시작하는 이들은 오후 5시까지 꼬박 선원 내방객들을 맞이한다. 하루 평균 1000명 정도, 많을 때에는 3000명이 선원을 찾지만, 전혀 힘들지 않는다고 말한다.

김정숙 원장은 "상월선원에서 정진 중인 9명의 스님들이 주는 기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전혀 힘들지 않다.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랍 23일)현재까지는 오후 5시까지 봉사했는데 앞으로는 오후 9시로 봉사시간을 늘렸다. 다도 봉사단이 자리를 비우면 왠지 허전하다는 불자들의 의견이 많기도 했고, 환풍 스님과 미륵부처님 기도처에서 오후 9시까지 기도 정진하기 위해서 선원에 남아 봉사하고 기도할 계획"이라며 "오후 9시까지 이어지는 봉사에는 참여할 수 있는 회원만 참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매일 내오는 다과와 과일들은 모두 명선다례원에서 사비로 구입 · 제공한다. 천막법당 대중공양물을 받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대부분은 명선다례원의 몫이다.

김 원장은 "매일 매일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정성스럽게 대중에게 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상 초심으로 봉사합니다
법당봉사자 박순덕 씨

법당봉사자 박순덕(61, 서울 송파구 거여동) 씨는 위례신도시 법당 부지와 인연이 깊다. 현재 상월선원이 자리한 위례신도시 법당 부지는 본래 호국사자사 군법당이 있었고, 그곳에서 관음회장까지 역임했다. 하지만, 군부대가 이전하며 신행처를 옮겼고, 조계종단에서 법당 부지를 매입했다는 소식만 들었다. 그러던 중 천막결사 소식을 들었고, 한달음에 법당 봉사를 자임했다.

인근에 거주하는 박 씨는 매일 아침 9시면 상월선원에 와서 법당을 청소하고 좌복을 정리한다. 오후 교대하는 봉사자가 올 때가 법당에서 찾아오는 불자들이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금 이천으로 옮긴 사자사에서 봉사하는 일정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상월선원에서 보낸다.

박 씨는 "호국사자사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았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15층 옥상에 올라가면 사자사 미륵부처님이 보인다. 이를 보며 매일 기도드리고 있다"며 "이곳에 상월선원 천막결사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환희심이 들었다. 서원을 세우신 9명 스님께 감사할 따름"이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이곳에 도량이 건립되면 많은 불자들이 모일 것"이라며 "9명 스님들이 정각을 이루고 부처가 되어 세상에 나오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해인삼매 속에 펼쳐지는 바로 지금 여기 이곳 원각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본사

법보종찰 해인총림 해 인 사

방장 벽산 원각 대종사
주지 연암 현응 대화상

사부대중일동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www.haeinsa.or.kr ☎ (055)934-3000 Fax 934-3010

유가종찰 · 미륵성지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본사 모악산 금산사

조실 태공 월주
회주 금산 도영
주지 자산 성우
부주지 월강 일원

총무 원혜 사회 효진
기획 화평 호법 덕림
교무 응묵 포교 석초
재무 여찬
신도회장 이근재 외 사부대중 일동

전주 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전북 김제시 금산면모악 15길 1
Tel. 063)548-4440~2 Fax. 063)548-1390
www.geumsansa.org

부설 전북불교회관 | 서원노인복지관 | 룸비니 어린이집
전주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제언

상월선원 천막결사 이후는?

종단을 대표하는 수좌 스님들과 주요 사찰 소임자 스님 등 아홉 명이 참여하는 동안거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불교계 안거 전통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탈종교화와 탈제도권 종교화라는 변화에 직면한 한국불교는 새로운 고민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 시점에서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새로운 수행포교 전통을 형성하고 현대인들에게 한국불교 가풍을 널리 퍼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상월선원 천막결사 이후에 대한 제언을 불교계 인사들에게 들어보았다.

노덕현 기자

세속에서의 수행, 새 인식 시작

수행 | 수행가풍 진작으로서의 가치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

상월선원에 9분의 스님들이 특별수행을 용맹정진하고 있다. 수행의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 스님들이 3개월간 천막이라는, 편리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설 속에서 정진하고 있다. 겨울 추위에 한 끼 공양과 묵언, 씻지 않고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혹독한 무문관 수행을 하고 있다.

천막결사는 그동안 불자 대중 모두가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 행동 등을 해온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의 깨끗함을 추구함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도 물론이다.

수행에서 우리는 중도를 통해 이미 여기 안락함이 있음을 느끼지 못했다. 대중 모두가 이미 원만하게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구족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고통에 대한 것은 관리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며 잘 구분해서 하실 것이라 본다.

기대되는 점은 가행정진한 스님들이 느끼신 바를 많은 중생에게 설법하고 이런 점이 포교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남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것으로 교육과 출가열기 진작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수행이라 하면 산중사찰, 그리고 사회와 괴리된 조용한 곳에서 진행한다는 인식이 있다. 천막결사는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 그리고 매일 찾아오는 음악회와 대중들로 다소 시끄러운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다. 처음에는 다들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수행이 될까 하지만 바꿔 생각하면 우리의 세속 삶 자체가 바로 이런 환경이지 않은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수행을 이어가는 것, 그리고 대중들이 함께 이런 인식을 갖는 것 자체가 천막결사의 또 다른 의미다.

상월선원 천막결사 현장에서는 재가불자들이 직접 체험하는 문화도 형성되고 있다. 그동안 시민선방 등 재가불자들의 수행이 있지만 천막결사를 체험함으로써 개인의 고통을 절실히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수행 결사가 앞으로 지속 열려 불자들이 수행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94년 종단개혁 이후 20여 년이 흘렀다. 종단적으로 본다면 개혁의 완성을 위해서 그동안 종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점을 면밀히 돌아보는 계기도 될 것이다.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 차제에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다시 청규나 계율 등 이미 만든 것을 잘 돌아보고, 사회의 고통에 대해 돌아보지 못한 것을 반성하면서 사회 발전을 위해 수행풍토를 형성해야 한다. 이것이 백년대계이고 백만원력 불사의 의미다.

끝으로 걱정하는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에서 스님들이 건강 잃지 않고 회향하길 간절히 바란다. 천막결사로 일어난 수행의 풍토가 쭉 이어졌으면 한다.

네트워크 연결된 新포교 방향 제시

포교 | 천막결사의 포교적 활용방안

조계종 前 포교부장 가섭 스님

상월선원의 수행 열기가 뜨겁다. 장엄한 법당도 편의시설도 없는 그곳에 하루에 평균 1천명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눈과 비만 피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법당에 옹기종기 앉아 한마음으로 대다라니를 독송하며 신심과 원력을 빚는 신도들의 얼굴은 사뭇 긴장과 비장함으로 물들어 있다.

450개 사찰의 스님들과 신도들 그리고 신행단체들의 참여가 어느덧 6만을 넘었다. 그야말로 수행과 포교가 함께 어우러지는 도량으로 새로운 신행혁신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 상월선원은 도심포교의 새로운 모델로 여러 의미 있는 포교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9명의 스님들의 신명을 다하는 수행원력과 함께 엄동설한을 녹이는 외호대중들의 뜨거운 신행과 아낌없는 자비실천이 지금의 상월선원을 만들어가고 있다.

상월선원을 찾으면 늘 마주하는 것이 모바일 캠을 들고 분주한 스님과 담당자들의 발걸음이다. 인터넷을 통해 도량 소식을 업로드하고 있다. 유튜브 운영을 통해 전하는 법회소식과 도량을 찾는 이들의 사연은 감동으로 전해지고 있다.

포교는 '연결고리' 이다. 사찰과 신도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신행전달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요즘 꼭 필요한 사찰의 신행시스템 중의 하나이다. 이는 신도들의 일상에서 전법감수성을 깨우는 일이기도 하다.

1인 미디어시대 사찰의 전법포교의 기제로 유튜브는 이제 필수아이템이다. 우리 종단에 등록된 사찰에서 매일 초하루 법회만이라도 각 사찰에서 주지스님들의 법문을 미디어 콘텐츠로 업로드한다면 생생한 신행콘텐츠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상월선원은 신행생태계가 살아 있는 도량이다.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이후에도 이러한 생생한 신행의 현장이 대중들로 찾아가도록 지속 노력해야 한다.

무문관 입방 전날 봉은사에서 뵙던 자승 스님의 '천말결사를 포교에 백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 는 당부가 이제 이해가 된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다. 한 편으로 벅찬 환희의 장이 될 것 같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염려가 앞선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포교의 장으로 자리매김해가는 도량을 보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전법포교는 염려와 걱정보다는 열정적으로 동참하고 실천할 때 희망이 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교의 핵심 가치이며 그것을 상월선원으로 보여주고 있다.



상월선원은 화합과 상생으로 공존의 가치를 표방한 수행결사도량이다.

이 시대 우리가 가야할 포교의 가치가 그대로 녹아 있다. 승재가가 함께하는 희망을 만드는 도량으로 마음의 광명당(光明幢)을 세우는 계기로 만들자.

숲속 불교전통의 현대적 전환

사회 | 상월선원의 사회적 의의와 전망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황순일

고대 스리랑카 아누라다푸라(Anuradhapura)의 마하위하라(Mahāvihāra)교단이 도시에서 세속화되어갈 때 일단의 스님들이 스리랑카 중부의 산악지역에 모여서 아란니까(Āraññika)라는 숲속 불교전통을 세우고 철저한 계행과 명상을 중심으로 수행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이후 스리랑카 불교교단을 통합하는 주체가 되었고 동남아시아로 전파되어 오늘날 남방불교의 모태가 되었다.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숲속불교전통의 현대적 전환으로써 도시에서도 철저한 계행과 명상을 중심으로 수행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결사란 이념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먼저 스스로 수행을 하면서 불교교단을 새롭게 개혁하고자 실천한 공동체운동이다. 정혜결사나 봉암사결사 등에서 나타나듯이 주로 이러한 운동은 주로 깊은 산속에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직접적인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이번 천막결사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서 숲속에서 고립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모두가 함께하며 수행하는 야단법석을 지향하고 있다. 스님들의 안거가 깊은 산속에서 죽비를 맞으며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고답적인 사고방식일 뿐이다. 인터넷을 통해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이 즉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사회에서 더 이상의 고립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모두가 함께하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수행이야말로 새로운 시대가 지향하는 밝고 건강한 수행문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상월선원 천막결사에 참여한 스님들이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하는 앞마당에서 야단법석을 연다는 것은 수행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초기경전 그 어디에도 스님들의 수행을 위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침묵해야한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다. 스님들은 자신들의 본분사에 따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심히 수행 정진하면 된다. 그리고 재가자들은 승단의 유지를 위한 거처, 의복, 음식, 약품이란 4가지 조건을 제공하는 사람(cātupaccayadāyaka)으로서 열심히 천막결사를 응원하고 보시하여 공덕을 쌓으면 되는 것이다. 이때까지 한국불교에서 서로 분리된 체 평행선을 달렸던 승가의 수행과 재가의 보시와 응원이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앞마당에서 벌어지는 야단법석을 통해 하나가 된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인터넷을 통해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즉시적이고 직접적인 사회적 반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아마도 이를 통해서 상원선원 천막결사는 불교수행의 현대적 계승으로서 모두가 참여하는 불교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







위례천막결사 상월선원의 시작을 알렸던 고불법회 및 현판식. 지난해 11월 4일 열린 현판식에서 9명 정진대중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수행·기도·봉사로 韓불교 중흥 정진결사


동안거 결제를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 10일 봉은사에서 열린 결사 대중과 외호 대중의 만남의 자리. 상호 간의 의지를 확인했다.

사진으로 보는 위례천막결사 상월선원

지난해 11월 11일 위례천막결사 상월선원의 장엄한 정진이 시작됐다. 앞선 11월 4일에는 정진을 부처님께 알리는 고불법회와 선원 현판식도 열렸다. 그렇게 시작된 결사 정진은 한국불교 수행과 신행 지형도를 바꾸고 있다. 한달여 만에 전국 5만여 불자가 외호대중으로 선원을 찾아 기도 정진했다. 매일 새로워지고 있는 여정을 사진으로 담아봤다. 〈편집자 주〉


구랍 14~15일 열린 철야정진 법회에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삼귀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천막법당에서 삼배를 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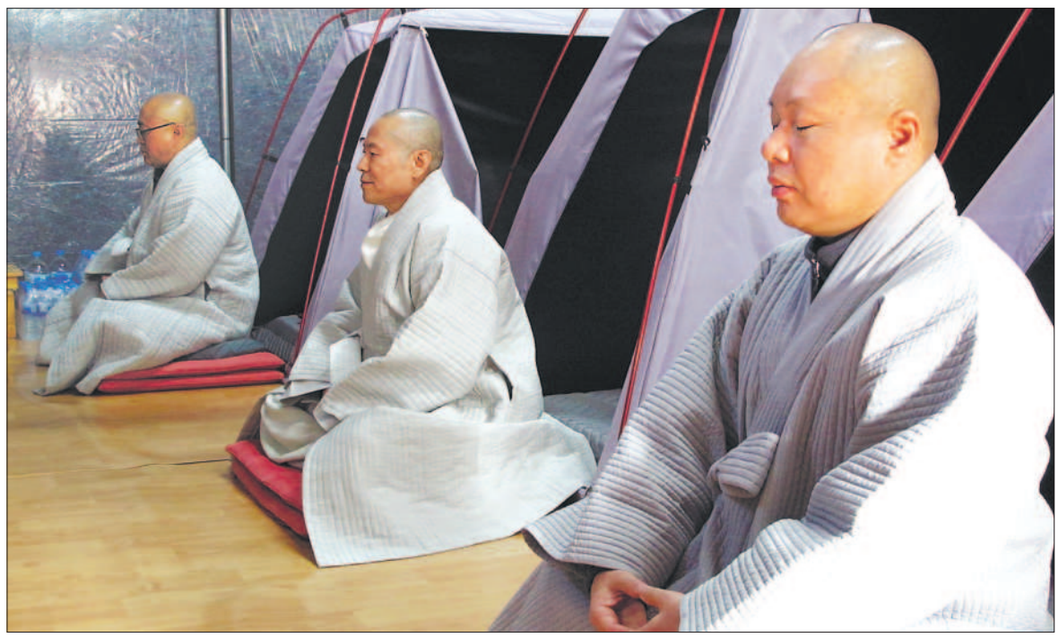

겨울 아침 서리가 내린 상월선원. 좌측이 체험동이고 우측이 9명 스님들의 정진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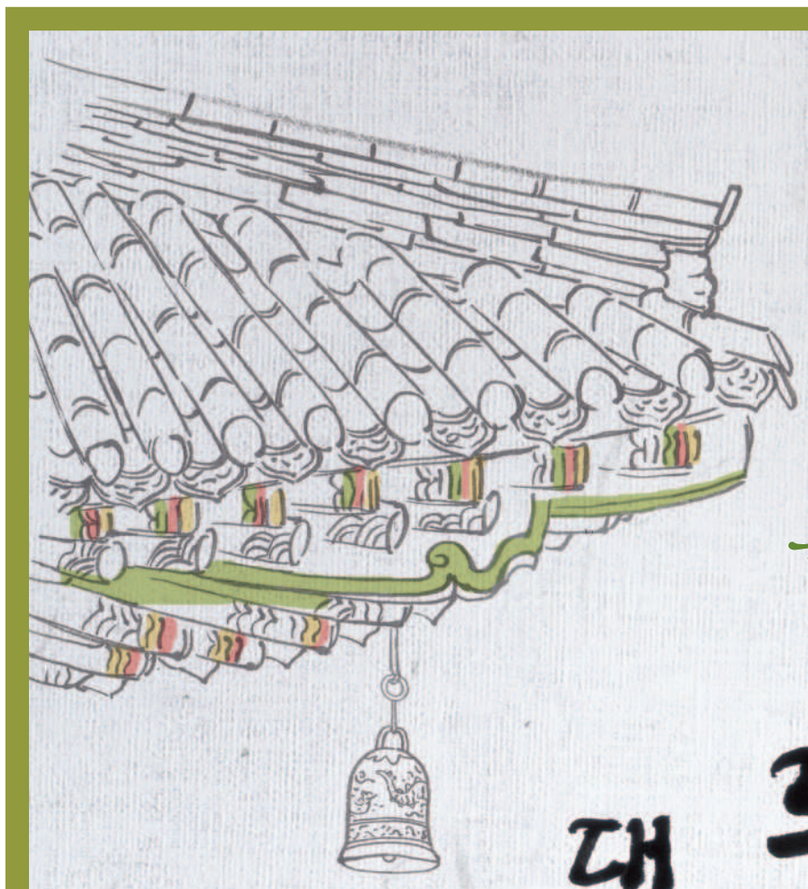


소원등이 달린 울타리 너머로 선원의 현판이 보인다.


상월선원 선방 문고리를 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 불자.


은석초 학생들이 상월선원 천막법당서 음성공양을 하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단 스님들은 구랍 8~7일 무문관 체험 정진을 했다.



불기 2564년 경자년 새해

모든가 나아님이 없다 그렇게 등글게 살라

대행선사법이

재단이사장 혜 수
주 지 혜 솔
사부대중 합장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황사평6길 176-1 (영평동)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동삼동)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04번길 23-1 (치평동)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천곡동)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 (중동)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위안양골길 157-61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 (우현동)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09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하평5길 29 (포남동)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266번길 31-1(상동)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TEL:(1-718)460-2019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E-mail : hanmaumla@naver.com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3337-529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석수동) T) 031-470-3100 F) 031-470-3116